

禪宗首刹
奉恩寺古文獻集

法雲 柳基 松昌 編
柳柳 基基 昌昌

禪教兩宗首刹研究會

머 리 말

조선 초기에 억불(抑佛) 정책으로 태종7(1407)년에 11개 종파를 조계종·천태종·화엄종·자은종·중신종·충남종·시흥종의 7종으로 하였고, 세종6(1424)년에는 7종을 다시 참선과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선종(禪宗)과 교리(教理)와 경전(經典)을 중요시하는 교종(教宗)의 두 종파로 하여 양종(兩宗)의 각각 18개 사찰만을 공인하였다.

명종5(1550)년 12월 15일에는 명종 임금이 선교(禪敎) 양종(兩宗)의 양립(兩立)을 명하여 봉은사(奉恩寺)를 선종의 본산, 봉선사(奉先寺)를 교종의 본산으로 삼아서 대전(大典)에 따라 대선취재조(大禪取才條) 및 중(衆)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신명하여 거행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에서 봉은사는 선종(禪宗) 수찰(首刹), 봉선사는 교종(敎宗) 수찰(首刹)의 양대 사찰(兩大寺刹)이 되었는데 명종20(1565)년 문정왕후가 죽고 난 후에 선교양종제는 폐지되었다.

명종 때 선종 수찰인 봉은사(奉恩寺)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수도산 남쪽 기슭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직할교구 본사 조계사의 말사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은사는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각각 수도(首都) 인근에 있는 왕릉을 수호하는 사찰인데 사찰 이름은 같으나 위치가 각각 다르므로 이 사찰들 간에 서로의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

조선시대 봉은사의 모태(母胎)가 되는 견성사(見性寺)는 신라시대 고승 연회국사(緣會國師)가 원성왕10(794)년에 창건(創建)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 할만 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찰은 조선 성종의 원찰(願刹)로서 선릉(宣陵) 인근에 있었는데 성종의 계비(繼妃) 정현왕후(貞顯王后) 자순왕대비(慈順王大妃) 윤씨(尹氏)에 의하여 이건(移建)되면서 연산군5(1499)년에 중건(重建)하여 봉은사로 개칭(改稱)되었다. 이에 관한 기록으로서 연산5(1499)년 12월 12일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傳曰新創奉恩寺無田土 其以各道寺社有收稅及稅鹽者移給

전왈신창봉은사무전토 기이각도사사유수세급세염자이급

연산군이 전교하기를 “새로 창건한 봉은사(奉恩寺)에 전토(田土)가 없으니, 각도(各道)의 사찰(寺刹)에서 세(稅)를 거둔 것과 세납한 소금을 옮겨 주어라” 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수도산 봉은사는 연산군5(1499)년 12월에 창건(創建)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사찰은 성종의 능(陵) 수호(守護)와 제례(祭禮) 담당이 주요 역할이었으며, 선종(禪宗)의 으뜸 사찰로서 과거제도 승과를 담당하였다.

봉은사에 관해서는 봉은사지[사찰문화연구원 편]가 발간되었는데 본고는 이를 참고로 하여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봉은사에 연관된 시(詩), 산문(散文), 습유(拾遺) 등의 고문헌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및 각종 개인 저서 등에서 발굴하여 수록한 것이다.

2012. 7. .

編者 謹書

목 차

1. 개요(概要)	1
1.1 연혁(沿革)	1
1.2 연보(年譜)	3
2. 사서(史書)	10
2.1 삼국사기(三國史記)	10
2.2 삼국유사(三國遺事)	10
2.3 고려사(高麗史)	11
2.4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12
2.5.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7
2.5.1 견성사(見性寺)	17
2.5.2 봉은사(奉恩寺)	26
2.6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55
2.7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62
2.8 각사등록 근대편(各司謄錄 近代編)	63
2.9 국내외항일운동서(國內外抗日運動書)	63
3. 명문(銘文)	66
3.1 비문(碑文)	66
3.1.1 영세불망비문(永世不忘碑文)	66
3.1.2 봉은사 사적비문(奉恩寺 事蹟碑文)	66
3.1.3 수해구제공덕비문(水害救濟功德碑文)	69
3.1.4 헌답기념비문(獻畝記念碑文)	69
3.1.5 사리탑문(舍利塔文)	70
3.2 향완(香垵)	70
3.3 장흥사 명동종(長興寺 銘銅鐘)	71
3.4 주련(柱聯)	72
3.4.1 대응전(大雄殿)	72

3.4.2 영산전(靈山殿)	73
3.4.3 판 전(版 殿)	73
3.4.4 북극보전(北極寶殿)	74
3.4.5 영 각(影 閣)	74
3.4.6 미륵전(彌勒殿)	74
3.4.7 지장전(地藏殿)	75
3.4.8 종 루(鐘 樓)	75
3.4.9 명부전(冥府殿)	76
4. 시(詩)	77
4.1 봉은사 증계민사(奉恩寺 贈戒敏師)	77
4.2 차장진인운(次張真人韻)	77
4.3 봉은사(奉恩寺)	77
4.4 봉은사(奉恩寺)	77
4.5 장환봉은사(將還奉恩寺)	77
4.6 증봉은사승지전(贈奉恩寺僧智田)	78
4.7 증봉은사도순상인(贈奉恩寺道諄上人)	78
4.8 차홍좌상운(次洪左相韻)	78
4.9 숙봉은사매화당(宿奉恩寺梅花堂)	78
4.10 금문이주봉은사(今聞移住奉恩寺)	78
4.11 증봉은사혜옥상인(贈奉恩寺慧沃上人)	79
4.12 인식봉은사승지웅(因識奉恩寺僧志雄)	79
4.13 투숙봉은사(投宿奉恩寺)	79
4.14 봉은사승명지웅자(奉恩寺僧名志雄者)	79
4.15 사봉은사승추일혜삼(謝奉恩寺僧秋日惠篔)	80
4.16 잉공류봉은사(仍共留奉恩寺)	80
4.17 은사승장입산(恩寺僧將入山)	80
4.18 재봉은사(在奉恩寺)	80
4.19 발두모포숙봉은사(發豆毛浦宿奉恩寺)	81

4.20	자갈산주하숙봉은사(自葛山舟下宿奉恩寺)	81
4.21	방봉은사(訪奉恩寺)	81
4.22	봉은사 차운주지신묵(奉恩寺 次韻住持信默)	81
4.23	제봉은사승경칙묵죽권(題奉恩寺僧景則墨竹卷)	81
4.24	금적주석봉은사(今適住錫奉恩寺)	81
4.25	도봉은사(到奉恩寺)	82
4.26	증산인성암암증주봉은(贈山人性菴菴曾住奉恩)	82
4.27	봉은사(奉恩寺)	82
4.28	봉은사연정(奉恩寺蓮亭)	82
4.29	제봉은사승축차아계운(題奉恩寺僧軸次鵝溪韻)	83
4.30	차운봉은사주지권(次韻奉恩寺住持卷)	83
4.31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	83
4.32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	84
4.33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	84
4.34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	84
4.35	자봉은귀주(自奉恩歸舟)	84
4.36	봉은사(奉恩寺)	85
4.37	봉은사(奉恩寺)	85
4.38	봉은사연정(奉恩寺蓮亭)	85
4.39	증산인(贈山人)	85
4.40	도한강숙봉은사(渡漢江宿奉恩寺)	85
4.41	증봉은사승(贈奉恩寺僧)	85
4.42	이주향봉은사(移舟向奉恩寺)	86
4.43	질배동서우봉은사독서(姪輩同棲于奉恩寺讀書)	86
4.44	질배동서우봉은사독서(姪輩同棲于奉恩寺讀書)	86
4.45	봉은사승덕련자래걸시(奉恩寺僧德連者來乞詩)	86
4.46	증봉은사승창운(贈奉恩寺僧唱雲)	86
4.47	과봉은사(過奉恩寺)	87

4.48	출순숙봉은사(出巡宿奉恩寺)	87
4.49	차리여함추향후유봉은사주행왕환운 次李汝涵秋享後遊奉恩寺舟行往還韻	87
4.50	익일제후 계봉은사(翌日祭後 憩奉恩寺)	87
4.51	응상상인 자봉은사래(應祥上人 自奉恩寺來)	88
4.52	증봉은사승명안(贈奉恩寺僧明眼)	88
4.53	숙봉은사(宿奉恩寺)	88
4.54	숙봉은사(宿奉恩寺)	88
4.55	숙봉은사(宿奉恩寺)	88
4.56	숙봉은사(宿奉恩寺)	89
4.57	제봉은사규상인축(題奉恩寺圭上人軸)	89
4.58	봉은사(奉恩寺)	89
4.59	증봉은사승(贈奉恩寺僧)	89
4.60	제봉은승축(題奉恩僧軸)	89
4.61	지역정릉숙봉은사(祗役靖陵宿奉恩寺)	89
4.62	봉은사귀로(奉恩寺歸路)	90
4.63	과봉은사기감(過奉恩寺記感)	90
4.64	증봉은사극단상인(贈奉恩寺克湍上人)	90
4.65	문리성망사상환자봉은사(聞李聖望師尙還自奉恩寺)	90
4.66	봉은사(奉恩寺)	90
4.67	봉은사월야(奉恩寺月夜)	90
4.68	저도허거원회가유회권여장(楮島許巨源淮家有懷權汝章)	91
4.69	망현남류천(望縣南流川)	91
4.70	증덕일상인(贈德一上人)	91
4.71	제경묵상인시권(題敬默上人詩卷)	91
4.72	만영(漫詠)	92
4.73	숙봉은사(宿奉恩寺)	93
4.74	방봉은사(訪奉恩寺)	93
4.75	증봉은사승취언상인(贈奉恩寺僧翠彦上人)	93

4.76	봉은사우중(奉恩寺雨中)	93
4.77	봉은사(奉恩寺)	94
4.78	우차등자운(又次登字韻)	94
4.79	봉은사(奉恩寺)	95
4.80	봉은사(奉恩寺)	95
4.81	원박련기출봉은사(元博聯騎出奉恩寺)	95
4.82	봉은사(奉恩寺)	95
4.83	증봉은사판사체한상인(贈奉恩寺判事體閑上人)	96
4.84	차종인정진(次宗人正進)	96
4.85	봉은사감음(奉恩寺感吟)	97
4.86	자경환향단구 광진주중 기회리익경 自京還向丹丘 廣津舟中 寄懷李翼卿	97
4.87	숙봉은사승주(宿奉恩寺乘舟)	97
4.88	봉은사(奉恩寺)	97
4.89	봉은사매화료(奉恩寺梅花寮)	98
4.90	조추배중씨유봉은사시습경의(早秋陪仲氏遊奉恩寺時習經義)	98
4.91	숙봉은사(宿奉恩寺)	99
4.92	사거잡시(寺居雜詩)	100
4.93	정재체직 봉기윤수찬 영희 우거봉은사관상인방장 靖齋滯直 奉寄尹修撰 永僖 寓居奉恩寺寬上人方丈	101
4.94	정릉상매봉은사일숙환(靖陵賞梅奉恩寺一宿還)	101
4.95	종손항여객유어동호지봉은사(從孫杭與客遊於東湖之奉恩寺)	102
4.96	봉은사분운득령자(奉恩寺分韻得冷字)	102
4.97	도한강지정릉 유봉은사(渡漢江至靖陵 遊奉恩寺)	102
4.98	봉은사작(奉恩寺作)	102
4.99	차봉은사승축운(次奉恩寺僧軸韻)	103
4.100	중유봉은사(重遊奉恩寺)	103
4.101	선릉차제귀로 역입봉은사 시로정랑경복 宣陵差祭歸路 歷入奉恩寺 示盧正郎景福	103

4.102	제봉은사벽(題奉恩寺壁)	103
4.103	봉은사(奉恩寺)	103
4.104	봉은사(奉恩寺)	103
4.105	법원상인 출유봉은사 인여허령상회 시이증행 法遠上人 出遊奉恩寺 因與許鈴相會 詩以贈行	104
4.106	중도봉은사(重到奉恩寺)	104
4.107	봉은사(奉恩寺)	104
4.108	차류촌은운(次劉村隱韻)	104
4.109	봉은사차승축운(奉恩寺次僧軸韻)	104
4.110	원서여춘장급정릉재랑리익상 숙봉은사 元瑞與春長及靖陵齋郎李翊相 宿奉恩寺	105
4.111	숙봉은사(宿奉恩寺)	105
4.112	향광릉촌장 오계봉은사 차승축운 向廣陵村庄 午憇奉恩寺 次僧軸韻	105
4.113	여신원서 명규 동숙봉은사 차원서운 與申元瑞 命圭 同宿奉恩寺 次元瑞韻	105
4.114	봉은사제증이윤보(奉恩寺題贈李潤甫)	105
4.115	환자봉은사도중사의(還自奉恩寺途中寫意)	105
4.116	봉은사유작(奉恩寺有作)	106
4.117	봉은사(奉恩寺)	106
4.118	증봉은승(贈奉恩僧)	106
4.119	관저포(觀樗蒲)	106
4.120	봉은사(奉恩寺)	106
4.121	봉은사(奉恩寺)	106
4.122	봉은사(奉恩寺)	107
4.123	여림자소기유봉은사(與林子昭期遊奉恩寺)	107
4.124	억림자소(憶林子昭)	107
4.125	봉은사(奉恩寺)	107
4.126	보상중남후록 차금사백운 시일봉은사승적래방 步上終南後麓 次金斯百韻 是日奉恩寺僧適來訪	107

4.127	상태극정시일봉은사승적래방 上太極亭是日奉恩寺僧適來訪	108
4.128	석여망우리호경독서우봉은사 昔與亡友李皓卿讀書于奉恩寺	108
4.129	부왕봉은사(復往奉恩寺)	108
4.130	여제질손유저도 숙봉은사호운 與諸姪孫遊楮島宿奉恩寺呼韻	108
4.131	저도과금삼연 창흠 공택 심승봉은 楮島過金三淵昌翕空宅尋僧奉恩	108
4.132	봉은호사조춘(奉恩湖寺早春)	109
4.133	우후조과봉은사(雨後早過奉恩寺)	109
4.134	차리생봉은사서탑운(次李甥奉恩寺書榻韻)	109
4.135	봉은사증계민사(奉恩寺贈戒敏師)	109
4.136	봉은사중간화엄경(奉恩寺重刊華嚴經)	109
4.137	봉은사(奉恩寺)	110
4.138	사봉은승송소(謝奉恩僧送蔬)	110
4.139	증산인성암암증주봉은(贈山人性菴菴曾住奉恩)	110
4.140	차소재상국운제유정축(次蘇齋相國韻題唯政軸)	110
4.141	증봉은승(贈奉恩僧)	110
4.142	증봉은승운수(贈奉恩僧雲水)	110
4.143	증산인(贈山人)	111
4.144	봉은승상일(奉恩僧霜日)	111
4.145	제해천축차아계운(題海天軸次鵝溪韻)	111
4.146	난후시과한강(亂後始過漢江)	111
4.147	정릉사차승축운(靖陵寺次僧軸韻)	111
4.148	차운증상인(次韻贈上人)	112
4.149	제법심축(題法心軸)	112
4.150	손상사장문(孫上舍長文)	112
4.151	증종질경증(贈從侄景曾)	112
4.152	차산인덕화시권운 화내봉은승구상식자	

次山人德和詩卷韻 和乃奉恩僧舊相識者	112
4.153 강상잡절(江上雜絶)	113
4.154 증봉은사승(贈奉恩寺僧)	113
4.155 이주향봉은사차리여인운(移舟向奉恩寺次李汝仁韻)	113
4.156 우언(寓言)	113
4.157 ○동도(穩穩島)	114
4.158 억석(憶昔)	114
4.159 도중니원(都中尼院)	115
4.160 증건봉사주지설매사증주봉은사 贈乾鳳寺住持雪梅師曾住奉恩寺	115
4.161 유봉은사(遊奉恩寺)	115
4.162 자독도향수도산봉은사(自蠶島向修道山奉恩寺)	115
4.163 이비사도경숙봉은사(以碑事到京宿奉恩寺)	115
4.164 청호상인견초부시(晴湖上人見招賦詩)	115
4.165 유봉은사(遊奉恩寺)	116
4.166 봉은사설계여한암선사(奉恩寺說戒與漢巖禪師)	116
5. 산 문(散文)	117
5.1 기(記)	117
5.1.1 봉은사기(奉恩寺記)	117
5.1.2 봉은사불망기(奉恩寺不忘記)	117
5.1.3 유우선종갑찰대본산봉은사지기 遊于禪宗甲刹大本山奉恩寺之記	118
5.1.4 봉은사유기(奉恩寺遊記)	120
5.2 사 적(事蹟)	122
5.2.1 봉은사사적(奉恩寺事蹟)	122
5.2.2 순회묘사적(順懷廟事蹟)	123
5.3 중수기(重修記) · 상량문(上樑文)	124
5.3.1 봉은사중수기(奉恩寺重修記)	124
5.3.2 복령사사성중수기(福靈寺四聖重修記)	125

5.3.3	경기좌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관전신건기 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版殿新建記	125
5.3.4	경기좌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관전상량문 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版殿上樑文	128
5.3.5	화엄관전변와축장중수록(華嚴版殿翻瓦築牆重修錄)	129
3.3.6	수도산봉은사중건상량문(修道山奉恩寺重建上樑文)	130
5.3.7	봉은사복구건설기성회역원방명록 奉恩寺復舊建設期成會役員芳名錄	131
5.4	권선문(勸善文)	132
5.4.1	광주봉은사십왕중수권선문 廣州奉恩寺十王重修勸善文	132
5.4.2	봉은사법당불상권문(奉恩寺法堂佛像勸文)	132
5.5	완문(完文)	133
5.5.1	완문(完文) 1824	133
5.5.2	완문(完文) 1866	134
5.6	서문(序文)	134
5.6.1	화엄합본삼간후서(華嚴合本三刊後序)	134
5.6.2	수해구제기념첩서(水害救濟紀念帖序)	135
5.7	선생안(先生案)	135
5.7.1	수선종봉은사판사선생안(首禪宗奉恩寺判事先生案)	135
5.7.2	판사선생안(判事先生案)	135
5.8	절목(節目)·서목(書目)	136
5.8.1	장경목각항절목(藏經目各項節目)	136
5.8.2	봉은사승도처절목(奉恩寺僧徒處節目)	137
5.8.3	봉은사주지서목(奉恩寺住持書目)	137
5.9	답봉은사화엄간소(答奉恩寺華嚴刊所)	137
5.10	봉은사중수경찬제상점안법회소 奉恩寺重修慶讚諸像點眼法會疏	138
5.11	봉은사노비전답환추등록(奉恩寺奴婢田畝還推騰錄)	138
5.12	은사제승등백활(恩寺諸僧等白活)	139

5.13 호봉선백전(虎峰禪伯傳)	139
5.14 봉은사승도등원정(奉恩寺僧徒等原情)	140
5.15 을축수난구제공덕송(乙丑水難救濟功德頌)	140
5.16 봉은사증계민사(奉恩寺贈戒敏師)	141
6. 관보(官報) · 신문(新聞) · 잡지(雜誌)	142
6.1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142
6.2 신 문(新 聞)	154
6.2.1 황성신문(皇城新聞)	154
6.2.2 동아일보(東亞日報)	156
6.2.3 매일신보(每日申報)	161
6.2.4 자유신문(自由新聞)	171
6.3 잡 지(雜 誌)	172
6.3.1 별건곤	172
7. 습 유(拾 遺)	174
7.1 신라시대(新羅時代)	174
7.2 고려시대(高麗時代)	174
7.3 조선시대(朝鮮時代)	177
7.4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187
8. 봉은사 사진(寫眞) · 불화(佛畵)	189
8.1 봉은사 원경(遠景)	189
8.2 봉은사 관던	189
8.3 봉은사 탐승회 화보(1)	190
8.4 봉은사 탐승회 화보(2)	191
8.5 봉은사 탐승회 화보(3)	191
8.6 대웅전 벽화	192
8.7 봉은사의 큰 재(齋)올리는 광경	192
8.8 봉은사 전경	193

8.9 청호법사 수재구제도(晴湖法師 水災救濟道)	194
8.10 일주문(一柱文)	195
8.11 괘 불(掛 佛)	195
8.12 대웅전 감로탱화(甘露幀畫)	196
8.13 대웅전 신중탱화(神衆幀畫)	197
8.14 명부전 현왕탱화(現王幀畫)	198
8.15 북극보전 칠성탱화(七星幀畫)	199
8.16 관전 후불탱화(後佛幀畫)	200
8.17 관전 신중탱화(神衆幀畫)	201
8.18 불족도(佛足圖)	201

1. 개요(概要)

1.1 연혁(沿革)

봉은사(奉恩寺)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수도산(修道山)에 있는 절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 조계사의 말사이다. 이 절은 신라 원성왕10(794)년에 연회국사(緣會國師)가 창건하여 견성사(見性寺)¹⁾라 하였는데 그 뒤 고려시대의 사적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고려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충혜왕5(1344)년에 조성된 은입사향로가 고려의 숨결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남아 있다.

조선에 들어와서 연산군4(1498)년에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성종의 능인 선릉(宣陵)을 위하여 능의 동편에 있던 견성사를 현재의 자리로 옮겨 크게 중창하고, 절 이름을 봉은사라고 개칭하였고, 연산군7(1501)년 나라에서 절에 왕패(王牌)를 하사하였다.

명종6(1551)년 이 절을 선종(禪宗)의 수사찰(首寺刹)로, 광릉의 봉선사(奉先寺)는 교종의 수사찰로 하였으며, 보우(普雨)를 주지로 삼아 불교를 중흥하는 중심도량이 되게 하였다.

보우는 1562년에 중종의 능인 정릉(靖陵)을 선릉(宣陵) 동쪽으로 옮기고 절을 현위치로 이전하여 중창하였다. 명종18(1563)년에는 절에 순회세자(順懷世子)의 사패(祠牌)를 봉안하기 위하여 강선전(降仙殿)을 세웠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사찰은 병화로 소실되었고, 인조15(1637)년에 경림(敬林)과 벽암(碧巖) 스님이 모연(募緣)하여 중건하였다. 현종6(1665)년에 다시 화재로 소실되어 숙종18(1692)년에 왕실에서 시주(施主)하여 석가모니불·아미타여래·약사여래 등의 삼존불상을 안치하였고, 숙종28(1702)년 왕이 절에 전백(錢帛)을 하사하여 중건을 완료하였다.

영조23(1747)년에는 순찰사 남태저(南泰著)의 주청으로 조정에서 쌀과

1) 견성사(見性寺) : 이 절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때 능침 안에 있는 고찰(古刹)이라 언급된 절로서 신라시대 창건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고려사 등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으며, 다만 봉은사 홈페이지에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돈, 목재 등을 내리고, 영조33(1757)년에 상헌(尙軒)·영옥(穎玉)·선욱(善旭) 등이 힘을 모아 중수하였다.

정조13(1789)년 조정의 지시에 따라 선욱·포념(抱念) 등이 세자각(世子閣)·대웅전·명부전·향각전·관응당(管應堂) 및 각 방사를 보수하였고, 정조14(1790)년에 전국 사찰의 승풍과 규율을 감독하는 5규정소(五糾正所)의 하나가 되어 강원도와 경기도의 사찰 일부를 관할하였다.

순조24(1824)년에는 경성(鏡星)·한영(漢映)·승준(勝俊) 등이 세자각을 비롯하여 모든 당우들을 중수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시행한 31본산의 하나로써 경성 일원을 관장하는 본산이 되었다. 당시의 가람으로는 대웅보전(大雄寶殿)·대향각(大香閣)·화엄경판전(華嚴經板殿)·선원(禪院)·영산전(靈山殿)·심검당(尋劍堂)·관응당·천왕전(天王殿)·강선전(降仙殿)·독성각(獨聖閣) 등이 있었다.

1939년 실화로 대웅전, 동서의 승당과 진여문, 만세루, 창고 등이 소실되었으며, 1941년 주지 도평(道平)이 대웅전과 동서의 양 승당을, 1942년 영산전·북극전(北極殿)·만세루(萬歲樓)·천왕문(天王門) 등을 새로 세웠다.

1943년 절의 서쪽에 있던 종남산(終南山) 명성암(明性庵)을 이곳으로 이건(移建)하였고, 1972년 동국역경원의 역장(譯場: 경전번역소)이 이곳에 들어왔다. 1975년 진신사리 1과를 봉안한 삼층석탑과 석등을 조성하였으며, 1982년에 진여문과 대웅전을 중창하였다. 1996년에 미륵대불을 조성하였으며, 1997년 천왕문과 법왕루(法王樓)가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절에 소장되어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보물 제321호로 지정된 지정 4년명고려청동누은향로가 있다. 이 향로에는 고려 충혜왕 5년(1344)의 명문(銘文)이 있는 고려청동누은향로(高麗靑銅縷銀香爐)로, 일명 오동향로(烏銅香爐)라고도 한다. 사명당(四溟堂)이 쓰던 것으로,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대웅전(大雄殿)의 편액은 추사 김정희(金正喜)의 글씨이며, 판전(板殿)

편역은 김정희가 죽기 3일 전에 쓴 것이다. 절의 관전에는 화엄경소 등 많은 목판본이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총 16부 1,480매에 달한다.

봉은사 부속시설로 역경원(譯經院)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전 서쪽의 명성암(明性庵)과 승방 등에서 대장경의 한글 번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2 연 보(年 譜)

修道山 奉恩寺와 同名인 異寺

신라시대

794(원성왕10)년 7월

진지왕(眞智王)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개성 인근에 봉은사(奉恩寺)를 준공하다.

고려시대

951(광종2)년

봉은사(奉恩寺)를 개성 남쪽에 세워 태조의 원당(願堂)으로 삼다.

신라시대

794(원성왕10)년

고승 연회국사(緣會國師)가 봉은사(奉恩寺)의 모태(母胎)인 견성사(見性寺)를 창건하다.[봉은사 홈페이지]

조선시대

1498(연산군4)년

선릉(宣陵) 인근에 있는, 창건연대를 알 수 없는 고찰(古刹)인 견성사(見性寺)를 옮기라는 상소가 빗발치자 정현왕후(貞顯王后)가 현 봉은사 자리로 옮겨 중창하면서 전각을 크게 조성하고 봉은사(奉恩寺)라 개칭하다.

1550(명종5)년

문정대비(文定大妃)가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선·교양종의 부활과 승과고시 부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다.

1551(명종6)년

6월 25일 특명으로 보우(普雨)를 판선종사 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 봉은사 주지(奉恩寺住持)로 삼다.

선교양종과 승과고시를 부활하여 스님들에게 다시 도첩을 지급하고, 이때 봉은사를 선종수사(禪宗首寺)로 지정하다.

1552(명종7)년

1월 도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400여명이 선종에 합격하다.

4월 12일, 양종 승과를 실시하여 선종 21명과 교종 12명을 뽑았는데 이 시험에서 청허 휴정(淸虛休靜) 스님이 합격하다.

1560(명종15)년

5월 청허 휴정(淸虛休靜) 스님이 주지(住持)를 하다.[조선불교통사]

1565(명종20)년

4월 6일. 봉은사 중창의 주인공인 문정왕후가 별세하다.

4월 25일. 유림의 상소로 보우대사가 판사직을 박탈당하고 제주로 유배 갔다가 목사(牧使) 변협(邊協)에 의해 살해되다.

1636(인조14)년

병자호란으로 당우가 소실되다.

1637(인조15)년

선화(禪華)·경림(敬林) 스님 등이 모연하여 절을 중건하다.

1855(철종6)년

남호 영기(南湖永奇)²⁾대사가 모연(募緣)하여 화엄경 등을 판각하는 불사를 시작하다.

2) 영기(永奇) 1820~1872

조선 후기의 승려로서 속성은 정(鄭). 호 남호(南湖)이다. 14세 때 출가, 승가사(僧伽寺) 대연(大演)의 제자가 되었다. 1853년(철종 4) 삼각산(三角山;북한산)에서 아미타경(阿彌陀經)을 간인(刊印)하고, 이어 십육관경(十六觀經), 연종보감(蓮宗寶鑑)을 간인(刊印)하여 수락산(水洛山) 흥국사(興國寺)에 보관하였다. 1855년 봉은사(奉恩寺)에서 화엄경소초(華嚴經疏鈔) 80권, 별행(別行) 1권, 준제천수합벽(準提千手合璧) 1권, 천태삼은시집(天臺三隱詩集) 등을 판각했다. 1860년(철종 11) 철원(鐵原) 보개산(寶蓋山) 석대암(石臺庵)을 중건하여地藏경관심론(地藏經觀心論)을 보관하고, 1865년(고종2) 해인사 대장경(海印寺大藏經) 2벌을 박아 설악산 오세암(五歲庵)과 오대산 적멸궁(寂滅宮)에 보관하고, 1872년(고종9) 심원사(深源寺)의 3전(殿)과 갈래사(葛來寺)의 보탑(寶塔)을 개수한 후 세상을 떠났다. 그 제자들이 화엄경전(華嚴經殿) 옆에 비를 세웠다.

1856(철종7)년

남호 영기(南湖永奇) 스님이 모연(募緣)하여 화엄경 81권, 별행경 1권, 불족적도, 천수경, 준제경, 야부송금강경(冶父頌金剛經), 삼은시집, 유마경 등을 판각(板刻)하고, 9월에 화엄판전을 새로 지어 경판을 안치하다.

1895년 3월

해옹(海翁) 스님이 주지를 하다.

1902(고종39)년

대한사찰령이 제정되어 사사관리소를 설치하였는데, 이 때 봉은사 등 전국의 14개 사찰이 수사찰(首寺刹)로 지정되다.

일제강점기

1911년

9월 1일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시행에 따라 주지 임명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게 되었으며, 전국에 30본산을 두게 되었는데, 봉은사는 이때 30본산의 하나가 되어 서울·광주·고양·양주·여주·이천·수원·시흥·양평 등의 80여 사암을 관할하다.

1912년

1월 25일 라청호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다.

10월 15일 주지 라청호 스님이 본말사법의 인가를 받다.

1915년

3월 12일 주지 라청호 스님이 조선사찰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상치원이 되다.

7월 14일 주지 라청호 스님의 임기 만료로 해임되다.

1925년

7월 17일 대홍수로 한강이 범람하여 부리도(浮里島) 및 잠실리(蠶室里) 등의 1천여명의 주민이 강물에 빠지자 주지 나청호(羅晴湖) 스님이 감무 강성인(姜性仁), 감사 박심월(朴心月), 이보인(李輔仁) 등과 함께 목선(木船)을 주선하여 인명 708명을 구제하다.

1928년

3월 20일 라청호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다.

1929년

4월. 1925년의 수재 때 도움을 받은 선리·부리·잠실·신장리 주민들이 절 앞에 “라청호을축홍수구제기념비”를 세우다.

1931년

3월 20일 라청호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다.

1932년

12월 10일 봉은사관동포교당의 설치인가를 총독부에 신청하다.

1933년

6월 7일 수록제를 거행하다.

11월 24일 봉은사현저동포교당의 설치인가를 총독부에 신청하다.

1934년

1월 25일 봉은사옥천동포교당의 설치인가를 총독부에 신청하다.

5월 14일 라청호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다.

8월 29일 라청호 주지 스님이 별세하다.

12월 21일 강성인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다.

1935년

4월 9일 불교수양회를 개최하다.

1937년

12월 27일 강성인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다.

1938년

3월 30일 봉은사 제주도애월면 구엄리포교당의 설치인가를 총독부에 신청하다.

1939년

4월 29일 봉은사가 발화로 삼시간에 모두 불에 타다.

5월 21일 봉은사 재건에 착수하다.

1940년

10월 11일 덕산도평(德山道平, 洪泰旭)³⁾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다.

1941년

8월. 만일회공덕주 임돈향, 허광명심 및 백성옥의 비를 세우고, 대웅전과 동서 양승당을 건립하다. 선불당의 상량식을 봉행하다.

1942년

영산전·북극전·천왕문 및 산문을 세움.

1943년

1월. 봉은본말사지의 편찬을 안진호(安震湖) 강백에게 위촉하다. 본사 서쪽 기슭에 선암(禪庵)을 세워 대방 및 요사 4동을 새로 짓고, 광주군 중남면에 있는 명성암(明星庵)을 옮겨와 산내암자로 하다.

5월 21일 봉은사미아리포교당의 설치인가를 총독부에 신청하다.

10월 21일 덕산도평(德山道平, 洪泰旭)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다.

해방후

1945년 12월 30일

3) 홍태욱(洪泰旭, 일본식 이름: 德山道平, ? ~ 1945.12.28.

일제 강점기의 승려이다. 법명은 일초(日初). 출생 연도와 출가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봉은사 관내의 여러 말사인 경기도 고양군 적조암(1921년), 양평군 용문사(1935년), 양주군 수종사(1938년) 주지를 차례로 역임하며 이력을 쌓았다. 이 기간 동안 사찰 중간에 많은 공을 쌓아 인지도를 높였고, 당시 유일한 불교계 신문이던 《불교시보》의 후원회 간사장을 맡기도 했다.

1940년 창씨개명을 하였으며 그해 봉은사의 건축기성회장 겸 주지로 선출되었다. 봉은사는 1939년 화재 피해를 입어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 여러채가 전소되어 재건축이 절실했기에 이 분야에서 능력을 보인 홍태욱을 봉은사 제11대 주지로 선출한 것이었다. 이후 봉은사 주지로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협력하는 행위를 꾸준히 했다. 1941년 4월 봉은사 말사인 개운사에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 단체인 국민총력 봉은본·말사연맹을 결성하고, 일본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기원제 및 전사한 장병의 위령제를 봉행했다. 5월 한강 백사장에서 참가자 3만여 명 규모의 대형 행사인 전몰장병 충혼 위령제 및 수륙제를 거행하였고, 7월에는 중일 전쟁 4주년 기념회와 법요식을 봉은사에서 개최했다.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전쟁이 확대된 뒤 조선인을 대상으로 징병제가 실시되었을 때는, 권상로와 이광수 등을 초청해 '징병제 실시 축하 대강연회'를 열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1942년 봉은사 본사와 말사가 연합하여 헌금과 철제류를 수집해 국방헌금으로 납부한 일과 1943년 1월 불교시보에 "전집 신춘을 봉영하여 성수무궁을 성심경축"이라는 제목의 친일 시사문을 기고한 일, 같은 해 7월 봉은사 본·말사승려연성대회 개최, 1944년 해군기 헌납금 기부, 범종 및 불구 헌납 등도 이러한 행동의 연장 선상에 있었다. 심지어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광복 직전인 1945년 6월 28일 봉은사 사찰 입구에 일본군 전몰장병 충령탑을 세웠다. 광복 후에도 봉은사 주지로 계속 재임하다가 그해 연말에 전 봉은사 주지 강성인이 매수한 테러집단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사후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2008년 정리해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종교 부문에 들어 있다.

봉은사 주지 홍태욱(洪泰旭)이 전(前) 주지인 강성인(姜性仁)에게 매수된 테러단체에 의하여 피살되다.

1955년 8월 28일

대처승이 점거한 봉은사를 비구스님들이 접수하다.

1972년

동국역경원의 역장(譯場)이 들어서다.

1974년

청동 500관, 지은 1관으로 범종을 주조하다.

1975년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봉안한 3층 석탑과 석등을 건립하다

1980년

영암(暎岩) 스님이 사사지 2만평을 매입하다.

1982년

진여문과 대웅전을 중창하다.

1983년

추사 김정희 탄신 200주기를 맞이하여 기적비를 세우다.

1990년

서울에 대홍수를 맞아 수재민구호사업 전개 후에 구역법회 설립하다

1995년

봉은불교대학 14기와 야간 6기 이후의 졸업생이 봉은불교대학 동문회 창립하다.

1996년

미륵대불 조성 불사를 회향하다.

1997년

봉은사 신도회 창립하다.

1998년

법왕루를 새롭게 중창하여 낙성식을 거행하다.

2000년

보우당을 새롭게 건립 낙성식을 거행하다.

2002년

5월 24일 오후 10시경 명부전에 불이 나서 건물이 전소되다.

[주지 원혜 스님].

봉은문화센터를 건립 준공식을 거행하다.

2004년

지장전을 새롭게 증축 낙성식을 거행하다.

2004년

종루 중창불사를 하다.

2010년

24대 주지로 진화스님이 취임하다.

2. 사 서(史 書)

사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경주 인근에 있던 봉은사,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나오는 개성에 인근에 있던 봉은사는 조선시대의 봉은사와 같이 그 당시 왕실(王室)의 원찰(願刹)이라는 점에서 참고로 수록한 것이다.

2.1 삼국사기(三國史記)

○新羅本紀 元聖王十年秋七月秋七月始創奉恩寺

원성왕10(794)년 가을 7월에 봉은사(奉恩寺)⁴⁾를 창건하다.

○雜志第七 職官上 奉恩寺成典 衿荷臣一人 惠恭王 始置 哀莊王 改爲令

봉은사성전(奉恩寺成典)⁵⁾은 금하신(衿荷臣)⁶⁾이 1명이다. 혜공왕(惠恭王)이 처음 두었으며, 애장왕(哀莊王)이 경(卿)으로 고쳤다.

2.2 삼국유사(三國遺事)

○紀異第二 元聖大王 王之陸 在吐舍岳 西洞鵠寺 今崇福寺 有 崔致遠 撰碑 又勅報恩寺又望德樓追封祖 訓入 匝干爲 興平大王 曾祖 義官 匝干爲 神英大王 高祖 法宣 大阿干爲 玄聖大王 玄聖大王 玄聖 之考即 摩叱次 匝干

4) 봉은사(奉恩寺) : 진지왕(眞智王)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혜공왕 때 창건 공사를 시작하여 원성왕 10년에 완공되었다. 처음에는 진지대왕사(眞智大王寺)로도 불렸으며, 신라 통일기에는 성전(成典)이 설치된 왕실의 사원으로서 관사(官寺)로서의 기능도 하였다.

5) 봉은사성전(奉恩寺成典) : 봉은사를 관리·보수하는 관청. 봉은사는 신라본기에 원성왕(元聖王) 10년 7월 기록에 시창(始創)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본문에는 혜공왕(惠恭王)대에 이미 금하신 및 부사 등의 관직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봉은사는 원성왕(元聖王)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봉은사는 혜공왕 1~7(765~771)년에 창건되어 진지대왕사(眞智大王寺)라고 불리웠는데 여기에는 중대 왕실의 시조인 진지왕(眞智王)에 대한 조상숭배관념이 깃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성왕10년에 봉은사를 시창하였다는 것은 신라 중대(中代)에서 하대(下代)로의 정치적 변혁기에 봉은사가 폐사가 된 것을 다시 중창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원성왕이 자기의 직계 조상을 왕으로 추봉하면서 정치적으로 제휴할 수 밖에 없었던 무열왕계에 대한 배려로서 봉은사를 중창하고 진지왕을 추복하는 장소(追福之所)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원성대왕(元聖大王) 기사에 원성왕이 창건하였다는 보은사(報恩寺)는 봉은사(奉恩寺)와 동일한 사찰인 것 같다

6) 금하신(衿荷臣) : 성전의 최고 관직.

왕의 능은 토함산(吐含山) 서쪽 동곡사(洞鶴寺), 지금의 승복사(崇福寺)에 있는데,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비가 있다. 또한 보은사(報恩寺)⁷⁾와 망덕루(望德樓)⁸⁾를 창건했으며, 할아버지인 훈입 잡간(訓入 匝干)을 추봉하여 흥평대왕(興平大王)이라 하고, 증조 의관 잡간(義官 匝干)을 신영대왕(神英大王)으로 삼았으며, 고조 법선 대아간(法宣 大阿干)을 현성대왕(玄聖大王)으로 삼았다. 현성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마질차 잡간(摩叱次 匝干)이다.

2.3 고려사(高麗史)

○世家

光宗二年 月未詳 創大奉恩寺于城南，爲太祖願堂，又創佛日寺于東郊，爲先妣劉氏願堂。

德宗元年 六月 辛丑 王以太祖諱辰道場，如奉恩寺。七月 庚寅 王以皇妣諱辰，如奉恩寺。八月 戊午 王如奉恩寺，以僧法鏡爲國師。

靖宗四年 二月 癸未 燃燈，王如奉恩寺，謁太祖眞。燈夕，必親行香眞殿以爲常。

靖宗五年 二月 乙亥 燃燈，王如奉恩寺。

靖宗八年 二月 戊子 燃燈，王如奉恩寺。

靖宗九年 二月 壬子 燃燈，王如奉恩寺。

[中略]

恭愍王五年 春正月 辛卯 王如奉恩寺，謁太祖眞殿。二月 乙丑 燃燈，王如奉恩寺。三月 丙戌 王及公主奉太妃，如奉恩寺，聽普愚說禪，頂禮，施幣帛銀鉢繡袈裟，積如丘山，其徒三百餘僧，皆施白布二匹袈裟一領，士女奔波，猶恐不及。夏四月 壬戌 王如奉恩寺，謁太祖眞殿。

恭愍王六年 一月 壬辰 王如奉恩寺，謁太祖眞殿，卜遷都漢陽，王探珮，得靜

7) 보은사(報恩寺) : 원성왕10(794)년 7월에 봉은사(奉恩寺)를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봉(奉)과 보(報)는 음이 비슷함으로 같은 사찰이라고 생각된다.

8) 망덕루(望德樓) : 원성왕10(794)년 7월에 망은루(望恩樓)를 궁의 서쪽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덕(德)은 은(恩)의 오기로 보인다.

字

恭愍王七年 八月 甲申 王如奉恩寺，謁太祖眞殿。

2.4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광종2(951)년 創大奉恩寺于城南，爲太祖願堂，又創佛日寺于東郊，爲先妣劉氏願堂。

대봉은사(大奉恩寺)⁹⁾를 도성 남쪽에 세워 태조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 또 불일사(佛日寺)를 동쪽 교외에 세워 선비(先妣) 유씨(劉氏)의 원당으로 삼았다.

문종15(1061)년 六月，王，如奉恩寺，遂詣國子監，謂侍臣曰，仲尼，百王之師，敢不致敬，再拜。

6월에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가 국자감(國子監)에 나아가서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중니(仲尼)는 백왕(百王)의 스승이니, 감히 공경하지 아니하라.” 하고 두 번 절하였다.

선종3(1086)년 六月，釋煦還自宋，初煦，至宋，帝，引見于垂拱殿，待以客禮，寵數渥縟，煦，請遊方問法，詔，以主客員外郎楊傑，爲館伴，至吳中諸寺，皆迎餞，如王臣禮，王，上表，乞令還國，詔許東還，煦，至禮成江，王，奉太后，出奉恩寺以待，其迎迓導儀之盛，前古無比，煦，獻釋典，及經書一千卷，又於興王寺，奏置教藏都監，購書於遼，宋，日本，多至四千卷，悉皆刊行。

6월에 후(煦)가 송 나라에서 돌아왔다. 과거에 후가 송나라에 도착하니 황제가 수공전(垂拱殿)에서 불러보고 빈객으로 예우하고 은총이 후하였다. 후가 사방에 다니면서 불법(佛法) 배우기를 청하자,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郎) 양걸(楊傑)을 관반(館伴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임시 책임자)으로 삼고 오(吳) 나라의 여러 절에 가니, 맞이하듯 전송하는 것이 모두 왕신(王臣 천자의 사신)을 대우하는 예와 같았다. 왕이 표를 올려서 후를 돌

9) 대봉은사(大奉恩寺) : 고려시대 개성 남쪽에 있던 사찰로서 고려 태조의 원당(願堂)이다.

려보내기를 청하였더니, 황제가 동국(東國)으로 돌아감을 허가한 것이었다. 후가 예성강(禮成江)에 도착하자 왕이 태후를 모시고 봉은사(奉恩寺)에 나가서 기다렸는데, 그 맞이하는 의식의 융성함이 전고(前古)에 견줄 데가 없었다. 후가 불전(佛典) 및 경서 1천 권을 바치고 또 흥왕사에다가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하도록 아뢰어서, 요·송·일본으로부터 서책을 구입하여 4천 권이나 되었는데, 모두 간행하였다.

숙종2(1097)년 六月，王，如奉恩寺，自是，屢幸寺院。

6월에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거둥하더니 이로부터 여러 번 사찰에 거둥하였다.

숙종8(1103)년 冬十月，以宋帝天寧節，命太子，設齋于奉恩寺，醫官牟介等，往觀之。

겨울 10월 송 나라 황제의 천녕절(天寧節)이므로 태자에게 명하여 봉은사(奉恩寺)에서 재(齋)를 하였는데, 의관(醫官) 모개(牟介) 등이 가서 보았다.

의종21(1167)년 燃燈，王，如奉恩寺，夜，還至觀風樓，左承宣金敦中馬，素不調，聞鉦鼓聲，益驚，突觸一騎士矢房，矢，躍出落輦傍，敦中，不自首，王，驚愕，以爲流矢，疾馳還宮，宮城，戒嚴。

연등(燃燈)하는 날, 왕이 봉은사(奉恩寺)로 갔다가 밤에 돌아와 관풍루(觀風樓)에 이르렀을 때, 좌승선 김돈중(金敦中)의 말[馬]이 본래 길이 잘 들지 않는데다 징[鉦]과 북소리에 더욱 놀라 한 기사(騎士)의 시방(矢房 화살통)을 들이받아서 화살이 튀어나와 왕이 탄 가마 옆에 떨어졌는데, 돈중이 이 일을 자수하지 않았다. 왕이 깜짝 놀라 유시(流矢)가 날아온 것으로 오인하고, 빨리 달려 궁으로 돌아와서 궁성에 계엄(戒嚴)을 폈다.

명종11(1181)년 群盜，入大倉，隊正宋康清，募卒力鬪，不克而死，又入奉恩寺，鼓譟劫掠，盜太祖眞殿銀瓶三十餘口。

떼도둑이 대창(大倉)에 들어왔다. 대정(隊正) 송강청(宋康清)이 군졸을 모아 힘을 다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도둑이 또 봉은사(奉恩

寺)에 들어가서 북을 치고 떠들며 약탈을 감행하고, 태조진전(太祖眞殿)의 은병(銀瓶) 30여 개를 도둑질하여 갔다.

고종4(1217)년 遷大廟神主于大常府，太祖，世祖梓宮于奉恩寺。

태묘 신주를 태상부(太常府)로 옮기고, 태조·세조의 재궁(梓宮)을 봉은사(奉恩寺)로 옮겼다.

고종21(1234)년 燃燈，王，如奉恩寺，以故參政車侗家，爲奉恩寺，撤民家，以廣輦路，時雖遷都草創，然凡毬庭宮殿寺社，號，皆擬松都，八關燃燈，行香道場，一依舊式。

연등(燃燈)하러 왕이 봉은사(奉恩寺)로 갔다. 고 참정(故參政) 차척(車侗)의 집을 봉은사로 삼고, 민가를 헐어 연(輦)이 다닐 길을 넓히었다. 이때는 친도한 초창기이나, 대체로 구정(毬庭)과 궁전과 사사(寺社)의 이름을 다 송도를 본떴고, 팔관(八關)·연등·행향(行香)·도량(道場)은 한결 같이 구식(舊式)에 의거하였다.

원종12(1271)년 燃燈，王，如奉恩寺，會，楮市橋邊民家三百餘戶火，乃除燃燈伎樂，但謁太祖眞殿。

연등절(燃燈節)에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거둥하였는데, 마침 저시교(楮市橋) 근처의 민가 3백여 호가 불탔다. 이에 연등의 기악(伎樂)은 그만두고 다만 태조의 영전(靈殿)에 나아가서 배알하였다.

충렬3(1277)년 王，與公主，觀燈于奉恩寺，宰樞不及，王，怒囚僉議府吏，旣而，使右承旨薛公儉，語宰樞曰，公主，請我夙駕，而卿等後至，恐公主責我，且囚府吏，卿等，毋以我爲躁也。

왕이 공주와 함께 봉은사(奉恩寺)에서 관등(觀燈)하였는데 재신과 추신들이 미처 오지 않으니, 왕이 노하여 첨의부의 이속(吏屬)을 가두었다. 조금 있다가 우승지 설공검(薛公儉)을 시켜 재신과 추신에게 이르기를, “공주가 나에게 일찍 가자고 하였는데 경(卿)들이 늦게 와 공주가 나를 책할까 두려워서 잠시 부(府)의 이속을 가두었으니, 경들은 나를 조급하다고 하지 말라.” 하였다.

충렬15(1289)년 八月，王，命洪子藩，趙仁規等，會奉恩寺簽軍，又徵諸道兵。

8월에 왕이 홍자번과 조인규 등에게 명하여, 봉은사(奉恩寺)에 모여서 군사를 뽑고, 또 각 도의 군사를 징집하게 하였다.

충렬24(1298)년 王，以燃燈，如奉恩寺，賜文翰學士崔崑，朴全之，吳漢卿，李瑱，尚乘鞍馬，群臣上壽，次至四學士，王使之前，賜卮酒，謂曰，惟爾諸學士，直言無隱。

왕이 연등절(燃燈節)이므로 봉은사(奉恩寺)에 가서, 문翰학사(文翰學士) 최감(崔崑)·박전지(朴全之)·오한경(吳漢卿)·이진(李瑱)에게 상승국(尙乘局 궁중의 수레나 말을 맡아 보는 곳)의 안마를 하사하였다. 여러 신하가 헌수하였는데, 차례가 네 학사에게 이르자 왕이 앞으로 나오라 하여 술잔을 주고 이르기를, “오직 너희 여러 학사들은 바른 말을 하고 숨기지 말라.” 하였다.

충렬25(1299)년 平章闕里吉思，與行省官僚及百官，肄賀正儀於奉恩寺三日，肄儀始此。

평장사 활리길사가 행성의 관료 및 백과과 함께 신정을 하례하는 의식을 봉은사(奉恩寺)에서 3일 동안 연습하였다. 의식을 연습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충렬30(1304)년 允孚，性切直，頗以國事爲己憂，每因災異，輒入告，言甚懇至，時政有可言，卽入諫，不聽，涕泣固爭，期於必從，嘗告朔奉恩寺太祖眞殿，旣奠且拜且泣曰，太祖太祖，君之國事非矣，因嗚咽不自勝，其誠懇類此。

윤부는 성품이 매우 정직하였고, 나라일을 자기의 걱정처럼 생각하여 재변이 있을 적마다 들어가 고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시국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면 곧 들어가 간하고, 듣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굳세게 간하여 반드시 관철되기를 꾀하였다.

일찍이 봉은사(奉恩寺)에 있는 태조 진전(太祖眞殿)에 초하루를 보고하

는 제사를 지냈는데, 잔을 올리고 절한 후 울며 고하기를, “태조이시어, 태조이시어, 당신의 나랏일이 그릇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내 흐느껴 울며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정성이 이와 같았다.

공민5(1356)년 三月，王及公主，奉大妃如奉恩寺，聽普愚說禪，施幣，銀鉢繡袈裟，積如山丘，士女奔波，猶恐不及。

3월에 왕과 공주가 대비를 모시고 봉은사(奉恩寺)에서 보우(普愚)의 선(禪)에 대한 설법을 듣고, 폐물·은·바리때·수 놓은 가사 등을 시주하였는데, 그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였다. 구경하고자 하는 남녀들이 물결처럼 밀어닥쳐 오히려 구경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공민6(1357)년 王，如奉恩寺，謁太祖眞殿，卜遷都漢陽動靜，王，探環得靜字，更命李齊賢卜之，乃得動字，王，喜曰，卿禋祀得吉卜，實副予心。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가서 태조(太祖)의 진전에 배알하고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의 동(動)과 정(靜)을 점쳤다. 왕이 옥을 더듬어 정(靜) 자(字)를 얻었는데, 다시 이제현에게 명하여 점치게 하였더니, 곧 동(動) 자를 얻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경이 정결히 재계하여 길한 점을 얻어, 참으로 나의 마음에 부응하였도다.” 하였다.

우2(1376)년 葬順靖王后韓氏于懿陵，遂配享于惠明殿，以魯國公主祭于別室，時，韓略，自言，我韓氏宗人也，初韓氏卒，我與韓氏族僧能祐，火其屍，收骨厝于奉恩寺松林，乃於寺之北岡，發燒骨一缸，備儀物移葬顯陵之西，輜車至十川橋，祖奠將撤，燒魂錢，延及柩幄，并蒸儀物，惟柩賴救得免，時人怪之，或云天火。

순정(順靖) 왕후 한씨(韓氏)를 의릉(懿陵)에 장사하고 드디어 혜명전(惠明殿)에 배향하였으며, 노국공주(魯國公主)는 별실(別室)에 제사하였다. 이때에 한약(韓略)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한씨의 친족인데, 이전에 한씨가 졸하였을 때에 내가 한씨의 친족 중 능우(能祐)와 함께 그 시체를 화장하고 뼈를 거두어 봉은사(奉恩寺) 소나무 숲속에 묻었다.” 하였다. 이에 봉은사 북쪽산에서 태운 뼈 한 항아리를 발굴하여 의식에 필요한 물

건을 갖추어 현릉(顯陵) 서쪽에 이장하는데, 상여가 십천교(十川橋)에 이르러 조전(祖奠)을 바치고 혼전(魂錢)을 태우다가 영구(靈柩)의 휘장에 불이 옮기고 의물(儀物)까지 불탔으나, 오직 영구만은 구하여 화재를 면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고, 혹 말하기를 하늘이 내린 불이다 하였다.

2.5.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2.5.1 견성사(見性寺)

연산1(1495)년 12월 7일(병진)

홍문관 부제학 박처륜(朴處綸) 등이 상차하기를, “신들이 논사(論思)의 자리에서 구언(求言)하는 분부를 받자옵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아뢰었으나 아직까지 한 가지 말도 채택해 주심을 입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임금의 문이 천리나 먼데, 저 소원한 소민(小民)들이 충성심을 품었을지라도 어떻게 전달(轉達)하여 천청(天聽)을 들릴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전하께서 구언하심은 그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없습니다. 신들이 전일 상소한 것 중에서 선릉(宣陵)의 사찰을 헐어버리고 기상(期祥)의 재(齋)를 파해야 한다는 등에 관해서는 바로 선왕을 존숭하고 성교(聖教)를 보전하는 큰일이라 빨리 성명(成命)이 계셔야 마땅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사찰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재지내는 것 역시 예로부터 내려오는 준례라.’ 하시고, 굳이 거절하시니, 신들의 소망에 결여됨이 너무도 심합니다.

신들이 듣자오니, 신도(神道)는 고요함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견성사(見性寺)가 능(陵) 곁에 가까이 있어 중(衆)들이 불경 외는 소리와 새벽 종소리, 저녁 북소리가 능침(陵寢)을 소란하게 하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성종대왕의 영(靈)이 어찌 심한 우뇌(憂惱)가 없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고요함을 주로 하는 일입니까. 신들이 듣자오니, ‘죽은 사람을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섬기고, 없는 사람을 섬기기를 있는 사람과 같이 섬기라.’ 하였는데, 우리 성종께서 고명 정대하신 성왕(聖王)으로 사교(邪

敎)에 현혹되지 않고 깊이 미워하셨으니, 신자(臣子)된 자로서도 역시 감히 사도(邪道)로써 성덕(聖德)에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지금 곧이 기상(期祥)의 재를 지내서 고명 정대하신 영으로 하여금 평생에 깊이 미워하시던 호귀(胡鬼)에게 굽히시게 한다면 더할 수 없는 욕이니,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하며, 없는 사람 섬기기를 있는 사람 섬기듯 하라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곧이 재를 지내서 선왕의 영을 욕되게 하고, 사찰을 철거하지 않아서 선왕의 영을 우뇌하게 한다면, 이는 이미 욕되게 하고 또 우뇌하게 하여 어버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전하의 효성에 어지러짐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으니, 어찌 사찰은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철거하지 않고 재 역시 고례(古例)라 하여 곧이 지내셔야 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연산2(1496)년 1월 20일(기해)

수릉관(守陵官) 박안성(朴安性)이 치계(馳啓)하기를, “분부를 받들어 수복(守僕) 안정수(安貞守)를 국문하니, 공술(供述)하기를, ‘본월 초에 이름 모를 사람이 와서 능실(陵室)을 보여 달라 하므로 조라치[照羅赤] 양손(梁孫)으로 하여금 붙들어서 시릉관(侍陵官)에게 고하게 하였는데, 시릉관이 그 근본을 물으니, 스스로 말하기를, 「근본은 서산(瑞山) 향리(鄉吏)인데 자기 동족인 중[僧]을 찾아 견성사(見性寺)에 왔었는데, 능실을 뵈고자 한다…」 하므로, 시릉관이 내쫓았는데, 후에 또 침실(寢室)을 보여 달라 하여, 제가 금하지 못했다.’ 하므로 시릉관 김처선(金處善)에게 물으니, 처선의 말도 정수(貞守)의 말과 같았습니다. 신이 참봉(參奉) 등과 더불어 능 지키는 직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미처 검찰하지 못했으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능침(陵寢) 근처에 간세(奸細)한 무리를 방금(防禁) 하는 것은 바로 경의 직책인데, 지금 그렇지 못했으니, 과연 과실을 범했으나 대죄하지 말라. 안정수 및 견성사(見性寺)에 사는 류승양(柳承陽)의 족승(族僧)은 함께 빨리 올려 보내라.” 하였다.

연산2(1496)년 2월 20일(무진)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서계(書啓)하기를, “임금은 구중 궁궐(九重宮闕)에 깊이 거처하여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총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으므로, 대간을 설치하여 이목을 삼아서 보고 들음을 넓히고, 대간도 역시 임금의 이목 노릇하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삼아서, 일을 당하면 곧 말하여, 임금을 허물 없는 데로 인도하는 것이운데, 진실로 임금이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여, 내 뜻을 어기는 사람이 없게 하고자 하면, 아첨하는 자들만 날로 진출하고 좋은 말은 들려오지 않을 것이니,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본직을 맡고부터 복합(伏閣)하여 일을 말한 것이 두 달이 지났습니다. 봉선사(奉先寺)에서 재(齋)를 지낸 것과 견성사(見性寺)에서 부처에게 공양한 것과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윤탕로(尹湯老)가 얼마 안가서 석방된 것과, 놀이를 한 윤채(尹埰) 등을 그대로 버려 두고 죄를 묻지 않은 것과, 백성을 괴롭혀 소금을 고아서 승도(僧徒)에 시주한 것과, 내시들이 권세를 부려 사사로 감싸고 다스리지 않는 것과 삼공(三公)의 중임(重任)에 굳이 마땅하지 못한 사람을 앉히는 것은, 이것이 모두 크게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오라, 신들이 말씀으로, 차자(筭子)로, 소장(訴狀)으로써 근간(慙懇)하여 마지 않았사오는데, 한 번도 천의(天意)를 돌리지 못했으니, 이는 신들의 정성이 능히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직책을 능히 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관직이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떠나야 하고, 언책(言責)이 있는 자가 그 말을 못하게 되면 떠나야 한다.’ 하였으니, 신들이 뻔뻔스럽게 직에 눌러 있어, 오래도록 어진 이가 조정 에 나오는 길을 막는 것이 옳지 못하므로 드디어 사직합니다.” 하였다.

연산2(1496)년 2월 30일(무인)

다시 서계(書啓)하기를, “신들이 지난 겨울부터 사직한 이래로 복합(伏閣)하여 일을 말한 것이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봉선사(奉先寺)에서 재(齋)를 지내는 것과 견성사(見性寺)에서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과 윤탕로(尹湯老)를 빨리 석방하는 것과 윤채(尹埰) 등을 선뜻 버려 두는 것과 윤필상(尹弼商)의 아첨하는 것 등을 간하였사오나 모두 들어 주지 않

으셨는데, 전하께서 하교하신 청납(聽納)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옛사람은 한 마디 말로써 임금을 깨우쳤다 하옵는데, 신들이 복잡한 지 석달 동안에 아뢰는 것이 8가지인데, 그 사이에 소장으로 차자(筍子)로 수백 언(數百言)을 올렸사오나, 한 번도 천의(天意)를 돌리지 못했으니, 신들이 구차히 언로(言路)에 있어 어진 이가 등용되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齋)를 지낸 것은 선왕조로부터 내려온 일이고, 견성사(見性寺)에서 부처에게 공양한 것은 내가 아는 일이 아니며, 윤탕로의 석방으로 말하면 중의를 모아서 한 것인데, 모두 허물을 나에게 돌리니, 나로서는 답할 말이 없다.” 하자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가니, 이윽고 명하여 복직하게 하였다.

연산2(1496)년 3월 15일(계사)

전교하기를, “나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정승의 말과 같이 만약 들을 만한 일이라면 어찌 쫓지 않으랴마는, 재(齋)를 지내는 일과 견성사(見性寺)에서 반불(飯佛)하는 일 같은 것은 다 선왕의 고사이므로 마지못해 한 것인데, 대간·홍문관이 모두 나를 가리켜 거간(拒諫)한다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교한 것이다.” 하였다.

연산3(1497)년 7월 17일(병진)

장령 조형(趙珩)과 정언 조순(趙舜)이, 신자건·양희지·채운공·박형무 및 백암사(白巖寺)의 전토(田土)에 관한 일을 논계하고, 또 사신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다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아뢰기를, “옛날 대신으로 그 임금을 선도(善導)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간하는 말에 순종하여 거스림이 없어야 합니다. 간하는 말에 순종하면 성(聖)이 되십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으로 하여금 허심 탄회(虛心坦懷)하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하였는데, 지금 사신은 한갓 전하를 인도하여 간하는 것을 거부하게 할 뿐 아니라, 대간으로 하여금 재상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니 이는 간신 중에도 더욱 심한 자입니다. 대간의 직책은 임금이라도 허물이 되는 행동이 있으면 기휘하지 않는데, 하물며 재

상의 잘못이겠습니까. 재상의 잘못을 대간이 말하지 않으면 임금이 그 그
름을 알지 못하니 재상은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없어서 권세가 아래로
옮겨지고 나라 일은 날로 그릇되어 갈 것입니다. 사신의 의도는 여기에
지나지 않으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고, 또 채윤공·박형무·신자건·
양희지의 일과 견성사(見性寺) 및 백암사(白巖寺)의 일을 논하였으나, 모
두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3(1497)년 7월 18일(정사)

홍문관 전한(典翰) 이수공(李守恭)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신 등
은 듣자오니 태종(太宗)께서 일찍이 말씀하시를, ‘산릉(山陵)은 내가 백세
후에 갈 땅인데 승도로 하여금 내 곁에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편안하겠느냐. 내가 법을 세워 뒷 자손에게 보여줘야겠으니 절대 절을 두
지 말라.’ 하였습시다. 세종께서 헌릉(獻陵)에 절을 세우지 않은 것은 마
침내 선왕의 유지를 준수하여 대효(大孝)를 펴신 것입니다. 성묘(成廟)께
서 분시 불교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전하께서도 친히 보신 바인데, 승하
하신 처음에 재를 베풀어 부처에 공양한 것은 성상의 효성을 무너뜨린 것
입니다. 견성사(見性寺)는 고찰(古刹)입니다. 그래도 능침의 안에 높다랗
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아침 종과 저녁 북이 원침(園寢)을 진동하는
것도 역시 고요함을 숭상하는 도가 아니온데, 지금 또 크게 토목 공사를
일으켜서 새 절을 창건하려 하시니, 선왕의 유지에 어찌하며, 성상의 효
성에 어찌하렵니까. 이는 비록 대비(大妃)¹⁰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전하
께서 만약 성심으로써 간하시면 대비께서도 어찌 차마 성종의 뜻을 위배
하여 전하를 불효의 지경으로 빠지게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
다.

연산3(1497)년 7월 19일(무오)

장령 조형(趙衡)과 정언 조순(趙舜)이, 노사신·채윤공·신자건·양희
지·박형무와 견성사(見性寺)·백암사(白巖寺)의 사전(寺田)을 논계하니,

10) 대비(大妃) : 성종(成宗)의 계비(繼妃), 정현왕후(貞顯王后, 1462~1530) 자순왕대비(慈順王大妃) 윤씨(尹氏)를 말한다.

전교하기를, “견성사의 일은 대비(大妃)께 청했더니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이 절은 능침(陵寢)과 가직하고 또 창건한 연대가 오래여서 고쳐 지으려 했는데, 조정에서 모두 그른 일이라 하므로 정지(停之)하겠다.’ 고 하시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듣지 않겠다.” 하였다.

연산4(1498)년 2월 13일(기묘)

지평(持平) 신복의(辛服義), 정언 곽종번(郭宗蕃)이 아뢰기를, “견성사(見性寺) 중창(重創) 문제는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토목(土木) 역사를 시키는 것은 궁궐을 수선한다 해도 오히려 불가하운데, 더구나 무익한 승사(僧舍)를 수리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연산4(1498)년 2월 15일(신사)

대사헌 권경우(權景祐) 등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듣자옵건대 지금 견성사(見性寺)를 중창하기 위해 재목을 수송하고 돌을 운반하는 등 기일을 정하고 건축을 시작하신다 하니, 신 등이 그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제왕의 성효는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 중하옵니다. 우리 성종 대왕께서 도(道)를 보심이 매우 밝으사 부도(浮屠)를 믿지 아니하셨거늘, 지금 불사(佛寺)를 창설하여 명복(冥福)을 비는 것이 어찌 성종 평일의 뜻이리까. 그 불가한 것이 하나이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하교하시기를, ‘공자의 도를 일으키고 불씨(佛氏)의 교(教)를 쇠하게 한다.’ 하셨는데, 이제 마침내 불사(佛寺)를 중창하여 구제(舊制)라도 늘려서 수리하시니 비록 전하의 본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일의 하교와는 너무나 상반되오니, 그 불가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봄의 농사철에는 농삿일이 바야흐로 급하운데, 인력을 몰아다가 삼태기와 삽을 잡히는 것이 노고와 피폐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재물을 손상하고 농무를 방해하니, 그 불가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그 불가하심을 아셨으면 비록 대비의 명령이 있으실지라도 이해를 개진(開陳)하여 그 무익함을 밝히시고 조용히 간하여 정지하시도록 하오시면 부인이란 삼종(三從)의 의가 있사운데, 대비께서 어찌 응중하지 않으리까. 더구나 연전에 대비께서 절을 지을 뜻을 두셨음에도 전

함께서 대신과 대간의 말을 들어 청하여 정지시키셨는데, 오늘날만은 간하여 정지시키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바라옵건대 빨리 그 역사를 파하여 이단(異端)을 제거하도록 하옵소서.”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연산4(1498)년 2월 18일(갑신)

왕이 경연(經筵)에 납시자, 장령(掌令) 조형(趙珩)이 아뢰기를, “견성사(見性寺)는 비록 대비께서 하시는 일이라 전교하셨지만, 그러나 성종께서 불(佛)을 좋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절을 창건한다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시기를, “성종께서 진실로 불을 좋아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기신재(忌晨齋)를 혁파하지 않으신 것도 조종(祖宗)의 고사이기 때문이다. 또 국고(國庫)를 사용하여 불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니, 영사(領事) 어세겸(魚世謙)이 아뢰기를, “쓰는 것이 비록 내수사(內需司)의 물건이라 하지만 모두가 우리 백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국고의 물건을 내수사에 옮겨 쓰기를 절도가 없이 하고 마침내 국가의 물건이 아니라 한다면 국고가 어떻게 고갈이 안되리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하를 위하여 재물을 지킨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백성에게 부(富)를 가지도록 하라 하였으니, 전하의 이 분부가 매우 불가합니다. 또 대비전에 진상하는 포백(布帛)과 잡물(雜物)이 그 수효가 너무도 많사운데, 대비께서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반드시 다 공불(供佛)하시는 것이옵니다.” 하였으나,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4(1498)년 2월 20일(병술)

지평 박소영(朴紹榮), 정언 곽종번(郭宗蕃)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주상 전하께서 견성사(見性寺)를 옮겨 지을 뜻을 보이시니, 신 등이 두렵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또 황형(黃衡)은 일찍이 친환(親患)으로 휴가를 받아 기생집에서 여러 날을 유숙하였으니 대절(大節)이 이미 이지러졌사운데 지금 수사(水使)를 제수하였습니다. 신종흠(申從洽)은 장오(贓汚)로써 국문을 당했고 지난번에 서윤(庶尹)이 되어서는 능히 판결을 못하여 송사하는 자들이 원망하고 꾸짖었사운데 지금 또 본직(本職)을 제수

하였습니다. 이창신(李昌臣)은 재물을 다툰 일로 국문을 당하자 도리어 옥관(獄官)을 그르다 하고 문득 위에 하소연 하므로 성종께서 명하여 중의를 수행한 바 모두 지목하여 소인이라 하였사운데 지금 병조(兵曹)의 소임을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창신과 황형의 일은 정승 이상에게 수의하라. 신중흡의 일은 듣지 못 하겠다.” 하였다.

연산4(1498)년 2월 22일(무자)

전경(典經) 박은(朴闇)이 아뢰기를, “선릉(宣陵)에서 몇 보(步) 안에 들어 있는 민가(民家)는 모두 철거를 하였는데, 견성사(見性寺)만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박안성(朴安性)은 능(陵)을 지키는 관리로서 본래 그 불가함을 알면서도 철거할 것을 청하지 않고 도리어 옮겨 지을 것을 청하였으니, 청컨대 국문을 하옵소서.” 하였다.

연산4(1498)년 2월 24일(경인)

사간(司諫) 이점(李玷)이 아뢰기를, “견성사(見性寺)를 지금 류자광(柳子光)과 박안성(朴安性)의 말을 들어 옮겨 지으려고 하시는데, 자광 등은 바로 대비(太妃)의 뜻을 봉영하여 말한 것이오니 만일 철거를 못하시면 예전대로 두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하였다.

연산4(1498)년 2월 26일(임진)

좌의정 어세겸(魚世謙)이 글을 올려 견성사(見性寺) 구조(構造)를 고쳐 짓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을 극구 말했다.

연산4(1498)년 3월 11일(정미)

시강관(侍講官) 홍식(洪湜)이 아뢰기를, “견성사(見性寺)의 중건(重建)에 대하여, 전하는 ‘대비께서 하시는 일이라 나의 알 바가 아니다’ 하시지만 지금 재목(材木)을 모아들여 크게 절을 짓고 있으니 우매한 백성들이 어찌 전하께서 존중하고 신앙하지 않으심을 알리까. 하물며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어찌 크게 무익한 역사를 일으켜서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하십니까. 이는 비록 대비께서 하시는 일일지라도 전하께서 마땅히 힘써

아뢰어서 정지해야 하옵니다.” 하였다.

연산4(1498)년 4월 1일(병인)

대간(臺諫)이 견성사(見性寺)에 대한 일과 이창신(李昌臣)에 대한 일을 논계(論啓)하였는데, 왕이 듣지 않았다.

연산4(1498)년 4월 19일(을유)

성균관 생원 조방언(趙邦彦) 등이 또 상소하여 견성사(見性寺)에 대한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소(疏)를 보니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말을 앓는다 하였는데, 대간과 시종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어찌 너희들 신진(新進)의 선비만 못해서 중지하였겠느냐.” 하였다.

연산4(1498)년 5월 3일(무술)

시강관(侍講官) 남세주(南世周)는 아뢰기를, “근래에 때 아닌 서리가 내렸으니 손상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정월에 된서리가 내리면 옛사람은 근심을 했는데, 지금 순양(純陽)의 달을 당하여 재변이 이와 같으니 두렵지 아니하옵니까. 하늘이 재앙을 내림은 사람이 불려서이니,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재앙이 망령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천심(天心)은 인애(仁愛)하여 임금이 공구 수성(恐懼修省)을 하면 재앙이 변하여 상서가 된다.’ 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한발(旱魃)이 너무도 심하운데 토목의 역사를 하는 것이 화한 기운을 감상(感傷)하여 재변을 이루기가 쉽사오니, 견성사(見性寺)의 역사(役事)를 빨리 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상평창(常平倉)으로 하여금 쌀을 내주고 베를 받아들이게 한 것은 가난한 백성에게 매매(賣買)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모두 부상(富商)과 대고(大賈)들이 이익을 취하고 가난한 백성은 손달 수가 없으니, 이 어찌 법을 설립한 본의이겠습니까. 국가에서 상평창으로 하여금 쌀 4두 5승을 내주고 면포 1필을 받아 들이니, 그 가난한 백성을 위한 혜택이 지극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정(市井)의 부호들이 기회를 이용하여 싼 값으로 관에 상납하고 후한 이익을 얻으니,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

난한 자는 이득이 없습니다. 청컨대 창(倉)을 닫고 쌀을 저장하여 저자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 못하게 하고 구황(救荒)의 밀천으로 삼으 시웁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평창(常平倉)을 사헌부(司憲府)로 하여 금 밝게 사찰하여 간위(姦僞)한 자들이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 라.” 하였다.

연산4(1498)년 5월 23일(무오)

예조 판서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신은 보읍건대 견성사(見性寺)가 능실(陵室)과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전일에 아뢰기를 ‘만약에 철거를 못하겠으면 먼 곳으로 옮겨 지어야 한다’ 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듣자오니, 유생(儒生) 조방언(趙邦彦)의 상소(上疏)에 대신(大臣)이 주상의 뜻에 영합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신을 지적한 말일 것이니, 청컨대 사피(辭避)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사람을 선택해서 대간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역시 실언할 때가 있는 법이다. 더구나 서생들은 한갓 서책만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니,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 하였다.

2.5.2 봉은사(奉恩寺)

연산5(1499)년 12월 12일(병신)

傳曰 “新創奉恩寺無田土，其以各道寺社有收稅及稅鹽者移給。

전교하기를, “새로 창건한 봉은사(奉恩寺)에 전토(田土)가 없으니, 각도(各道)의 사사(寺社)에서 세(稅)를 거둔 것과 세납한 소금을 옮겨 주라.” 하였다.

연산6(1500)년 1월 8일(계해)

전교하기를, “전에 봉은사(奉恩寺)에 준 전세(田稅)가 모두 먼 곳에 있으니 그것은 소재지의 관원에게 거두어 쓰게 하고 가까운 고을의 전세로 바꾸어 주라.” 하였다.

연산7(1501)년 3월 17일(을축)

전교하기를, “봉은사(奉恩寺)에 봉선사(奉先寺)의 전례를 따라 왕패(王牌)¹¹⁾를 준 것은 자순 왕대비(慈順王大妃)의 명에 의한 것이요, 나의 본디의 뜻은 아니다.” 하였다.

중종33(1538)년 9월 19일(기축)

성균관 진사 박문수(朴文秀) 등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儒)와 불(佛)이 양립할 수 없고 사(邪)와 정(正)이 병행할 수 없는 것은, 저것이 성하면 이것이 쇠하는 것이 음(陰)이 자라면 양(陽)이 소멸하는 것과 같아서이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옛날 현명한 임금 이 불로(佛老)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찍이 분변하고 작을 때 금지시켜서 하늘에 치솟을 물결을 방울방울 떨어질 때에 막아버리고 요원에 타오를 불길을 반짝반짝 피어오를 때에 꺼버리듯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도(吾道)가 중천에 떠있는 태양과 같이 밝았고 이단(異端)이 얼음 풀리듯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미(幾微)가 발생할 때에 엄하게 방어하지 않는다면 사설(邪說)이 귀에 들어오기가 쉽고 좌도(左道)가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고혹하여 그 기세가 암암리에 커지고 여파가 점점 번창하여 오도에 해를 끼치는 것이 한이 없을 것이니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친품이 총명하고 예지가 뛰어나므로 본시 유술(儒術)을 좋아하여 사문(斯文)을 부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서 근년 이래로 중의 무리가 날로 치성하고 달로 왕성하여 사류(士類)들을 흘겨보는지 신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처럼 교활하고 올빼미가 날개를 퍼듯 위세를 부려 스스로 내로라 하면서 방자스러운 행동을 기탄없이 하니, 이들이 믿는 데가 있지 않고서 어찌 감히 이러한 극악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과거보러 오는 선비들이 여주(驪州) 신록사(神勒寺)에서 투숙하였는데, 절의 모든 중들이 종을 치고 소리를 불며 활과 몽둥이를 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쳐들어와 활로 쏘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여 성

11) 왕패(王牌) : 임금이 궁가·공신·사찰 등에 논밭·노비 따위를 줄 때에 내려 주던 문서.

화같이 다급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타당하여 전신에 부상을 입기도 했고 심지어 높은 섬돌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고 발목이 꺾이기도 하여 피를 토하며 거의 죽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해괴하고도 경악스러워 한심스럽습니다. 전하께서 깊숙한 궁궐에 계시니 중들이 작당하여 폭행을 자행함이 이러하고 유생들을 해침이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에는 이들에게 호패(號牌)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여깁니다. 오늘날 중 노릇하는 자들은 거개가 부역을 피하려는 자들로서 한번 호패를 받으면 일생 동안 안일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끼리 서로 ‘우리에게 호패가 있는데 유생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수령이 어찌할 것인가.’ 합니다. 이 때문에 악이 날로 자라고 무리가 날로 변성해지는 것이니, 해로운 변괴는 피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아, 중들이 우리 유림을 억압하고 있으니 이것은 석가의 도가 우리의 도를 압승할 조짐입니다. 때문에 신들이 모두 울분이 북받쳐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지경입니다. 지난해 견항(犬項)에서 호패를 나눠 줄 때에 신들이 충정(衷情)을 다하여 주상께 두세 번 호소하였지만 끝내 윤험을 받지 못했고, 안행량(安行梁)의 공사를 시작할 때에도 신들이 또 다시 호패를 발급히 주는 데 대한 폐단을 진술하여 상소를 세 번이나 올렸지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성상께서 중들을 비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권간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도리어 신들의 말을 잡된 의논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류들이 이를 갈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는 없는 일이나 성상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 중의 무리들은 유생들의 상소가 수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유도가 불도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 더욱 통분할 일입니다. 기왕의 잘못은 말할 것이 없지만, 미연의 기미를 살피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까. 지난날 호패를 발급한 폐단이 오늘날에 이러한 변란을 부르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도 경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수를 다루는 전옥(典獄)을 독

측하여 폭행을 저지른 중들을 논죄해서 극형에 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읍(下邑)에 분배하여 가두라 명하시니, 신들은 그들의 죄를 국문하여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그럽게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저 신록사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인데도 중들의 횡포가 저렇게 심한데, 더구나 먼 지방의 주군에 있어서야 금령도 헤이한 관에 무엇을 꺼려 난동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을 통렬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백주에 대도(大都)의 중심가에서 강탈·살인하는 변란이 일어난다 해도 끝내 막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은 또 들으니, 호남지방에서 포악스러운 중들이 떼지어 변란을 꾸미되, 간혹 어울려 싸우기도 하고 사부(士夫) 집 부녀자를 결박해가는 등 저돌적으로 날뛰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해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란이 혹심한데도 수령들은 앉아서 보기만 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인(士人)들은 울분을 품고 있으면서도 억울함을 밝혀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니, 이러한 것은 모두 호패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로서 책을 끼고 다니는 유생이라면 누군들 절치부심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진(敬震)이란 중은, 세자를 대신해서 사신(捨身)¹²⁾하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 사설(邪說)로 선동하고 어리석은 속인들에게 의혹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아, 부처에게 사시(捨施)함에 있어서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양 무제(梁武帝)의 사실을 전감(前鑑)으로 삼을 만합니다. 그런데 성명(聖明)께서 어릴 적부터 올바르게 키우신 세자가 어찌 양 무제가 비웃음 받던 일을 본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경진이란 자가 대사(代捨)의 명칭을 가탁하여 위로 성명(聖明)을 기망하고 아래로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현혹하는 짓일 것입니다.

또 보담(寶湛)이란 중이 있는데 스스로 권선(勸善)한답시고, 행세하면서 시중의 물화를 가져오게 꾀하는데 금수사라(錦繡紗羅)를 구하면 얻지 못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아무 물건은 내전(內殿)이

12) 사신(捨身) : 자기 몸의 희생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불법(佛法)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

보내주신 것이고 아무 물건은 동궁(東宮)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자랑하는데,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놀라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니, 그들이 어찌 성상께서 실지로 사시와 숭봉(崇奉)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두들 의혹스럽게 여기면서 ‘성상께서는 상지(上智)의 자질로도 불도를 숭상하여 믿으시는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길래 사신(捨身)하여 부처에게 시주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서로 머리깎고 가사입고 손가락을 태우고 목을 지지는 자들이 이로부터 점점 많아질 것이니, 저 두 종이 불도의 창도(唱道)가 되어 일국(一國)의 인민을 끌어다가 모두 부처에게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신들은 깊이 생각하건대 2명의 중을 빼지 않는다면 이들을 본받아 세속을 속이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니, 날마다 중 1백 명씩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금지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불도가 성할 조짐은 벌써 호패를 나눠 줄 때에 생겼고 우리 유도가 쇠할 기미가 오늘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신륵사의 적승(賊僧)과 호남의 난승(亂僧)을 철저히 신문하되 하읍(下邑)에서 완만하게 다스려서는 안 되고 도시(都市)에서 드러나게 처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진과 보담 두 중을 체포하라 명하여 그들이 임금을 속이고 속세를 기만한 정상을 국문하되, 서울에 데려다가 효수(梟首)하고 사방에 전시(傳示)하여 일국의 신민(臣民)들로 하여금 사시가 동궁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숭봉이 내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한다면 어찌 인심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몇몇 중들을 주벌하고 하군(下郡)에 칙령(勅命)을 내려 호패를 받은 중들을 다시 조사하여 그들의 호패를 환수(還收)한 다음 군액(軍額)에 올리고 나머지 중들도 순차적으로 올리되, 5~6년을 기한하여 숨어 있는 자들을 차근차근 적발해서 농사를 짓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찰을 헐어버리고 서적도 태워버려야 하는데 반드시 봉은사(奉恩寺)와 봉선사(奉先寺)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사찰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면 농민이 날로 많아지고

군액이 보충될 것이며, 갑자기 몰려 도적이 되는 걱정이 없게 되고 강상(綱常)을 저버리고 세속을 어지럽히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것이 신들이 성상께 바라는 것입니다.

신들은 사리에 어둡기 때문에 망령되어 이런 생각도 하여 봅니다. 성상께서 외면으로는 숭불(崇佛)의 명칭이 없으시지만 내심에는 숭불의 실정이 있는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정성으로 마음을 가지고 밝게 조짐을 살펴 단호하게 기미를 결정하소서. 그리고 사리(事理)를 재탁하되 대의에 질정하고, 은밀히 혼자 있을 때에 더욱 성념(聖念)을 가다듬으시어 구차히 자기(自欺)하는 짝이 없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물쭈물 구습에 구애되지 말고 깊이 뿌리박힌 폐단을 통쾌히 개혁한다면 오도(吾道)에 있어서도 매우 다행한 일이며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답하기를, “조정에서도 사찰을 헐어버리고 환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폐도독이 되어 그 해가 더 클 것이다. 설사 호패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지 않고 호패를 받지 않은 중들은 군액으로 정하였으니, 이것은 승도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 일이 간신들의 시대에 행해진 일이지는 하나,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호령을 반포하고서 변경한다면 또한 신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요사스러운 중이 내지(內旨)와 동궁의 대신(代身)이라고 사칭하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였으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통렬히 다스려야 하겠다. 신록사 중들을 경옥(京獄)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당초에 들으니 신록사의 승도가 30여 인이고 그 외의 사간(事干)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도성 안에 들어오는 중을 날마다 금하면서 도리어 도성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이상한 일인 듯하므로 지금 본도에서 추국하여 정죄하게 하였으니, 서울에서 추국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대체로 이 상소의 내용에 관계되는 말이 많으니, 대신들에게 보이고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윤은보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승도들이 무리지어 유생들을 구타해서 부상까지 입혔으니, 이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로 듣기에도 놀랄

일입니다. 기읍(畿邑)에서 추국하게 하는 것이 소홀하고 완만한 듯하니, 별도로 경관(京官)을 보내어 기일 내에 끝까지 추문하여 엄하게 국법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전라도의 두 중이 사기(邪氣)를 부리고 가칭하여 인심을 선동, 미혹시켰으니 죄범이 더욱 중합니다. 바라건대 급히 본도 감사에게 하유하여 즉시 잡아가두고 상세히 조사하여 치계(馳啓)하게 한 뒤에 율과(律科)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태학생도들의 상소 내용은 중들이 호패를 믿고 방자스러운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기 때문에 호패를 도로 빼앗고자 한 것이니, 이것은 실로 이단을 배척하고 오도를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승(役僧)들의 공로를 갚기 위하여 호패를 반급하였다가 1년이 넘은 지금 다시 수탈한다면 신의를 잃은 일인 듯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34(1539)년 5월 21일(무자)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은수를 윤만천과 면질시켰더니 은수가 윤만천을 가리키면서 ‘내가 바로 봉은사(奉恩寺)의 중 망덕(綱德)이다. 【망덕은 은수의 속명이다.】 봉은사에서 병을 얻은 사실을 너는 알고 있지?’ 하니, 만천이 ‘내가 일찍이 봉은사를 드나들었으므로 이 중은 틀림없이 내 이름을 듣고 내 얼굴도 보았겠지만 나는 그를 본 일이 없다.’ 하였고, 석정의 아버지는 ‘석정이 나이 12세에 출가하여 중이 되었는데 용문산(龍門山)에 머무르고 있다고 듣기만 하였지 전혀 왕래라곤 없었으므로 보지 못한 지가 오래이다.’ 하였습니다. 은수가 궁성을 넘어 들어와 여러 날을 숨어 있었던 정상을 추측하기 어려운데, 아직까지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 끝까지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초사에서 말한 석덕을 보고 싶어서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궁성을 넘어 들어와서 내인을 보아서 안 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끝까지 추문하여 실정을 얻어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였다.

중종34(1539)년 6월 3일(기해)

지난해 역사(役事) 때문에 이들을 모집하면서 호패(號牌)를 지급한 것은 이를 계기로 점차 다스려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패를 지급한 뒤로 흉도(凶徒)들이 더욱 성해져서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상소를 올려 먼저 봉선사(奉先寺)와 봉은사(奉恩寺)를 철거하여 그 뿌리를 뽑아버리자고 청하였지만 전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도(諸道)의 사찰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유지(有旨)를 내렸는데 경기와 전라도의 사찰만 철거한 뒤에는 더 시행하지 않고 폐기했으니, 이는 전하께서 불교를 배척함에 있어 글로만 보였을 뿐 성의가 없었던 탓입니다.

명종1(1546)년 1월 6일(갑자)

정원에 전교하였다. “의숙 공주(懿淑公主)¹³⁾의 재궁(齋宮)에서 삭망제(朔望祭)를 지내온 지 이미 오래인데, 근자에 출입하는 자가 한잡인(閑雜人)이 유명(儒名)을 가탁해 가지고 분집하여 작폐할 뿐만아니라고 하기에 어제 내관(內官)을 보내서 척간(擲奸)했더니 유생(儒生)이 많이 모여 장차 제사도 폐지하게 되어 매우 미안스럽게 될 지경이라 한다. 그러니 선왕 능침(先王陵寢)의 사찰(寺刹)¹⁴⁾ 규정에 의하여 유생으로 하여금 못가게 하고 만일 갔다가 탄로난 자가 있으면, 유생의 경우는 정거(停擧)¹⁵⁾하고 잡인의 경우는 치죄(治罪)한다고 거듭 밝히고 검찰(檢察)하도록 예조에 이르라.”

명종4(1549)년 9월 20일(병술)

요망한 중(衆) 보우(普雨)는 오도를 좀먹는 적(賊)입니다. 그는 원래 간사하고 교활한 바탕에다 문묵(文墨)의 기예(技藝)까지 곁들인 자로서 그가 내명(內命)으로 봉은사 주지(奉恩寺住持)가 되었을 때 퇴탁(退托)·겸양(謙讓)하여 의식적으로 손피(遜避)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주지가 되

13) 의숙공주(懿淑公主) : 하성위 공주(河城尉公主)를 말하며, 공주가 무후(無後)하자 중종 대왕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그 제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14) 선왕 능침(先王陵寢)의 사찰 : 광릉(光陵)의 봉선사(奉先寺)와 선릉(宣陵)의 봉은사(奉恩寺)를 말한다.

15) 정거(停擧) : 유생(儒生)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하나로서 어느 기간까지 과거응시를 정지시키는 일.

고 나서는 고절(苦節)을 닦는 체하며 겉으로 엄근(廉謹)한 척하였는데, 이는 바로 자기의 성가를 높여 총권(寵眷)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찌 인과술(因果術)과 화복설(禍福說)만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나 현혹시키고 말 뿐인 자이겠습니까? 왕법(王法)에 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고 오도로서도 단호히 물리쳐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전하의 마음은 좌도(左道)에 현혹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시고 전하의 정교(政敎)는 이교(異敎)와 혼동이 되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시니, 이것이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깊이 애석히 여기는 바입니다.

원류(源流)를 경계하지 않으면 말류(末流)를 막기가 어렵고 처음에 털끝만큼만 어긋나면 끝에 가서는 천리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올바르게 시작하여도 그 폐단이 오히려 사특해지는데, 시작부터 올바르게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의 폐단이 어떻겠습니까? 사전(寺田)이 한번 다시 주어짐으로 하여 부처를 숭상하는 조짐이 싹틔고 요사스런 중을 존경함으로 하여 부처를 숭상하는 실상이 이루어졌으며, 중들 때문에 유생에게 죄를 내림에 이르러서는 사기를 저상시키고 이교(異敎)를 진작하려는 자취가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날 머리를 길렀던 승도들이 오늘에 와서 다시 머리를 깎고, 선조(先祖) 때 휘철당했던 사찰들이 성조에 이르러 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상들이 논계하지 않고 대간이 간쟁하지 않는다면 저 관수(官守)도 언책(言責)도 없는 자들이야 그 누가 즐겨 귀에 거슬리는 말을 올려 뇌정(雷霆) 같은 위엄을 범하려 하겠습니까?

신들은 일개 포의(布衣)인 미미한 선비들로 국가 정책에 대하여 참여할 바는 아니나 충성심만은 미천한 저희들도 같습니다. 더구나 성균관에서 국가의 곡식을 먹고 있으면서 이단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고 입을 다문 채 함묵한다는 것은 마음에 차마 못할 일입니다. 송나라의 신하 범조우(范祖禹)가 ‘조종(祖宗)을 본받으려거든 인조(仁祖)를 본받아야 한다.’ 하였는데, 신들 역시 ‘조종을 본받으려거든 중종(中宗)을 본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중종께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해오신 일들을 살펴보면 이단을 물리친 것이 정책이었고 유술

(儒術)을 숭상한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신들이 범조우와 같은 미미한 충성으로 오늘날 전하께 바라는 것은, 다만 중중께서 유술을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쳤던 것을 본받아 달라는 것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요사스런 중의 목을 베고 광견한 유생의 죄를 용서하시며, 중을 감싸주는 마음을 옮겨 백성을 사랑하시고 부처를 받들던 정성을 돌려 선비를 배양하소서. 산에 있는 사찰은 모두 훼손하고 백성으로 중이 된 자는 중죄를 내리시며, 사사(寺社)에 다시 내려진 민전(民田)을 환수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백성과 오도에 그보다 다행한 일이 없을 것은 물론, 전하께서 도를 중히 여기시는 정성도 극진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을 삼가는 일과 정교를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도 이보다 다행스러움이 없을 것이며, 신들이 전번에 들었던 부처를 숭배하신다는 말은 한갓 헛소문으로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유생이 절에 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조종조에서 만든 법이지 내가 새로 만든 법이 아니다. 요즘 중의 무리들이 추잡하기 때문에 자전께서 능침을 적간(摘奸)하기 위하여 간혹 내관(內官)을 보내기도 하였던 것인데, 황언징이 능침에서 폐단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절의 물건까지 훔쳐갔기 때문에 자전께서 놀랍게 여기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부처를 숭배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또 봉은사 주지는 내전께서 능침을 위하여 이를 수호할 사람을 뽑은 것뿐인데 그것이 어찌 부처를 숭배하는 것이겠는가? 황언징은 사면할 수 없다. 그리고 죄 없는 중에게 어떻게 죄를 내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 뒤 5일간 잇달아 상소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명종4(1549)년 9월 30일(병신)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위에서는 부처를 숭상한 일이 별로 없다. 다만 자전께서 구례(舊禮)에 따라 선왕의 능침을 위하여 사리를 줌 아는 중을 택하여 수호하게 한 것뿐이다. 지금 유생을 가볍게 보고 중에게 현혹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남의 신하된 자도 마땅히 임금이 실제로 저지른 과

오를 논해야 할 것인데도 광동(狂童)의 상소만으로 임금의 뜻을 지레짐작 하여 나를 가리켜 부처를 숭상한다고 하니, 이는 바로 임금의 악을 드러내는 일이다.

자전께서는 보우가 사리를 알고 일도 살필 줄 안다 하여 능침을 지키게 한 것인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법사(法司)에서 그를 잡으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전의 전지에 의해 능침을 지키는 중에게 죄를 내릴 수는 없다. 어제 정언(正言) 강억(姜億)이 경연에서 ‘민간의 질고(疾苦)는 위에 다 진달되지 못하는데 승가(僧家)의 일들은 쉽게 진달되고 있다.’ 하였었는데, 당초 유생과 정원에 답할 적에 내관을 보내 능침을 적간(摘奸)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교한 바 있는데도 지금 이와 같이 아뢰니 이는 유생의 상소만 믿고 임금의 전교는 믿지 않은 것으로 이 역시 임금의 악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정인사(正因寺)의 일 때문에 유생을 정거(停擧)시킨 것이요, 보우는 봉은사에 있는 중으로 애당초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죄줄 수 있겠는가? 이 뜻을 대간에 이르라.”

명종5(1550)년 3월 15일(기묘)

지경연사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중 보우(普雨)는 극히 간사한 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등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굽니다. 형조가 강도를 추국할 때 승려가 받을 차지하였습니다. 만일 내수사가 금지 뜻말을 세워 중들을 비호한다면 한갓 이교(異敎)만 성하고 오도(吾道)는 쇠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못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적이 되어 해독이 백성에게 미칠까 걱정됩니다.” 하니,

자전이 전교하기를, “보우가 못사람을 현혹시킨다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다. 능침(陵寢)의 수호 사찰 가운데 봉은사(奉恩寺)는 다른 절과 같지 않아 봉공(奉供)하는 일이 매우 많다. 다투는 자가 많고 모함하여 해치기 때문에 위에서는 통분해 하는데, 조정에서도 남의 말에 현혹됨을 면치 못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명종5(1550)년 12월 15일(갑술)

선교 양종(禪敎兩宗)의 복립(復立)을 명하였다. 자전이 상진(尙震)에게

내린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양민(良民)의 수가 날로 줄어들어 군졸의 고통스러움이 지금보다 더한 때가 없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백성들이 4~5명의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군역(軍役)의 괴로움을 꺼려서 모두 도망하여 중이 되는데 이 때문에 승도(僧徒)는 날로 많아지고 군액(軍額)은 날로 줄어들니 매우 한심스럽다. 대체로 승도들 중에 통솔하는 이가 없으면 잡승(雜僧)을 금단하기가 어렵다. 조종조의 대전(大典)에 선종과 교종을 설립해 놓은 것은 불교를 숭상해서가 아니라 중이 되는 길을 막고자 함이었는데, 근래에 혁파했기 때문에 폐단을 막기가 어렵게 되었다. 봉은사(奉恩寺)와 봉선사(奉先寺)를 선종과 교종의 본산으로 삼아서 대전(大典)에 따라 대선취재조(大禪取才條) 및 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신명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상진이 회계하기를, “민정(民丁)으로서 군역을 도피하는 자들은 거의가 중이 됩니다. 오늘날 군액이 줄어드는 것이 모두가 이 때문이며 심지어 도둑으로 잡히는 자들 가운데 중이 그 반을 차지합니다. 만일 이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막기 어려운 걱정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봉은사 등의 중들이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는 망령되어 위에서 불교를 숭상하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중이 되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성상의 학문이 고명하니 어찌 이단(異端)을 숭신(崇信)하실 염려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망동(妄動)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제왕의 덕에 누가 됨은 이교를 숭신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신들이 만약 발론(發論)하여 《대전》에 따라 시행한다면 해가 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애당초 감히 계청(啓請)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명종5(1550)년 12월 16일(을해)

답하기를, “선종과 교종에 관한 일은, 불교를 숭상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경연에서의 의논이나 폐단을 진술하는 상소에서 모두들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드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군역을 꺼려서 백성들 중에 아들이 3~4명 있으면 태반이 중이 되기 때문이다.’ 하였는

데, 이 폐단을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자전께서 이 폐단을 없앨 생각을 하셨으나 다른 방법이 없기에 부득이 조종조의 법을 거듭 밝힌 것일 뿐이다. 중들이 통령(統領)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중이 되고 심지어는 도둑 중에 반 이상이 중인데, 통령을 두어서 《대전》에 따라 시행한다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중이 될 수 없게 되고 군졸도 조금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봉은사와 봉선사에 선종과 교종을 세운 것이다.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명종6(1551)년 1월 13일(신축)

상진(尙震)이 아뢰기를, “지난 12월에 상께서 적승(賊僧)이 늘어나는 것을 근심하셔서 양종을 다시 설치할 것을 하교하시고 이어 승지에게 명하셔서 대전(大典)에 의하여 시행할 일로 승전(承傳)을 받들었습니다. 신이 비록 놀라고 걱정하였지만 감히 박절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교(異敎)의 나쁜 점만 대략 열거하여 아뢰었는데, 그후에 믿을 수 없는 말이 전파되어 신이 불교를 숭상하도록 권장하는 뜻이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신이 평소에 하고자 한 것이 악에는 이르지 않으려는 것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그러한 악명(惡名)을 얻게 되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함께 뒤섞여서 한동안 멍하니 말을 잊었습니다.

아뢴 바에 잘못이나 없었는가 하고 두려워서 계사(啓辭)를 등사해다가 보니 ‘양정(良丁)으로서 군역(軍役)을 도피하는 자 중에는 중이 된 자가 무수히 많으니 현재 군액(軍額)이 축소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체포된 강도 가운데 중이 반이나 되니 만약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구제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봉은사(奉恩寺)의 중들이 【당시에 보우(普雨)가 주지(住持)로 있었다.】 은총을 입는다는 말을 듣고는 경망하게도 상께서 불교를 숭상하신다 억측하고 중이 되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나, 성상의 학문이 날로 고명(高明)해지고 있는데 어찌 이교를 숭상하여 믿을 우려가 있겠는가.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의 망령된 행동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제왕의 덕에 누가 되는 것은 이교를 숭상해서 받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신들이 만약 의논을 제기하여 《대전》에 의해 시행한다면 아마도 해가 있을 듯하였기 때문에 애당초 감히 계청(啓請)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회계(回啓)의 말입니다.

신은 사심(私心)이 없을 수 없으므로 이 말이 반드시 이교를 권장하는데 관계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대신의 계사(啓辭)는 대간처럼 곧바로 배척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날 회계할 때에 ‘이단(異端)을 전공하면 해가 될 뿐이다.’ 라고 한 해(害)자를 취하여 작은 한 충정으로 풍간(諷諫)한 것이요, 불교를 권장할 뜻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더구나 신은 여러 재상들과 중의 일을 언급할 때마다 의리상 마땅히 힘써 간쟁해야 한다고 하였었는데, 하교(下敎)를 받들기에 이르러서는 번복하며 권장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불길을 잡듯이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주듯이 극력히 말하고 과감하게 간(諫)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상을 인도하는 도리에 어두운 것이며 올바르게 구제하는 의리를 잃은 것이므로 비록 면직(免職)이나 견책(譴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의 죄를 징계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구차하게 임금을 기쁘게 하고 영합, 승순하는 것은 신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즈음 차자(筮子) 중에는 신의 허물을 많이 지적하고 있으니 【상진(尙震)이 어떤 일로 대궐에 갔었다. 그날 양종(兩宗)에 대한 명이 있었으나 극력 간쟁(諫諍)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대신이 올바르게 구제하는 도리가 아니라고들 여겼기 때문에 그를 그르다고 한 것이다.】 신이 장차 무슨 낮으로 백관(百官)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호령을 행사하며 명기(名器)를 욱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신이 무릅쓰고 앉아있기 어려움을 특별히 가엾게 여겨서 신의 직(職)을 속히 갈아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인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남의 말로 인하여 사직할 수는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명종6(1551)년 4월 13일(신미)

전교하기를, “봉은사(奉恩寺)는 성종 대왕의 능침을 수호하는 절로 보

우(普雨)가 직무를 능히 감당할 만하다고 여겼으므로 주지로 삼았다. 그 경연에서나 상소·차자 가운데 이를 말한 자가 많고 소수 서원(紹修書院) 유생들의 상소에 ‘전하께서는 보우를 높이고 자전은 불교를 숭상함으로써 풍년들게 하려고 한다.’ 하였으나 이것은 모두 근거없는 말이다. 봉은사의 주지는 중들이 다 경쟁하는 것이어서 많은 유언(流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만약 그 말을 믿고 죄준다면 뒷폐단이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간사한 사람의 술책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는 함경 어사(咸鏡御史) 왕희걸(王希傑)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하교(下教)한 것이다.

명종6(1551)년 4월 15일(계유)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왕희걸의 서계를 보니 보우의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역적 이유의 실정을 알면서도 그를 위하여 숨겨주고 심지어는 재를 올려 기도까지 하였으니 혈기가 있다면 통분해 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사의 서계를 금부에 내려 추국 치죄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보우의 일은 자전(慈殿)께서 이미 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봉은사(奉恩寺)가 근래 허술하므로 자전께서 명석한 중을 골라 수호하게 하셨는데 다른 중이 이를 시기하여 못하는 것이 없다. 그를 해치려는 술책을 분명히 알면서 어찌 추국하겠는가.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명종6(1551)년 6월 25일(임오)

특명으로 보우(普雨)를 관선종사 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 봉은사 주지(奉恩寺住持)로, 수진(守眞)을 관교종사 도대사(判教宗事都大師) 봉선사 주지(奉先寺住持)로 삼았다.

명종6(1551)년 6월 28일(을유)

헌부가 아뢰기를, “양종의 금단 사목(禁斷事目)에 공·사천(公私賤)·재인(才人)·백정(白丁)만을 들고 향리·역자(驛子)와 관속(官屬)으로 군역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급(言及)하지 않았는데, 아울러 사목에 넣어서 똑같이 금단하게 하소서. 교만 방종하여 경망한 행동을 하는 자를 다

만 양종으로 하여금 금단하게 한다면 양종의 이목(耳目)이 외방(外方)에 까지 두루 미치지 못할 것이니 아울러 수령에게도 금단하게 하소서. 깊은 산중에 도망해 숨게 되면 비록 스스로 나쁜 짓을 할지라도 발각하여 치죄하기 어려우니 진고 치죄(陳告治罪)의 사목을 설치하게 하소서. 대전속록(大典續錄) 안에 ‘군액(軍額)이 불어날 동안은 중에게 도첩(度牒)을 주지 말라.’ 고 한 법조문을 거듭 밝혀 중에게 도첩을 발부하지 말게 하소서. 위에서 양종을 다시 설치한 것은 오로지 승폐(僧弊)를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중의 기율(紀律)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양종을 폐지한 지 오래되어서 저들이 필시 그 예모를 모를 것이니 전과 같이 예절을 살피 하라는 것을 양종에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교하셨는데 신들은 그 이른바 예라고 한 것이 어떤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내버려둔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만약 도문(都門)을 드나들게 하고 또다시 예절을 다스리게 한다면 전일 하교하신 뜻이 아니어서 신민(臣民)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또 보우의 흉악하고 간사하고 무상한 작태는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며 오랫동안 봉은사(奉恩寺)에 있으면서 그가 주상을 속이고 사(私)를 행한 것도 또한 이미 심합니다. 전번에 조정에서 바야흐로 그의 죄를 논하고 있었는데도 거만하고 방자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만하고 패려하여 【바야흐로 논계(論啓)하고 있을 때에 보우가 시를 짓기를 ‘구름이 오고 가는 것 하늘이 어찌 관계하랴.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 나는 알지 못한다[雲來雲去天何管 人是人非我不知]’ 라고 하였다.】 못하는 말이 없었으니 한 시대를 멸시하고 조정을 내려다 봄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죄주어 내쫓아야 마땅하건만 죄주지 않고 도리어 승도의 영수를 삼아 명호(名號)를 더해주고 작첩(爵牒)을 높혀주며 인장(印章)까지 주어 총애하여 특별한 대우를 하시니, 승도들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본받게 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사방에 보여 한 세상을 권면할 것이 아닙니다. 신들은 한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명호를 삭제하고 능침(陵寢)의 절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양종의 중들도 또한 전일 하교한 금승(禁僧)의 예에 따라 도성안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승인(僧人)의 금단 사목을 첨입(添入)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교만 방종하여 경망하게 행동하는 자는 양종이 금단해야 한다. 만약 아울러 수령에게 금단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간사한 아전들의 무궁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고칠 수 없다. 진고 치죄는 비록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또한 인심이 교사(巧詐)하여 도리어 폐단이 생길까 염려되므로 그 무리를 시켜 죄과(罪過) 있는 자는 고관(告官)하게 하거나 혹은 양종이 다스리게 하였다.

중에게 도첩을 주지 말라고 한 일은 지금 중에게 도첩을 주는 법을 폐지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혼잡될 폐단이 있다. 도첩을 받은 중이외는 마땅히 일체 찾아내어 군역으로 정할 것이니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은 없다. 전과 같이 예모를 살피라고 양종에게 타이른 뜻은 양종의 법이 폐해진 지 이미 오래되어 승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자세히 살펴서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나이가 많고 일을 잘 아는 자에게서 전습(傳習)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보우의 일은 어찌 다 이 중이 자작(自作)한 것이겠는가. 또 이 중은 본래 스스로 두려워하여 이 임무를 맡고자 하지 않았는데, 다만 자전께서 조종의 능침을 위하여 수호(守護)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주지를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거취(去就)하지 못한 것이다. 양종의 중을 도성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일은, 간혹 공무로 예조(禮曹)에 왕래할 뿐이고, 이 밖에는 달리 출입할 일이 없으니 반드시 따로 법조(法條)를 세워야 할 것은 없다.” 하였다.

명종7(1552)년 1월 28일(신해)

호조(戶曹)의 사찰 위전(寺刹位田)을 감생(減省)하는 공사(公事)에 대해 정원에 전교하였다. “사찰 위전이 다른 곳에는 없고 오직 봉선사(奉先寺)·봉은사(奉恩寺)·정인사(正因寺)에만 있는데, 그것 또한 많지 않다. 이는 곧 선왕의 능침(陵寢)이니 그대로 제공하라.”

명종7(1552)년 9월 2일(신사)

이조 판서 송세형이 아뢰기를, “유생(儒生)의 과거(科擧)는 식년(式年)이면 강(講)에 응시하는 자가 3백여 명에 합격자(入格者)는 불과 30~40 명이고, 별과(別科)의 경우에는 강에 응시하는 자가 6백여 명에 합격자는 역시 30~40명에 불과해도 아직껏 지나치게 엄격하고 소략하게 뽑는다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도들의 시경(試經)에는 자주 와언(訛言)이 비등하여 위로 뇌정(雷霆)의 위엄을 격노시켰으니,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선교(禪敎)의 시경에서 예관(禮官)이 삼분의 일을 뽑았으니, 3백~6백 명에서 30~40명만 뽑는 것에 비하면 과람합니다. 40년 동안 경문(經文) 외는 것을 폐했다가 1년 안에 억지로 익히니 어떻게 밝게 이해하여 익히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숫자가 많지 않음은 필연적인 형세인 것이지, 예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승도들의 영수(領袖)는 보우(普雨)인데, 그는 봉은사(奉恩寺) 기신재(忌晨齋) 때 쓰는 어좌(御座)의 방석을 가져다가 사실(私室)에서 공공연하게 쓰고 있으니, 그 본심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도승하는 일을 쟁론하면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우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없으니, 그의 권세가 무겁다는 것을 미루어 알 만합니다. 고려 말기에 혜근(惠勤)¹⁶⁾이란 중이 있어 임금의 꿈을 가장 후하게 받았는데 그의 권세가 중해지자 공민왕(恭愍王)같은 혼주(昏主)도 오히려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고 밀성(密城)으로 내쳤습니다. 위에서는 보우의 소행을 살피어 그런 조짐을 막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간절한 경의 마음이 매우 아름답다. 다만 예관이 엄격하게 시험보인 후부터 시험을 원하는 자가 전혀 오지 않으니 도첩을 지급하는 본의가 어디 있는가? 이 또한 따르지 않는 뜻이다.” 하였다.

16) 혜근(惠勤) : 고려 공민왕 때의 승려로 호는 나옹(懶翁). 고려 말기 선종(禪宗)의 고승(高僧)으로 조선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명종7(1552)년 9월 12일(신묘)

정원에 전교하기를, “보우의 일에 대해 조정에서 온갖 방법으로 아뢰다가 마침내 반역(叛逆)으로 말하니, 매우 놀랍고 한편으로는 가소롭다. 반드시 간사한 술책을 부리는 사람이 보우를 모함하고자 하여 헛된 말을 조작한 것이지, 어찌 조정에서 다 목격한 일이겠는가? 자전께서도 봉은사(奉恩寺)는 다른 능침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시니 반드시 지킬만한 사람을 가려 지키게 하신 것이다. 이 뜻을 정원은 알라.” 하였다.

명종8(1553)년 6월 2일(정축)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번에 승인(僧人) 일관(一觀)의 정소(呈訴)【보우(普雨)가 방자하게 행동하는 소장(訴狀)을 헌부에 올렸기 때문에 헌부가 입계하였다.】를 보니 자기에게 절실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수승(首僧)을 나무라고 헐뜯어 정소까지 하였고 또한 내가 불교를 숭상한다고 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대체로 근래에 승도(僧徒)들이 기강이 없고 균역을 피하여 도적이 된 자들이 마음대로 머리를 깎았으므로, 당초에 양종(兩宗)을 다시 세울 때 꺼리는 완악한 승도들이 심히 많았다. 봉은사(奉恩寺)는 모든 절의 수찰(首刹)이라서 보우가 지음(持音)이 되자 해치려고 피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모든 사찰의 지음을 차출할 때 보우가 뇌물을 함부로 받아 위를 속였다고 하였지만 주지와 지음은 모두 예조의 수교(受教)에 의할 뿐이다. 근래에 승인 일순(一純)이란 자도 그 수승 성조(性照)를 헐뜯고 비방하니 이것은 모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본받은 것이다. 헌부가 간사한 승인의 말을 듣고 공사(公事)로 만든 것도 옳지 않은데 벌써 금부에게 추고하게 하였으니 이 공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한 성조의 옥사(獄事)는 지체될 폐단이 있으니 원고와 피고의 송사가 갖추어질 동안 우선 보방(保放)하라.”

명종8(1553)년 10월 23일(병신)

신의 생각에는 사대부들의 공사 반인(公私伴人)과 선상 조례(選上皂隸)의 납포(納布)를 모두 거두어들여 궁궐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고, 봉은

사(奉恩寺)·봉선사(奉先寺) 등 여러 절의 공양미를 모두 거두어들여 수리하는 인부의 식량으로 하며, 의정부·내수사의 차량과 마부를 모두 추려내어 수리에 쓰는 물자를 수송하게 하고, 도성 안의 공경 대부 및 사민(士民)의 집에 쌓아둔 재목과 기와를 모두 수집하여 수리하는 데 사용하며, 내수사에 속한 경외 노비(京外奴婢)의 공포(貢布)와 전답의 미곡을 도감(都監)에 수납하여 수리하는 자본으로 쓰게 하고 대소 각사 관원들은 점심을 각자 준비하게 하고 각사의 노비를 모두 도감에 보내어 수리하는 인부로 쓰며, 각 고을로 하여금 승려의 시경 도목(試經都目)¹⁷⁾을 상고하여 해당되는 인원수에 준하여 압송하게 하여 미포(米布)를 배급하여 이들을 수리하는 인부로 쓰며, 수리 공사가 끝날 때까지 경외의 공사간의 연회와 소소한 영조(營造)를 일체 금지하소서. 그러면 아마도 큰일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종10(1555)년 4월 23일(정해)

형조가 아뢰기를, “봉은사(奉恩寺)에서 작폐를 부리고서 유생(儒生) 이원손(李元孫)이라고 칭한 자는 학적(學籍)에 들어 있지 않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자전께서 내관(內官)을 보내 다시 물어보니, 곧 조방주(趙邦柱)의 아들로 아명(兒名)이 막종(莫從)인데 남부(南部) 명례방(明禮坊)에 산다고 했다. 비밀히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명종10(1555)년 4월 28일(임진)

대사간 이몽량(李夢亮)이 아뢰기를, “조인(趙禔)은 명색이 유생인데 절에 들어갔다고 해서 죄를 입게 되었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혹 광패하여 작폐를 부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비밀히 잡아 가두게 했으니, 이것이 어찌 왕자(王者)의 광명 정대한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은사(奉恩寺)는 다른 절과 같지 않고 곧 선왕(先王)의 능침사(陵寢寺)이다. 무뢰배가 드나드는 것이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가두도록 명한

17) 시경 도목(試經都目) : 중이 된 자는 석 달 안에 선종(禪宗) 또는 교종(教宗)에 고하여 불경[佛經 : 심경(心經)·금강경(金剛經)·살달타(薩怛陁)] 암송 시험을 보고 합격자를 예조에 통보하면 계문한 다음 정전(丁錢)을 거두고 도첩(度牒)을 준다. 불경 암송 시험을 시경(試經)이라 하는데 시경 도목이란 시경한 문서를 말한다.

것이다.” 하였다.

명종11(1556)년 6월 9일(병신)

헌부가 아뢰기를, “국가의 농토에는 모두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법이요, 사원에 납부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호조에서 이것을 되돌려 찾은 것은 국사(國事)에 합당합니다. 하물며 호조의 별사전(別賜田) 안(案)을 상고하니 봉선사(奉先寺) 아래에 ‘전결(田結) 사십자(四十字)’를 범연히 적어 놓았을 뿐이고 그 아래에 또 ‘수륙(水陸) 십자(十字)’가 있으니, 이른바 사십자란 것이 거승위전(居僧位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봉선(奉先)과 봉은(奉恩)은 모두 바로 능침(陵寢)의 사찰인데, 봉은사 밑에는 수륙위(水陸位)와 거승위(居僧位)를 적어 놓고 봉선사 아래에는 수륙위는 있으나 따로 거승위가 없으니, 저 사십자가 거승위임은 더욱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가령 저 사십자를 능침사의 위세(位稅)라고 한다면, 봉선사와 봉은사는 다같이 선왕의 능침사인데 봉선사는 그것이 있고 봉은사는 그것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만일 ‘십자(十字)의 세로는 수륙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봉은사는 유독 십자로 비용을 삼게 하고 봉선사는 진작 십자세가 있는데도 다시 무엇 때문에 사십자를 붙여주는 것입니까. 이로써 본다면 이른바 사십자라는 것은 과연 거승위가 아닙니까? 상께서 이른바 능침사 위전이라고 하신 것은 억지로 맞추려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백관의 직전은 진작 없어졌는데 거승의 위세는 그대로 있으며, 육경으로 있는 사람들은 황공히 죄를 기다리는데 승려들은 기뻐 날뛰며 서로 축하하니 매우 성덕에 누가 됩니다. 더구나 수륙의 시식에 관한 하교를 공공연히 조정에서 발표하시니 어떻게 온 나라에서 불교를 받들어 믿는다는 의심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십자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나라의 비용에 보태소서.” 하니

답하기를, “봉선사는 바로 능침사이다. 비록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수륙의 시식은 능침사를 설립한 후 전례에 따라 해온 일이다. 이것이 양종에 관계된 것인지는 해마다의 진성(陳省)¹⁸⁾을 상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오래 아뢰자 1년의 세(稅)를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명종11(1556)년 9월 4일(기미)

집의 김귀영(金貴榮)이 아뢰었다. “임호신의 처 최씨가 상언하여 호신을 그 선영(先塋) 곁에 장사지낼 수 있게 해줄 것을 청하였는데, 사찰의 금표 안에 있다고 하여 그 안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 가운데 국가에 죄를 짓거나 조상에게 죄를 지으면 그 조상의 분묘 곁에 매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혹 있기도 했지만, 이제 호신은 그 조상 때부터 벼슬하여 재상이 되었고 4~5대에 걸쳐 다 이 곳에 매장되었으며, 호신도 역시 여러 조정에 계속 벼슬하여 현능한 것으로 탁용되어 지위가 2품에 이르렀는데, 하루 아침에 죽자 족장(族葬)하던 곳에 장사지낼 수 없게 되었으니, 죽은 자가 만약 많이 있다면 어두운 지하에서 어찌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회암사는 근래에야 특별히 금표를 세운 곳이어서 봉선사(奉先寺)·봉은사(奉恩寺)에 비교할 곳이 아닙니다. 그 일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호신을 사사로이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명종11(1556) 9월 16일(신미)

간원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유생으로 봉은사(奉恩寺)에 갔던 자를 결장(決杖)하라는 명(命)을 내렸을 때 신료(臣僚)들이 옳지 않다고 간쟁하였으나 상의 뜻을 돌이키지 못하여 여망(輿望)을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중학(中學)의 유생 임언근(任彦謹) 등이 또 봉은사에 유숙했다는 것으로 추고받았으니, 한 사람을 결장한 일이 밝고 환한 정치에 누를 끼침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형조는 그릇된 옥사를 공평하고 마땅하게 처리하는 것은 힘쓰지 않고 도리어 상의 뜻을 받드는 것만을 앞세워, 명이 내린 그날로 다시 아뢰지도 않고 서둘러 결장하여 언관들로 하여금 미처 논계할 수 없게 하

18) 진성(陳省) : 지방 관아에서 상부 관사(官司)에 보내는 물품 명세서나, 또는 백성들이 관청에 낸 청원이나 진정서를 말한다.

였습니다. 또 정원은 그 명을 출납할 즈음에 잘못을 바로잡는 말 한마디 없었으니, 임금을 사랑하는 도리가 진실로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신들이 중학(中學)에 물으니, 최엄(崔崦) 【이에 앞서 강에서 놀이하다가 봉은사에 투숙하였는데, 중사(中使)의 적간(摘奸)에 의해 체포되었다.】은 본래 무업(武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학적(學籍)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형조가 추국할 때에는 마땅히 무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분변해야 하는데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범범하게 유생으로 결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상이 유생에게 매를 쳤다고 여기게 하였으니, 그 흐리멍덩하여 일을 살피지 못한 것이 심합니다. 형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절에 가서 함부로 행동하는 무리들은 비록 이름은 유생이라 하지만 다 무뢰배들이다. 능침사(陵寢寺)에서 작폐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자의 죄를 어찌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명종11(1556)년 9월 17일(임신)

정원이 아뢰기를, “중학(中學) 유생들이 봉은사에 유숙한 일에 대해 상께서 한 사람에게 결장(決杖)을 명하여 사림(士林)을 실망시켰는데, 신들은 그 일을 출납할 때에 바로잡아 아뢰지 않음으로써 왕명의 출납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의리를 그르쳐 간원의 논박이 있게 하였습니다.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많아 지극히 황공하므로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바로잡아 아뢰릴 일이 아니니 정원의 잘못이 아니다.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명종14(1559)년 2월 9일(신해)

산량(山梁)으로 말하자면, 도미(渡迷)와 월계(月溪) 【모두 지명(地名)이다.】는 경기 백성들이 뺨감을 베는 곳이고 삼전도(三田渡) 【나루터 이름이다.】와 그 너머쪽 정금원평(鄭今院坪) 【지명이다.】은 조종조에서 열무(閱武)하던 곳으로 주민들이 풀을 베어 마소의 먹이를 마련했었는데, 선교양종(禪敎兩宗)이 다시 설치된 뒤로 봉은사(奉恩寺)가 수사지(受賜地)라 자칭하고 금표(禁標)를 세워 백성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어느 절 앞에 있는 천량(川梁)은, 이전부터 주민들이 고기를 잡아 먹었는데 지금은 중들이, 재궁(齋宮) 가까이 있다 하여, 역시 금표를 세우고 고기잡이를 금합니다. 예부터 어찌 중들이 고기잡이를 금한 때가 있었겠습니까.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이 같은 작폐에 대해 어리석은 백성들은 중간의 농간인 줄을 알지 못하고, 혹 위에서 명하신 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 일들이 비록 사소한 것 같으나 정사를 해치는 데는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명종14(1559)년 2월 17일(기미)

정월에 전교하였다. “내가 요사이 경연에서 지평 유승선의 계사(啓辭)를 듣건대, 해변(海邊)의 이생지에 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폐단을 논한 말은 과연 지당하다. 법사(法司)는 들은 대로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라. 제군(諸君)에게 하사한 어전(魚箭)은 지난 계축년에 대간의 주청에 따라, 선왕조에서 사급(賜給)한 곳 이외에는 다 속공시켰는데, 전번에 호조의 공사(公事)를 보니 호조가 세 군데를 잘못 지급했기에 이미 속공시키라고 명하였다. 봉은사 시장(柴場)은 양종(兩宗)이 다시 세워진 뒤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능침사(陵寢寺)가 건립된 이래 있었던 것이다. 내수사를 시켜 이를 적간해 보건대, 주민이 절의 시장을 점유하고는 도리어 양종이 설치된 뒤에 주민의 것을 탈취했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헛소문이다. 정금원평은 본시 공지(公地)이다. 중들이 어찌 주민이 나무하는 것을 금할 리가 있겠는가. 이 또한 헛소문이다. 강원도 어느 절에서 주민의 고기잡이를 금한다는 일은 내가 모르는 바이다. 이 같은 일들은 가까운 시일에 의당 조사해야 할 일이므로 언급하는 바이니, 정원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라.”

명종14(1559)년 2월 17일(기미)

지평 유승선이 아뢰기를, “신이 전날 경연에서 산량 천택에 대해 아뢰었는데, 삼가 전교를 보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봉은사 시장은, 신의 처(妻)의 고향이 곧 원주(原州) 땅이어서 신이 유생일 때부터 양근(楊根)·월계(月溪)를 거쳐 오고갈 때마다 매번 길가에 긴 풋말을 세우고

거기에 ‘봉은사 시장(奉恩寺柴場)’ 이라고 써둔 것을 보아 왔는데, 갑인년에 신이 강원도 도사가 되어 왕래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고기잡이를 금하는 건은, 강릉부(江陵府) 서쪽에 오대산(五臺山)이 있고 산 아래에 내[川]가 있는데, 신이 그 도의 도사로 있을 때 마침 구황의 명을 받고 편복 차림으로 순행하다가 우연히 해가 저물어 월정사에 투숙하였더니, 절 아래 긴 꽃말 위에 ‘금렵(禁獵)’ 이라 쓰여 있기에 신이 이상히 여기고 물어 보니, 야로(野老)들이 ‘이 내는 근처 주민이 이전부터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중들이 절 안에 비린내가 풍길까 염려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직접 본 사실입니다. 정금원평 초장(草場)은, 삼전도 주민 두서너 명이 와서 말하기를 ‘봉은사가 정사년 이래 해마다 풀을 베어 오면서 그곳 주민에게는 일체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말이 산량 천택에 미쳐 우연히 계달하였는데, 지금 정원에 내린 전교를 받들고 다시 생각해 보니, 직접 본 일이 5~6년 전이었고 직접 들은 말은 눈으로 본 일이 아닙니다. 또 시장은 능침사가 건립된 이래 있었던 것인데, 양종이 다시 설치된 뒤에 범연히 주달하여, 일이 전파된 헛소문을 듣고 아된 것처럼 되어 상의 전교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그대로 언관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허탄한 일을 규찰할 수 없습니다. 속히 신의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간이 일에 대해 보고 들은 바로써 아뢰면, 나는 의당 시비를 자세히 살핀다. 지금 능침사의 시장이 양종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생겼다고 범연히 아뢰기에, 내가 그 오래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강원도의 사승(寺僧)이 금렵하는 것은 내가 그곳을 알지 못하다가 지금 알았는데, 이것도 예부터 금렵해 오던 것을 주민들이 신설된 것으로 여긴 것일 것이다. 정금원평의 풀베는 일은, 사노(寺奴)를 추문하니, 누구나 다 풀을 벨 수 있는 곳인데 어느 누가 공지(公地)를 금하겠느냐고 하였다. 이는 다 헛소문에 불과한 일이다. 다만 이 뜻을 정원에 알렸을 뿐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명종15(1560)년 5월 30일(을미)

호조가 아뢰기를, “봉은사(奉恩寺) 소속에 수록위(水陸位)와 거승위(居僧位)가 있는데 구안(舊案) 안에는 분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내수사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그 절의 첩보에 의거하여 거승위도 함께 수록위로 계하하였는데 수록위는 벌써 대조를 끝내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거승위의 대조를 끝내지 않은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봉은사는 능침(陵寢)을 수호하는 절이다. 거승위는 양종을 다시 세우기 전에 조종조에서부터 제공한 것이니 그대로 제공하라.” 하였다.

명종18(1563)년 3월 15일(계사)

헌부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3전이 배릉하실 때 중 의운(義雲)이 몰래 좌측 산등성이의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숨어 엿드려 엿본 것은 심히 놀라운 일로서, 보고 들은 자가 모두 통분해 하니 극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는데 단지 장형(杖刑)하여 내치라고 명하셨으니 장차 어떻게 그 무리들로 하여금 두려워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형추(刑推)하여 엄히 다스려서 물정의 분해하는 것을 시원하게 풀어주소서. 또 승도들을 통솔하는 책임은 판사승(判事僧)에게 있으니 봉은사(奉恩寺)의 판사승을 형조로 하여금 데려다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게 하소서. 또 우사대장(右射隊將) 이승인(李承仁)은 그에게 소속된 곳은 한잡인(閑雜人)이라도 숨어서 내려다볼 수 없게 해야 하는데, 더구나 의복을 달리하는 중의 무리가 몰래 들어와 숨었는데도 호위하는 장수로서 명칭하니 알지 못하여 해괴한 일이 있게 하였으니 그 죄는 군령을 범한 것입니다. 금부에 내려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의운은 먼 시골에 있는 우둔한 중으로 경망하게도 스스로 숨어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잘못 들어온 것이니 다른 잘못과는 같지 않으며, 결장(決杖)하여 내치는 것도 완전히 석방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범한 죄는 금수의 무리와 같은 것인데 어찌 굳이 형추하여 엄히 다스려야 하겠는가. 선종(禪宗)의 판사승이 비록 승도를 거느린다지만 이같이 우둔

한 중까지 어찌 다 검찰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잘못이 아니니 추문하여 다스릴 수 없다. 승인은 이미 추고하도록 하였으니 하옥(下獄)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명종20(1565)년 4월 26일(임진)

전교하기를, “산릉(山陵)을 심정(審定)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니 진실로 십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신정릉(新靖陵)이 비록 ‘산소의 허술한 곳에 신불(神佛)의 임목(林木)이 보비(補裨)하는 것을 길상(吉祥)으로 삼고 있다.’ 고는 하나, 외강(外江)이 약간 보여서 보토(補土)하는 공역(工役)이 있으며 봉은사(奉恩寺)가 또한 너무 가까우니, 내 생각으로는 온당치 못하다. 또 명종17(1562)년 중묘(中廟)의 능을 천장(遷葬)한 뒤로 나라에 좋은 일이 없었고, 3년 안에 두 번이나 경통(驚慟)의 변고가 있었으니, 선릉(宣陵)의 산이 구정릉(舊靖陵)보다 특별히 나은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미 지난일은 뉘우쳐도 도움이 없으니, 당초 자세히 살펴서 정하느니만 못하다. 지금 속히 제산(諸山)에 다시 가서 두루 찾아 정밀히 가려서 계(晷啓)한 뒤에 다시 의정(議定)하되 지리를 아는 조관(朝官)을 아울러 거느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13(1580)년 5월 18일(병술)

형조의 계목(啓目)에 이르기를, “병조 정랑 이양중(李養中), 종부정(宗簿正) 류영길(柳永吉)이 기녀와 악공을 잔뜩 거느리고 봉은사(奉恩寺)에 투숙하였으니 선왕 능침의 경내가 음란한 오락 장소로 되었습니다. 죄가 태 오십(答五十)인데 속(贖)하고 현직은 해임하여 별서(別敍)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아뢰어 파직하다. 이는 선릉 참봉(宣陵參奉)이 예조에 첩정(牒呈)하였기 때문이다.

선수14(1581)년 2월 1일(을미)

삼공과 육경에게 명하여 정릉(靖陵)을 간심(看審)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명묘조(明廟朝) 때 요승 보우(普雨)가 오랜 동안 봉은사(奉恩寺)의 주지로 있으면서 중종(中宗)의 능침을 사찰 주변으로 옮길 것을 청하여

사찰의 위세를 높이려 하였다. 이리하여 문정 왕후(文定王后)에게 선릉(宣陵) 근처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속여 능침을 그곳으로 옮길 것을 청하자 문정 왕후는 자못 그의 말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윤원형이 자전(慈殿)의 뜻을 맞추기 위해 대신들을 위협으로 견제하자 대신 안현(安珪) 등은 위세에 놀려 감히 거역하지 못하였다. 정릉은 전 대비(大妃) 윤씨(尹氏)의 희릉(禧陵)과 같은 골짜기에 있었는데, 원형이 먼저 왕릉을 옮기고 문정 왕후가 승하하면 한자리에 장사지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문정 왕후가 더욱 현혹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왕릉을 옮겼으나 지세가 낮은 곳이었으므로 흙을 쌓아 높이는 공역에 드는 비용만도 거만금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강물이 불어 넘치면 재실에까지 물이 차올랐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비분을 금치 못하였다. 문정 왕후의 상례 때에는 다른 산에 장지를 정하여 썼다. 물의가 모두 왕릉을 옮기려고 하였으나 재차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형세를 간심하게 하였다. 이에 회계하기를, “강물이 차오르는 지점에서 혈도(穴道)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물결에 부딪치거나 패일 염려가 없으니, 흙과 돌로 낮은 곳만을 증축하고 재실은 높고 건조한 지대에 옮겨 짓는 것이 편찮을 듯 싶습니다.” 하였는데, 따랐다.

효종3(1652)년 4월 18일(기미)

순안 현령(順安縣令) 김진중(金晉宗)을 충원(忠原)에 유배하였다. 처음에 역적 인조의 후궁 조(趙)씨와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金世龍) 등이 경산(京山)¹⁹⁾의 중과 은밀히 결탁하여 사사로이 금백(金帛)과 주패(珠貝)를 주어 불상(佛像)을 만들어 상을 저주하였는데, 역적 조가 복주될 때 그 일이 발각되었다. 일찍이 서로 모의했던 역적인 중 법행(法行)과 보상(普尙) 등이 잇달아 처형되었는데, 연류된 자가 상당히 많아 급히 서둘러 잡아들이자 가까운 절에 있던 중들이 모두 도망가 숨으니 조정에서 지방에 명을 내려 유인하여 잡아들이게 하였다. 순안 현령 김진중이 그 경내에서 변복을 하고 구걸을 하는 인섬(印暹)이라는 승려 한 사람을 관아로 잡아

19) 경산(京山) : 서울 부근에 있는 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는데, 경산에 있는 봉은사(奉恩寺)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였다. 김진중이 속이는 말로 묻기를, “그대가 경산에 있을 때에 부처를 만든 일이 있는가?” 하니, 인섬이 답하기를, “지난 해에 불상 하나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효종8(1657)년 12월 13일(신사)

송준길이 아뢰기를, “장횡거(張橫渠)와 주자(朱子)도 초년에는 모두 선학(禪學)에 빠졌다가 끝내 뉘우치고 우리 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현인의 자질로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근래 듣건대, 봉은사(奉恩寺)에 우리 조정 열성들의 위판이 봉안되어 있는데, 재(齋)를 지낼 때에 불상(佛像)을 남면으로 설치하고 열성의 위판을 북면으로 설치해 재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는 치지도외하고 문책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일이니, 속히 처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 매우 놀랄 만하다. 해조로 하여금 정결한 곳에 위판을 묻어 안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현종2(1661)년 1월 5일(을묘)

임금이 이르기를, “궁중에 오래 전에 늙은 박 상궁(朴尙宮)이란 자가 있었는데, 선조 때 은혜를 받은 후궁이었다. 늙어 의탁할 곳이 없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자수원(慈壽院)에 나가 살기 수십 년이었는데 수년 전에 이미 죽었고 지금은 살고 있는 자가 없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도성 내의 두 이원의 혁파를 명하고 40세 이하의 비구니는 모두 환속시켜 출가(出嫁)하게 하고, 그 나머지 늙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자들은 모두 도성 밖 이원으로 내보냈으며, 나이가 넘은 사람도 환속하려는 자는 허락하라고 하였다. 또 예관에게 명하여 자수원에 가서 열성(列聖)의 위판을 모셔 내다 봉은사(奉恩寺)의 예에 따라 바로 정결한 곳에 파묻게 하였다.

현종2(1661)년 2월 12일(임진)

임금이 민간이 굶주리고 있는 정상을 물으니, 준길이 대답하기를, “관

찰사가 청하는 일들은 거의 다 저지당하는데, 귀로 듣는 말은 직접 보는 것만 못합니다. 관찰사가 청하는 일은 조정에서 한결같이 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또 중종조 고사에 따라 어사를 파견하여 진구를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필 것을 청하고, 양 이원(尼院)을 혁파한 것을 하례하였으며, 자수원(慈壽院)의 옛터에 북학(北學)을 창건하고, 헐어낸 목재와 기와는 봉은사(奉恩寺)에 주지 말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정조6(1782)년 6월 2일(정묘)

신은 듣건대 순회 세자(順懷世子)의 신위(神位)가 아직도 봉은사(奉恩寺)의 한 칸 방에 봉안되어 있는데, 매양 기일(忌日)이나 명절(名節)을 당하면 치곤(緇髡)들이 제향을 지낸다고 합니다. 당초 이 절에다 이 신위를 봉안하게 된 경로가 매우 의아스럽고도 괴이합니다. 세상에서는 혹 그 묘(墓)가 있는 것을 인하여 원당(願堂)²⁰⁾을 세우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미 묘의 곁이 아니니 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미 원당이 아니라면 향사(享祀)를 지내는 것이 또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예전 대로 보존되어 있으니, 실로 설만스러운 폐단이 있습니다. 의당 파거(罷去)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원(園)의 뜻은 능(陵)의 버금이고 묘(墓)보다는 중한 것입니다.

2.6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효종9(1658)년 2월 22일(기축)

權大運, 以禮曹言啓曰, 上年冬本曹啓辭, 因贊善宋浚吉所啓, 以大臣收議奉恩寺奉安列聖位版, 令該曹, 埋安於淨潔處, 他寺亦有如此之事, 則竝爲一體施行事. 傳曰, 依議施行事, 判下, 奉恩寺奉安位版, 發遣本曹郎廳, 淨潔處埋安. 他寺亦有位版與否, 移文各道, 查問後一體施行, 何如? 埋安, 則更待解氷後爲之可也事, 傳教矣. 各道文報, 時未齊到, 而今已解氷, 依前傳教,

20) 원당(願堂) : 죽은 사람의 화상(畫像)이나 위패(位牌)를 모셔두고 명복(冥福)을 빌어 주는 법당(法堂).

奉恩寺位版，爲先發遣郎廳，埋安，何如？傳曰，允。

효종9(1658)년 4월 28일(갑오)

禮曹啓曰，上年冬，因贊善宋浚吉所啓，以大臣收議，奉恩寺奉安列聖位版，令該曹埋安於淨潔處，他寺如有如此之事，則竝爲一體施行事。傳曰，依議施行事，判下。故奉恩寺奉安位版，則發遣郎廳，淨潔處已爲埋安，他寺亦有位版與否，入啓蒙允。移文各道，使之一體施行矣。今見各道所報，則京畿楊州奉先寺，高陽大慈正因寺，江原道春川清平寺，高城榆岾寺，咸鏡道安邊釋王寺，亦皆有列聖位版云。依奉恩寺例，發本曹郎廳，埋安於淨潔處，何如？傳曰，後日登對時，稟處。

효종9(1658)년 6월 10일(병자)

頃日因筵臣所啓，奉恩寺所奉列聖位版，特遣禮官，埋安於淨處，仍令諸道，訪問啓達矣。前月臣南九萬，奉安洪川時，路過春川，聞本府清平寺，方爲奉安中·仁·明三廟位版云。當初朝家分付，不啻丁寧，而至今廢閣，不爲舉行者，極可驚駭。請令該曹，更問本道道臣，覈其緣由，以爲論罪之地。卽遣禮官，埋安位版於淨處，一如奉恩寺之例。

효종9(1658)년 6월 14일(경진)

院啓，請亟寢喬桐罪人放還之命。措語見上清平寺奉安中·仁·明三廟位版，誠極未安，故臣等連日論啓矣。昨承下批，以非本道所失之意，旣已言之爲教，臣實未曉聖意之所在也。奉恩寺埋安位版之後，仍令諸道訪問啓下，而至今廢閣不爲舉行者，極可驚駭。請加三思，亟令該曹，更問本道道臣，覈其緣由，以爲論罪之地，卽遣禮官，埋安位版於淨處，一如奉恩寺之例。司諫李性恒，引嫌而退。

현종2(1661)년 1월 6일(병진)

問議于大臣，則領議政鄭太和，左議政沈之源，右議政元斗杓以爲，所謂位版，出於二字缺輩之私造，不可視之以國家祀典尊奉之例，而旣書列聖廟號，亦難毀棄於不潔之所，故前日奉恩寺位版處置時，使之埋安於寺後之山，此卽宣·靖陵火所之內，初非擇就陵內也。今此尼院，雖是城中，俱在近山之處，

各於其山上淨地埋安，似爲無妨，伏惟上裁。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議施行。

현종2(1661)년 2월 12일(임진)

上曰，言于廟堂，更爲思量，稟處。又所啓，臣在鄉聞之，有撤去城中尼院，僧尼竝勒歸俗之舉，遠近聞者，孰不爲快？臣曾聞兩院中一處，乃北學故基，今若復設北學於其處，則朱子所謂毀僧寺作書堂，一舉兩得者，政謂此也，而似聞以某司所啓，尼院材木，給於奉恩寺云，是甚不可矣。上曰，兩院材木，勿爲毀給慈壽院，仍設北學可也。

숙종원(1675)년 6월 23일(경진)

天安郡，有奉恩寺位田十八餘結，而寺奴金愛仁者，告於內需司，自內司折受於明安公主房，發遣道掌，打量實數，則天安郡守金世泌，一從愛仁及道掌之言，打量之際，不加究覈，混錄民田。

숙종15(1689)년 8월 29일(임진)

禮曹啓曰，卽接靖陵參奉牒報，則本陵火巢內，奉恩寺，今月二十七日夜間，忽然失火，法堂及僧房竝數百餘間，盡爲灰燼云。本寺在陵所咫尺之地，而數百餘間之僧舍，延燒於一夜之間，則爛焰之所及，屋瓦之所撼，不無震驚陵寢之慮，慰安祭，不卜日，來初一日設行，而曾在己酉年，恭·順兩陵間巖外山麓，僧舍失火，本曹有發遣郎廳，摘奸書啓之舉，今亦依前例發〈遣〉郎廳，左右山麓樹木延燒與否，使之詳察書啓，何如？傳曰，允。

영조18(1742)년 6월 16일(계묘)

在魯曰，瓊玉膏製進，既有下教，當速爲劑入。而自前御藥，每製於南漢矣，近聞南漢城中，癘疫大熾，無一寺乾淨之處。北漢雖云高絕，而癘氣孔慘，死亡相繼。奉恩寺則本來淺近，非人跡隔遠處，而亦有不淨之報。此甚難處矣。上曰，南北漢旣如此，則無寧製於關中深僻處爲淨潔耶？在魯曰，此則好矣。而事係變通，以此爲難矣。

영조26(1750)년 7월 23일(계해)

左議政金若魯曰，春初，因湖南御史金致仁所啓，諸道佛寺之爲京各司及各

處願堂之類，查問革罷事傳教，故分付諸道矣。諸道查報，今始來到，稱以諸宮房·京各司及宗班士夫家願堂者夥然，而各邑鄉校·書院·鄉廳所屬願堂，亦多有之，誠甚怪駭。各道成冊中，楊州奉先寺·寶光寺·興國寺·內院菴·及佛菴·妙寂寺·奉仁菴，廣州收鍾寺·奉恩寺·奉新寺·鶴菴寺，楊根金谷菴，驪州報恩寺，果川花藏寺，昌平龍興寺，遂安佛覺寺，鳳山東林寺，永興地興寺等，佛寺之屬於陵墓者，事體自別，不當舉論，此則仍前置之。此外各處所屬稱以願堂者，一併禁斷，勿令侵及僧徒，禁革後形止，牒報本司之意，分付諸道，何如？上曰，依爲之。

영조28(1752)년 4월 1일(임진)

右承旨權一衡曰，此則不難知矣。德宗子成宗兄，而子孫言內，未定嗣位之前，月山去全羅道入深山寺刹，成宗定位後，始還來云矣。益炆曰，卽今如奉恩寺，四時名節，皆爲施食云矣。上曰，然則無可考事。注書不爲出去，可也。

영조30(1754)년 4월 24일(계묘)

禮判洪象漢曰，臣於今番園所奉審時，高嶺寺僧徒等齊訴，以爲前禮曹判書李益炆，以聖教，依奉恩寺例，當劃給位田之意，分付於渠等矣，尙無劃給之事，不勝渴望云。此事誠怪矣。伊時果有聖教，則宜有奉承傳之事，而考諸本曹則無之，重臣亦必不錯傳，而僧徒之所訴如此，事甚如何，敢此仰達矣。上曰，其時一依奉恩寺·奉先寺例爲之事下教，今者呼訴是矣，令該曹考例舉行。因此而有下教者。懿昭墓在京城咫尺之地，其護尤重，而只有守衛官，有十餘僧徒，一體給若干位田，其令着實守護，可也。

영조30(1754)년 윤4월 25일(갑술)

戶曹判書李喆輔曰，高嶺寺·懿昭墓齋宮，依奉先寺·奉恩寺例，劃給事，命下矣。臣曹固當舉行，而取考前例，則兩寺位田，皆以內司久遠田結給之，元無元結劃給之事矣。上曰，然乎？兩寺位田，各幾結耶？喆輔曰，奉恩寺位田，則爲六十四結零，奉先寺位田，則爲四十結零矣。元結旣無劃給之例，則令僧徒，望呈量外加耕處，而自臣曹劃給，似好矣。上曰，旣非元結，則以量

外加耕，令僧徒望呈，而高嶺寺則以三十五結爲限，懿昭墓則以二十五結爲限而給之，宜矣。

영조31(1755)년 2월 13일(정사)

京畿御史李基德曰，臣自其處，仍往宣·靖兩陵，則尚未始役，冶匠方始開壚，而廣州則雜物皆自當，只藁草分定矣。工匠料米，以儲置米運給，而兼監役官，謂以米不精，終始拈退不受，故米石積置於奉恩寺軒上，色吏留滯難堪，以爲此是工匠輩從中欲受賂之故也。納情債外，無他策，工匠之作弊，到處皆然，且工匠輩，只以糧米，分給僧人，使之供饋，而許多日許多人，雖鹽醬，所入甚多，奉恩寺僧徒，昔則百餘人，而今只飭十餘人，此後亦不知過幾日，不勝支當，怨聲徹天，誠可矜憐矣。

영조33(1757)년 2월 2일(갑자)

上曰，奉恩寺折受遂安田，令度支嚴飭本邑，卽爲依打量出給。

영조33(1757)년 10월 8일(정묘)

上曰，江上御史，卽南泰著耶？奉恩寺弊，亦除之矣。景海曰，然矣。

영조34(1758)년 10월 23일(병자)

上曰，九年則，九寺盡爲修補，誠好矣。以奉恩寺觀之，自內需司，造給勸善文，然後寺宇日新，僧徒多聚云，僧力蓋難矣。象漢曰，今因奉恩寺下教，臣亦有可達之事矣。砥平龍門寺，自是國朝名刹也。賜給位田三十結，故僧徒富盛矣。位田盡爲土豪所占，僧徒不能收稅，一敗塗地，今則只有七八僧，而寺刹漸有頽圯云，宜有申餘之道矣。

영조34(1758)년 10월 29일(임오)

侍讀官元義孫曰，顧見則當保存矣。上曰，以奉恩寺觀之，蓋僧之力難矣。命書傳教曰，儒臣自關東來，故除義僧之後，欲知外方寺刹僧徒之能支撐，問之，金城·淮陽接界，故楡站·表訓·長安等寺，國初屬之內司，使之斗護者，而凋殘忒甚云。昨年奉恩寺，已下教，僧徒亦民也，此豈國初斗護之意哉？內司，惟捧進上，莫知斗護，不能舉職，前後尙管中官時存之人，竝從重推考。此必由於遊客侵僧之弊，申飭道臣守令，另加斗護而勸入焉。

영조36(1760)년 3월 5일(경술)

戶曹判書洪鳳漢曰, 僧軍中奉恩寺則旣赴役矣。稱各寺僧云者, 又是何寺也, 鳳漢曰, 門外諸小寺矣。上曰, 昨日使承傳色賞給諸僧, 而諸僧咸願加役一日云, 此誠意外矣。

영조36(1760)년 4월 26일(경자)

上曰, 奉恩寺, 今聞猶有尙不重建者云, 內需當該次知中官, 從重推考, 其令卽爲顧助。

영조38(1762)년 5월 24일(정사)

上曰, 頃者御史中, 有除弊奉恩寺者, 誰也? 御史嚴璘曰, 南泰著也。

영조40(1764)년 6월 24일(갑진)

以承傳色口傳下教曰, 奉先寺曾已申飭, 近者雜人若前云, 令禮曹, 分付本官, 日後此等之人, 自本州嚴處。以此觀之, 諸刹可知, 奉恩寺·奉國寺·輔光寺·奉仁寺·奉元寺, 一體申飭。輔光寺東室, 辛丑年八月, 卽予留宿矣。今方重建云, 本官儲置米二十石顧助之意, 令禮曹, 一體分付楊州牧。

영조46(1770)년 1월 27일(을사)

且於禁異端事, 有廓然大覺者, 聖教至矣而默默者, 雖不可論, 柳廷顯外, 皆請因循, 奉恩寺亦此類, 而今有此故。近有奉國寺, 此亦雖不敢論, 依聖教當自我始, 此後非古刹而有欲創陵寢至近者, 陵官報禮曹嚴禁, 循顏私而有助成者, 當該陵官, 隨現永錮其身事, 奉承傳施行。

정조6(1782)년 5월 4일(경자)

領議政徐命善曰, 臣聞巫女或往來城中云, 令京兆分付各部, 另加禁飭, 宜矣。上曰, 巫女雖已逐出江外, 其所往來, 如奉恩寺竄猫, 卽爲還渡, 終難痛禁矣。

정조6(1782)년 6월 2일(정묘)

國家祀享, 五世乃祧, 至於世子之廟, 其禮隨此而可以推之矣。是以向者昭顯廟, 旣命撤其神位, 罷其廟亨, 則況乃處非其所, 祀又不經者, 尤何暇論哉?

臣伏聞順懷世子之神位，尚奉於奉恩寺之一間屋，每當忌日·名節，緇髡輩爲之行祀，此雖與廟亨有異，而當初此寺之奉此神位，極可疑怪。

정조12(1788)년 9월 7일(을축)

又命書傳教曰，誕彌舊甲，御極舊甲，重廻於是歲，祇謁行祀，感慕采深，況丙午乙巳，孝陵·康陵，或愴故事，或當周甲，皆有拔例賞典，靖陵陵官竝陞六，宣陵陵官竝陞敘，守僕以下守護軍，京事知守僕等，皆令該曹，考例施賞，奉恩寺僧徒，亦令該曹，參考各年前例，從厚例亦爲施賞事，分付。

정조21(1797)년 5월 25일(갑자)

以廣州留守徐有隣狀啓，奉恩寺田畝之歸於中間糜費者，屬之本寺，以爲收稅之地，奴婢往復釐正事判付內，依狀請施行事，回諭，而該曹係是內需司，亦爲分付，此後更有一毫侵漁之端，則內需寺官吏當嚴治，以此意，分付爲良如教。

순조9(1809)년 1월 10일(경오)

崇義殿祭器，三年一次自廚院下送，永爲定式，安城洪宇遠私院，卽令毀撤，奉恩寺所奉順懷世子祠宇，令該府摘奸重修，誠寧大君夫人成氏，安平大君仲冕後，不得附祀，請命禮曹，許令附祀事也。

순조14(1814)년 4월 8일(기사)

又以禮曹言啓曰，卽接宣陵·靖陵官員所報，則兩陵祭享時，造泡香盤等節，以局內奉恩寺舉行，而本寺，卽明宗朝創建降仙殿，奉安順懷世子位版，一年六祭享，亦自本寺舉行，其爲所重，非比尋常寺刹，挽近以來，僧力凋殘，弊端層生，成樣無路，依他陵寢造泡寺例，以全羅道咸平龍川寺定給屬寺，俾爲支保之地云矣，奉恩寺，非但兩陵寢造泡舉行之寺，且有所重，而年前以本寺顧恤之舉，已登於繡啓，尚今未遑，如是凋殘，則顧護之方，尤爲自別，各陵寢泡寺定給屬寺，已多其例，依所報定屬，仍除營邑諸般僧役，使之專意舉行事，分付本道道臣，何如？傳曰，允。

고종13(1876)년 9월 30일(정해)

임금이 이르기를, “와서는 어디에 머물면서 서계(書啓)를 수정하였는

가?” 하니, 흥대중이 아뢰기를, “광주(廣州) 땅 봉은사(奉恩寺)에 와서 머물면서 계본을 수정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동안 5개월이 지난 뒤에 들어왔구나.” 하였다.

고종15(1878)년 3월 12일(임술)

임금이 이르기를, “서계는 어디서 수정하였는가?” 하니, 이승고가 아뢰기를, “광주(廣州) 봉은사(奉恩寺)에 당도해서 수정하였습니다.” 하였다.

고종22(1885)년 9월 21일(병진)

임금이 이르기를, “근기(近畿) 지역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니, 심상학이 아뢰기를, “먼저 용인(龍仁) 땅에 이르러 며칠 머물고, 방향을 바꾸어 봉은사(奉恩寺)로 가서 계문(啓文)을 지은 뒤에, 어제야 비로소 남대문 밖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였다.

고종22(1885)년 9월 22일(정사)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에는 어느 곳에서 머물렀으며, 머물러 있는 기간은 며칠이나 되는가?” 하니, 이만교가 아뢰기를, “광주(廣州) 땅에 있는 봉은사(奉恩寺)에서 머물렀으며, 거기에 머무른 날 수는 열흘입니다.” 하였다.

2.7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영조32년 丙子正月十二日

畿內各寺中, 陵·園守護, 事體自別, 彌陀寺·奉獻寺·奉先寺·奉恩寺·奉仁寺·高嶺寺·奉元寺等七寺段, 防番錢分排時, 永勿舉論爲白齊,

영조34년 戊寅十月二十九日

傳曰, 儒臣自關東來, 故除義僧之後, 欲知外方寺刹僧徒之能支撐問之, 金城·淮陽接界, 故檢站·表訓·長安等寺, 國初, 屬之內司, 使之斗護者, 而凋殘忒甚云, 昨年, 奉恩寺, 已下教, 僧徒亦民也, 此豈國初斗護之意哉, 內司惟捧進上, 莫知斗護, 不能舉職, 前後句管中官時存之人, 竝從重推考, 此必

由於遊客侵漁之弊，申飭道臣守令，另加斗護而勸入焉。

순조9년 己巳正月初十日

崇義殿祭器，三年一次，自廚院下送，永爲定式，安城洪宇遠私院，卽令毀撤，奉恩寺所奉順懷世子祠宇，令該府摘奸，重修，誠寧大君夫人成氏，安平大君伸冕後，不得附祀，請命禮曹，許令附祀事也，崇義殿祭器，令該院三年一次，隨邑報準數下送，洪宇遠私院，令本道卽爲毀撤，順懷世子祠宇，使本府奉審修補，誠寧大君夫人附祀，令該曹稟處。

2.8 각사등록 근대편(各司謄錄 近代編)

제 목 봉은사 주지의 賜牌田畝 면세 요청과 처분

문서번호 奉恩寺主持僧 海翁等 白活

발 송 일 乙未三月初一日(1895년 3월 1일)

발 송 자 [奉恩寺](#)主持僧 海翁等

云云 本寺在於宣陵靖陵兩寢局內 祭享造泡寺也 以賜牌田畝 楊根六結 交河六結 始興三結 陽城二結 振威三十負 秋收一年舉行而免稅矣 自昨出稅 莫重享事 無以支奉 依龍珠寺例 特爲頃下之地。

題 龍珠寺位土 亦不許頃向事。

[奉恩寺](#)主持僧 海翁等 乙未三月初一日

2.9 국내외항일운동서(國內外抗日運動書)

문서철명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10冊
사상에 關한 정보철 제10책

문서제목 共鳴萬和團이라 칭하는 容疑鮮人에 關한 件

문서번호 京東警高秘 제3106호

발 송 자 京城 東大門警察署長

발 송 일 1930년 10월 08일

수 신 자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등

수 신 일 1930년 10월 09일

이름 : 沈龍出(沈圭煥, 沈宋燮), 朴善弼, 柳文岩, 沈東燮, 沈相烈, 沈翼澤,
金元一, 沈昌燮, 趙聖遠

지명 : 聞慶, 仁川, 開城, 槐山, 水原, 시흥, 과천, 廣州, 奉恩寺, 上海, 淸
섬(蘆島), 昌信洞, 馬山旅館, 仁寺洞, 青松沈氏大同譜所, 京城驛,
延白, 金川, 京義線, 鷄井驛, 天安, 永成旅館, 利川, 長湖院

단체 : 共鳴萬和團, 大同物産株式會社

사건 : 共鳴萬和團員 募集, 軍資金募集

문서철명 經濟情報(京畿道, 昭和 15年 4月 ~ 5月)
경제정보(경기도, 소화 15년 4월 ~ 5월)

문서제목 經濟統制에 관한 懇談會 開催狀況 報告에 관한 건

문서번호 京經秘 제410호

발 송 자 京畿道 警察部長

발 송 일 1940년 04월 16일

수 신 자 警務局長 등

수 신 일 1940년 04월 17일

지명 : 京城府 米倉町 金千代會館, 鍾路 一丁目 金融組合, 富川郡 素砂面
事務所,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 始興郡 南面 面事務所, 京城府 楊坪町教
會, 始興郡 東面 面事務所, 開豊郡 嶺北面 月吉里 玉山洞 振興集會所, 開
豊郡 南面 修隔里 集會所, 開豊郡 西面 開城里集會所, 始興郡 君子面事務
所, 仁川府 山手町 仁川商工會議所, 開豊郡 西面 光井里 振興會所, 驪州
郡 驪州面事務所, 金浦郡 霞城面 面事務所, 金浦郡 月串面事務所, 開豊郡
南面 昌陵里 集會所, 水原邑 公會堂, 京城府 本町 三中井百貨店, 龍仁郡
遠三面 沙岩里, 平澤邑 平澤穀物會館, 開豊郡 中西面 煙霞里 集會所, 開
豊郡 北面 龍峴里 集會所, 江華郡 良道面 造山里 簡易學校

단체 : 金浦警察署, 本町警察署, 鍾路警察署, 仁川警察署, 江華警察署, 開城警察署, 廣州警察署, 永登浦警察署, 驪州警察署, 驪州警察署 加南駐在所, 金浦警察署 霞城駐在所, 金浦警察署 月串駐在所, 水原警察署, 龍仁警察署, 吉祥公立小學校, 京城百貨店協會, 平澤警察署, 安城警察署

사건 : 經濟統制에 관한懇談會 開催

기타 : 經濟統制

3. 명문(銘文)

비석(碑石)이나 기물(器物)에 새겨진 글을 말하며, 청동기의 명문은 금문(金文), 비석의 명은 비명(碑銘)이라고 한다. 중국 상(商), 주(周) 시대의 청동기는 주조명(鑄造銘)이 대부분이며, 전국(戰國)시대 이후에는 각명(刻銘)이 많아졌다. 불상에는 조상명(造像銘)이 있으며, 목각(木刻)과 목조 건축에는 묵서명(墨書銘)이 있다.

3.1 비문(碑文)

3.1.1 영세불망비문(永世不忘碑文)

개화기에 쇄국정책의 화신이었던 흥선대원군이 봉은사와 큰 인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흥선대원군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²¹⁾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興宣大院位永世不忘碑

上之七年庚午六月 住持虎峰建 恩寺賜牒 仙田位畚 混入農圃 事訟有年 今焉歸正 唯雲峴賜 鑄石頌恩 垂千萬祀

흥선대원군영세불망비

왕실에서 받은 봉은사 소유 땅의 일부가 그 주변 농토와 섞여 지주들과 여러 해에 걸쳐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흥선대원군께서 문제된 토지를 봉은사에 돌려주게 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그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주지 호봉이 고종7(1870)년 6월에 세우다..



영세불망비

3.1.2 봉은사 사적비문(奉恩寺 事蹟碑文)

朝鮮禪宗甲刹大本山京畿道廣州郡修道山奉恩寺事蹟碑銘并書

21)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 은혜를 기리며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세운 비석.

竊惟 達磨東來之前 少林之窟 晦名於天下 六祖男
渡之後 曹溪之山 顯稱於世間 向使少林無九載面壁
之聖 而曹溪無六葉傳芳之賢 則彼二山者 卽不過尋
常丘壑而已矣 安得以載典籍 而播人口哉 信乎 人
傑而地靈也 今奉恩寺 在京城巽隅 漢江之南 修道
之場 距京洛纔一由旬 山水之美 道路之便 爲近畿
之第一 而跨轄十郡之境 屬寺凡八十零 計僧爲八百
餘 昔時之爲禪宗首刹 現代之爲本山一數 固其所也
謹按三國遺事 往在新羅 高僧緣會 隱居靈鷲 誦蓮
華經 修普賢行 忽有數朶菡萏 自生庭中 四時不枯



봉은사적비

元聖大王 聞而異之 徵拜國師 初欲逃名 終乃受詔 大王恒切道念 尤勤法護
國師宣揚佛法 贊化王道 歎龜木之奇緣 偕魚水之至歡 寔千載而一遇者也 先
是 神文大王 得海中神竹爲笛 以聲教利天下 名曰萬波息笛 傳爲歷代重寶 元
聖王之考孝讓角干 得以私藏 傳之於王 王得此寶 以爲遠輝君德 實由厚荷天
恩 圖報一念 念念不忘 十年辛未七月 漢山州人 獻白鳥 乃起望恩樓於宮西
奉恩寺於漢南 使緣會主持 此其創始之緒也 厥後 革世三代 法流末運 兵燹累
侵 水火交攻 文獻盡爲杞宋 故其興替污隆 莫得而詳也 但故其可攷者 自李氏
之定鼎于漢陽 懲前朝諂佞之失 信諸生排斥之議 合宗減田 停科刷牒 無所不
至 洎乎明宗大王 幼冲踐阼 文定王后 垂簾聽政 心懷正信 志切中興 悟前政
之過酷 下深宮之備忘 廣求八域之道僧 有以虛應應之者 虛應禪師法諱普雨
亦號懶庵 蓋當時之豪桀 而善知識也 離幻禪師 嘗著其文集 跋有曰 大師生吾
東方偏小之域 有得乎百世不傳之緒 而今之學者 賴之而得其所歸 使斯道 終
不泯絕 微斯人 靈嶽風流 少林曲子 幾乎息矣 觀於此言 則加以想見其爲人矣
自麟蹄雪嶽之百潭 應詔而至 拜都大禪師判禪宗師 令住本寺 遂以本寺 爲禪
宗首刹 先復已刷之度牒 仍舉旣停之僧科 遷兩陵而爲願堂 置營建都監 而重勅
之 殿宇寮舍 比前宏傑 冠於諸刹 仁祖丙子 胡寇圍南韓之日 又遭兵火之毒焰
有禪和大禪者 發願矢志 謨復舊觀 時則碧岳禪師 募義僧三千 號曰降魔軍 爰
自湖南 間關赴難 靖難之後 仍董南漢城役 留錫本寺 故相興協力 用成厥功

顯宗六年乙巳 鬱攸再煽 叢林盡灰 集衆輪議 鳩再衆營 事鉅力纖 中道未畢
肅宗十八年壬申四月 鸞賀行啓 奉審陵域 垂覽寺形 特賜錢帛 俾完役事 今之
所存舉皆其時所建云 現住持晴湖禪師 屬姓羅氏 法字學密 以高宗十二年乙亥
正月二十六日 生于高陽之蠡島 距本寺只隔一江 信佛教已是累世 父諱允天
每歲元春李日 必往鐵原郡 寶蓋山深源寺之石臺庵 發願祈禱者 十有八年 母
元氏 夢見異僧而娠焉 十二歲 相自見之曰 早不出家 久難住世 父念前功 母
憶曩夢 翻然割愛 携往襄州之五臺山明珠寺 托月運海天禪師剃髮 十五始得度
因就講肆 學習經教 二十三受具足戒 二十四入祖師室 以太古爲十八代祖 於
清虛爲十二世孫 開堂講經 以接來者 德風遠飛 戶屢常滿 三十六忽有省 辭請
益之衆 發足上京 以全鮮佛教爲己任 與晦光師璿 玄庵炳奕 大運日馨諸師 發
起圓宗宗務院 建築覺皇教堂 多所獻勞 儼爲重鎮 三十八爲本寺住持 法宇之
頹者修 滲者補 僧伽之散者集 頑者化 不幾年 寺爲之一新 而衆爲之和合 且
測附近荒蕪之地數十町步 作爲寺有 使山下之民 起而墾之 所獲踰二百石 又
取山林三十三町 得認可而作寺有 毀無用之建物 汰冗雜之濫費 經濟以潤 道
場而整 居者無湫隘之苦 觀者有暢豁之快 此爲沿革之大略 而若夫文定王后下
賜之玉版梅 至今惜 考試之僧科坪二萬五千餘坪 名稱依然 西山大師 睿得錢
塘梅盆 以名其堂 堂雖圯而址則存 松雲大師之願佛 與琉璃盞 皆尚保無恙 而
虛應之後 相繼而爲判事者 有若清虛 四溟 碧巖諸師 代不乏人 何其盛哉 至
若往年乙丑 霖雨彌朔 五月二十有六七兩日 洪水大作 漢江懷襄 蠶室 新川
浮島 船里 四村之民 或攀樹 或升屋 聲聲叫苦 刻刻瀕爲 晴湖禪師 乃董寺衆
損寺財 募舡船而救者 凡七百八人 聞其義者 作不壞碑而讚之 蒙其澤者 雕不
忘碑而頌之 一藏于寺 一立於塗 兩碑屹然 相爲表裏 實千古之所稀聞 乃萬口
之所共道者也 又何其韙哉 初創之國師 逃名而名不泯 現代之住持 有功而功
不伐 中間諸德 皆道尊一世 名傳千秋 而全國之禪宗寺刹 莫不名實俱喪 然獨
是寺也 不墜焉 皆可銘也 銘曰 三國統一 尸羅始大 民物富庶 由道之泰 爰及
元聖 師事緣會 法力是仰 贊化是賴 玉笛嫋嫋 白鳥翩翩 報恩一念 毋忘顛沛
寺建漢離 樓起宮兌 範金爲像 膠彩而績 額曰奉恩 江表之最 崇極而圯 天演
淘汰 代革世衰 火猛兵獗 歲績以千 幾見狼狽 懶庵出世 法度峩峩 運否魔強

旋遭讒害 夫何災荐 火山衆起 禪華碧岳 相繼而起 一甲未半 遽見再燬 力微
 難爲 停役而竣 陵行有日 天聽在咫 俾完厥事 傾以內序 緊維晴湖 如來之使
 三學旣密 深藏不市 有麝當風 終不可度 來作住持 野闢廩峙 昏衢作燭 狂瀾
 作艤 道絕親踈 德被遐邇 火待十家 水拯千指 碑播萬口 史輝億祀 漢江水涸
 修道山陟 無相功德 不可窮已 世尊應化二千九百五十九年壬申八月立

住持 羅晴湖 監務 姜性仁 法務 金性琬 監事 朴心月 書記 金明七

山中秩

申永澤 嚴應虛 崔泰植 權恩湖 孫東湖 李璉洙 李普仁 崔璟彥 申元成 曹度應
 金泰洽 金正煥 金瑢泰 曹彥祐 羅炳基 崔應華 朴大應 曹永鎬 趙海峯 申禪皓
 徐慶淳 朴大成

3.1.3 수해구제공덕비문 (水害救濟功德碑文)

大本山奉恩寺住持羅晴湖大禪師水害救濟功德碑

乙丑七月 洪水懷襄 船浮蠶室 變桑而滄 七百八人 呼號
 蒼黃 我師慈濟 功不可忘 大正十四年乙丑七月 大洪水
 罹災民救濟功勞者

監務 姜性仁 監事 朴心月 法務 金性琬 書記 張璟敏

申永澤 李普仁 李成祐

朴大應 曹彥祐 申禪皓 崔泰植 申元成 金正煥 曹永鎬
 徐慶淳

佛紀二九五六昭和四年己巳四月十六日

樹碑發起人 廣州高陽水害罹災民代表 船里 李俊植 浮里 許董 李周元 蠶室
 里 金成得 新長里 金舜基 退耕 權相老 頌 惺堂 金敦熙 書



라칭호선사공덕비

3.1.4 헌답기념비문 (獻畝記念碑文)

清信士 晚惺 原州金公昌禧 清信女 正覺華 海州吳氏春惠 土地獻納紀念碑銘
 曰 財產用殖 福因修得 世多不識 以守爲職 維德旣植 有報必食 視此銘刻 滿
 人可則

(陰記)

廣州郡 彦州面 盤浦里 五七八 畝五六六坪 廣州郡 彦州面 盤浦里 六十一
畝一六二坪 廣州郡 彦州面 盤浦里 三百三 畝三二坪 廣州郡 彦州面 盤浦里
五百七 畝一百七坪 廣州郡 彦州面 盤浦里 五七四 畝百三一坪 廣州郡 大旺
面 逸院里 一八五 田六七六坪

祭日 金昌禧 陰 四月四日 吳春惠 陰 月 日

住持 姜性仁 監務 金性晚 監事 金明七 法務 李連洙 書記 李鍾國

佛紀 二九五六年戊寅 三月 三日立

3.1.5 사리탑문(舍利塔文)

晴湖堂大禪師諱學密舍利塔文

佛紀二九六三年丙子陰七月十九日立

3.2 향완(香 垸)

향완은 절에서 마음의 때를 씻어준다는 의미를 지닌 향을 피우는데 사용하는 기구로 넓은 의미로 향로(香爐)라고도 한다. 여기서 향로는 모양에 관계없이 향을 피우는 도구를 총칭하는 말이고, 향완은 밥 그릇 모양의 몸체에 나팔 모양의 높은 받침대를 갖춘 형태를 말한다.

봉은사 청동은입사향완(奉恩寺 靑銅銀入絲 香垸)은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 보물 제 321호로 지정되었다. 제작시기는 고려 충혜왕5(1344)년이며, 높이 0.37m, 지름 0.51m이다. 이 향완은 고려시대 중흥사(重興寺)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의 소유이며, 동국대학교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중흥사는 북한산 노적봉 아래에 있던 큰절이었는데 1915년 무렵에 폐



봉은사 향완

사된 듯하며, 향완은 봉은사가 중창되던 조선 명종 이후에 봉은사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명문(銘文)은 향안 주둥이에 달린 전의 뒷면에 총 103자의 글씨가 역시 은사로 다음과 같이 입사되어 있다. “至正四年五月日敬造青銅鑲銀香爐一座奉獻于三角山重興寺大殿佛前將此功德用祝皇帝萬歲國王千秋天下太平同願僉議政丞蔡河中平山郡夫人梁氏徹明勸善比丘悟如眞悟戒瑚鑲手中郎將金卿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群生皆共成佛道”

이 명문을 보면 향안이 고려 충혜왕 복위5(1344)년에 만들어져 삼각산 증흥사 대웅전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향로를 시주한 사람은 채하중(蔡河中, ?~1357)과 그의 부인 양철명(梁徹明)인데 채하중은 고려시대에 중국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나라를 어지럽혔던 인물이다. 충숙왕6(1319)년에 호군(護軍), 충혜왕3(1342)년에 일등공신, 충목왕1(1344)년에는 평강부원군(平康府院君)이 되었으나 1356년 순천에 유배된 뒤 1357년에 자결하였다. 명문 가운데는 이 향로를 만든 장인을 뜻하는 누수(鑲手) 김경(金卿)과 여러 승려의 이름이 나온다.

3.3 장흥사 명동종(長興寺 銘銅鐘)

장흥사 명동종(長興寺 銘銅鐘)은 1991년 5월 28일 서울시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다. 태조1(139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높이60cm, 입지름 49.5cm의 아담한 크기에 전체적인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고려와 조선이 교체되던 해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고려시대 말기의 작품(作風)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이 동종은 처음에는 경기도 여주의 상두산에 있던 장흥사에 봉안된 것이다. 그 고장 호장(戶長)²²⁾을 중심으로 몇몇 유지들이 발원하여 모신 것인데 장흥사가 철거되



장흥사 명동종

22) 호장(戶長) ; 고려·조선시대에 향리에서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 행정을 총괄하던

면서 그곳에 있던 불상, 개와(蓋瓦), 기물 등을 봉은사로 가져온 것이다.

명문(銘文)은 동체하부에 다음과 같이 음각되어 있다.

洪武貳拾伍年九月拾七日川寧土 象頭山長興寺鐘造成 金三百斤以入鐘 施主
戶長信善 施主大原 化主信雲 同願角瓊 同願金光才 同願信哲 同願信瓊 大
匠朴○○

3.4 주련(柱聯)

기둥이나 벽 등에 장식으로 세로로 써 거는 글귀로서 주로 한시(漢詩)의 연구(聯句)를 쓰며, 기둥柱] 마다에 시구(詩句)를 연이어 걸었다는 뜻에서 주련이라 한다. 좋은 글귀나 남에게 자랑할 내용을 붓글씨로 써서 붙이거나 그 내용을 얇은 판자에 새겨 걸기도 한다.

사찰에서는 판자 위 아래로 연잎을 양각(陽刻)하던가 연꽃이나 당초무늬를 새겨 윤곽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에 경전이나 큰스님의 법문 등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할 글귀를 새겨 전각의 기둥에 건다.

글씨는 윤곽만 새기는 기법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며, 양각한 부분과 새김질한 글씨에 먹을 넣든지 군청(群靑)을 가칠한다. 양각한 무늬는 삼채(三彩) 정도로 단청을 하여 화려하게 꾸미기도 한다.

3.4.1 대웅전(大雄殿)

淸淨法身毘盧遮那佛 圓滿保身盧舍那佛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淸淨법신비로자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九品導師阿彌陀佛 當來下生彌勒佛 十方三世一切諸佛
구품도사아미타불 당래하생미륵불 십방삼세일체제불

淸정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원만한 보신 노사나부처님

천백억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구품의 도사 아미타 부처님

내세에 오실 미륵 부처님

관리.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

대웅전 마지막 주련에 “佛紀二五二六年壬戌重陽 蘭谷 金應燮²³⁾ 焚香謹書” 라고 쓰여 있고 그 끝에 2과의 도서가 찍혀 있어 1982년에 난곡이 추사체로 쓴 것이다. 주련 내용은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과 서방정토, 미래의 부처 그리고 전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念佛元非第一關 參禪本是佛方便 功成方覺此身閒 默契菩薩大道心
염불원비제일관 참선본시불방편 공성방각차신한 묵계보살대도심

[書者 李丙熙²⁴⁾,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3.4.2 영산전(靈山殿)

靑蓮座上月初生 三千界主捧迦尊 紫紺堂中星若列 十六大阿羅漢衆
청련좌상월여생 삼천계주봉가존 자감당중성약열 십육대아라한중

[金正喜 書,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푸른 연좌 위에 달처럼 앉으신 분
삼천계의 주인이신 석가세존일세.
자감당 한가운데 별들이 벌려선 듯
열여섯 큰 제자들이 모여 있구나.

3.4.3 판 전(版殿)

佛智廣大同虛空 普遍一切衆生心 悉了世間諸妄想
불지광대동허공 보편일체중생심 실료세간제망상

一不起鍾異分別 一念悉知三世法 亦了一切衆生根
일불기종이분별 일념실지삼세법 역료일체중생근

23) 김응섭(金應燮) 1917 ~ 1989

한국의 서예가.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자는 석담(石潭), 호는 난곡(蘭谷)·난도인(蘭道人)·자하산방(紫霞山房) 등이다. 경상북도 영양(英陽)에서 태어났다. 행서(行書)의 대가(大家) 서병오(徐丙五)를 사사(師事)하였으며, 서화(書畫)·음률(音律)에 능하였다. 추사서풍(秋史書風)에 심취하여 추사체연구회(秋史體研究會)를 조직하였고, 또 한글 초서(草書)를 개발하여 묵란(墨蘭)과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각급 공모전의 심사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로 활약하였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奉恩寺) 대웅전의 주련(柱聯)을 썼다.

24) 이병희(李丙熙) : 號는 農泉, 農巖이며 대구 출신으로 郡守를 지냈다. 行書와 草書에 능했으며 강릉 선교장(船橋莊)의 활래정(活來亭) 주련 등 수많은 고택과 사찰의 주련을 썼다.

[書者 未詳,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부처님 지혜 광대하여 허공과 같고

널리 일체 중생들의 마음과

세간의 모든 망상을 다 요달하시고

온갖 차별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네.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또한 모든 중생들의 근기를 다 아시네.

3.4.4 북극보전(北極寶殿)

靈通廣大慧監明 周在空中映無方 羅列碧天臨刹土 周天人世壽算長
영통광대혜감명 주재공중영무방 나열벽천임찰토 주천인세수산장

[金正喜 書,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3.4.5 영각(影閣)

영각은 봉은사의 역대 조사들 중에 이름이 드러난 분들의 영정을 모신 전각이다. 영각에는 다음과 같은 주련이 걸려 있다.

我人忘處超三界 大悟眞空證法身 青山依舊劫前春 無影樹頭花爛漫
아인망처초삼계 대오진공증법신 청산의구겹전춘 무영수두화란만

나를 잊는 자리 삼계를 벗어나고

진정한 공 크게 깨달으니 법신 증득하네.

청산은 의구하여 겁 이전의 봄이오

보리수 나무 꼭대기엔 꽃이 한껏 피었네.

이 주련은, 나의 모습을 벗어나 내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자리에서 삼계를 벗어나며, 각자 깨달음에 따라 얻음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3.4.6 미륵전(彌勒殿)

高居兜率許躋攀 位極一生補處尊 煩惱斷盡福智圓
고거두솔허제반 위극일생보처존 번뇌단진복지원

遠嗣龍華遭遇難 紫金儀相化塵寰 白玉毫輝玄法界
원사용화조우난 자금의상화진환 백옥호휘현법계

도솔천 높은 곳에 계시면서 화생하도록 제도하시며,
 존귀한 부처님 보좌하는 높은 자리에 계시도다.
 번뇌 모두 끊고 복과 지혜가 원만하시니
 먼 미래 용화회상(龍華會上)에서 만나기 어려워라.
 자금 빛 위의 상호로 인간세상 교화하시고,
 백옥 털의 광명은 어두운 법계를 밝게 비추네.

3.4.7 지장전(地藏殿)

慈光照處蓮花出 地藏大聖威神力 恆河沙劫說難盡
 자광조처연화출 지장대성위신력 항하사겁설난진
 見聞瞻禮一念間 利益人天無量事 慧眼觀時地獄空
 견문침례일념간 익인천무량사 혜안관시지옥공
 자비광명 비추는 곳에 연꽃이 피네,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은
 수 많은 세월 동안 설하여도 다 할 수 없네.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는 한 생각 사이에
 인천에게 이익한 일 한량 없도다.
 지혜 눈으로 보니 지옥의 실체가 없구나.

3.4.8 종 루(鐘樓)

[새벽예불]

願此鐘聲遍法界 鐵圍幽暗悉皆明 三途離苦破刀山 一切衆生成正覺
 원차종성편법계 철위유암실개명 삼도이고파도산 일체중생성정각

[저녁예불]

聞鐘聲煩惱斷 智慧長菩提生 離地獄出三界 願成佛度衆生
 문종성번뇌단 지혜장보제생 이지옥출삼계 원성불도중생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 퍼져
 철위산과 지옥이 모두 밝아지며
 삼악도 고통 여의고 칼산지옥 무너져
 일체 중생이 정각을 이루소서!

종소리 들으니 번뇌가 끊기고
지혜가 자라나 깨달음 생기며
지옥 여의고 삼계 벗어나서
원컨대 성불케 중생을 제도하소서!

3.4.9 명부전(冥府殿)

威若雷霆十大王 衆生業鏡現毫芒 刀樹火湯終不怒 地藏菩薩獨悲傷
위약뢰정십대왕 중생업경현호망 도수화탕종불노 지장보살독비상

[朴性憲 書,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2002년 5월 24일 오후 10시경 명부전에서 불이 나서 건물이 전소(全燒)되어 박성희 선생이 쓴 명부전 주련도 불에 타서 없어졌다..

4. 시(詩)

4.1 봉은사 증계민사(奉恩寺 贈戒敏師)

三十年前此寺遊 逢君今日更登樓 傷心自惜浮生事 回首還慙有道流
風景不殊秦苑夕 雁聲初度廣陵秋 傾茶坐對寒宵永 說盡江南久別愁

[翠微大師詩集 成守初(釋)]

4.2 차장진인운(次張真人韻)

白鶴樓邊已掛筇 樹雲深處久藏蹤 觀桃舊約飛青鳥 辟穀新方問赤松
嚙水登壇朝斗慣 冥心鍊骨着碁慵 玄關一閉無人扣 不是眞流不得逢

[翠微大師詩集 成守初(釋)]

4.3 봉은사(奉恩寺)

東海多風雨 西廂幾洗磨 蒲團逢老宿 草創道新羅
畫棟巢春鶯 喬林噪暮鴉 看來增感慨 曠目獨沈哦

[雪巖集 釋, 秋鵬]

4.4 봉은사(奉恩寺)

天開巨刹倚長江。棟宇玲瓏世少雙。白蠟融成壇上燭。紅羅翦作榻前幢。
筒泉引遠源無渴。簷鐸風微響自撞。坐久居僧添茗椀。夕陽松影落禪牕。

[虛白堂補集 成倪]

4.5 장환봉은사(將還奉恩寺)

處寬上人。遊頭流山。將還奉恩寺。過余太原徵詩。卽書小律三首贈之。
文書雁鷺吏行稀。畫閣深深晝漏微。黃面老禪暮拜謁。頓令心地息塵機。
萼谷花峯海上山。雄豪忼怛弟兄間。捲來賴有金剛眼。相對蒼蒼萬丈顏。
毛禮窩中穴野狐。法興基禍敗東都。君王斥佛尊吾道。我亦冠中吏部徒。

毛禮羅人。

[訥齋先生集 朴祥]

4.6 증봉은사승지전(贈奉恩寺僧智田)

眼翳有空華。空華寧有眞。非眞乃是幻。幻眞故相因。譬彼堂下梅。開謝不關人。[人自懷異抱。梅無早晚春] 祇園諱塵事。法酒聊自巡。忘言出門去。余言久乃陳。
[大觀齋亂稿 沈義]

4.7 증봉은사도순상인(贈奉恩寺道淳上人)

次湖陰韻。贈奉恩寺道淳上人。寺在宣陵。湖陰。鄭同知士龍號。
憶宿橋山寺。庭篁月影重。累臣廿載夢。此夜五更鍾。
豈意仙鶴列。還收野鹿蹤。欣逢青眼釋。宛爾昔年風。
[慕齋先生集 金安國]

4.8 차홍좌상운(次洪左相韻) 贈奉恩寺僧熙俊 左相名彥弼

五載塵勞廢賦詩。故山慙愧勒文移。縱知起我求題切。詎有驚人出語奇。
興逐柳風吹面後。夢回梅月印窓時。試看噓焰寒灰裏。解意尖奴首已垂。
[慕齋先生集 金安國]

4.9 숙봉은사매화당(宿奉恩寺梅花堂) 贈允海上人

孤梅已死竹羅生。堂客重來一愴情。賴是山僧能解意。坐談桑海到深更。
堂前有梅一株。當窓發花。因以名堂。再到則梅死久矣。只有綿竹羅生于庭。
[慕齋先生集 金安國]

4.10 금문이주봉은사(今聞移住奉恩寺)

戲贈洞峻長老。長老曾任錫神勒寺。余每往遊。則必徵詩頗苛苦。
今聞移住奉恩寺。以詩贈之。時近仲秋望。
東臺秋月想圓明。臺下江流徹底清。勝地從今無虐稅。湖翁方得放遊情。

4.11 증봉은사혜옥상인(贈奉恩寺慧沃上人)

漢水朝蒼海。喬山杳白雲。琳宮春寂寂。松逕月紛紛。
悵望經遊迹。餘生夢想勤。逢僧談半日。猶足慰離群。

[慕齋先生集 金安國]

4.12 인식봉은사승지웅(因識奉恩寺僧志雄)

去歲。奉命祭宣陵。因識奉恩寺僧志雄。今將遊山。
遣人來求詩。書以贈之。時庚寅二月二十日也。
雄也有遠志。頗好山水奇。知我夙所尚。欲行求我詩。
嗟我久衰病。夢想猶在茲。但恨乏綺語。無以驢吾師。

[容齋先生集 李荇]

4.13 투숙봉은사(投宿奉恩寺)

南遊錄 庚午年 三月十六日 發漢京 崔子真 曹平甫 權叔達 安明之 誠之
李次野諸君 出餞漢江 劇飲至暮 投宿奉恩寺 到曉方得甦醒 用進退律敍意
暮醉漢江酒。曉聞蕭寺鍾。百年身自暇。萬里路還通。
歲晚歸來計。平生山水蹤。古人如可作。陶謝與相同。

[容齋先生集 李荇]

4.14 봉은사승명지웅자(奉恩寺僧名志雄者)

奉恩寺僧名志雄者。出示遊楓嶽詩軸。乃青鶴丞相首題也。

乞留一言。以爲濟勝具。走步其韻。

志雄信志雄。遠遊而好奇。奇將何所得。

乃欲憑吾詩。百劫俱幻妄。亦何有於茲。

旣以寂滅。灰心萬事。必欲土木其形神。則亦何有於好奇好詩耶。摩尼照濁源。我欲爾爲

師。子美詩。唯有摩尼珠。可照濁水源。佛書。有摩尼珠之語。言其心地圓明也。○一心着物。皆爲役神疲智。釋家本以空寂爲宗。但靜觀心性而已。非獨釋氏。儒家亦然。

[希樂堂文稿 金安老]

4.15 사봉은사승추일혜삽(謝奉恩寺僧秋日惠箒)

師乎送似知何意。豈爲乘炎更策功。只貴炎涼隨遇爾。棄捐曾不怨秋風。
秋日送扇之意。豈以當暑任用爲貴。惟貴於當秋棄篋而無怨也。頗自道。

[希樂堂文稿 金安老]

4.16 잉공류봉은사(仍共留奉恩寺)

辛卯夏。余在散地。閉衡長晝。無以却睡魔。吾兒延城。請余出郊。仍共留奉恩寺。寺僧競出紙求詩。翌年夏。余重判南宮。因奉審宣陵。重到是寺。寺僧又有求詩者。因念去年。兒已亡矣。掩涕吞聲。草草依韻書之。以洩其哀。

昔携今可復。拭淚忍言曾。醉對跳荷雨。吟挑點佛燈。此言去年事也。
重來悲老我。自在羨渠僧。自堪於人世悲哀之患。而羨物外緇流之無慮。
真情語也。坐夜沈懷久。鈴風語塔層。 [希樂堂文稿 金安老]

4.17 은사승장입산(恩寺僧將入山) 永詩頗懇 書其軸與之

瞿曇學者例入山。入山例以詩媒妁。不自內得山已剩。又益以詩大似着。由來妙法是不二。觸類無非庭樹柏。禪律欲與詩律化。兩無聲臭可尋迹。師乎悟法我悟詩。笑領其旨不物役。唯我粥飯嘲未解。李愚爲相。迂闊。目爲粥飯僧。引此以自謙。愧爾山中點頭石。異僧生公。講經於虎丘寺。人無信者。乃聚石爲徒。與談至理。石皆點頭。 [希樂堂文稿 金安老]

4.18 재봉은사(在奉恩寺) 道源吟詩甚苦 戲之

初來只爲禪林勝。不計詩魔解逐人。雲壑雪峯皆入句。法窓終日坐吟呻。

[企齋集 申光漢]

4.19 발두모포숙봉은사(發豆毛浦宿奉恩寺) 辛丑季夏十七日

晚雨涼生兩岸蘆。孤舟行載五車書。懷章此去天應爾。倚市由來繡不如。
楮島青煙橫渚密。奉恩寒磬出林疏。維梢夜入祇園宿。夢罷堯眉動木魚。

[武陵雜稿 周世鵬]

4.20 자갈산주하숙봉은사(自葛山舟下宿奉恩寺)

丙午季夏。自葛山舟下。宿奉恩寺。玄宗上人示詩軸。

乃鄭相公首題也。索和甚苛。率爾書贈。

逢着禪門第一豪。暮年端欲共林臯。人間底處開吾喙。祇愛青山不語高。

[龍門先生集 趙昱]

4.21 방봉은사(訪奉恩寺)

爲訪江邊寺。牽維上急湍。瀧聲船底咽。水氣夜來寒。

隱月時時出。遙山面面看。一生形役累。今日得盤桓。

[十省堂集 嚴昕]

4.22 봉은사 차운주지신묵(奉恩寺 次韻住持信默)

坐對一燈龕。分爲百晦庵。神魂動江介。霜雪霽山陰。

失學三冬過。傷心一世今。行藏客榻外。晨起聽鶯禽。

[蘇齋先生文集 盧守慎]

4.23 제봉은사승경칙묵죽권(題奉恩寺僧景則墨竹卷)

誰持墨妙贈吾師。開卷堪爲俗士醫。橫出一枝師會否。若將摘葉是童兒。
梅花堂下碧琅玕。吟賞回思歲欲闌。早晚尋師參芋火。孤標更向雪中看。

[頤庵先生遺稿 宋寅]

4.24 금적주석봉은사(今適住錫奉恩寺)

法正大禪。余聞其高名久矣。今適住錫奉恩寺。

以詩軸寄來。求題甚勤。用企齋相公韻回奉。

臥病無聊睡欲成。忽披詩卷眼還明。多師慧劍常加淬。愧我丹田久不耕。
物外行休元至樂。夢中青紫豈真榮。何因共打無生話。且傍寒崖掇菊英。
時余臥病且旬矣 [頤庵先生遺稿 宋寅]

4.25 도봉은사(到奉恩寺) 日已昏黑

到奉恩寺。日已昏黑。普雨托病不見。蓋實不知吾輩之爲何人也。有僧號雙淳者。追至舟上。穎秀可愛。頗能詩。曾魁戊午禪科者。留話不覺夜深。仍用諸君韻。書贈二首。

過客門初扣。居僧已入禪。歸舟悄深夜。星斗滿江天。
愛僧還惜發。停棹戒舟師。雲水他年意。孤燈細話時。
[霽峯集 高敬命]

4.26 증산인성암암증주봉은(贈山人性蒼蒼曾住奉恩) 時將遊頭流

憶過奉恩寺。蕭蕭楮子秋。華巖一夜雨。搔首十年愁。
[霽峯集 高敬命]

4.27 봉은사(奉恩寺) 贈南僧性衍

客有故園思。空堂坐二更。近床燈欲盡。侵帳雪無聲。
迢遞關山路。微茫水國程。相逢越鄉釋。不語自知情。
[玉峯詩集 百光懃]

4.28 봉은사연정(奉恩寺蓮亭) 次李校理伯生見示之作

偶因休浣到雲門。把酒題詩勝事存。紅藕一池風滿院。晚蟬千樹雨歸村。
深慙皓首從羈宦。猶喜青山似故園。聞說錦湖煙景異。會容孤棹問真源。
[玉峯詩集 百光懃]

4.29 제봉은사승축차아계운(題奉恩寺僧軸次鵝溪韻)

開遍寒梅未泮氷。昔尋蕭寺近山陵。今來正值巖花落。禪榻茶煙對老僧。

[月汀先生集 尹根壽]

4.30 차운봉은사주지권(次韻奉恩寺住持卷) 二首

上相從容侍九天。故園無恙海鷗邊。高情幾被僧談誤。輕却安危繫暮年。

鵝溪元韻。有因僧談憶海鄉之意。幾平聲。

梅花樹北小堂中。一宿應教百念空。還羨儀曹幹事至。浹旬燈爲讀書紅。

申正郎光弼以董後園陵來宿。亦有作。[簡易文集 崔岵]

봉은사 주지의 시권에 차운하다. 2수

우리 영상(領相) 조용히 임금님 곁에서 모시다가

갈매기 노니는 고향 동산 잘 있는지 궁금했네

중과 얘기하다 보니 고상한 정취가 잘못되어

안위가 걸린 만년의 몸 그만 깜박 잊었구려

아계(鵝溪)의 원운(原韻)을 보면, 승려와 대담을 하다 보니 바닷가 고향 생각이 나더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幾)는 평성(平聲)이다.

매화나무 북쪽의 아담한 승방(僧房) 하나

한 번만 자고 가도 백 가지 번뇌가 물러가리

부러워라 예조(禮曹)에서 일 보러 들렀다가

열흘이나 등불 밝혀 글을 읽고 갔다나요.

정랑 신광필(申光弼)이 원릉(園陵)의 공사를 감독하는 일로 이 절에 왔다가 묵으면서 역시 시를 남겼다.

4.31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

隱隱如聞磬。孤烟生廣陵。梅磎月應白。入夜渡江僧。

又

秋風吹古寺。木落啼山雨。空廊寂無僧。石榻香如縷。
落。一作葉。[孤竹遺稿 崔慶昌]

4.32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

三月廣陵花滿山。晴江歸路白雲間。舟中背指奉恩寺。蜀魄數聲僧掩關。

又

不脫袈裟下殿階。一聲秋磬發雲崖。遊人去後門還掩。寂寂長廊到夕齋。

又

三日江潭滯遠舟。二陵風雨獨歸愁。今來相憶不相見。惆悵微鍾下石樓。

又

寒鴉古木夕陽間。一逕寥寥掩水關。欲向梅花重寄信。輕舟已過廣陵山。

[孤竹遺稿 崔慶昌]

4.33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

靈圖光五葉。鼎水已乘龍。白日仙儀秘。青山影殿空。
御香隣佛火。幽隧徹洪鍾。只在諸天外。霓旌杳未從。

[孤竹遺稿 崔慶昌]

4.34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

此路尋花伴。披簑似去年。逢僧問山寺。立馬喚津船。
遠樹春城背。平蕪暮雨連。猶愁後臺磬。隱隱隔微烟。

[孤竹遺稿 崔慶昌]

4.35 자봉은귀주(自奉恩歸舟)

歸人臨發折梅花。步出沙頭日又斜。水轉山移舟去遠。滿江離思起風波。

[孤竹遺稿 崔慶昌]

4.36 봉은사(奉恩寺)

小亭蕭灑寺前頭。更被高僧勸少留。宿客欲歸山雨歇。碧荷千柄古塘秋。

[孤潭逸稿 李純仁]

4.37 봉은사(奉恩寺)

坐到晨鍾睡未能。故人逢處又山僧。他年若說同遊地。東閣梅花雨夜燈。

[孤潭逸稿 李純仁]

4.38 봉은사연정(奉恩寺蓮亭) 次李校理伯生見示之作

偶因休浣到雲門。把酒題詩勝事存。紅藕一池風滿院。晚蟬千樹雨歸村。
深慚皓首從羈宦。猶喜青山似故園。聞說錦湖烟景異。會容孤棹問眞源。
晚。一作亂。[孤潭逸稿 李純仁]

4.39 증산인(贈山人) 二首

江南兩釋子。漢北一衰翁。○舟泛月中。

憶過奉恩寺。蕭蕭楮子秋。回首十年愁。

[孤潭逸稿 李純仁]

4.40 도한강숙봉은사(渡漢江宿奉恩寺)

陪家君將向嶺南。渡漢江宿奉恩寺。黃正字景輝隨行。
惜別一杯酒。遠遊千里程。亂雲低處黑。踈雨霽邊明。
野寺誰相送。詩朋又伴行。黃昏山路暗。駐馬聽鍾聲。

[青溪集 梁大樸]

4.41 증봉은사승(贈奉恩寺僧)

橋山古寺昔魯遊。蘋末西風雁影斜。南去北來人易老。白雲紅樹夢偏多。

舟中宿客依寒葦。天外尖峯浸晚波。遙想閑遊謾回首。高樓獨立數棲鴉。

[青溪集 梁大樸]

4.42 이주향봉은사(移舟向奉恩寺) 次李汝仁韻

山頭落日下汀洲。天外風生水國秋。蘆荻多邊問漁父。樓臺好處繫蘭舟。
月因有約侵浮蟻。人爲忘機近沒鷗。聞道金山宜結社。欲從元老借閑丘。

[青溪集 梁大樸]

4.43 질배동서우봉은사독서(姪輩同棲于奉恩寺讀書) 書示

十里喬陵路。吾曾幾往來。每當江月滿。常趁寺梅開。
跌宕詩千首。留連酒百杯。空懷少年迹。頭白獨徘徊。

[柳川遺稿 韓浚謙]

4.44 질배동서우봉은사독서(姪輩同棲于奉恩寺讀書) 書示

見說遊江寺。舟行日暫時。荷香應出水。梅子已垂枝。
想把深杯酒。能題幾首詩。須將在處勝。一一慰吾衰。

[柳川遺稿 韓浚謙]

4.45 봉은사승덕련자래걸시(奉恩寺僧德連者來乞詩)

有懷湖堂舊遊 書二絕贈之

楮島清遊憶往年。山花初發水如煙。梅堂蓮榭今無處。唯有殘僧保舊緣。
百歲流光半曲肱。閑吟餘習爲山僧。憑師莫袖秋蛇去。怕有元輿弔剝藤。

[漢陰先生文稿 李德馨]

4.46 증봉은사승창운(贈奉恩寺僧唱雲)

百計無成鬢已衰。邇來人事轉參差。山僧莫問吾行止。飲水寒溫只自知。
幾回湖舫放閑情。載酒尋僧了半生。莫向蓮山覓陳跡。壞垣荒沼沒榛荆。

[漢陰先生文稿 李德馨]

4.47 과봉은사(過奉恩寺)

海天軸 次鵝溪韻 時以宣陵改蒞 過奉恩寺 臨發書贈 二首
王事驅車夕飲水。肅將精白拜園陵。湖山春色渾無興。猶向禪房問舊僧。
湖上披蓑晚雨霏。舊遊蹤迹夢參差。祇今顏鬢俱衰換。重對居僧兩不知。

[月沙先生集 李廷龜]

4.48 출순숙봉은사(出巡宿奉恩寺) 次僧軸韻

最愛湖中寺。平生幾度尋。煙霞孤島晚。花木二陵深。
夜月移舟過。春風按節臨。歡情較覺減。爲有簿書侵。

[月沙先生集 李廷龜]

4.49 차리여함추향후유봉은사주행왕환운 次李汝涵秋享後遊奉恩寺舟行往還韻

塵事牽人苦未閑。不禁愁鬢望秋斑。二陵洒掃仍尋寺。三伏炎蒸強出關。
二走淺灘渾白石。岸臨長浦半危巒。今辰逆浪撐舟去。明日乘流弭棹還。
百丈拖船我自閑。臥看江岸草花斑。出塵方快開湯網。羈宦曾愁閉武關。
昨夜商飆動閭闔。一分秋色在林巒。莫嫌明月初生魄。人世難逢壬戌還。
出城那得此身閑。詩句關心鬢欲斑。不盡江流吟袞袞。作雙洲鳥詠關關。
近憐芳草遙憐樹。晴愛明沙雨愛巒。物色惱人酬未了。來遊此地不知還。
昭代無能也自閑。肯勞心目強窺斑。名場遠我三千里。世路難於百二關。
良友相逢仍勝地。碧江殊好又蒼巒。蘇仙赤壁何如此。欲駕扁舟一往還。

[農圃集 鄭文孚]

4.50 익일제후 계봉은사(翌日祭後 憩奉恩寺)

四月初八日。以夏享獻官。詣宣陵。翌日祭後。憩奉恩寺。
自楮島乘船。還豆毛浦。臨發口號。留別性還上人。

橋陵徹祭憩禪關。落日乘舟下碧灣。笑別闍梨沙際立。十分忙裏一分閑。

[東岳先生集 李安訥]

4.51 응상상인 자봉은사래(應祥上人 自奉恩寺來)

應祥上人。自奉恩寺來。訪余新川別墅。示以故一松，漢陰，
西峒三相國絕句。丐和甚勤。謹用其韻而贈之。

每挹師名始見師。滿江秋雨皺吟眉。一牋珠玉三詞伯。何用東翁弊帚爲。
一川煙浪浸菱花。歸鷺雙飛掠岸過。日落渡頭人不見。踏歌時聽浣溪紗。

[東岳先生集 李安訥]

4.52 증봉은사승명안(贈奉恩寺僧明眼)

雲衲炎天冷似水。雪窓相對覺寒增。龍眠若畫吾身世。庭畔芭蕉著一僧。

[白軒先生集 李景奭]

4.53 숙봉은사(宿奉恩寺) 題太俊卷首

宿霧濃如雨。濛濛鎖梵宮。我沾雙袖去。一洒滿江風。

[白洲集 李明漢]

4.54 숙봉은사(宿奉恩寺) 題法心卷首

新牋舊軸忽成堆。各說公門到幾回。我倦惟思借榻睡。此行非爲賣詩來。

[白洲集 李明漢]

4.55 숙봉은사(宿奉恩寺) 次題天圭卷

輟棹前江暮。携筇古寺深。樓臺纔浩劫。風雨又秋陰。興廢聞僧語。
閑忙愧客心。梅花庭畔約。不待雪中尋。寺有梅花堂故云

[白洲集 李明漢]

4.56 숙봉은사(宿奉恩寺)

世廟崇西竺。招提號奉恩。域中王亦大。天下佛爲尊。
絕壁干雲起。滄江注海奔。禪房隨意宿。還喜脫籠樊。
[東溟先生集 鄭斗卿]

4.57 제봉은사규상인축(題奉恩寺圭上人軸)

憶昔奉恩寺。登臨幽興深。禪枝青鶴宿。佛日白雲陰。
故舊在泉下。詩篇傷我心。依然十年事。還句卷中尋。
[東溟先生集 鄭斗卿]

4.58 봉은사(奉恩寺) 同谿谷兄弟仲淵諸人會宿 次僧卷韻

酒餘高詠我曹豪。滿目江山應接勞。多荷老禪能餉客。一甌香飯進溪毛。
[玄洲集 李昭漢]

4.59 증봉은사승(贈奉恩寺僧)

醉裏江山入品題。醒來不覺帽簷低。今春已閏寒差緊。莫遣黃鸝取次啼。
[湖洲先生集 蔡裕後]

4.60 제봉은승축(題奉恩僧軸)

此心俱是玉壺冰。儒釋何曾有損增。花柳惱人成一醉。不知門外立山僧。
[湖洲先生集 蔡裕後]

4.61 지역정릉숙봉은사(祗役靖陵宿奉恩寺) 次智海上人詩軸韻

浮世滄桑變。禪家日月長。重來尋舊跡。水色與山光。
[退憂堂集 金壽興]

4.62 봉은사귀로(奉恩寺歸路)

細雨春江暮。寒煙古寺深。青蓑獨歸路。驢背動孤吟。

[汾厓遺稿 申晟]

4.63 과봉은사기감(過奉恩寺記感) 辛酉

清江一曲花千樹。曾向均公寺裏遊。二十七年重過此。春風暫繫木蘭舟。

[息庵先生遺稿 金錫胄]

4.64 증봉은사극단상인(贈奉恩寺克湍上人)

玄寢臨清漢。精藍號奉恩。只嫌遊客迹。常訪法王門。

霜落三田樹。江寒十里村。看師無礙滯。禪悅始堪論。

[恬軒集 任相元]

4.65 문리성망사상환자봉은사(聞李聖望師尚還自奉恩寺)

追憶舊遊 漫吟求和

林居憶近古招提。少日嬉遊氣不低。三浦浪高時縱棹。二陵花晚或扶藜。

山樓冷磬神猶往。雲洞深蘿路久迷。衰疾祇今違共賞。強吟蕪句爲君題。

[西坡集 吳道一]

4.66 봉은사(奉恩寺) 次奉柳集仲 仍呈中公獻 琬

涉江臥雲屋。誰哉從我遊。空山無伴侶。但聞寒鳥啾。佳氣坐晚晚。

延佇日似秋。良友忽聯翩。方舟越漢流。尋我赴寂寞。揖我共夷猶。

向我問日用。自慚多悔尤。合并亦幾時。欲別復踟躕。況念遠行人。

茲心悵以悠。 [滄溪先生集 林泳]

4.67 봉은사월야(奉恩寺月夜) 與仁甫夜話

月出在浦口。虛明流梵宮。身將三界闊。心與萬緣融。
露濯仍寒兔。鍾沉復遠鴻。求名千古事。聊與爾談空。

其二

之子可與語。夜闌簷影斜。論心佛前愧。得句月中誇。
遠瀨浸沙界。飛霜似雨花。逍遙斯已矣。莫作問南華。

[三淵集 金昌翁(1653：孝宗4～1722：景宗2)]

4.68 저도허거원회가유회권여장(楮島許巨源淮家有懷權汝章)

憶與安東醉秀才。短舫乘興月中迴。奉恩寺裏花如雪。挹灑亭前水似苔。
好事野人棋一局。多情村媪酒三杯。六年重到題詩處。目斷南天暝色來。
挹灑。乃巨源亭名。火於倭寇辛卯春。曾與汝章同遊於此。各賦詩而去。

[東岳先生續集 李安訥]

4.69 망현남류천(望縣南流川) 四月二十三日

峽川溶瀄出崆嶽。故墅歸心不可緘。步屨魯尋奉恩寺。鳴橈常駐舞童巖。
事如短夢空吞恨。身作孤囚未雪讒。何日鷄竿赦書到。沿流直欲掛風帆。

[東岳先生續集 李安訥]

4.70 증덕일상인(贈德一上人)

爾住靖陵寺。吾隣春草亭。中間一江素。南北兩峯青。
神骨驚初見。禪談喜暫聆。扁舟約來往。花落水平汀。
上人時住奉恩寺

[東岳先生續集 李安訥]

4.71 제경묵상인시권(題敬默上人詩卷)

昔過奉恩寺。初逢敬默師。野航相逐遠。江路獨歸遲。
城市經春夢。雲林出俗姿。今來索新句。梅雨杜門時。

[東岳先生續集 李安訥]

4.72 만영(漫詠)

漢之廣矣水回環。岸綠沙明楮島閒。安得風吹奉恩寺。中流移去敵金山。

其二

江圍松栢月爲洲。戶種櫻桃花覆舟。韓相故輕鐘鼎貴。沁園曾縱鳳凰游。

其三

狎鷗亭前戲漢槎。青丘原隰被光華。煙波咫尺辭題品。羞比西湖與若耶。

其四

誰道江湖清且豁。千艘街尾劇憑陵。或從舞嶼沿根島。半自新川出廣陵。

其五

檣行如竹櫓如麻。摩軋煙灘月晃沙。驚起鳧鷖離水去。高飛衝却二陵鴉。

其六

逆流峭帆歌自勞。一聲二聲帆稍高。舞島洲坻苦紆曲。三田以上長風豪。

其七

沿沙牽竿夜霜深。直直高檣星月臨。島上煙家有酒否。手寒船澁繫清潯。

其八

昭陽江水凍不遠。通夜嘈嘈黃帽郎。此去層灘饒險易。月明呼侶細商量。

其九

郎誇善賈愛煙波。行傍柴門不願過。自棹扁舟樵遠岸。一擔黃葉望郎歌。

其十

濯帛淨令江水濁。練絲曬向野雲明。清砧夜夜煙中發。一一愁風愁水情。

其十一

舞島漁商三十戶。入來饒富勝前時。誇客島中風水好。舞巖奇樣似龍龜。

其十二

飽食雕胡玉粒香。豪靴廣帶好衣裳。年來慣射東湖鴈。願屬期門夾輦郎。

其十三

表裏青山漢水池。龍蛇霸迹問諸誰。秋風浪疊城隍白。吾勸漁郎引竹枝。

其十四

夫人古祠臨北渚。百濟人空誰慕汝。新川遠木舞洲煙。試問餘情逗何處。

其十五

浸碧亭前蒼岸斷。千帆撐入鏡中迴。迎來轉與層軒近。又擲天邊列樹隈。

[三淵集 金昌翁]

4.73 숙봉은사(宿奉恩寺) 翌日始登楮島

春江寺門闔。飯後喚輕舟。島上生青麥。村前下白鷗。
岸花移棹見。風纜傍沙收。酌酒長年別。中洲悵莫留。

[老稼齋集 金昌業]

4.74 방봉은사(訪奉恩寺) 與李汝雨 崔景餘 南邦彥 會靖陵齋舍

繫纜尋丹壑。高齋掩白雲。二陵春欲動。孤燭夜將分。
深酌須同醉。清詩可與羣。明朝分散後。風月每憶君。

其二

山樓來聘望。極浦但烟雲。嶼斷江流合。洲平樹色分。
詩成要共韻。酒盡惜離羣。叵耐明朝別。回舟不見君。

其三

艤棹尋蕭寺。磬聲出白雲。夕陽山欲暝。芳草逕微分。
世事風塵遠。幽情鹿豕羣。深思結蓮社。林壑共吾君。

[遯窩遺稿 任守幹]

4.75 증봉은사승취언상인(贈奉恩寺僧翠彦上人)

臨歧別思正依依。爲把新詩當贈衣。待得春花開爛熳。清江一棹訪禪扉。

其二

山門樹色遠依依。江雪霏霏滿客衣。郭外弊廬頗靜僻。可能飛錫叩荆扉。

[謙齋集 趙泰億]

4.76 봉은사우중(奉恩寺雨中) 與金明仲 尹汝迪 惠教 同賦

一出江干苦闕踈。山樓秋雨喜聯裾。詞臣久厭蘭臺直。逐客初尋楮島居。
良會恰成三日飲。清談勝讀十年書。菊花楓葉看看好。能復乘舟訪弊廬。

其二

滄江歸卧世緣踈。一濯東華舊染裾。昭代豈容言便訣。素心終欲賦閑居。
家貧恥學謀生術。身老耽看未讀書。野鳥溪魚俱自適。百年吾亦愛吾廬。

其三

倦迹真甘與世踈。兼旬慵卧不冠裾。常希疏傳能知止。肯學靈均浪卜居。
時事但餘憂國淚。俗情堪草絕交書。江邊小屋閑時夢。少到青綾舊直廬。

其四

爐香欲歇磬聲踈。滿壑雲霞襲客裾。近侍卽今多浪迹。吾儕此地幸隣居。
烟波小艇尋常釣。朝夕奚筒咫尺書。況得韻僧新結社。高情不羨遠公廬。

其五

林端過雨聽踈踈。山氣朝來爽滿裾。平日不忘丘壑想。晚年方占水雲居。
村翁或與談玄席。院釋時爲飛白書。京洛故人如問我。鶴灘南畔有茅廬。

[謙齋集 趙泰億]

4.77 봉은사(奉恩寺) 別松都宋留守子和 宋評事君集 聯句

奉恩寺。別松都宋留守子和，宋評事君集。聯句。

果川倅趙士涵 海濤 及金明仲，宋汝儒 眞明。並至。

短棹沿江下。霜天欲盡秋。和
使君携酒至。遷客挽人留。明
尚惜西都別。那堪北塞遊。年
山禽呼友語。沙雁叫羣愁。儒
此去應遄返。相分莫浪憂。涵
不辭移枕宿。終夜醉禪樓。集

[謙齋集 趙泰億]

4.78 우차등자운(又次登字韻) 時在奉恩寺

小艇聊同泛。危樓且一登。閑緣隨地在。老興入秋增。
淨界無塵事。芳隣有好朋。重陽看又近。此會更須能。

[謙齋集 趙泰億]

4.79 봉은사(奉恩寺) 贈李上舍叔謙 壽益 後改壽沆

莫恠山僧供飯遲。窮時蘇嫂亦嫌炊。碧紗他日籠詩處。應憶今朝坐忍飢。

其二

櫻桃花發日遲遲。林外疎烟起午炊。知爾家貧仍好讀。不應冠玉困長飢。

其三

常怪衰年謝事遲。危途真似劍頭炊。歸田活計君休問。山蕨江魚足療飢。

[謙齋集 趙泰億]

4.80 봉은사(奉恩寺)

隨意尋禪院。鶯花步步奇。散襟松下石。扶杖寺前池。
村婦分新菜。山僧誦古詩。披林成久坐。稍覺砌陰移。

[浣巖集 鄭來僑]

4.81 원박련기출봉은사(元博聯騎出奉恩寺)

與善應，子淳，大而，士恢，元博聯騎出奉恩寺。爲含桃會。同賦 二首
清漢山川氣鬱葱。聯騎飛出郭門東。烟霞甲第年年鎖。榆柳漁村處處同。
晒鶯眠鷗分媚景。菱歌樵唱泛輕風。寺僧知我含桃會。提出筠籠翠藹中。
氷盤雪膾細調葱。隨興巖西與寺東。往事糾紛隨日化。茲遊寥廓隔年同。
櫻桃籬落暉暉日。蒼筍林園澹澹風。小坐禪樓真一快。過江微雨有無中。

[藥山漫稿 吳光運]

4.82 봉은사(奉恩寺) 拈后山詩韻

奉恩寺。拈后山詩韻。與李聖輔 明翼，趙汝五同賦。辛酉

秋來常憶峽。病起偶尋山。古寺龍蛇後。深林虎豹間。
客期三日話。僧忘廿年顏。好會兼清月。酬詩且莫慳。
[悔軒集 趙觀彬]

4.83 증봉은사판사체한상인(贈奉恩寺判事體閑上人)

爾爲天地體閑人。何奈風塵也自親。柏樹庭前窮底事。由來此道在彝倫。
[順菴先生文集 安鼎福]

봉은사 판사 체한상인에게 주다
그대는 천지에 몸 한가한 사람인데
무슨 일로 풍진세상 그리 가까이 하는건가
뜰 앞의 잣나무²⁵⁾라 그게 무슨 일이런가
예부터 가야 할 길 인간윤리 그 길이지

4.84 차종인정진(次宗人正進) 景漸 見贈韻

壬申。余守靖陵。正進科行歷訪。因留奉恩寺做業。頻有過從之樂。
癸酉春。余在直中。正進來齋室夜話。因示一律。遂次贈。
齋居日日謾長吟。胸裏乘除到古今。自媿虛名縈世網。誰將眞訣戒初心。
禪窓話舊親情厚。客榻論文見解深。臨別各存規警語。匡廬鈍斧擬磨針。
[順菴先生文集 安鼎福]

일가 정진 경점 이 준 시에 차운하다

임신년 내가 정릉(靖陵)을 지키고 있을 때 정진(正進)이 과거 보러 가는 길에 날 찾아 주었고, 이어 봉은사(奉恩寺)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자주 만나 즐기곤 하였다. 계유년 봄에 내가 직중(直中)에 있었는데 정진이 또 찾아와 재실(齋室)에서 밤늦도록 얘기하면서 율시 한 수를 보여주기에 나도 차운해서 주었다.

재실에 있으면서 날마다 시나 읊고
속으로는 고금사를 저울질도 해본다네.
세상에 나도는 헛소문이 부끄러운데

25) 뜰 앞의 잣나무 : 어느 중이 조주(趙州)에게, “어떤 것이 조사(祖師)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라고 묻자 조주가 대답하기를,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고 한다.

그 뒤라서 참공부로 이 마음 깨우쳐줄까.
 절간에서 옛이야기 정이 더욱 두터웁고
 객지의 학문 토론 견해가 깊네그러.
 작별시에 주고 받은 각별한 당부 말은
 무딘 도끼 바늘 같듯 쉬지 마라 한 것이네.

4.85 봉은사감음(奉恩寺感吟)

四十年前負笈郎。飄零還宿此禪堂。羞將老我繁霜鬢。更對金仙滿月光。
 桑下夢回情黯黯。梅墟香盡事茫茫。同庚皓釋煩相愛。貽得盤蔬匕筯忙。
 梅花堂。曾所棲息。訪之爲一區荒墟。篇內云。[樊巖先生集 蔡濟恭]

4.86 자경환향단구 광진주중 기회리익경 自京還向丹丘 廣津舟中 寄懷李翼卿

來時與君同作行。去時君留我獨征。廣陵江上倚孤舟。蘆葉淅淅多秋聲。
 楮島何在遠煙起。夕陽明滅奉恩寺。奉恩是我龍泉菴。往歲攻苦禪窓裏。
 早起盥洗登佛殿。了得新題未午晷。回身讀書如不及。暝色生樹然後已。
 六月七月天甚熱。肌膚汗積流如潑。僧飯不飽寺蚊嚙。艱哉硯北多歲月。
 歸來一蹴龍門高。如有鬼神酬其勞。今君負笈如故我。佛榻夜夜焚膏坐。
 若能孜孜杵成針。何妨落落商與參。蒹葭白露秋陰暮。所謂伊人不可尋。
 [樊巖先生集 蔡濟恭]

4.87 숙봉은사승주(宿奉恩寺乘舟)

扁舟繫宿禪簷。三老開頭報水籤。夜雨染生千樹嫩。朝雲畫出萬峯尖。
 東陵悅眼春光早。南漢傷心落照添。聞說龍門花事爛。山行日子不須占。
 [無名子集詩稿 尹愔]

4.88 봉은사(奉恩寺)

理筇今選日。負笈昔何年。宏豁樓金粟。依倚地白蓮。
 居僧奔野穡。遊客住湖船。莫道非高嶽。風光正可憐。
 [無名子集詩稿 尹愔]

4.89 봉은사매화료(奉恩寺梅花寮)

石磬圓清徹二陵。山門出拜夕陽僧。金剛晚向如來借。讀就迴廊織屨燈。
 [靑莊館全書 李德懋]

봉은사 매화료에서
 석경 맑은 소리 두 왕릉에 들리고
 석양에 산문 나와 절하는 중이라
 늦게서야 금강경을 여래에게 빌려
 행랑방 신 삼는 등불에 읽어보네

4.90 조추배중씨유봉은사시습경의(早秋陪仲氏遊奉恩寺時習經義)

避喧思出郭。乘興復移舟。帆落三山暮。沙迴一徑幽。
 倦游欺素學。初地見清秋。阿世公孫子。滔滔未解羞。
 [與猶堂全書 丁若鏞]

초가을에 중형을 모시고 봉은사에서 노닐며
 이때 경전의 뜻을 익혔다
 번잡 피해 성밖을 나가려던 차
 흥을 타고 다시금 배를 옮겨가
 해 저문 삼산에서 돛을 내리니
 그윽한 한 가닥 길 강변 들렀네
 객지 생활 평소의 학문 등지고
 맑은 가을 낫설은 곳에 만났네
 세상에 아부했던 공손자²⁶⁾ 따윈

26) 공손자 : 한 무제(漢武帝) 때 사람으로 춘추(春秋) 등 경전에 밝아 박사(博士)를 지냈던 공손홍(公孫弘)을 말한다. 나중에 어사대부(御史大夫)와 승상을 역임하였는데, 겉으로는 너그럽고 속으

명리에 깊이 빠져 부끄럼 몰라

4.91 숙봉은사(宿奉恩寺)

窈窕琳宮迥。逶迤碧水彎。故從絲管至。頗似錦衣還。
花發無新樹。僧來盡舊顏。應知李供奉。終老愛匡山。
岸樹斜陽紫翠籠。江行十里繫孤篷。欣瞻樓閣林中出。
相顧衣冠野外同。蕪郭忍飢憐宿地。慈恩題塔有遺風。
山僧也愛藍袍色。應是塵根未盡空。

[與猶堂全書 丁若鏞]

봉은사에서 잠을 자며

임궁²⁷⁾은 깊숙하여 아스라하고
푸른 물은 굽이져 이어졌는데
풍악을 앞세우고 찾아 오니
금의환향 너무도 흡사하여라
피어 있는 꽃나무 낮선 게 없고
맞이하는 스님은 모두 옛 얼굴
이제 진정 알괘라 옛날 이 공봉
늡도록 저 광산을 사랑했었지²⁸⁾
언덕 나무 석양빛에 보랏빛이 어렸는데
십 리의 강을 저어 외론 배를 매 두었네
숲 속에 솟은 누각 반가웁게 쳐다보고
들박이라 차등 없는 의관 서로 돌아보네
끓주림 참던 낡은 성 옛 땅이 가련한데²⁹⁾

로는 각박하여 자기와 사적인 유감이 있는 자에 대해 길으로는 좋게 대하면서 은근히 보복하였다 한다. 다산이 이때 경전을 익히는 중이므로 그를 거론하여 올바르게 못한 유자(儒者)를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27) 임궁 : 신선이 거처하는 곳으로, 절에 대한 미칭이다.

28) 이제 …… 사랑했었지 : 이 공봉은 당나라 현종 때 한림공봉(翰林供奉)을 지낸 이백(李白)을 가리킨다. 광산은 중국 사천(四川) 강유현(江油縣) 서쪽에 있는 산 이름으로 대광산(大匡山) 또는 대강산(大康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백이 그곳에서 글을 읽었다 한다. 옛날 이백이 광산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산 또한 한적한 봉은사가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자은사³⁰⁾ 탐 이름 쓰던 유풍이 남았고녀
 산중 또한 진사의 남포 빛을 좋아하니
 아마도 속세 잡념 전부 아니 비었나 봐.

4.92 사거잡시(寺居雜詩)

曉日滄涼佛殿前。朧朧樹色帶微煙。科頭急就禪樓上。要聽今朝第一蟬。
 翠禽飛上白蓮頭。蓮柄搖搖了不憂。貌如恬靜心還巧。唯待魚兒水面浮。
 二陵松柏碧連綿。猶帶蜻蛉舊剗煙。石馬石羊無語立。雲巖東望涕潸然。
 施主豪門不惜財。佛前紅帳歲新裁。僧房怪有烏圓養。云是諸宮謫降來。
 楮子洲邊落日時。萋萋巫鼓水神祠。村人密聽呢喃奏。多是閨中怨女詞。

[與猶堂全書 丁若鏞]

절³¹⁾에서 지내며 지은 잡시

불전 앞에 비치는 새벽 햇살 처량한데
 희미한 나무 빛깔 엷은 안개 띠었네
 맨머리로 절간 누각 급히 뛰어오르는 건
 오늘 아침 처음 우는 매미소리 듣고 지고
 흰 연꽃 머리 위에 과랑새가 날아올라
 연줄기 흔들려도 전혀 걱정 아니하네
 걸모습은 조용하나 속마음은 교활하여
 물위에 떠오르는 고기새끼 기다리네
 두 능의 송백 우거져 푸른빛이 깔렸으나³²⁾

29) 굽주림 …… 가련한데 : 다산이 지난날 얼마 동안 봉은사에 있을 때 배가 고팠던 일을 회상한 말인 듯하나 자세치 않다.

30) 자은사 …… 남았고녀 : 자은사는 중국 섬서(陝西) 장안(長安)의 동남쪽에 있던 당 나라 때의 절로서 그 곁에 안탑(雁塔)을 세워 인도에서 들여온 불경과 불상을 그곳에 수장하였다. 당 중종(唐中宗) 말기부터 진사에 급제한 사람에게 대해 황제가 곡강(曲江) 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안탑에 그 이름을 썼다는 데서 나온 말로, 다산 또한 진사에 급제하여 봉은사의 탐에 이름을 썼다는 것으로 보인다.

31) 절 : 저자도 강변이란 말이 있으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수도산에 있는 봉은사를 말한다.

32) 두 능의 …… 깔렸으나 : 두 능은 봉은사 곁에 있는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파헤친 것을 다시 수습하여 봉분을 쌓은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다. 선조 말기에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 윤안성(尹安性)이 풍자하는 시를 짓기를 “회답사란 이름 띠고 어디

고추잠자리 오히려 옛적 풍상 떠있고네
 석마와 석양들은 우두커니 서 있어
 동녘 하늘 바라보니 눈물 절로 흐르네
 부잣집의 시주들은 재물 아니 아끼어
 불상 앞의 붉은 휘장 해마다 새로 만드네
 이상할사 승방에서 까마귀를 기르는데
 여러 궁인 혼백이 내려온 것이라네
 저자도 강변에서 해가 지는 무렵에
 둥둥둥 수신사의 무당 북소리 울리네
 마을 사람 증얼대는 소리 몰래 들어보니
 거의 모두 규중의 원한 품은 여인의 말

4.93 정재체직 봉기윤수찬 영희 우거봉은사관상인방장 靖齋滯直 奉寄尹修撰 永禧 寓居奉恩寺寬上人方丈

南北飄萍十數年。板頭方丈結眞緣。如今病枕三更夢。多在牟尼繡纒前。
 玄毛日日白於銀。石火風燈摠暫因。面上世情如紙薄。眼中生計勝茶莘。
 君將紅紙束高閣。我着藍衫直寢園。一劫滄桑淘盡後。相逢猶說健陵恩。
 蕭寺東隣問僦居。雪晴風味更何如。紅露一盞無多酌。聊慰文園病渴餘。

[薄庭遺藁 金鑣]

4.94 정릉상매봉은사일숙환(靖陵賞梅奉恩寺一宿還) 舟中作

倚棹青山影斷邊。回看去路變俄然。水晶域裏奚囊客。金粟堆前縞袂仙。
 渡口垂楊深日日。馬蹏芳草綠年年。篙師會我留連意。剪盡江波入彩箋。

[警修堂全藁 申緯]

로 향해 가나. 오늘날에 화친이라 내 그 뜻 모를레라 한강가에 이르러 저쪽 한번 바라보소 두
 능의 송백 아직도 가지 아니 자랐는 걸[使名回答向何之 此日交隣我未知 試到漢江上望 二陵松
 柏不生枝] 하였는데, 정약용이 그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4.95 종손항여객유어동호지봉은사 從孫杭與客遊於東湖之奉恩寺

秋七月旣望 從孫杭與客遊於東湖之奉恩寺

記昔余閏七月旣望東湖之遊有感。

東湖送汝泛秋船。疇昔之遊不記年。明月湧金人渡後。白雲如海寺門前。
蘓仙夢鶴無眞境。李委吹簫亦幻緣。何處江山非赤壁。醉堪吟眺醒堪傳。

[警修堂全藁 申緯]

4.96 봉은사분운득령자(奉恩寺分韻得泠字) 五排十句

名利知相近。吾行豈可停。沂迴游水府。迢遞問禪扃。磻草明幽色。
巖花表異馨。午風巾欲墮。晴靄酒初醒。肅穆危樓迥。黝深古木冥。
萬峰環拱揖。三佛坐虛靈。卓錫飛泉湧。談經老石聽。慧禽唬處靜。
粥鼓喚來惺。咒偈清煩惱。漱流滌穢腥。山門歸去後。魂夢日泠泠。

[海翁詩藁 洪翰周]

4.97 도한강지정릉 유봉은사(渡漢江至靖陵 遊奉恩寺)

季秋初五。同族人石觀厚卿 益陽，川西徐汝心 應淳，丈藕尹

周老致聃，東黎任君元 百熙。渡漢江至靖陵。遊奉恩寺。

時念溪金定汝 洛鉉。爲寢郎也。仍與酌酒拈韻。甲子。

相尋蕭寺坐斜陽。遊子一筇秋興長。仙寢千年喬木老。江村十里晚醪香。
逢場款款開襟抱。別路迢迢又峽鄉。歲暮天寒爲信誓。褰裳且莫涉泉狂。

[重菴先生文集 金平默]

4.98 봉은사작(奉恩寺作)

悵別臨江寺。登舟已夕暉。林鴉過祠盡。僧磬出花遲。

城市自多事。歸來難定期。今宵有明月。迢遞寄相思。

[萬竹軒先生文集 徐益]

4.99 차봉은사승축운(次奉恩寺僧軸韻)

細雨輕簑背古城。夕陽行盡水邊程。風回上界傳香氣。花滿中臺出梵聲。
三浦商帆連寺落。二江春草向陵平。從今每欲懸燈宿。不厭山僧記姓名。
[萬竹軒先生文集 徐益]

4.100 증유봉은사(重遊奉恩寺)

知名江寺客重過。依舊山前一路斜。百歲閑遊能有幾。當時清伴已無多。
舟中雲起廣陵樹。渡口潮通楊子波。明日應悲城市迹。夕陽空送漢南鴉。
[萬竹軒先生文集 徐益]

4.101 선릉차제귀로 역입봉은사 시로정랑경복 宣陵差祭歸路 歷入奉恩寺 示盧正郎景福

老年供職本來難。大祝還兼典祀官。燭暗不分魚魯字。眼昏猶恐濬宗看。
仍過古寺逢僧話。却喜愁腸得酒寬。歸路莫愁山月暮。佇看新月出林端。
[西浦先生集 郭說]

4.102 제봉은사벽(題奉恩寺壁)

客從京師來。行過奉恩寺。今自靖陵歸。繫馬桃花樹。
[溪陰集 趙彭年]

4.103 봉은사(奉恩寺) 送蘓齋先生歸觀南中

赴召初心爲聖明。出城還使漢山輕。三春作客斑衣廢。千里思親白髮生。
江寺落梅今夕恨。驛程芳草去時情。仙舟杳杳龍門瀾。此後何因數寄聲。
[荷衣遺稿 洪迪]

4.104 봉은사(奉恩寺)

扁舟重訪古三清。楮島風烟摠有情。邂逅山僧談舊事。石壇松月欲三更。

[感樹齋先生文集 朴汝樑]

4.105 법원상인 출유봉은사 인여허령상회 시이증행
法遠上人 出遊奉恩寺 因與許鈴相會 詩以贈行

湖寺春遊早。烟花併在君。鍾清滿山月。衲潤渡江雲。
空外得眞象。塵中離垢氛。行逢許玄度。禪誦自成羣。

[鳴臯集 任 鏞]

4.106 중도봉은사(重到奉恩寺)

去歲前江雨。秋山訪道僧。白雲橫北渚。黃葉下西陵。
忽復來金地。依然對佛燈。浮生認是妄。端坐說三乘。

[苔川先生集 金地粹]

4.107 봉은사(奉恩寺)

湖寺曾遊處。梅花記往年。僧歸二陵雨。客渡廣津船。
兩岸蟬聲合。中洲樹影連。明朝解行纜。惆悵下江烟。

[龜谷詩稿 崔奇男]

4.108 차류촌은운(次劉村隱韻) 時期遊奉恩寺 而未果

尋僧有約去還遲。明月孤舟入夢思。芳草滿庭春又過。一年虛送好花時。

[龜谷詩稿 崔奇男]

4.109 봉은사차승축운(奉恩寺次僧軸韻)

空洲落晚潮。暝靄生寒樹。寺在亂峰秋。僧歸廣陵雨。

[龜谷詩稿 崔奇男]

4.110 원서여춘장급정릉재랑리의상 숙봉은사
元瑞與春長及靖陵齋郎李翊相 宿奉恩寺

湖上幽期誤幾秋。今來始得辦奇遊。齋郎妙藝春生鬢。高士閑情雪滿頭。
暫借烟霞探勝賞。各將詩酒見風流。開窓報道西樓月。爲我徘徊更少留。

[遜溪先生遺編 許厚]

4.111 숙봉은사(宿奉恩寺) 題熙上人詩軸 澤堂云極蕭散之趣

秋生古寺竹房涼。桂月松風滿石床。却伴高僧閑話處。數聲清磬一鑪香。

[雪汀詩集 曹文秀]

4.112 향광릉촌장 오계봉은사 차승축운
向廣陵村庄 午憇奉恩寺 次僧軸韻

小嶼沙邊蠹。清江寺下深。山光濃佛頂。鶯語鬧花陰。
故友同遊約。新莊獨往心。幾回從此路。秋景可重尋。

[梧灘集 沈攸]

4.113 여신원서 명규 동숙봉은사 차원서운
與申元瑞 命圭 同宿奉恩寺 次元瑞韻

禪窓相對倍依依。夜色淒清酒力微。送爾不堪孤露感。扁舟載得老萊衣。

[梅澗集 李翊相]

4.114 봉은사제증이윤보(奉恩寺題贈李潤甫)

孤舟夜泊楚雲陞。韻士風流此一時。雪後江天新氣色。燈前我友舊心期。
鷗鷺淺瀨知寒峭。酒盡薰爐覺興移。更欲鋪張誇勝事。細收光景入吾詩。

[六寓堂遺稿 李夏鎮]

4.115 환자봉은사도중사의(還自奉恩寺途中寫意)

三角峯高得雪多。馬頭西望白峩峩。疾風駕我投孤店。熱酒澆腸倚半酌。
詩好非關灞橋興。舟迴新自剡溪波。奇遊未竟心難慊。更上青門浩浩歌。

[六寓堂遺稿 李夏鎮]

4.116 봉은사유작(奉恩寺有作)

庭槐無復夢。沙月有餘清。短棹滄波濶。眠鷗且莫驚。
寒鐘清刮夜。翠栢上參天。客子冷無夢。高吟長笛邊。

[六寓堂遺稿 李夏鎮]

4.117 봉은사(奉恩寺)

獨自鳴鍾拂曉霜。又交兩手法衣長。金仙不語傳心教。寂寂天花滿地香。

[六寓堂遺稿 李夏鎮]

4.118 증봉은승(贈奉恩僧)

獨啓禪扉掃曉霜。又交兩手法衣長。金仙不語傳心教。寂寂天花滿地香。

[六寓堂遺稿 李夏鎮]

4.119 관저포(觀樗蒲)

樗蒲一擲我何能。風雪三更共客燈。驅使詩情鬪雲物。免教羞殺奉恩僧。

[六寓堂遺稿 李夏鎮]

4.120 봉은사(奉恩寺) 次法心卷中孤竹韻

招提東畔小堂清。始覺塵緣到此輕。坐對胡僧談寂滅。夜深禪壁佛燈明。

[琴湖遺稿 李志傑]

4.121 봉은사(奉恩寺) 次僧軸韻

僧勸香茶一味清。晚風吹袂覺身輕。子規聲裏巖花落。夜靜山空月正明。

[琴湖遺稿 李志傑]

4.122 봉은사(奉恩寺) 留別初上人

爾與青山住。吾將倦馬歸。出林江水濶。離思倍依依。

[雪蕉遺稿 崔承太]

4.123 여림자소기유봉은사(與林子昭期遊奉恩寺)

湖上曾憑古寺樓。滿林風雨暑氛收。今朝又欲同君去。興似搖搖不繫舟。

[雪蕉遺稿 崔承太]

4.124 억림자소(憶林子昭) 時在奉恩寺

遙想禪宮獨坐凝。暖風晴日滴簷冰。梅花亭古巢馴鴿。貝葉經殘問老僧。
每夜雲林空有夢。少年湖寺數携朋。多君物外耽閑趣。散步香臺塔影層。

[雪蕉遺稿 崔承太]

4.125 봉은사(奉恩寺) 同諸友夜飲次韻

會宿招提雪。醉醒樓閣風。高歌徹雲表。秀句滿天東。

我輩可無可。人間同不同。休論榮落事。江漢有孤篷。

[松坡集卷 李瑞雨]

4.126 보상종남후록 차금사백운 시일봉은사승적래방 步上終南後麓 次金斯百韻 是日奉恩寺僧適來訪

孤亭如斗枕山垠。秋晚霜林落葉紛。緩步偶尋幽磴石。矯頭却望遠峯雲。
松間鳥語醒心悅。杖外花香襲袖薰。珍重老僧來乞句。共譚玄趣到斜曛。

[一峯先生詩集 趙顯期]

4.127 상태극정시일봉은사승적래방
上太極亭是日奉恩寺僧適來訪

寒塘水落石稜出。霜着巖楓一半紅。談罷小亭僧獨去。亂山秋色夕陽中。

[一峯先生詩集 趙顯期]

4.128 석여망우리호경독서우봉은사
昔與亡友李皓卿讀書于奉恩寺

昔與亡友李皓卿讀書于奉恩寺。轉眄之頃。星歲屢變。

已是十七年前事。今日重來。自多存歿之感。漫成一律。

八月江風脆柳絲。沙頭立馬喚篙師。十年崖寺同遊處。一路秋花再到時。

暝靄蒼茫山影遠。寒波烏咽水聲遲。淒涼玉樹埋千丈。孤負平生歲暮期。

[養窩集 李世龜]

4.129 부왕봉은사(復往奉恩寺) 途中卽事 次杜第三

平郊已盡又荒溪。宿客重來路不迷。山勢皆趨三畝北。江光半隱二陵西。

寒花瑣瑣明人眼。落葉紛紛亂馬蹄。信轡行吟殊未倦。秋晴沙岸淨無泥。

[養窩集 李世龜]

4.130 여제질손유저도 숙봉은사호운
與諸姪孫遊楮島 宿奉恩寺呼韻

江日餘輝映晚沙。島櫻非節乃紅霞。秋霜未染園陵樹。曉雨疑飄祗苑花。

孫韻先成毫欲罷。僧泡不淡肉何加。梅堂長老今誰在。如汝年時所宿家。

[后溪集 趙裕壽]

4.131 저도과금삼연 창흡 공택 심승봉은
楮島過金三淵 昌翁 空宅 尋僧奉恩

張帆桃花水。停舟楮子村。野堂題鳳罷。禪院對僧言。

晴景籠湖麗。春陰護寺繁。風潮催興盡。忽與返柴門。

[后溪集 趙裕壽]

4.132 봉은호사조춘(奉恩湖寺早春) 丙寅

明公宴室野湖前。鐘梵聲遙覺地偏。雪水初平桃葉渡。韶光欲入雨花天。
飢從香積分朝供。懶被高禪笑晏眠。戲問慈航亦何力。寒洲日暮有呼船。

[后溪集 趙裕壽]

4.133 우후조과봉은사(雨後早過奉恩寺)

水天分霽色。 蒼茫煙霧闢。 殘月弄清曉。 帆影印空碧。
湖寺微鐘落風便。寒聲隱隱數峰隔。斜倚船窻和夢聽。遙憶姑蘇城外客。

[和菴集 申聖夏]

4.134 차리생봉은사서탑운(次李甥奉恩寺書榻韻)

壁光難借北隣燈。禪榻同棲白社僧。書自下帷追董子。詩無題瀑戒徐凝。
林童慣客依爲僕。沙鳥親人喚作朋。擬向孤山踏春雪。病餘筋力更何能。

[寄翁集 南漢紀]

4.135 봉은사증계민사(奉恩寺贈戒敏師)

三十年前此寺遊 逢君今日更登樓 傷心自惜浮生事 回首還慙有道流
風景不殊秦苑夕 雁聲初度廣陵秋 傾茶坐對寒宵永 說盡江南久別愁

[翠微大師詩集]

4.136 봉은사증간화엄경(奉恩寺重刊華嚴經)

重重法界一圓融 繁出能仁海印中 誦憶龍宮翻竺夏 疏抄鷲寺轉華東
澄光蹇否容原始 靈覺流通豈要終 因此奉恩能繡梓 奇師可謂大成功

[櫟山集 釋, 善影]

4.137 봉은사(奉恩寺)

遠遊嶺外客、來飲奉恩泉。蔥鬱喬山樹、微茫楮鳥煙。
百年佳麗地、三月暮春天。塵慮都消歇、人間半日仙。
[雪川先生文集 李宜活]

4.138 사봉은승송소(謝奉恩僧送蔬)

董役橋陵日。過從只有師。情濃蒲薦暖。話久柏陰移。
雲散別來遠。江長書到遲。殷勤菜把贈。可但慰相思。
[忍齋先生文集 洪暹]

4.139 증산인성암암증주봉은 贈山人性菴菴曾住奉恩 時將遊頭流

憶過奉恩寺。蕭蕭楮子秋。華巖一夜雨。搔首十年愁。
[霽峯集 高敬命]

4.140 차소재상국운제유정축(次蘇齋相國韻題唯政軸)

奉恩禪子下江南。消息遙驚報性庵。聞說古槎梅老盡。樹猶如此我何堪
[霽峯集 高敬命]

4.141 증봉은승(贈奉恩僧)

爲憶奉恩江上寺。客船曾過九秋中。霜楓落月孤眠處。猶記當時夜半鍾。
[玉峯詩集 白光勳]

4.142 증봉은승운수(贈奉恩僧雲水)

日暮驅驢度石橋。遙聞微磬在山椒。高僧不掃門前雪。一點香燈照寂寥。
[玉峯詩集 白光勳]

4.143 증산인(贈山人) 二首

江南兩釋子。漢北一衰翁。缺舟泛月中。
憶過奉恩寺。蕭蕭楮子秋。缺。回首十年愁。

[孤潭逸稿 李純仁]

4.144 봉은승상일(奉恩僧霜日) 卽舊交大機之甥也 感念存歿 情見乎辭

自從機釋臥青山。方外無人可往還。豈意如今逢酷似。驚嗟一倍鬢毛斑。

[一松遺稿 沈喜壽]

4.145 제해천축차아계운(題海天軸次鵝溪韻)

東湖春水已無冰。魂夢依依過二陵。欲問梅花開幾日。門前報立奉恩僧。

[五峯先生集 李好閔]

4.146 난후시과한강(亂後始過漢江)

兩岸西風紅蓼花。清江水漲半侵沙。孤舟犯曉煙猶重。暮齒逢秋髮自華。
亭館遺基今掃地。山河舊國未還家。荒村廢圃無人管。寒蔓空懸烏啄瓜。
故國離居間幾春。江山空對未歸人。歡華一瞥那盈眼。竹帛三冬欲腐唇。
不分乘槎上牛斗。無心留影在麒麟。年年奔走塵埃裏。鷗鳥還應笑病身。
山川極目淚沾衣。十載思歸此日歸。澤國蒹葭秋後茂。水村楊柳亂來稀。
輕風滿峽孤舟起。小雨連江宿鷺飛。身老豈堪仍適遠。白頭零落壯心違。
江村處處有頽牆。草實離離綴晚芳。流落殊方身已老。歸來故國恨何長。
菰蒲小澤秋聲早。荷芰長洲暮雨香。正憶尋僧奉恩寺。酒壺欵側繫驢傍。

[體素集 李春英]

4.147 정릉사차승축운(靖陵寺次僧軸韻)

葉山南畔奉恩寺。雲衲翩翩候道周。軟語欲闌香篆歇。不堪禪榻鬢絲秋。

[竹南堂稿 吳竣]

4.148 차운증상인(次韻贈上人)

邇來心事類彫氷。簾捲終南爽氣增。茶夢欲圓驚扣戶。乞詩知有奉恩僧。

[竹南堂稿 吳竣]

4.149 제법심축(題法心軸)

吾壯時。遊名山澤。多識沙門弟子。其徒亦樂與名士大夫知姓名。於是有詩軸題名之卷。曩時多難之世。所謂卷與軸。或爲禍階。爲世禁戒久矣。自數十年來。京山釋子往往持卷軸者有之。今吾來奉恩寺。見寺僧求詩者八九。世道之遷易。人事之開晦。亦於此見矣。

[記言別集 許穆]

4.150 손상사장문(孫上舍長文) 景郁 輓

人言名父爲子難。長文藉藉儕友間。我初不見慕其人。一見懽然傾心肝。楮島風清木葉落。廣陵月出層氷白。江頭換酒匏作觶。夜深緩步奉恩寺。是時同游六七公。千里文雅嶺中至。解橐傾樽卽爲樂。交臂加跣無拘束。十日懽飲猶世稀。八載離恨轉依依。君身自有濟川具。時至便能繪舜衣。吾道近來成嗟跎。時會周天奄山阿。君又不淑天謂何。舊游回首足悲咽。祇今誰數南州傑。有琴誰爲彈流水。有耳無復唱白雪。嗟君不幸存者長。况復皃皃穉家郎。窮通脩短不足定。爲將斯語慰高堂。

[訥隱先生文集 李光庭]

4.151 증종질경증(贈從侄景曾)

不易人生會合時。與君持酒語遲遲。相思幾日如流水。贈別今朝又折枝。明禮坊中春月好。奉恩寺外野花奇。往來未必無佳景。應少心期似我知。

[椴溪先生遺稿 尹定鉉]

4.152 차산인덕화시권운 화내봉은승구상식자 次山人德和詩卷韻 和乃奉恩僧舊相識者

京國追從記少時。與師方外托心知。奉恩寺裡梅花發。楮島舟中月色奇。
萬里江湖空入望。十年歧路廢吟詩。天涯相對渾如夢。他日重尋莫失期。
身世悠悠滯一方。故園歸路正茫茫。十年蹤迹君休問。萬事如今白髮長。
蕭寺尋梅問幾年。至今歸夢繞江天。閉門窮峽無人到。面壁灰心學老禪。
[竹窓遺稿 具容]

4.153 강상잡절(江上雜絕)

舞童島石幾時憑。古木蒼然翳靖陵。十數年來存沒感。相知只有奉恩僧。
[茅洲集卷 金時保]

4.154 증봉은사승(贈奉恩寺僧)

橋山古寺昔曾過。蘋末西風鴈影斜。南去北來人易老。白雲紅樹夢偏多。
舟中宿客依寒葦。天外尖峯浸晚波。遙想閑遊謾回首。高樓獨立數棲鴉。
[梁大司馬實紀 正祖]

4.155 이주향봉은사차리여인운(移舟向奉恩寺次李汝仁韻)

山頭落日下汀洲。天外風生水國秋。蘆荻多邊問漁父。樓臺好處繫蘭舟。
月因有約侵浮蟻。人爲忘機近沒鷗。聞道金山宜結社。欲從元老借閑邱。
[梁大司馬實紀 正祖]

4.156 우언(寓言)

寓近奉恩寺。朝夕聞梵呪。其徒設法教。勸誘多委曲。謂死復托生。
輪迴道有六。我初不信之。困窮後稍惑。古來聖賢多。至今留芳躅。
伊達與顏窮。隨遇道自足。顧我獨何因。稟性頑且濁。爲善志不堅。
物誘易爲惡。悠悠過一生。日月虛拋擲。髮白死將至。罪戾如山積。
懺悔始歸依。庶幾愆尤贖。今生已無及。願托來生福。來生果何願。
所願孔子學。立志必堅固。期見所立卓。莊敬以自疆。厚重以誠篤。

凡我不好處。一一變之速。不要得名譽。但要務實得。不作不善事。
行己無一慝。平白下工夫。不用務奇特。顯地加精進。不向玄妙索。
凡此若干事。是我願之極。伏惟法王子。慈悲賜矜惻。令我得所求。
受諸般快樂。禱祝合掌拜。歸來倦而寂。夜夢得佛報。汝志我已識。
汝既自知之。汝宜自勉飭。爲仁固由己。有不容佛力。何用待來生。
行之宜在即。汝年雖已邁。來日是可惜。漢皇悔輪臺。衛侯詩戒抑。
苟得一日活。可盡一日責。重拜謝佛恩。旣寤汗沾服。持戒不敢失。
平生願執役。[晚悔集 權得己(1570~1622)]

4.157 ○동도(穩穩島)

舟近奉恩寺。京山滿帆來。大江多曲折。孤島似徘徊。
水氣人心遠。秋風郡國開。相携此去興。一上白雲臺。

[石北先生文集 申光洙]

4.158 억석(憶昔) 二絶○并序

昔年偕金士謙 益休 白載聞 思 自漢上沿江赴京城。舟至舞童島東。秋水向
落。閣沙不得行。天已昏矣。乃步投陵中奉恩寺。聞鐘聲。白君曰亦一醒耳
者。余笑曰不記先玉峯本陵時詩。別後秋江水。雲林隔幾重。孤舟月未落。遙
聽翠微鐘乎。士謙顧白君曰吾與若內外孫。今偶過此。適值有此。奇哉。余又
爲之一笑。今八月中秋之曉。余方舟行而月斜鐘動。依朕十年光景。而士謙多
病。白君已早世可哀。因步玉峯詩。以志前後感慕云。

歷歷嘉隆詠。秋江雲樹重。居難有餘愧。猶共一樓鐘。

右慕玉峯

尚憶聯金白。江行入翠重。居朕十年事。獨聽奉恩鐘。

右懷存沒二友

[頤齋遺藁 黃胤錫]

4.159 도중니원(都中尼院)

都中有慈壽，仁壽兩尼院。後宮之老無依者多住焉。顯宗二年。因玉堂筍撤之。慈壽院有列聖位版。依奉恩寺例。卽令埋淨地。繼因同春議。以毀院材瓦。設北學。今泮宮一兩齋是也。 [研經齋全集外集 成海應]

4.160 증건봉사주지설매사증주봉은사 贈乾鳳寺住持雪梅師曾住奉恩寺

幾番烟浪泝孤舟。江上招提憶舊遊。洛下半生稱放曠。桑門一代擅風流。
共吟詩句梅堂月。相對紋枰竹院秋。人事十年如幻夢。白頭飄泊海東洲。
[松潭集 宋栴壽]

4.161 유봉은사(遊奉恩寺)

江干石路轉林間，帽影靴塵日往還，佛界天花香滿室，王孫春草綠侵欄，
未參禪座三車演，只得浮生半日閑，醉甚不知沙彌笑，東搖西擺出松關。
[韋庵文稿 張志淵]

4.162 자득도향수도산봉은사(自蠶島向修道山奉恩寺)

泛泛蒼波鏡絕塵 無心鷗鷺不驚人 更尋修道精藍路 滿地香雲始覺眞
[一光 中央佛教專門學校 校友會 柳錫奎]

4.163 이비사도경숙봉은사(以碑事到京宿奉恩寺)

臥聽寒聲繞短簷 政知融雪滴纖纖 一春時興身同倦 千里羈愁骨欲尖
爐爲深灰通曉煖 燈因長夜數油添 南湖有我同床侶 能記京山凍餒兼
蓮潭有一 撰[奉恩寺 寺誌 寺刹文化研究院]

4.164 청호상인견초부시(晴湖上人見招賦詩) 乙卯春

奉恩禪寺出入間 勝向三清煉九還 殿裏梅花王后澤 庭前栢樹祖師關

醉時心病作非病 靜處身閑不是閑 十里烟波歸棹晚 數聲飛笛落空山

李能和 撰[朝鮮佛教通史 李能和, 奉恩寺 寺誌 寺刹文化研究院]

4.165 유봉은사(遊奉恩寺) 越明年丙辰秋再

天山的歷萬林疎 霜落天清雁去初 宿草陵園尋舊誌[拜觀靖陵 偶閱舊誌 見奉恩寺來歷 及普雨和尚事蹟]³³⁾ 雜花樓閣見飛書[寺之華嚴經版殿額字 是金秋史書 筆勢如飛] 鷄橋明月仙人宅[寺之東隅有鷄店村 亦云三成里或楮島] 鶴店孤煙野老居 靜聽晴湖和尚語 不將車馬換鍾魚 李能和 撰

[朝鮮佛教通史 李能和, 奉恩寺 寺誌 寺刹文化研究院]

4.166 봉은사설계여한암선사(奉恩寺說戒與漢巖禪師)

金冽農 諸紳士共賦

宛然寶戒護諸天 何恨虛坐佛後前 幾劫分離塵上事 一宵談論火中蓮
尊師法語開人眼 寒殿鍾聲撼客眼 世諦牽引終不拒 明朝相送出雲烟
江上禪林避熱天 不期相會梵宮前 道場淨盡無明草 水面香深妙法蓮
身與雲處塵外住 心空名利定中昵 山家那得閒生活 俗諦煩勞在食煙

韓奎 撰[奉恩寺 寺誌 寺刹文化研究院]

33) [拜觀靖陵~及普雨和尚事蹟] : 奉恩寺 寺誌에는 없고 朝鮮佛教通史에 收錄된 文章이며, 以下の 작은 글씨도 같다.

5. 산 문(散文)

5.1 기(記)

5.1.1 봉은사기(奉恩寺記)

有客也 風雲爲氣也 江海爲量也 日月爲眼也 春秋爲息也 踏着於盤古之頂也 而顧眄於無窮之域也 到此寺也 而記其事也 登殿閣則可納涼也 臨翠池則可銷暑也 賞蓮而香觸鼻也 觀梅而月入窓也 漢水在左而貫東西也 巨路在右而通長安也 由是 繫船也 繫馬也 客之喧動也 日無窮也 主之迎之送之也 亦無窮也 南別室 纔捲席也 而東別室 又設筵也 食凡未撤也 而茶床繼排也 炊萬鼎而終朝也 舂百石而一旬也 其爲客也 或恭也儉也 醉也醒也 瞋也喜也 凡態度也 莫得而狀也 然其爲主人也 於眼 有不着色工夫也 於耳 有不著聲工夫也 故言辭動容也 必有一態度也 嗚呼 富貴也者 人之所同好 而亦人之所同惡也 貧賤也者 人之所同惡 而亦人之所同好也 今也主人 以貧賤之身 得富貴之名也 奉恩也 無是非之身 得好惡之名也 亦奉恩也 古人云 文豹之災者 爲皮也 今之奉恩也 亦主人之一皮也 雖然富貴也 貧賤也 是非也 好惡也 其在於主人之身上也 如浮雲之在太虛也 噫 聞主人之名者徒知主人聲色之樂也 而不知主人雖聲色之樂也 見主人之身者 徒知主人離聲色之樂也 而不知主人卽聲色之樂也 主人者誰 曹溪碧松大師逍遙子也 時皇明嘉靖三十四年之乙卯 夏也

[清虛堂集 休靜]

5.1.2 봉은사불망기(奉恩寺不忘記)

今此奉恩寺啓下據呂州長興寺佛像材瓦器物等盡爲撤去爲卽去乙本寺器物難乏乙仍于佛像則爲先特來爲白遺其餘若干器物段亦爲借來爲知乎日後多小爭論之弊是去等將此不忘辨政之地事○玉井寺主張恒欽掌務善學 奉恩寺有司處堅海謙○○不一通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1.3 유우선종갑찰대본산봉은사지기 遊于禪宗甲刹大本山奉恩寺之記

余는 己酉春에 京城에 來호야 俗塵에 沒頭호는 餘暇로 朝鮮佛敎歷史研究에 潛心호지 邇來 七星霜에 識淺호야 業이 其緒에 去就호야 前途遼遠矣 러니 奉恩寺의 名을 聞之久矣라.

一遊를 試코져 호얏스나 不果호고 茲에 機緣이 熟호야 四月初三日 神武天皇祭日을 當호야 其朝八時 林町의 寓를 發호야 電車의 便에 依호야 轟島驛을 經호야 箭串橋를 渡호야 一望廣闊호 廣野를 過호야 漢江의 渚에 至호야 渡舟를 待호는디 舟中에 僧이 有호니 是卽 晴湖禪師러라.

師는 覺皇敎堂으로 前往의 途次忽逢忽別호고 轟島學校의 敎師生徒의 紀念樹에 赴호는 者와 同乘호니 漢水汪汪호고 風靜波穩호야 水盤과 如호더라. 岸에 達호야 畦路를 迪호고 小峙를 越호야 松林疎生의 處에 禪房이 有호니 此는 奉恩寺러라.

寺는 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修道山麓에 住호니 山門으로 入호야 來意를 告호는디 講師 崔高峯氏가 余를 住持室에 導호야 喫茶 少話後 寺內를 一巡호고 下午三時 寺를 辭호고 五時 歸寓호니 其見聞호 바에 依호야 現存호는 遺物에 就호야 普雨和尚, 南號律師, 金秋史 等의 事蹟을 懷古호고 其概要를 摘載호야 江湖 諸賢의 敎示를 仰코져 호며, 終에 臨호야 全寺 住持 羅晴湖氏와 崔高峯씨의 厚意를 感謝호노라.

(一) 大雄寶殿內的 玉石梅花板

此는 明宗王朝 其生母 文定王后 [識見을 有호 佛敎信者로 僧科復興을 行 호니 라]로브터 普雨和尚에 下賜호신 物이하호는 傳說이 有호며, 普雨和尚은 初에 江原道 襄陽郡 神興寺에서 剃髮호야 明宗王의 朝에 金剛山으로브터 被召호야 文定王后의 崇佛僧政의 謀議에 參호고 同王 五年에 奉恩寺를 禪宗으로 作호고 奉先寺를 敎宗으로 作호에 和尚은 都大禪師判禪宗事를 拜호고 奉恩寺에 住錫호지 邇來 十數年間 僧科를 舉行호니 西山大師 淸虛 休靜도 此僧科에 及第호니라.

同王二十年에 文定王后昇遐호시고 明宗王의 親政이 된지라 李珥의 上疏

를 因호야 全羅南道 濟州에 竄配되야 杖死호니라. 其後 奉恩寺 住錫 當時의 行狀文書는 燒火의 厄을 當호야 一縷의 烟으로 變호고 又寺의 洞口三 成里에 建立호는 普雨和尚 行蹟碑도 亦寺奴의 後孫으로 因호야 江心에 投沈호야 一抹의 泡로 化호엿더라.

和尚이 世去한지 爾後 春雨秋風 三百五十年을 過호니 懷舊의 情을 禁키 不能호도다. 嗚呼惜哉라. 和尚의 所著 虛凝集은 世間에 行호얏다호나 余는 一見의 榮을 不得호엿노라.

(二) 經藏殿內的 經文刻板

- 一) 疏鈔華嚴經 八十卷, 二) 維摩經,
- 三) 準提千手合璧, 四) 天臺三隱詩集

傳記經卷木板은 殿內四隅架棚中에 堆積호얏는대 其一을 取호야 見호는 字畫이 正楷호고 雕刻이 整美호더라. 此는 朝鮮哲宗王六年[清咸豐五年 我孝明天皇 安政二年 西紀一八五五年] 乙卯에 南湖律師가 募緣開刊호는 者라 師[父]의 諱는 彦奎오 俗姓은 鄭氏라.

무히 怙峙를 失호고 年十四에 其兄과 共히 三角山 僧伽寺 大演老宿에게 祝髮호니라. 其後 王子[西紀一八五二年] 江原道 鐵原郡 寶蓋山 地藏庵에 入호야 彌陀經을 寫호고 乙卯春의 廣州 奉恩寺에 至호야 前記의 經板을 造成호고 其後 雪嶽五臺名山에 移錫호얏다가 五十三歲에 示滅호니라.

臨終에 際호야 門人에게 告호야 曰 “欲投林獸無以應太息曰國風” 言訖에 逝호니라. 師는 戒律을 尊호며, 衰世에 際호야 是勤之호더라. 嗚呼라. 經板開刊의 偉業이 後進의 僧侶를 益호는 其功績이 豈非多大歟아 宣哉라. 門前樹下의 石碑가 名을 後昆에 傳호이어.

(三) 金秋史筆懸板

一) 經藏殿入口에 懸호는 것은 “版殿” 七十一病果라 記호고 阮堂의 印이 有호고 禪院內 “維摩板” 도 阮堂의 印이 有호더라.

是는 近世의 書家, 秋史 金正喜의 絶筆이라 傳 호는디 兩者筆力이 雄健호야 龍蛇飛騰의 勢가 有호야 實로 珍品이라 云호는디 秋史는 阮堂이라. 號호야 金石의 造詣가 深호며, 咸興 黃草嶺의 古碑와 北韓碑峯의 古

碑가 共히 氏의 識眼에 依호야 新羅眞興王巡狩碑됨을 知호였고 朝鮮 正祖王 丙午[我光格天皇 天明六年 西紀一七六六]에 生호야 哲宗王丙辰[我孝明天皇 安政三年 西紀一八五八年]에 沒 호니 年이 七十一이러라.

經板造成의 時에 證師로 奉恩寺에 被聘호 艸衣禪師도 秋史와 詩交가 有호았는디[全羅南道 海南 大興寺 開板艸衣詩藁中祭金秋史侍郎文參照]氏 도 亦禪味를 嗜호는 人임을 推知함이 足호도다.

前掲의 記事는 調査杜撰의 譏를 未免호는 校正은 他日을 俟호노니 讀者는 此를 諒호라. [佛教振興會月報 佛教振興會本部 稻田春水 未定稿]

5.1.4 봉은사유기(奉恩寺遊記)

지낸 日曜(五月十七日) 新綠에 나붓기는 可人의 薰風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의 遊心을 挑發한다. 溯歸하는 舟便을 利用하여 靖陵과 奉恩寺를 차짓다. [路順으로는 勿論 절(寺)에 먼침 간 것이지만은] 同伴은 家兒一人外에 短筇이 잇을 뿐. 春水如煙, 輕舟如矢 뒤에는 冠岳, 압호로 南漢의 雄姿를 指頭하게 되고 雪中으로 作出乍沒하는 三角奇態가 더욱 可觀이었다. 千古의 魏武를 이 자리에 喚起한다면 “美哉山河”의 感歎을 얼마나 더 發하얏슬지는 所謂汾水, 西河란 것을 낸 눈으로 보지 못한 限에 斷言키는 어렵지만 내가 본바의 大陸風景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景物에 限하여 支那의 山河 그것이 規模의 雄大를 除하고야 우리의 그것과 同日의 語가 되지 안는다. 所以로 明나라 朱之蕃이라는 學士가 平壤練光亭에 놀다가 “天下第一江山” 이라고 大書縣額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름 中國人은 朱學士가티 率直한 心性을 갖지 못하고 例의 夜郎自大的 傲尊으로 “天下” 二字를 追削하얏다 한다. 지낸날 우리 前人들의 “小華熱”과 支那人의 “自家神州” 癖이 이런데서도 露現된 것이다. 臨風一笑. ◇靖陵 奉恩寺는 曾遊의 地요, 또 近郊名勝으로 萬人俱訪한 곳인즉, 새삼스럽게 名勝과 景物을 써서 付託업는 京軌會社의 自薦宣傳員 노릇할 必要도 업슴으로 筆墨을 省略하기로 한다. 靖陵은 누구나 알다시피 朝鮮의 第十世 中宗大王의 梓宮 되신 곳이오, 一岡을 隔하여 宣陵이 잇스니 여기는 中宗의 父

王으로 目下 本紙 本面に 連揭中인 月灘麗筆에 依하여 寫出되는 “錦袵의 피”에서 날마다 뵈옵는 成宗大王의 萬年幽宮인 것도 贅言할 것이 업스며, 奉恩寺는 靖陵願刹로 好佛하시든 中宗王妃 文定后가 光陵奉先寺 의 前例를 援하여 이것을 創設하시고 寵僧 “普雨”도 住持에 任하여 全國의 禪, 敎 二宗 總判事를 兼攝케 하니 말하자면 普雨 그때 朝鮮의 僧王으로 羅馬法皇갓흔 勢威를 가져 全]僧侶에 君臨하게 되고 奉恩寺는 이 僧王의 常駐宮殿으로 때때에 靖陵參謁 오시는 文定后 香車를 마저 淨土極樂에 게신 先王薦福의 齋壇이 되고 太后的 法話드르시는 戒室도 되었스니 宗廟와 王宮을 除한 外에 이 나라에서 다시 업는 神嚴無比의 聖域이었다.

따라서 四百年後의 今日에도 近郊 各寺에서 볼 수 업는 壯麗의 氣像이 남아 當年의 繁榮을 말하고 있다. 普雨 僧은 本來 金剛山 某寺에 잇든 것을 때의 京畿監司 鄭萬鍾이란 사람이 薦進하여 鄭은 그 功으로 名實이 相副한 萬鍾錄의 榮華를 이 活佛과 太妃로부터 밧었다 한다. 成, 中 二朝는 朝鮮 儒林의 初期 盛時로 佛徒가 挫折밧든 나머지 幸으로 이런 機會를 만나 佛運中興의 盛을 보게 되었스니 普雨된 者가 참으로 戒行잇는 高僧善德이엇든들 佛教復興에 조흔 貢獻이 잇슬 것인데 不幸히 普雨는 그 機를 타고 그 位 에 잇섯스나 그 그릇은 아니었다. 도리혀 種種의 罪過를 짓고 太妃棄世後에 濟州로 귀양가서 牧使 邊協에게 杖殺되고, 僧科는 革罷, 佛徒는 極端으로 迫斥을 밧어 伊后 四百年 悲運을 招來한 것이다. 말하면 普雨는 佛門의 悖孫逆徒이다. ◇靖陵에 參拜할 때마다 우르러 생각가는 어른은 仁宗大王이시다. 그 어른은 世宗께 못지 안을 聖君의 資質을 가즈섯고 仁孝出天하야 萬古帝王이 이 點에서 匹儔될 분이 別로 업섯다. 東宮時代부터 北窓鄭璣, 花潭 徐敬德 두 賢士의 일흠을 드르시고 屏間에 記名하야 將來에 師佐로 登用하야써 一代의 至治를 期 하섯다. 그 願望이 成就되여 두 先生이 知遇의 恩 에 感激하야 才德을 다 하얏드면 朝鮮治敎가 世宗朝 以上으로 밧낫슬 것은 多言할 것도 아니련만 참으로 蒼生無福, 皇天降割하야 卽位七個月만에 父王의 뒤를 따르사 白雲鄉으로 遐昇하섯다. 晏駕 當日에 宮中號哭이 義州 千里까지 빠쳤다 하니 이것으로써 聖德의

如何는 想像하여도 有餘할 것이다. 그때 侍湯에 勞瘁하시고 哀疚成病하신 孝子 仁宗께서 靖陵아래 松柏을 붓잡으시며 哀隕欲絶하시든 儀容을 目前에 覩듯이 追察된다. 百千年뒤의 내가 이가티 傷痛하거든 當年の 北窓花潭 二 先生의 痛恨이 그 얼마이었스랴. 두 先生이 그 뒤에 新王으로부터 屢徵不起하고 草萊에서 畢命한 것도 結局은 色다른 梅月堂으로 自處한 것이 無疑한 일이다. 疲脚을 頻訴하든 아희가 그날밤 睡夢中에 “孝子임 금 …” 을 짓거리든 것이 探勝의 收穫이라 할른지.

[매일신보 1936년 5월 24일, 洪承耆]

5.2 사 적(事蹟)

5.2.1 봉은사사적(奉恩寺事蹟)

奉恩寺 卽造泡寺(寺造豆泡 以供陵枕之祭 需故云 豆泡豆腐之俗名)而亦稱兩陵願堂 揭額云修道山首禪宗奉恩寺(卽白下尹淳筆)寺舊在宣陵東麓之內 明廟壬戌 遷本陵移建于此 自朝家 設都監勅建 殿宇寮舍 此前宏傑 冠於京山諸刹 大雄寶殿(卽法堂中 安立三佛像) 眞如門 食堂 金粟樓(舊時奉安十二位牌於樓上 謂之御宣樓 中年移奉位牌於壽進宮故 改稱金粟樓) 天王門 解脫門 冥府殿 凝香閣(卽之香爐殿) 羅漢殿(今圮) 尋劔堂(卽僧堂有舊傳鑰哨罐 鏤閣萬曆四十六年三月日徐敬得 常時所用 重八十斤 奉恩寺僧堂上 施主權公爲夫人尹氏云 傍閣僧戒成 亦一稀有之物也) 雲霞堂(卽禪堂) 降仙殿³⁴⁾ 梅花堂(今圮 舊說西山大師休靜 得錢塘梅益 種子堂之西庭 因稱梅花堂 或云西山門人四溟惟政 入日本得梅而來 未詳孰是) 清心堂(今圮) 香積殿(水陸設齋時 供養之所) 東別堂 西行廊(今圮) 大南樓(今圮) 涅槃堂(卽病僧入寂所)³⁵⁾ 寺勅於明廟 燬於丙子虜亂 有禪華大師 廣募重建 以復舊觀 其後乙巳 又被回祿之變 僧徒鳩財重葺 閱歲未就 壬申 肅廟展拜兩陵 駐輦寺前 觀覽其工役草勑 特命厚賜錢

34) 大雄寶殿~降仙殿：朝鮮佛教通史의 靖陵誌 奉恩寺事蹟에는 없고 奉恩寺誌의 靖陵誌 奉恩寺事蹟 편에 있는 文章이다.

35) 清心堂(今圮)~涅槃堂(卽病僧入寂所)：朝鮮佛教通史의 靖陵誌 奉恩寺事蹟에는 없고 奉恩寺誌의 靖陵誌 奉恩寺事蹟 편에 있는 文章이다.

帛 俾完其役云 [明廟勅寺 首置判事一人 擇國內名僧爲之(普雨禪師最初爲奉恩寺住持兼判禪宗事) 使掌八道禪教 謂之首禪宗 清虛休靜 泗溟惟政 相繼爲判事(判事先生案 惟政名下 官銜以兵曹判書書之 丁壬之亂 朝廷屢遣惟政 出人倭營 又黃秋浦(名允古也)奉事日本時 以兵判假銜 往來故 判事先生案 以此書之歟 未可知也 妖僧普雨 嘗居此寺 久帶判事之任 又云 虛應集 詩一卷 禪偈雜著一卷 文一卷 普雨所著 已上出靖陵誌 大正年間 奉恩寺住持羅晴湖 請于朝鮮總督府 得兩陵外垓字內未墾地數十町步而開拓之 并前所有 歲收租可五百餘石 又得山林十五萬坪 付之本寺 自是常住之支供 有賴無憂 此可謂政府護法之恩 亦可見湖師奉佛之誠也]³⁶⁾ [朝鮮佛教通史 李能和, 奉恩寺誌]

5.2.2 순회묘사적(順懷廟事蹟)

順懷世子祠版 奉安于降仙殿(殿在奉恩寺禪堂西北) 忌辰及節享(只行端午秋夕正祖三次節享 寒食冬至不行) 奉恩寺僧徒 具祭物行祭 而德嬪尹氏設虛位 並享行祀 時判事僧爲獻官 順懷世子名順 明宗大王子也 明宗在潛邸 聘清陵府院君沈綱之女卽 仁順王妃也 嘉靖三十年辛亥五月二十八日誕世子 戊午冊封世子 受 皇明誥命 癸亥九月二十日薨 初諡順德 後改順懷 葬高陽 廟號順懷 世子聘參判尹玉之女 號德嬪 卒于 善廟壬辰三月(一字未詳)未葬而遭倭亂 權厝於昌德宮後 開視不見其柩 遂無墓所云 明廟幼冲 政在東朝 權奸竊命 乙巳之獄 非明宗之所知也 順懷世子薨 明廟哀痛殊甚 而歎曰 我何哭爲 乙巳忠賢無罪駢戮 予在君位不能止之 我家安得世有君王耶 大哉王言 可以淚千秋之 臣庶矣[荷潭雜錄] 寺中創廟 蓋在 明廟朝癸亥年間 而日月無考 宣廟朝壬辰亂後重建年月 亦無考 當初不建於京城之內 而就奉恩寺建置者 必有所據 而累經兵燹 門籍無存 今不可考 或謂 順懷喪後 明廟悼甚其早世無後 以奉恩寺在 先陵局內而且是 兩寢願堂考特 命建廟於此 以安神理 一云 順懷時自願廟 食於奉恩寺故從 遺言建廟於寺內 二說未詳孰是 今兩存之 以備後考 建廟而自朝家優給折受位土而其後 德嬪房折受陽城縣二結幾卜 加屬於順懷位田 故

36) 明廟勅寺~亦可見湖師奉佛之誠也 : 奉恩寺誌의 靖陵誌 奉恩寺事蹟에는 없고 朝鮮佛教通史의 靖陵誌 奉恩寺事蹟 편에 있는 文章이다.

世代既遠之後遂廢 朝家所送奉常寺祭需 而使寺僧備饌行祭歟 又聞寺僧流傳之言 則自寺中辦備祭需 不持自某年始 而古制則行祭時 內官出來觀其將事祭需之凡節而去矣 今則內官之不來 亦已久矣云 祭器皆自造送 其祭樣一如 陵寢鑪祭器 而至於食盒湯糲餅器 皆以鑪制成 又銀鏤香盒鑪銅香爐而 香爐上下臺 鏤刻東宮二字 墓所在高陽敬陵局內 而只設寒食祭享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3 중수기(重修記) · 상량문(上樑文)

5.3.1 봉은사중수기(奉恩寺重修記)

國初國家 設禪教兩宗於陵寢室皇之外 特設僧科 例與國試 同日開場 命遣夏官 考選釋子之通經者 特授甲乙丙三等之科 曰大選 大選者 卽儒家之大科也 次以制作 間有拔擢者 曰參學 參學者 卽儒家之小科也 由大選而再舉入格者 曰中德 中德者 卽儒家之重試也 而寺宇 在靖陵者 曰奉恩 卽禪宗也 在光陵者 曰奉先 卽教宗也 禪以例文 教以比武 禪教并行 斯道之蔚興 架矣盛哉 奧在嘉靖甲子歲 朝議革除僧科故 禪教之不振者 百有八年於斯矣 釋道之淪喪 良可悲也 寺亦不幸 丙子之亂 鞠爲煨燼 惟丈室數間 蕭然獨存 行過者 慨焉 禪和大師敬林 首建法堂 諸衲尾修僧寮 落成以來 林歡澗悅 殿閣翼舒 廊廡繩直 數年之間 藹然復興 敬林倡啓之功 可謂懋矣 是寺東臨廣陵 西指巴陵 南通湖路 北控京洛 此其臨觀之大略 而騷人墨客之吟詠其間者 不翅千萬 而或有以警語稱者 有曰 舟中回指奉恩寺 杜宇一聲僧掩關者 崔孤竹之作也 有曰 病客孤舟明月在 老僧深院落花多者 李蓀谷之詠也 有曰 紅藕一池風滿院 亂蟬千樹雨歸村者 白玉峯之題也 此皆當時膾炙 而後世傳誦者也 今縉紳中 有東溟鄭先生者 少遊是寺 題一律 其略曰 城中王亦大 天下佛爲尊者 其詞源之汎濫 可與老杜爭鋒 而上三傑之作 雖曰 調高而特是效顰耳 豈與病心之東溟論其高下哉 蓋騷人吟詠之際 非不致力焉 或未必盡美 而其得美如此者 意者 必有地靈之助而然耶 唐之詩人 亦多遊梵宇 而得警句者 有曰 竹經通幽處 禪房花木深者 此常建之遊破山寺也 有曰 僧臘階前樹 禪心江上山者 此韓翃之

入薦福寺也 有曰 樹影中流見 鐘聲兩岸聞者 此張祐之宿金山寺也 此等作冠絕古今 而詩評者 謂他人道不得處也 迹此觀之地 必有破山之勝 而後有常建之詩 有金山之勝 而後有張祐之詩 此豈非地靈之有助而然耶 然則此寺之成 非唯釋子之所棲神而已 其有助於騷人者 可知 亦可謂勝也矣 是爲記

[白谷集 處能]

5.3.2 복령사사성중수기(福靈寺四聖重修記)

云云某年月日 我某 大妃殿下 德侔羲媧 道邁宣仁 崇儒重道實罕乎前之古矣 事天敬佛 亦稀乎今之後也 越己未 秋八月有日 恭聞松都之福靈寺十六聖僧 來自中朝 神應一國 能福於人 不知其幾經世也 而靈尚不泯 只緣香火之熏 日月之久妙像蒙塵匿曜 投誠瞻禮者 不勝哀慟云 特竭天誠 航侍敬送于 宣陵之奉恩寺 命司直某 重修補釋迦尊像一軀 慈氏彌勒提花竭羅兩大菩薩 十六聖僧 竝諸法眷等 遂涓吉日 敬設點眼法會後 還船送于本寺 特奉香火者 全爲 主上云云 伏願本師釋迦如來 兩大菩薩 十六聖僧 與諸法眷 以無私之智 共照霞誠 令我某殿下 現生圓曠劫之功 當來證十地之果云爾[虛應堂集]

5.3.3 경기좌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판전신건기 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版殿新建記

法身無相 真理非言 非言故曰言語道斷 無相故曰體相空寂 旣曰言斷體空 則亦何有所說之經 所居之宮 然則今謂之經板也 法堂也 從何以經之營之乎 然佛愍衆生 無相而現相 無言而示言 佛有真應報化之身 經有權實頓漸之教 此所以有佛有經也 況遮那有十華藏微塵數大人相 華嚴有十三大千世界 微塵偈乎 故無盡身雲遍布 則法雨漫天 難思教海瀾翻 則恩波動地 人天仰其化而發其心 龍神慕其德而戴其頂 於是乎 如來宮殿 廣博嚴麗 彌勒樓閣 周匝照耀 不可說摩尼種種莊嚴 阿僧祇珠網重重垂布 流光如雲 華影成幢 故 有佛則有經 有經則有宮殿樓閣 今版閣之作 亦由斯也 往於康熙己巳 栢庵大師 得華嚴經於海舶 刊於澄光 鬱攸爲災 板本盡灰燼 厥後乾隆甲午 雪坡長老 奮然慷慨 再繡靈覺 歲久字刊 叢林病焉 噫 禎祥啓運 龜筮協從 豈人力哉 有南湖奇師 以斯經重刊壽傳 發願立誓 與印虛性維 霽月寶性 雙月性閣諸開士 僉議相謀

共會於廣州奉恩寺 或募緣而行化 或知物而幹事 招來良工 附之剗劂 大內傾帑財 而爲檀越首 重臣割俸祿 而作外護賓 四衆奔走服役 八紘翕然影從 乙卯秋始役 越明年丙辰秋竣工 豈塵裏之經有待 空中之書不墜歟 抑如來遺此人於閻淨 得締鏗梓之大事因緣 與檀越同享大功德 不專美於古人歟 其所謂原始要終 順成合勢 殆若四河之同歸大海也 圖所以護梓之計 寺之兌隅 占得爽塏 青鳥先顧 白鶴後飛 爰諏吉日 載拓靈區 群工雲委 山靈度材 衆役雷動 海神驅石 斧者斧之 鋸者鋸之 人旣肘趨 事皆頤指 於是 突兀群殿 鳥革翬飛 華比兜率 屹如砥柱 何啻魯靈光之徒囑壯麗 可擬祇陀園之清心戶當 蓋此殿大用 則納無量刹土於一毫之中 以一而含多 轉大千經卷於微塵之內 卽小而現大 裘婆與華藏 染淨融通 衆生與諸佛 因果交徹 制度則以一真法界爲基址 六度萬行爲垣墻 三十七助道品爲階砌 十八不共法爲柱樑 六神通八解脫爲窓牖 四無量七聖財爲門鍵 禪定爲池塹 知慧爲樓臺 四辯爲鈴鐸 十力爲寶幢 八萬波羅密爲欄楯 百千陀羅尼爲龕宮 真如菩提爲茵褥 法空涅槃爲床座 此殿一興 萬善畢備 庶可以上延國祚 下裕群生 仍茲頌祝曰 於我聖上 克纘丕基 緒允吋重華 龍圖鞏固 東漸西暨 混一金沙 誕膺永命 仙李長春 萬壽無疆 一新寶鼎 再清黃河 社稷靈長 麟抱龍種 聖子神孫 繩繩瓜綿 風雲相際 雨暘時若 不老後天 大地共春 黎庶於變 百靈來王 一切萬類 皆入法界 無量回向 崇禎紀元後二百二十九季丙辰九月日 北海華隱護敬 焚香謹識 道庵門孫湘月一如書梓

綠化秩

證明 暎虛善影 混虛智照 印虛性惟 九龍將權 華隱護敬 影月永旰 蓮峯致贊 管刻 仁庵定欣 混虛日圓 沙月應訓 比丘一真 立繩 太虛旻浩 比丘竺蓮 持殿 香庵聖周 比丘恭安 誦呪 龍嶽正基 華月智修 比丘聖恩 別座 霽月寶性 枕溪敏悅 都監 月霞世元 比丘呂玉 版殿都監 鶴雲采翼 記室 湘月一如 侍者 比丘性熹 鐘頭 比丘妙蓮

山中秩

時任 判事善義 前啣 比丘鏡性 比丘惠文 龍谷廣旻 比丘廣察 松巖大遠 月霞世元 比丘呂玉 比丘忠欣 鶴雲采翼 持殿 南月海雲 性海三熹 虎峯應奎 比丘富悅 比丘香林 三綱 比丘幻平 比丘善律 比丘法信 比丘妙蓮 比丘有暹 比

丘法仁 比丘妙然 比丘進浩 比丘妙祥 比丘信永 比丘頓錫 比丘狀信 沙彌戒雄 沙彌智順 沙彌普天 沙彌大典 沙彌法宥 沙彌能照 沙彌諒順 沙彌包律 沙彌錫真 沙彌包典

化主秩

印虛性惟 松巖大遠 枕月善洪 霽月寶性 雙月性潤 月霞世元 南月海雲 虎峯應奎 性海三熹 鶴雲采翼 霽月典○ 烟月熙璨 性坡天性 慧庵普惠 大雲性走乙 鏡湖妙悅 碧雲喜珀 義城定禧 圓谷永喆 中峯裕官 大雲太洪 龍城性憫 性月元明 春谷俊亨 華月 東嶽善慧 性峯性顥 比丘最雄 混虛斗三 智峯祐祈 混虛日圓 目卜雲文 性混性治善 錦潭桂枕 比丘演寬 比丘香林 比丘忠欣 比丘呂玉 永應鎬瑛 雪寶奉聞 湖隱瑞獐 扁城乃隱 永河太岸 松潭慧訓 仁坡竺空 札峯學潤 雪庵性覺 仁性斗察 比丘有摠 九峯啓狀 禪月煖基 影峯慶植 中峯慧皓 玄隱太和 浦隱慶遇 奉齋東溟景誼 清霞官舍 雲句漢旻 南溟游鵬 尚宮妙覺華 信女天智華 德雲錦允 比丘尼法信 比丘尼明直 比丘尼尚曄 比丘尼性覺 比丘尼大庸 比丘尼永慧 比丘尼就允 比丘尼一性 比丘尼包侃 比丘尼宥峯 比丘尼義善 比丘尼讚喜 比丘尼大錦 比丘尼義寬 比丘尼義讚 比丘尼圓覺 信士賢心 信士敬志 信士淨月 信女信願行 信女寶相華 信女大印華 信女見性華 信女宮殿華 信女慧眼華 信女寶蓮華 信女淨月華 信女寶明華 坤己未生鄭氏 信女寶幢華 信女靈瑞華 信女大慈華 信女妙寶華 信女道烈 信女妙覺心 犀月應軒 幻影有和 比丘性河

六所秩

供司 比丘都淳 比丘文弘 比丘惺文 比丘德榮 比丘德淵 比丘印典 熨刀 比丘法信 比丘奉奎 領僧 比丘行信 比丘法悟 比丘遇賢 比丘士曄 比丘士日 比丘沙圓 比丘戒雄 比丘定雲 比丘自益 比丘道真 沙彌守印 菜露 比丘智察 茶角 比丘順成 沙彌德演 別供 比丘勝慧 比丘聖信 比丘義玕 淨桶 比丘石文 鍊器 比丘德定 淨水 比丘性直 火臺 李宗聖 金春元 來往 朴奉仁 大木都片手 枕溪敏悅 副片手 金鍾聲 首頭 朴昇永 公員 林錫圭 餘員三十四人 盖瓦片手 白龍周 都化主 南湖永奇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3.4 경기좌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판전상량문 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版殿上樑文

經營何歲月 烏有斧鉅繩墨之功 棟宇自齊梁 翠飛土木丹牖之制 矧乎 十笏不窄 一竿有餘 若夫華嚴樓閣 阿僧祇欄楯牖牖幡幢之莊嚴 不可說金銀琉璃碑礫之間錯 周匝蓮花臺上端嚴法身報身化身 奮迅獅子座邊 奔走羊乘鹿乘牛乘勝茲廣陵之奉恩 鳧鴨雙飛於銀海 松栢帶蒼梧之雲 龍象獨步於蓮壇 苾芻趁黃槐之月 西湖三百六十寺 不過樓臺之壯觀 金剛一萬二千峯 只是泉石之駭矚 一水縈迴於練浦 襟帶五江 羣山出沒於碧梢 眉目三角 四溟尊者梅花堂餘韻 維摩居士金粟樓後身 蓋此重刊之役權輿於崇禎後 歲在青龍之秋 回向於越明年菊有黃華之節 鏤十兆九萬五千餘字 盡海墨筌睇 校東西南北上下四維 勝恒沙布施 殘石之驢脣舊帖半偈常存 長空之龍窠奇文 萬劫不敗 如今東竺西竺 從古南藏北藏 於是 點地經始 爽塏無雙 乾端坤倪之向背 顯晦有數 天慳地秘之邱原 主峯廻臨 似端士之著袍整帽 案對近抱 若仙人之撫琴橫床 青鳥青鶴之如從蒼龜 金文玉匣之若合符契 動萬持而齊汗成雨 運十里而郢斧生風 構櫨侏儒根臬枯楔之盤倕 雪山霽市 象馬車乘衣服湯藥之檀越 海會雲奔 施戒忍進定慧之開鑿 摠別同異成壞之規模 金地平鋪 八十頃祇園依舊 木天如海三千年慧命維新 孰云靡不有初 鮮克有終 可謂瞻之在前 忽焉在後 顧惟落成之宴爰唱脩樑之辭 兒郎偉拋樑東 廣陵雉堞白雲中 忠臣自是生天者 烈氣騰成夜夜虹 兒郎偉拋樑南 大母松杉雨露含 山氣如今倍清淑 兢兢蠹羽百斯男 兒郎偉拋樑西 滔滔漢水與天齊 奔流萬里黃河帶 縱欲窮 源歲月遲 兒郎偉拋樑北 回首觚稜歲月極 禁漏遲遲萬戶鐘 檀爐邦祝於千億 兒郎偉拋樑上 大哉乾德人皆仰 蒼蒼三十又三千 造化無窮誰可量 兒郎偉拋樑下 浮來重獨爲坤馬 三千世界平如堂 載我生靈霑聖化 伏願上樑之後 龍天守護經幢 燕雀來賀雕甍 添海屋之籌 長春寶籙 轉轆轤之劫 不晦金輪 上之七年丙辰九月日 一庵門人混虛智照 謹識 道庵門孫湘月一如書梓 刊經大施主秩

坤命乙卯生尹氏一百金 坤命甲申生方氏三百金 坤命甲子生李氏一千金
信女金氏宮殿華三百金 坤命甲戌生趙氏一百金 坤命乙卯生鄭氏一百金
信女俞氏妙 淨一百金 坤命壬戌生南氏一百金 坤命丙子生梁氏五十金

信女白氏白蓮華一百金 坤命辛未生金氏一百金 信女朴氏靈瑞華一百金
 坤命戊辰生金氏一百金 信女田氏梅檀華五十金 信女金氏獅子華五十金
 信女李氏瀨潭華五十金 信女鄭氏妙蓮華五十金 信女趙氏大德華五十金
 信女金氏希有華五十金 信女金氏寶蓮行五十金 信女嚴氏寶蓮華五十金
 信女崔氏信願行五十金 信女崔氏寶蓮華五十金 信女 萬行果五十金
 信女張氏燈蓮華五十金 尚宮庚申生南氏五十金 尚宮丁卯生朴氏五十金
 尚宮乙卯生金氏五十金 尚宮乙巳生尹氏五十金 尚宮辛酉生金氏一百金
 尚宮戊戌生梁氏五十金 信女石氏法海月五十金 尚宮丁未生金氏五十金
 尚宮金氏大慈行五十金 坤命丙辰生金氏 信女孫氏好業
 坤命丙辰生羅氏 信女梁氏大願華 信女柳氏大覺華
 信女金氏蓮池華七十金 李億同坤命文氏 洪九峰坤命金氏
 信女金氏抉心華五十金 信女申氏法性華 信女金氏淨月華
 信女金氏淨心華五十金
 印虛堂性惟一百二十金 禮峯堂學潤五十金 友松堂榮寬一百二十金
 影峯堂慶植性五十金 慈月堂武謙五十金 比丘極日一百金
 乾命金在道一百金 雪月堂圓敏七十金 比丘尼萬興五十金
 比丘尼宥奉五十金 比丘尼度淨一百金 比丘尼定敏五十金
 坤命蔡芝英 幻珠堂永仁 乾命李根英一百金 乾命趙禹錫
 乾命癸未生尹公 坤命庚戌生柳氏一百金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3.5 화엄판전번외축장중수록(華嚴版殿翻瓦築牆重修錄)

聞此版殿 初開於咸豐六年丙辰秋 而計今爲二十有祀矣 棟宇之滲漏 牆垣之頽圯 寔乃若見若聞 難忍難堪也 幸蒙佛佑神護 爰有大檀信 清淨捨施 於焉乎瓦則翻築之 改如初復古其施之 福如經所說 等法界爲莊嚴 然後 同遊華藏 往見極樂 必使的的然可指點也 自當董役 啓芳于左

大施主 清信女戊子生金氏妙心華 乙丑生池氏信圓行 乾命乙卯生李氏 坤命辛亥生金氏 兩位 童子乙亥生李甘得 清信女 癸亥生朴氏蓮心華 乾命癸生金氏 坤命甲寅生卞氏 兩位 童女 癸酉生阿只 清信女壬午生李氏正順華 清信女

己亥生金氏修心華

綠化秩

時判事錦荷呂玉 時持殿 月船巨澤 都監 清霞包含 化主 寶雲豆葉 供司 沙彌
炳均 光緒四年戊寅流月日 蓮坡暎玄 謹書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3.3.6 수도산봉은사중건상량문(修道山奉恩寺重建上樑文)

觀夫 二陵松柏 映翠於冽水之灣 樹影中流見 三山煙嵐蒸虹漢京之隔 鐘聲兩
岸聞 靈鷲山而崢嶸耀日 華嚴閣而鞦韆列岡 恍見炎盡氣涼 依稀夜開天曙 奧
若修道山奉恩寺也者 羅代而溯緣會國老 有傳開藍古錐 朝鮮而對 宣靖兩陵
承賜行香願刹 及到文定王后 稱制莅朝也 招徵虛應雨公 扶宗樹教也 約奉恩
本寺 而豎禪宗幢竿 約奉先道場 而颺教宗標幟 歷兩科之文武 選二豪於講禪
騰朝野之口碑 載經國之大典 萬梅花 紅藕院 締白社而聯芳 碧岳老 虎峯師
繼香燈而雨法 于近代也 南湖永老 招經華嚴 刹網震動 阮堂金公 題額版殿靈
嶽增耀 肇乎一九一一年辛亥秋 爰居三十本山首 兩晴講樹 月白禪池 物盛而
變衰 輪轉而稱固 暨若一九三九年乙卯初夏小晦也 祝融偶爾揚燄 梵宮于焉逢
災 歸獨存者 版殿及香閣 樓肩犇走者 禪侶與鬻徒 前住持姜君性仁 披瀝肝膽
積集因華 今住持洪君泰旭 發揮心肱 當見圓果 國帑優賜 而數萬家士女叶誠
京山首老 而十三州寺庵同願着工 一周歲踰半 摠用七萬鎊有奇 大雄殿方成
諸寮樓續構 增舊制而廣莊嚴 挹新光而正堦道 將以觀佛日與舜日 徹大界而彰
明 皇風和禪風 悅栢樹而永扇 同唱六偉 欣舉脩梁 兒郎偉拋樑東 南漢壘日初
紅 無戰雲生瑞靄 巴字江萬山中 兒郎偉拋樑南 青磬岳隱若藍 靜者白雲澹抹
且聰隔華鳥喃 兒郎偉拋樑西 楊花渡秋柳疎 向何處車轆轤 蒼煙渺若難齊 兒
郎偉拋樑北 太華峯列轟轟 幾經變態風雲 拜爾撐空峻極 兒郎偉拋樑上 空碧
一色蒼奔 未信處高聰卑 欵欵叩無返響 兒郎偉拋樑下 步危頂進于也 請看行
宿蘆花 無不可亦無可 伏願上樑之後 幢刹競錯影 人天得交光 將由毫光 而互
天互地 國以寧分鳩舌以寧 亦是禪境 而動幡動風 聖以廊分水牯以廊

庚辰小春小望 龜山沙門 映湖漢永 撰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3.7 봉은사복구건설기성회역원방명록 奉恩寺復舊建設期成會役員芳名錄

顧問 姜大蓮 全海松 朴大輪 李鍾郁 安月松 金寂音 申允泳 崔荷翁 金西湖

安滿月 李碧峰 金正燮 金玩潭 尹性海 朴法庵 任英海

會長 姜性仁

副會長 金英庵 金瑢泰 金車峰 金翠雲

總務 金普現 沈德潤 金廣宜 鄭泰正 金昌園

監事 洪泰旭 孟德祚 林泰梵

會計 朴心月

書記 李鍾國

會系 末寺住持一同

化主 白蓮寺 李順奉 車鶴庵 尹性海 金西湖 金金濟

開運寺 申靈山

奉元寺 李月淵 金心峯 金雲歸 李萬城 外十一人

彌陀寺 林頓享 姜妙云 外十人

奉恩寺 崔明燮 盧光順 曹度應 朴心月

天竺寺 金龍成 李○空

華溪寺 朴會饒

津寬寺 三人

禪岩寺 二人

華藏寺 寺內

道洗寺 二人

青蓮寺 閔○○

應禪庵 金泰洽 忠信○

仁川嚴青峰 (改祖) 役員

會長 德山道平

副會長 金車峰 金翠雲

總務 沈德潤 金廣宜 鄭泰正 金昌園 李英宰 金普現

監督 孟德祚 德山道平

財務 金瑢泰

會計 朴心月

部員 李鍾國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4 권선문(勸善文)

5.4.1 광주봉은사십왕중수권선문 廣州奉恩寺十王重修勸善文

能行之謂善 隨求之謂施 仍茲而不止之謂積 積善者 三教之一路 布施者六度之初門 古曰欲渡大海 必乘之舟 欲行千里 應備資糧 世之欲求福慧者 亦先須積善 捨施然後 如願成就 故易曰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聖人豈欺人哉 夫氣數之理 無往不復故 雖天地之至堅 而更有壞空 人物之滋殖 而未免老死 況人之所作物 形形色者乎 於戲 惟我冥府之迹 粵自上古 造成幾歲 重修不一 然而年久頽圯 紫沫青泥 鳳冠龍衫 濕於雲霞 滌破茲深 不惟居釋信士之所憂 亦乃遊人過客之所嘆也 謀欲重修 事山力蚊 不得以山僧小小之力 所可備辦也 茲出勸文 普告於諸方 君子之門 蓋日月無所不照 而先照於高嶺之上 佛天何人不濟 而先濟於積善之人 豈是日月佛天之有私 潭澄月現 機感應生 此所謂善而慶 惡而殃者歟 伏願僉君子 積今生惠施之善慶 樹萬歲無竭之勝福 豈不休哉 豈不偉哉 [櫟山集 (釋)善影]

5.4.2 봉은사법당불상권문(奉恩寺法堂佛像勸文)

奉恩寺法堂佛相 化主某 合掌拜達于百萬億檀府曰 大喜大捨 大施大施 或曰爾寺之佛相 成不成 於我不管 再白曰 君不聞乎 唇缺則齒寒 川竭則谷虛 佛不相則生不福也 曰佛道 灰滅爲本 沉又一源本寂而無形 萬法資始而有相 有相則俗 俗則執相以逐末 無形則真 真則罔形而合本 汝何棄本而求末 昧真而耽俗耶 曰噫 君知一而不知二也 本真無跡 而緣起有差 法身無相 以化儀示生 故 佛昇忉利而于闐梅檀木雕 漢求西教 以葉騰白氈像設 至于晉宋齊梁唐宋 及我勝國 儒佛竝行 其來尚矣 內資王道 而國治民奠 外假佛德 以植福培壽

故致羅麗代間 百步一刹 十步一塔 逮于我朝太祖 深仁創業 垂統而不剗 前朝之餘績 繼繼承承 而創寺度僧 無世無之 闢度門於先王之陵寢 設僧科於禪教之兩宗 凡髡首之隸業中選者 賜大禪中德 祇樹與金枝而揚輝 慈雨添德水而安流 七衆仰戴 四民同樂 隱隱上古之化 熙熙太平之春 此所以先峙奉恩奉先 兩寺於圻內 次設四山八路之大小刹者也 吁 不幸 己巳年秋 八人一窺 三佛兩存 僧處班荆 鳥獸怛悵 而四走云云 言未畢也 或者曰 止止 不須說爾家言 曰山是山水是水 男佛女佛 各住法位云云 爾之佛相 卽爾之佛相 我等俗人 是我等俗人 何以煩引前古之事 以惑民聽耶 毋勞鼓舌 我不欲聞 曰易曰苟 非其人道不虛行 道俗參行乎天地之中者 亦猶水火異器 而成味也 同德 輪轅異象 而致遠也 同功故 致因天地閉塞 而萬物生成 假世諦莊嚴 而成佛功德 則諺所謂破東壁而扶西籬者也 君何有鄙悞之情 而不欲學慈悲之積善耶 且置臆談 枚舉古說 以望仁人之聽瑩也 蓋自梅檀木之刻佛 紫光金之飾佛 曼殊師之鑄佛 降怨王之迎佛 波斯匿之供佛 須達多之側金施佛 烏長王之讓位投佛 劉遺民之東林誓佛 白太保之香山讚佛 襄晉公之立化城寺 王荊公之營保寧寺 莫不皆是王公鉅卿 而捐己俸捨家產 以是崇是尚 肯堂肯構 不可悉數而周知也 若今世之流輩 指以爲盲俗蚩氓之所爲 自逞其有智且識力 詆以排幹之 豈古之達士 不如今之流俗乎 或者 唯唯曰 俗語曰 負兒言勿背聽 言似雜糅 而亦自有理 吾何敢不信乎 合掌攢手曰 南無無量功德 無盡功德乎 於是也 化主 稽顙膜拜曰 璿源地久 等四海而安流 玉曆天長 竝兩曜而齊壽 [月渚集 (釋)月渚]

5.5 완 문(完 文)

5.5.1 완문(完文) 1824년

右文爲知悉事歲在甲申四月日本寺三寶修理時錢財不足故時判事僧漢暎出債擔當至還報之時無一分出處故寺員公議 位畚八斗落只庫伏在彥州面潭清後坪…自乙酉至辛卯七年爲限還退次放賣云云 公員釋鏡星 有司釋勝還三寶釋漢暎勝行云云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5.2 완문(完文) 1866년

右完文爲成給事 卽到奉恩寺僧徒事 以彥州面舞童島所在位田推給事呈議 送題辭內別言解事將吏與奉恩寺及農圃庫 輩眼同一一尺量 亦爲有等以別定將吏使之遂麁踏量則退 宇田四結十四負七束麁 果是奉恩寺位土 初非農圃所管之土 而雖浦落泥生處 毫無關係於農圃 故以此意枚報營門矣 回題內退宇田四結十四負七束 以奉恩寺起主 昭載於量案 係是順懷世子位土則所重顧何如而圃屬之侮凌勒奪 誠極痛駭 一從量案還屬本寺之意 成給完文爲去乎 其間多年秋收條並爲推出於圃屬付之本寺始遺 芝於泥生處段置 一一推給無容更議是矣 不無斟量事 姑待處分之意 分付兩雙宜當向事 亦爲有手 大低此土本以 順懷世子位土 本寺賜牌之判下文蹟 昭然自在 亦以本寺位土昭載於本官量案 而農圃之稱有公文 欲爲勒奪者抑何意思 必是憑藉內農 蔑視殘僧 到又勒奪之舉也 言念法意 曷勝寒心 本頌立落如是明白 則其間秋收條 所當一一推捧於圃屬出推於本寺 至於泥生處段置 亦當次第推給是在果 日後圃屬輩 若或有復踵前習 凌侮侵奪則 所當報營嚴禁之意 茲以完文成給爲去乎 依此永遵勿替者 丙寅十月日 官印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6 서문(序文)

5.6.1 화엄합본삼간후서(華嚴合本三刊後序)

華嚴合本繡梓海東者三 栢公澄光康熙己巳 而乾隆庚寅火 雪老靈覺 厥後甲午 而雖印行然板本歲久 字劃刊缺 地且南僻 周布實難故 寄師與衆募緣 詢謨宗師 咸豐乙卯秋 在奉恩寺剖厥始役 明年丙辰秋竣功 對校兩本 附諸卷尾 使後之轉讀者 一見可不之計 內帑優賜紳縉傍顧 無障順成 佛加神助耶 緣此而壽君祐國 施受群品 普同享樂 豈不欽暢 法界源流 解釋本末 先覺述已 今但叙此 吁 諸方意何

崇禎紀元後 二百二十九年 丙辰 菊月 日 釋院比丘 善影 謹書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6.2 수해구제기념첩서(水害救濟紀念帖序)

釋尊降生二千九百五十二年七月十七日 老天不鑑下民 暴雨一連六晝夜 漢江一帶 洪水氾濫 怒濤激浪 傾山倒峽 沿江住民之生命財產 危如一髮 滿月慘狀 可勝焉哉 于時 朝鮮禪宗甲刹大本山廣州修道山奉恩寺住持羅晴湖和尚 以大慈大悲之心 董率大衆 挺身臨流 齊溺救饑者 凡七百八人也 古之人 急難解紛 概止爲一二人已而 猶尚不朽於千古 況七百八人之生命 賴此一和尚之手 而免於魚腹 方之古人 鮮有聞焉 豈可無傳芳後世耶 吾儕雖未得 幫助一臂於當日 自不禁向慕之情 相贈微品 以作禪門萬世之紀念 繼之以頌曰，

洪水滔天 生命艱脆 號哭連巷 悚徹毛骨 風雨晦暝 迷津無筏
世尊曰嗟 乃命活佛 指揮大衆 濟溺起蹶 遐邇頌德 口碑屹屹

佛紀二千九百五十二年 十月 十八日

以下 三十本山 住持 署名 捺印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7 선생안(先生案)

5.7.1 수선종봉은사판사선생안(首禪宗奉恩寺判事先生案)

夫有位而非人歟 有人而非名歟 有名而非傳歟 有傳而非書歟 得立然後必有人 人然後必有名 名然後必有傳 傳之於後則有書之於方冊 方冊之不朽則位人名傳 並書永流而今首禪宗判事案錄 三經劫燼 失其舊本 初爲壬辰之燼 再爲丙子之灰 三爲己巳之火 失損新錄新錄其何全乎 三火前有名禪德赴是任弘化之跡 何其茫然之甚於此乎 乾隆之乙酉嶺南之頓修判事 慨其先輩之闕然 方冊之不正 正其冊補其闕而重寫傳之 歲乙酉三月日 寺開三世如來改金佛事時 余亦來參證席矣 肅暇問寺往跡 則俱爲兵燼所奪 但有壬辰丙子己巳 三火之後判事先生案 而勅主及僧科時先列大德并無提舉 故聽其寺老及方外諸人舌碣所傳 先列芳啣耳 清虛後涵月門人 聖奎 謹識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7.2 판사선생안(判事先生案)

本寺判事望報記陰

京畿道廣州府修道山首禪宗奉恩寺

降山殿守護判事爲牒報事

右牒報事段本寺判事釋某周年察任是乎所遞任代釋某定報爲去乎卽爲差出之地
伏望爲只爲

右牒呈 望記陰 年 月 日 釋某

差帖陰 年 月 日

釋某爲廣州郡奉恩寺

御室護守大覺等階扶宗樹教諸方首禪宗判事者

年 月 日 內部(印) 內部大臣(章)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8 절목(節目) · 서목(書目)

5.8.1 장경목각항절목(藏經目各項節目)

- 自佛糧燈油擔當 四時光明不絕爲齊
- 年年十月初一日 以佛糧粗三石 虔設施食 以薦藏經閣佛糧施主先亡爲齊
- 印經人自任所 一次別般供饋爲齊
- 造佛造經同是莫重佛事 印出工與 同業齋戒三輪 不得飲酒葷穢是祿 佛供藤節與造佛時無異爲齊
- 夏至後白露前 立冬後春分前 節氣至濕之寒 版畫或污或碎 其間不許印出爲齊
- 印出後 板子尋區奉安是矣 不得互換紊亂 如有破傷之弊是去等 卽使其人改刊爲齊
- 以真墨軟研 以不許松烟強梗是祿 印出良工擇取善手 板畫無至湮碎爲齊
- 印出是 寺中納文每秩三兩式 供養佛尊道鑑鍾頭助役人 每日布施三錢五分式 印經每秩六兩 筒卷一錢式爲齊
- 三藏真詮 一揭一句 無非我世尊捨身命而換得者 天龍八部人非人等 朝夕侍衛與護眼目 此真舍利 此真佛塔 卽爲有佛若尊重弟子故也 山中僉員 佛尊

揚念虔護 不得飲酒葷穢之輩 無難出入 或受金剛棒是弥 印經綠化兢兢業業 而不失軌度 而印經之財 如有私用泛庸之端 報謝之日 罪墮無間 受殃萬劫 如是等一 一如法爲齊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8.2 봉은사승도처절목(奉恩寺僧徒處節目)

右節目事段 奉恩寺卽 宣靖兩陵寢造泡所而又奉 順懷世子祠板 則其所重顧護之方 與他自別是乎所 以兩陵齋所藍輿之役 寺僧無以支保 兩陵生員合坐商議 永永革罷之議 至於牒報是○只以爲永久遵行之意 成給節目爲去乎 日後兩陵陵屬中 如有更惹鬧端之幣是去等 本寺僧徒卽爲馳告於本曹 以爲嚴懲事
-兩陵官每朔奉審時擔輿之役 使陵屬舉行 以自本寺備送雇錢 以爲陵屬酬勞之費事
-以此成出節目後 如有携貳之端是去等 陵官各別嚴戰 永社後幣事 同治八年 己巳二月日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8.3 봉은사주지서목(奉恩寺住持書目)

本本名雖刹是白乎乃乙巳年寺刹慘被回祿之灾所用大鍾機至燒盡只有餘鐵一百斤留傳乙仍于將欲改鑄而鐵物甚不膽是乎者僅僅鳩聚化主乞立之鐵一百餘斤本寺破器皿鐵一百斤都合三百餘斤是乎等以此些少之鐵物以決不成鑄鍾模樣是白如乎去乙酉年分司屬呂州地長興寺局內乙慶順君主家賜給之後其寺刹段置亦爲毀撤事啓下定奪各樣器皿及材瓦等勿乙移給奉恩寺是百如乎今當本寺鑄鍾之時鐵物甚不膽足故長興寺破器物破鐵抄集則一百五十斤今欲添造入鍾之計是乎等以初牒題辭內依所報施行爲乎矣長興寺破某某器皿是如區別更報以爲後考之地白事是乎等以破器皿區別成冊更爲牒報爲白去乎俾爲後日憑考之地事遵良公事成給事業報爲白臥乎事狀 康熙五十九年三月日 住持釋(手訣) 內需司(手訣)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9 답봉은사화엄간소(答奉恩寺華嚴刊所)

前秋數夕 猶勝平生 不啻大事因緣 亦乃世諦邊不易得之好會 歸錫之後 徒望

南雲矣 際茲承敍 小不下合筵擲眉 憑審庚炎 刹海帝網之觀念 日愈珍勝慰仰
不淺淺 影半千遠地 身雖染塵 心欲清淨而已欽聞 邦家傾心 縉紳外護 畢役之
期 期於年內云扞躍何已 豈無再入 觀席參坐 分役之心 然願自擔重 事勢若此
未遂所意 恨如之何 只望無魔成就 不備. [櫟山集 (釋)善影]

5.10 봉은사중수경찬제상점안법회소 奉恩寺重修慶讚諸像點眼法會疏

法身無成與虧 本絕沿革之數 妙色非玄且白 豈涉圖寫之鄉倘以形求 必落魔境
然隱即費 唯幻乃真 不形而形 即現三十二之種相 非體之體 能彰千百億之化
身 應機則月照千江 隨感則春行萬卉 凡有志于敬聖之聖 孰無心乎尊天中天
伏念弟子 號漸仁明道愧聖烈 爲國君而常作福善 死以爲期 竭霞誠而恒敬聖賢
生豈且怠 故修諸相之像 係畫衆眞之容 妙同神製而光彩邁前 麗極天成而靈應
絕後 遂及勝功之告畢 特設點眼之華筵 於是 空飄四花 地震六瑞 數器變萬器
萬又萬而供無窮 一燈燃千燈 千復千而光不盡 是空是色 卽一卽多空色相融
一多無礙 若舊若新之諸相 皆現萬德之容 或畫或塑之衆形 全露千福之相 四
王嚴衛 百靈恭趨 此豈奉恩之道場 是實靈山之法會 芥緣雖若大海之一滴 菱
鑑實同長空之孤輪 伏願主上殿下 仁踰解網 治踵結繩 二曜竝明 兩儀齊壽 金
枝繼繼 玉葉繩繩 王妃殿下 善芽雲興 災萌雪釋 母儀鮮匹 位正無雙 恭懿王
大妃殿下 時無百害之災 日有千祥之慶 世子邸下 德譽時盛 聰明日崇 聲聞華
夷 道冠今古 亦願己身 壽命無盡 時仗諸聖之扶持 安樂無窮 日承百靈之護佑
災同秋露 隨慧日而俱消 福若春雲 共慈風而竝扇 所求如意 所願如心 然後願
干戈永息於四方 國土恒安於萬歲 餘波所洎 群枯等沐 仰對金仙云云

[虛應堂集]

5.11 봉은사노비전답환추등록(奉恩寺奴婢田畝還推謄錄)

奉恩寺以宣靖兩陵寢 造泡願堂事體自別而守直凡節又有所重故當初 朝家之特
賜奴婢田畝者寔出於保存僧徒之意而年久生幣昔之賜牌今歸消融而言乎奴婢則
無一口收貢之事以言乎田畝則餘存結卜未滿十一僧徒散亡寺樣漸敗將有莫可收

拾之難矣因僧徒擊錚至伏承詳推給之命仍于往復度支移文各處可以推尋者停當推給後狀聞辭緣及奴婢田畝推尋文跡一一詳錄于後爲去乎永久憑考無替遵行爲于矣萬一有違誤之事隨即來告以爲厘正之宜當事丁巳二月日戶曹爲相考事節啓下教京畿監司 啓本內以爲今番幸 行教是始興境鳴金罪人僧暢寬所供撮其梗概後錄馳啓事判付內本寺所重自別令廣留祥查事實推給者推給狀聞爲良如教教是如乎同啓本後錄供招騰送爲去乎到即舉行後形止狀聞施行爲宜相考施行事後廣州奉恩寺僧暢寬招內以爲本寺即宣靖兩陵寢造泡願堂朝家特賜田畝八十結祭享時造泡專當矣上項八十結內忠清道洪州新昌天安三邑所在二十八結及京圻交河所在四結二十一負合三十二結二十一負庫段自二十餘年二來爲內需司下屬輩私橐之物而僧徒不得入城故無以下白白地見失內農圃移劃青根田本爲七日半畊而四十餘年前自內農圃上頂七日半畊之內五日半畊公然奪取當初內奴婢之移屬本寺者爲二百口而自乙未以後無一口身供收稅者此必是戶曹下吏及各其地方官下吏輩之弄奸者是如乎本寺僧徒既失此田土與奴婢漸至殘敗見令所存只爲六七名莫重造泡之役何以奉行乎恩賜田土與奴婢內農圃菁根田五日半畊準數推給俾爲造泡祭之需云云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12 은사제승등백활(恩寺諸僧等白活)

右謹陳情由事段矣 僧寺自國初建立已久是白加尼中間任丙之年忽烽火災矣 詔書特下自營門重建此寺自此以來二百有餘年乎矣 不知重修以爲幾年也 故椽柱及板瓦自朽既至傾頽之境 順懷世子邸下奉安祭閣及香火廳尤甚是乎故大衆共議修葺設計照寺無傳來之分錢無可奈何出債他給修治祭閣及香廳云云 甲申十二月鏡星漢暎勝俊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13 호봉선백전(虎峰禪伯傳)

師名應奎 號虎峰 京山廣州奉恩寺人也 庚午行湖南表忠祠摠攝 文筆具足 才德兼全 克誠致齋手書華嚴經一部 廣募八道有名法師 竝坐證席開印出 開閣藏板 海印大藏 不可比肩 而靈覺勝事 同日而語矣 秋史金公 虎峰所書 華嚴經八十卷 筆力功勞 大加稱贊 作序作贊 作贊曰 須菩提善男子善女人 以恒河沙

等身布施如是無量百千億劫 以身布施 若復有人聞此經典 信心不逆福其勝彼 何況書寫 此是金剛般若經 如來之所已證者 今虎峰之手寫華嚴經八十卷 其福當如何 勝蓮老人 書示虎公於江上寺閣中板刻 印出流布山野 其所善信 與南湖手書彌陀經同功 時諸大法師 皆來證席如也 板閣額題 金公臨終書而絕筆 其緣大矣 機緣語句 具載文集行狀 [東師列傳]

5.14 봉은사승도등원정(奉恩寺僧徒等原情)

右謹陳寃迫情由事段矣 寺卽以宣靖兩陵造泡願堂 順懷世子祠版奉安之所也 事體自別而守直凡節又有所重 至今保存者莫非朝家軫念之澤是乎所 特賜田畝兩陵七大祭享時 造泡及諸般應役 與內需寺許多進排皆以賜給位土中分排舉行 是白可尼自昨年度支部免稅結皆以陞摠是乎則本寺收刷租未免百石還還微結稅 不無餘存者莫重兩陵之奉貢將何舉行乎各樣進排依前附錄仰訴爲白去乎參商教 是後兩陵浩大應役與內司奉供之役革除爲乎只矣 寺之結稅如前免稅爲乎只特 爲題下兩段間處結是白古兩陵舉行與祠版祭享無闕之地千萬望良爲白只爲 行 下白教是事 查辦官主前處分 開國五百四年 四月 日 判事僧 法船 等狀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15 을축수난구제공덕송(乙丑水難救濟功德頌)

廣州大本山奉恩寺 卓錫之朴心月禪師 野衲等之空門道侶也 水邊林下 默契多年 知其明於因果 達於福慧者 薰陶之性 淵源之學 得於乃師湖公之致然也 今年頃 更有積兩洪水之災 漢江一帶左右浦村 卒被大漲高滄 屋盡漂焉 人多溺焉 本寺住持羅晴湖大禪師 睹之慘酷 泣其惻隱 急賞郡舟 四散拯援 救出七百八人於馮夷之幽宮 免夫魚腹之葬 而昇入寺中 多方甦之 以其頃刻必死之水鬼 爲其復生之 陸人語其慈悲 可謂觀音應化之活佛 月師之補處竭力腎勞 亦可謂南巡童子之應化也 噫 此師弟之一合 相大功德 不問可知其生天成野衲等 昧不敢贊一辭 然以其目擊實況 不能無一頌 賀志其感激之相爰也 湖公代觀音之慈悲 月師補湖公之功德 懿哉美哉 七百八人命以鬼爲人 活此數之螻蟻亦是慈悲 何況於此數之活人功德乎 楊枝甘露 是誰之爲 湖公觀音之施 而月師南

順之助也 極樂莊嚴歸歟 歸歟

乙丑兩月下澣 道弟 安滿月 池正厚 崔永源 金斗弘 趙淵宗

合同拜頌 八十四翁 白蓮³⁷⁾居士 書

[奉恩本末寺誌 安震湖]

5.16 봉은사증계민사(奉恩寺贈戒敏師)

三十年前此寺遊 逢君今日更登樓 傷心自惜浮生事 回首還慙有道流 風景不殊秦苑夕 雁聲初度廣陵秋 傾茶坐對寒宵永 說盡江南久別愁

[翠微大師詩集]

37) 백련거사 : 지운영(池雲英) 1852(철종3)~1935년.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본관은 충주(忠州). 초명은 운영(運永). 호는 설봉(雪峰) 또는 백련(白蓮)이며, 김정희(金正喜)의 제자로 여항문인(閔巷文人)이었던姜위(姜瑋)의 문하에서 시문 등을 배웠다. 1880년대 초반에 통리군국사무아문의 주사(主事)로 개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갑신정변 후 김옥균을 암살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갔다가 미수에 그치고, 일본경찰에 붙잡혀 강제귀국당하여 원악지로 유배당하였다가 풀려나 상소문을 올려 재기를 꿈꾸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은둔하여 시와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다. 서화협회전람회에 출품하였으며, 조선미술전람회에 산인탁족도를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옛 그림들로 임모(臨模)하여 기량을 길렀으며, 특히 산수인물을 잘 그렸다. 대표작으로 개인 소장 후적벽부도, 남극노인수성도, 동파선생입기도 등이 있다.

6. 관보(官報) · 신문(新聞) · 잡지(雜誌)

6.1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관보 제257호 1911년 7월 8일

朝鮮總督府令第八十三號

寺刹令は明治四十四年九月一日より之を施行す

明治四十四年七月八日 朝鮮總督 伯爵寺 內 正毅

朝鮮總督府令第八十四號

寺刹令施行規則左の通定む

明治四十四年七月八日 朝鮮總督 伯爵寺 內 正毅

寺刹令施行規則

第一條 住持を定むる方法, 住持の交替手續及其の任期中死亡其の他の事故に因り缺員を生したる場合に於ける寺務取扱方法は寺法中に之を規定すへし

第二條 左に掲ぐる寺刹の住持の就職に付ては朝鮮總督に申請し認可を受たへし

京畿道 廣州郡 奉恩寺

同 水原郡 龍珠寺

同 楊州郡 奉先寺

同 江華郡 傳燈寺

忠清北道 報恩郡 法住寺

同 南道 公州郡 麻谷寺

全羅北道 全州郡 威鳳寺

同 錦山郡 寶石寺

同 南道 海南郡 大興寺

同 長城郡 白羊寺

同 順天郡 松廣寺

同 同 仙巖寺

慶尙北道 大邱府 桐華寺
 同 永川郡 銀海寺
 同 義城郡 孤雲寺
 同 聞慶郡 金龍寺
 同 長○郡 祇林寺
 同 南道 陝川郡 海印寺
 同 梁山郡 通度寺
 同 釜山府 梵魚寺
 黃海道 信川郡 貝葉寺
 同 黃州郡 成使寺
 平安南道 平壤府 永明寺
 同 順安郡 法興寺
 同 北道 寧邊郡 普賢寺
 江原道 杆城郡 乾鳳寺
 同 高城郡 楡岾寺
 同 平昌郡 月精寺
 咸鏡南道 安邊郡 釋王寺
 同 咸興郡 歸州寺

前項以外の寺刹の住持の就職に付ては地方長官に申請し認可を受たへし

第三條 前條認可の申請書には住持たるべき者の身分，年齢及修行履歷書を添附すへし

第四條 住持の任期は三年とす但し任期満了の後再任することを妨げず

第五條 住持犯罪其の他不正の行爲ありたるとき又は職務を怠りたるときは其の就職の認可を取消すことを得

第六條 前條に依り認可を取消されたる者は寺法の定むる所に依り一切の事務を引繼ぎ一週間以内に其の寺刹を退去すへし

第七條 住持は寺刹に屬する土地，森林，建物，佛像，石物，古文書，梵鐘，經卷，佛器，佛具其の他貴重品の目録書を作り住特就職後五月以内に之を

朝鮮總督に届出すへし

前項の財産に増減異動ありたるときは五日内に朝鮮總督届出つへし

第八條 第七條の届出を爲さてる者は五十圓以下の罰金又は拘留に處す第六條の規定に違反したる者亦同し

附則

本令は寺刹令施行の日より之を施行す

各本寺に於ては本令施行後五日以内に寺法の認可を申請すへし

本令施行の際住持てき寺刹は慣例に従ひ本令施行後三日以内に之を定め其の認可を申請すへし

○관보 제423호 1912년 1월 27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廣州郡奉恩寺に於ては羅晴湖を住持候補者と定め就職の件孰も申請に付本月二十五日之を認可せり.

○관보 제66호 1912년 10월 19일

寺法認可

京畿道廣州郡彦州面修道山奉恩寺住持羅晴湖より同寺本末寺法を定め認可申請に付本月十五日之を認可せり

○관보 제780호 1915년 3월 12일

朝鮮寺刹三十本山聯合事務所職員

朝鮮寺刹各本寺聯合制規に依り各本寺住持の互選を以て委員長以下の職員を左の通定めたる旨届出ありたり

委員長 京 畿 道 水原郡 龍珠寺住持 姜大蓮

常置員 全羅南道 長城郡 白羊寺住持 金幻應

同 慶尙南道 東萊郡 梵魚寺住持 吳惺月

同 慶尙北道 達城郡 桐華寺住持 金南坡

同 全羅南道 順天郡 松廣寺住持 李雪月

同 慶尙南道 梁山郡 通度寺住持 金九河

同 咸鏡南道 安邊郡 釋王寺住持 金崙河
京畿道 廣州郡 奉恩寺住持 羅晴湖
監査員 慶尙北道 永川郡 銀海寺住持 朴晦應
平安南道 平壤郡 永明寺住持 李晦明
江原道 平昌郡 月精寺住持 洪莆龍

○관보 제884호 1915년 7월 14일

本寺住持異動

京畿道廣州郡彦州面本寺修道山奉恩寺住持羅晴湖任期滿了の釋放せらしたり

○관보 제370호 1928년 3월 27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廣州郡彦州面奉恩寺住持に羅晴湖就職の件二月二十日認可せり

○관보 제4920호 1928년 8월 17일

本末寺法中改正認可

京畿道廣州郡彦州面奉恩寺本末寺法中改正の件八月三日認可せり

○관보 750호 1929년 7월 3일

寺有建物毀撤處分許可

許可月日：六月二十五日

毀撤ノ目的：破損倒潰ノ危險ニ瀕シ利用，保存ノ必要ナキ爲

毀撤スベキ建物：門寮 五間，倉庫 七間，寮舍 二十八間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羅清湖

○관보 1008호 1930년 5월 16일

寺有土地及林野賣却許可

許可月日：五月二十日

賣却ノ目的：他郡內僻遠ノ山間部ニ介在セル小面積ニシテ管理上不便且收
支相償ハザル爲

賣却スベキ土地及林野：振威郡 浦升面 新榮里 二四二番地ノ一田一九六坪

外 二筆合計一五四六坪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羅清湖

○관보 제1264호 1931년 3월 26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廣州郡彦州面奉恩寺住持に羅晴湖就職の件三月二十日認可せり。

○관보 제1810호 1933년 1월 23일

布教擔任者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擔任者所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七年八月二十五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大本山奉恩寺末寺安養庵原州布教堂

所在地：江原道原州郡原州面台庄里

住 所：京畿道京城府昌信洞

氏 名：李能相

布教所設置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所設置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七年八月二十五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奉恩寺末寺安養庵原州布教堂

布教所所在地：江原道原州郡原州面台庄里

○관보 제1829호 1933년 2월 15일

布教所設置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所設置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七年十二月十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奉恩寺館洞布教堂

布教所所在地：京畿道京城府館洞

○관보 제1857호 1933년 3월 20일

布教擔任者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擔任者所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八年二月二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大本山奉恩寺館洞布教堂

所在地：同館洞

住 所：所在地の同じ

氏 名：金泰洽

○관보 제2092호 1933년 12월 29일

布教擔任者選定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擔任者選定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八年十二月二十四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大本山奉恩寺峴底洞布教堂

所在地：同峴底洞

住 所：京畿道京城府館洞

氏 名：金泰洽

○관보 제2094호 1934년 1월 6일

布教所設置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所設置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八年十一月二十四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奉恩寺峴底洞布教堂

布教所所在地：京畿道京城府峴底洞

○관보 제2192호 1934년 5월 4일

布教所設置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所設置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九年一月二十五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奉恩寺玉川洞布教堂

布教所所在地：京畿道京城府玉川洞

○관보 제2220호 1934년 5월 17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廣州郡彦州面奉恩寺住持に羅晴湖就職の件昭和九年五月十四日認可せり

○관보 제2257호 1934년 7월 19일

布教擔任者選定屆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擔任者選定屆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屆出年月日：昭和九年一月二十五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大本山奉恩寺玉川洞布教堂

所在地：京畿道京城府玉川洞

住 所：同

氏 名：洪鐵牛

布教擔任者選定屆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擔任者選定屆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屆出年月日：昭和九年三月十五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大本山大本山奉恩寺戀主庵三清洞
布教堂

所在地：京畿道京城府三清洞

住 所：同

氏 名：沈在吉

○관보 제2393호 1935년 1월 7일

寺刹住持就職認可

京畿道廣州郡彦州面奉恩寺住持に姜性仁就職の件昭和九年十二月二十一日認可せり

○관보 제2649호 1935년 11월 11일

布教擔任者選定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擔任者選定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十年五月一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 大本山奉恩寺布教所

所在地：京畿道仁川府花平里

住 所：京畿道京城府峴底洞

氏 名：朴允進

○관보 2787호 1936년 5월 1일

寺有土地賣却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一年四月二十五日

賣却セントスル土地：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良才里 二一一番地 田一七二
八坪外一筆 計二五六五坪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姜性仁

○관보 제3291호 1938년 1월 8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廣州郡彦州面奉恩寺住持に姜性仁就職の件昭和十二年十二月二十七日認可せり

○관보 제3427호 1938년 6월 21일

布教所設置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所設置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十三年三月三十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奉恩寺濟州島涯月面舊巖里布教堂

布教所所在地：全羅南道濟州島涯月面龜巖里五一四

布教擔任者選定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擔任者選定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十三年三月三十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大本山奉恩寺濟州島涯月面舊嚴里
布教堂

所在地：全羅南道濟州島涯月面舊嚴里五一四

住 所：所在地に同じ

氏 名：金徳三

○관보 3671호 1939년 4월 18일

寺有土地賣却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四年四月十三日

賣却セントスル土地：京畿道 楊平郡 楊平面 楊根里 百六十九ノ三番地 畝
三百十二坪外七筆 計五千五百五十九坪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姜性仁

寺有土地寄附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四年四月十三日

寄附セントスル土地：京畿道 廣州郡 大旺面 水西里 二百八十四ノ番地 畝
六百七十二坪外十二筆 計一千六百四十六坪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姜性仁

○관보 3743호 1939년 7월 13일

寺有貴重品讓與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四年七月八日

讓與セントスル貴重品：毘婆尸佛外二十四體

讓與先：奉恩寺

出願人：全羅南道 高興郡 占岩面 楞伽寺住持 金裁善

○관보 제3769호 1939년 8월 12일

布教所設置届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所設置届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届出年月日：昭和十四年五月二十二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奉恩寺末寺文殊庵弘濟町布教堂

布教所所在地：京城府弘濟町一五七の二

布教擔任者選定屆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擔任者選定屆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屆出年月日：昭和十四年五月二十二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大本山奉恩寺末寺文殊庵弘濟町布
教堂

所在地：京畿道京城府弘濟町一五七の二

住所：京畿道京城府館洞町五の三七

氏名：金泰洽

○관보 4095호 1940년 9월 12일

寺有土地抵當權設定及起債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五年九月七日

用途：大雄殿建築費

借入先：朝鮮殖産銀行

借入ノ方法：寺有土地二十筆ヲ抵當トシ年六分五厘ノ利率テ以テ許可後必
要ノ都度借入スルモノトス

償還方法及期限：經常收入テ以テ昭和十六年以降十箇年年賦ニテ償還スル
モノトス

抵當物件及期限：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三成里 一七九畝外十九筆計五四,
九四四坪 昭和二十五年十二月十五日迄トス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姜性仁

○관보 제4122호 1940년 10월 16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廣州郡彦州面奉恩寺住持に徳山道平就職の件昭和十五年十月十一
日認可せり

○관보 4557호 1942년 4월 9일

寺有建物廢棄處分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七年四月二日

建物ノ名稱：管應堂 十六間，解脫門 四間，山神閣 一間

所在地：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三成里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德山道平

○관보 4614호 1942년 6월 17일

寺有林伐採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七年六月十二日

伐採區域：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三成里 山二四番地外二筆奉恩寺有林野
二十八町五段一畝步

伐採方法：間伐

伐採樹種及數量：二十五年乃至三十年生イカマツ四百九十二本及ハンノキ
五百二十本

伐採其間：許可ノ日ヨリ一箇月以內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德山道平

○관보 4619호 1942년 6월 23일

寺有土地寄附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七年六月十八日

寄附セントスル土地：京畿道 楊平郡 楊平面 楊樓里 一八八番地田外三十
九筆計二萬五千八百九十七坪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德山道平

○관보 4827호 1943년 3월 8일

寺有建物廢棄處分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八年三月二日

建物ノ名稱：大香閣

建坪：六間

所在地：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內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德山道平

○관보 제4936호 1943년 7월 16일

布教所設置屆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所設置屆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屆出年月日：昭和十八年五月二十一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奉恩寺彌阿里布教堂

布教所所在地：京畿道高陽郡崇仁面彌阿里五三三

○관보 제4938호 1943년 7월 19일

布教擔任者選定屆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擔任者選定屆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屆出年月日：昭和十八年四月二十一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 奉恩寺彌阿里布教堂

所在地：京畿道高陽郡崇仁面彌阿里五三三

住 所：京畿道廣州郡彦州面三成里一一五

氏 名：德山道平

○관보 제5021호 1943년 10월 27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廣州郡彦州面奉恩寺住持に德山道平就職の件昭和十八年十月二十一日認可せり

○관보 제5306호 1944년 10월 10일

布教所廢止屆

布教規制第十一條に依り布教所廢止屆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屆出年月日：昭和十九年六月十七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の名稱：朝鮮寺刹奉恩寺峴底洞布教堂

布教所所在地：京畿道京城府峴底洞山二の一

○관보 5309호 1944년 10월 13일

寺有建物廢棄處分許可

許可年月日：昭和十九年十月六日

建物ノ名稱：小香閣

建坪：八間

所在地：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出願人：京畿道 廣州郡 彦州面 奉恩寺住持 德山道平

○관보 제5353호 1944년 12월 7일

布教所設置屆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所設置屆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屆出年月日：昭和十九年九月十八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寺奉恩寺咸悅布教堂

布教所所在地：全羅北道益山郡咸羅面新垈里一八九

○관보 제5430호 1945년 3월 14일

布教所設置屆

布教規制第九條に依り布教所設置屆を提出したる者左の如し

屆出年月日：昭和十九年九月十八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本山奉恩寺內需町布教所

布教所所在地：京城府鐘路區內需町二四一番地

6.2 신 문(新 聞)

6.2.1 황성신문(皇城新聞)

○1901년 04월 17일 (82호)

寺僧呼訴：廣州奉恩寺僧 龍潭의 呼訴를 據ᄃᆞᆫ 則 本寺所管田土打租 十二

石을 內藏院派監 朴明煥 爲名人이 奪去호얏스니 該派監에게 嚴訓호야 推給호라 호얏더라.

○1901년 05월 24일 (114호)

漢水沈佛：有一人이 本社에 來言曰 一佛이 余에게 現夢호시되 吾ㅣ 漢江水中에 在호야 大段苦惱호니 爲吾拯出호라 호시기 夢覺而往호니 果然一佛이 水中에 沈沒호신지라 此意로 新聞에 記載호라 호기로 其荒唐함을 一笑호고 叱退호얏더니 今聞호는 則 近日 奉恩寺僧 幾名과 附近 江村民人 等 八十餘名이 該佛을 并力拯出호다니 此를 古怪物로 認호고 探出호는지 現夢이라 云함을 奇異히 忖이어 該佛을 移奉호는지 만일 其荒唐說을 信호야 然호면 民人의 愚駭함을 痛嘆호도다

○1907년 02월 11일 (2404호)

悖僧妨教：廣州郡奉恩寺僧徒가 去五月에 學校를 設立호고 該寺兒僧 十八人과 其他 俗兒 三人을 募集호야 熱心教育호는디 該寺僧石洲鶴松幻愚가 佛米를 濫費호야 遊弋村閭에 酒色行爲가 不正썌더러 學校에 妨害가 不小호나 該寺에서는 禁止無路라고 該僧이 學部에 呼訴호얏더라

○1908년 01월 23일 (2685호)

派巡奉恩：廣州奉恩寺에 義徒가 多數히 屯聚호얏다함으로 昨日上午五時頃에 東部에서 巡查를 多數派送호얏다더라.

○1908년 06월 07일 (2797호)

一場風波：再昨日에 京城內各商務支局에서 消暢키 爲호야 妓生二拾四名을 帶同호고 奉恩寺에 出往호야 跌宕이 遊호는디 漢江附近人民數拾名이 該妓樂을 翫覽次로 該寺에 前往호얏다가 彼此間에 何事件으로 言詰호얏던지 漢江人民數百名을 請호야 該商務員을 打殺호자고 一場風波가 激起함으로 該地巡查가 西署로 急告호지라 該署에서 巡查數拾名을 擔銃派送호야 該人民을 曉諭解散케호얏는디 幸히 被傷호는 人은 無호다더라.

○1910년 05월 18일 (3372호)

呂氏弄璋 : 大韓協會員呂炳鉉氏가 日昨에 弄璋의 宴을 奉恩寺에 設하고 同會長金嘉鎭其他某某氏等を 請邀宴待하였다더라

6.2.2 동아일보(東亞日報)

○1921. 03. 17.

佛敎改革을 위한 朝鮮佛敎30本山住持臨時總會가 京城 壽松洞 覺皇寺에 서 開催되다. 이날 參席한 住持名單은 다음과 같다.

龍珠寺 姜大蓮 梵魚寺 吳梨山 乾鳳寺 李大蓮
釋王寺 金海隱 松廣寺 李雪月 普賢寺 金清昊
通度寺 金九河 楡岾寺 金一雲 金龍寺 金慧翁
桐華寺 金月齊 仙巖寺 崔鏞植 銀海寺 池石潭
奉恩寺 金相淑 大興寺 申鏡虛 月精寺 洪蕭龍
歸州寺 田南溟 貝葉寺 姜九峯 奉先寺 李混慳
成佛寺 李寶潭 麻谷寺 李性海 孤雲寺 金惠燁
法住寺 柳護庵 寶石寺 玄普光 傳燈寺 金晶海
白羊寺 宋宗憲 威鳳寺 郭法憲 永明·法興兩寺 姜龍船

○1925. 07. 23.

單獨으로 救護, 오백명을 수용하고 지금까지 구호, 奉恩寺의 美舉

광주군 언주면 봉은사 주지 라청호(羅晴湖)씨는 목선(木船) 삼척을 주선하여 부리도(浮里島)민 일백십사명을 구호하여 자기 절에 수용하고 십팔일에는 목선 두척을 사서 잠실리(蠶室里) 주민 이백이십팔인을 구하는 등 현재 봉은사에 수용된 자만 사백사인이라더라[동부]

○1929. 05. 31.

羅晴湖氏 紀念碑建立

[광주]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대본산 봉은사 주지 라청호씨는 을축년 대

홍수 때에 자신이 홍수상에 출장하여 뱃사공에 명하여 배 한번 나가서 인명을 구해 오는 자마다 돈 십원씩을 주기로 하여 그때 구제된 자가 칠백팔인에 달하였으므로 그 구제를 당한 자 중 동부면 신장리 사는 리준식씨 외 수씨의 발기로 이개월 전부터 라청호을축홍수구제기념비를 기공하여 오든 중 수일 전에 준동되었으므로 지난 이십칠일에 제막식 겸 피로연을 대본산 봉은사 내에서 거행하였다더라.

○1933. 06. 07.

水陸祭舉行, 奉恩寺에서

[松坡] 광주군 연주면에 있는 선종갑찰 대본산 봉은사에서는 전례에 의하여 오는 음十五일에 수록재를 올린다고 한다. 그 유래는 자못 의의깊은 병자호란에 인조대왕께서 남한산성으로 파천하실 때 많은 관민이 전사 혹은 투강 자살하였으므로 그후 그들을 추조하고자 당시 수○○ 갑찰인 봉은사에 명하사 수록무주고혼무차대법회(水陸無主孤魂無遮大法會)를 열게한 일이 있었다. 그후 경비문제로 운삭이 드는 해에만 거행되었는데 금년에도 윤五월에 거행할 것이나 장마 때이므로 미리한다는데 비가오면 오는 二十일로 연기하리라 한다.

○1934. 09. 02.

羅淸湖 奉恩寺 住持永訣式

광주 대본산 봉은사 주지 라청호 선사는 지난달 二十九일에 별세하였으므로 二일 정오에 수송동 각황사(覺皇寺)에서 본말사 승녀가 집합하여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1935. 04. 09.

佛敎修養會 奉恩寺에서

대본산 봉은사 교학부에서는 지난 七日 오후 一시부터 광주군 경남면 경안보통학교에서 불교수양회를 개최하여 성대히 마쳤다는데 연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었다고 한다.

實踐戒律의 必要 : 朴允進, 佛敎의 理想과 心田啓發 : 金泰治

○1939. 05. 01.

廣州奉恩寺 全燒 五百餘 하이카參拜者로 混雜 損害十七萬八千圓

三十일 아침 경기도 경찰부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작二十九일 광주 봉은사에 발화하여 삼시간에 전소되었다 한다. 아즉 자세한 ○고는 없거니와 광주군 광주면 삼성리 115번지 봉은사는 廿九일 오전 중에 五百여 명이 찾아 왔는데 누가 버리고 간 담뱃불이 낙엽에 댕기어 오후 一 시 五十分에 발화 삼시간에 전소하고 동 三시五十分경 진화되었다. 손해는 十七萬八千원에 달하고 인즉에는 피해가 없다고 한다.

○1939. 05. 04.

奉恩寺 火災損害 廿二萬餘圓

二十九일 소실된 광주군 광주면 삼성리 봉은사 소실 건조물은 大雄殿 {八萬圓}, 冥府殿(一萬五千圓), 萬歲樓(四萬圓), 眞如門(一萬五千圓), 尋劍堂(二萬五千圓), 雲霞堂{二萬五千圓}, 倉庫(二千圓)의 七동에서 불상 二十좌 즈기 맥미겨 등을 합하여 손해액이 二十二萬一千여원에 달하고 있다.

○1939.05.21.

九萬圓의 工費들여 奉恩寺 再建에 着手 三年後에 竣工豫定

지난 廿九일 하이커가 내버린 담뱃불로 인하여 애석하게도 국보 명사찰 광주군대본산(廣州郡大本山) 봉은사(奉恩寺)가 오유로 귀하였다함은 기보 한바이거니와 이 절은 본래 지금부터 千百四十여년전 신라(新羅)의 명승 연회국사(緣會國師)가 채건한 것으로써 지금까지 다섯 번째 축융(祝融)신의 ○○을 보아 여덟번중 ○○하여 온바 이 대본당은 명치(明治)十七年 호봉선사(虎峯禪師)가 다시 재흥시킨 것으로 이번의 재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운을 당하자 봉원사(奉元寺), 월정사(月精寺) 등의 대소말사를 총 동원한 신도 ○萬 여명이 성원하여 지○ 거금을 속속히 사승에 잇으므로 동사 주지 강성인(姜性仁)씨는 지난 十五일 관계자를 모아노코

구체안을 작성하우에 예산액 九萬원을 들여 이번 가을부터 제一기 공사로 본당(本堂) 재건에 착수하게 된바 三년후에 훌륭한 사찰로서 완성을 보리라 한다.

1939년 6월 6일

奉恩寺再建 第一期 工事を着手

경기도 광주군언주면(廣州郡彦州面)에 있는 봉은사(奉恩寺)는 지난 四월 二十九일 참관자의 담배불에서 인화하여 본당(本堂)이하 칠(七)동이 전소되고 본당불상과 대장경(大藏經)등 많은 화재를 면하였으나 그 손해는 二十二萬六百萬의 다수에 달하였다. 그런데 봉은사에서는 본말사주지총회를 개최하고 그 선후책을 강구한 결과 복구건설기성회를 조직하여 사찰의 복구를 계획하기로 되었다. 건설공사는 一기, 二기로 나누워 제一기는 三개년간 약 八萬원의 경비로 우선 본당과 좌우 고리(庫裏)의 건축공사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한다.

1955년 6월 4일

遺風案内 奉恩寺

[位置] 뚝섬(楮島) 遊園地에서 漢江 건너편으로 바라보이는 修道山의 南麓에 있다. 漢江을 사이에 두고 北方의 뚝섬은 서울特別市로, 奉恩寺가 있는 南麓은 경기도 廣州郡 廣州面 三成里에 所屬되고 있다. 뚝섬 遊園地 안에 있는 청수골(淸潭里) 나루터 건너 東南方으로 約三馬町 가량 (途中에 나지막한 고개를 하나 넘는다) 나가면 千古의 老松이 鬱蒼한 森林地帶에 當到한다. 절은 우거진 松林 속에 있으며, 境內는 無慮 五町步에 達 하고 있어 일찌기 全國 寺刹의 總本山의 面目도 若如하다.



奉恩寺 全景

[沿革] 奉恩寺는 일찌기 禪宗의 首刹로서 지금으로부터 一千百

五十一年前 新羅 元聖王十五年 四月에 緣會國師가 創建하였다고 하며, 當時는 現 奉恩寺로부터 西南方으로 約一馬町 가량 떨어진 現 宣陵과 靖陵의 中間 地點에 있었다. 宣陵은 李朝 九代임금이신 成宗大王을, 그리고 靖陵은 十一代 中宗大王을 모신 葬地로서 그후 明宗十七年(三百八十六年前)에 절을 現地로 移轉하게 되었다. 그러나 仁祖十四年 丙子胡亂의 兵火로 大雄殿을 비롯한 여러 堂宇가 灰燼되었고 현재 이 建物は 肅宗十八年(二百五十六年前) 禪宗 大禪師에 依하여 改築된 것이라 한다. 奉恩寺는 李朝時代 寺刹의 總本山으로 全國의 寺刹을 指示監督하였으며, 이곳에서 僧科(중의 科擧)를 보아서 그 資格과 階級을 定하였다고 한다. 한便 佛殿內에는 많은 經板과 寶物이 保管되어 있어 史家들의 研究材料가 되고 있다는 點으로도 有名하다.

[風景] 境內 및 附近一帶는 千古의 老松이 鬱蒼하여 莊嚴한 風姿를 이루고 있을 뿐아니라 大雄殿을 비롯한 十餘個의 堂宇는 莊嚴을 極하고 있다. 더구나 奉恩寺는 現在로 三十一本山의 하나로서 서울 近郊에서는 가장 큰 절로서 한번 보아들 만한 곳이다. 特히 절이 있는 修道山에 오르면 발아래로는 悠悠히 흐르는 漢江의 雄姿를 接할 수 있고 멀리로는 서울 市街를 비롯하여 安養, 始興 一帶가 그림같이 展開된다. 서울 近郊의 “넘버원” 逍風地로 斷然 推薦함에 주저하지 않는다.

[코스]

A : 東大門→往十里→楮島里→漢江渡江→清潭里→三成里→奉恩寺

B : 鷺梁津→黑石洞→銅雀洞→新風里(始興郡)→말죽거리→三成里→奉恩寺

△車費 및 船賃

東大門→蠶島 遊園地 二〇圓, 나루배삯 一人當 二〇圓, 鴛車 三百圓

택시 五百圓, 추력 八百圓

○東大門-楮島間은 東大門 後便에서 始發하는 서울軌道會社 電車를 利用한다. 發車時間은 아침 六時부터 三十分마다 연달아 出發한다. 鴛車나 택시로 “도라이브”하는 분은 청수끝나루를 이용하여 渡江할 수 있으며, 歸路에는 말죽거리를 거쳐 黑石洞으로 빠져서 人道教를 건너오는 “코스”를

擇하는 것도 좋다.

1955년 8월 30일

比丘側接受 開始 第一次로 奉恩寺와 開運寺

廣州에 있는 奉恩寺와 시내 안암동에 있는 開運寺가 비구승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접수되었다. 불교교단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계속 되던 분쟁 끝에 마침내 주도권을 장악한 비구승들은 수주인 전부터 전국 사찰 접수사무에 노력하던차 지난 二십八일 처음으로 전기 양사 사찰을 극히 평온리에 접수완료한 것이다. 한편 경남 梵魚寺를 접수인계받으려고 만반 준비를 갖추고 당지로 임하였던 河東山 승려 외 수십명은 二십八일 하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말미암아 동사찰의 접수를 부득이 연기하였다고 하는데 총무원 원장 李清潭씨의 말에 의하면 이것도 二·三일 내로는 접수가 완료될 것이라 한다.

1955년9월 5일

施賞式 奉恩寺撮影大會

[寫研]주최 본사 후원으로 앞서 개최한 “奉恩寺촬영대회”의 입선작품 五〇점에 대한 시상식이 금五일 하오 五시 서울시내 미공보원영사실에서 거행된다.

6.2.3 매일신보(每日申報)

1917. 5. 1. 名刹奉恩寺

[未完] [尙玄 李能和]

李朝明宗大王時에 宮庭에서 佛敎를 信仰ᄃ야 入道에 ○○○頒下ᄃ야 名僧을 求ᄃ신 江原監司 鄭方鍾이 ○○郡 雪嶽山 百○潭寺僧 普雨[法號 ○○]를 薦○ᄃ니 文定王后 尹氏[○○母后]가 大悅ᄃ야 佛敎擴張을 普雨에게 委託ᄃ야 ○○奉恩寺 住持 兼 禪宗判事로 僧○을 託命ᄃ야 明宗大王七年壬子로부터 禪科를 發行ᄃ야 名僧을 ○○ᄃ새 朝鮮

▲佛敎의 中興宗祖 되는 淸虛 休靜禪師(亦云 西山大師)와 松雲 惟政大師(亦云 四溟大師)은 ○○○○에 中選되니라. 普雨和尚이 十四年間을 此寺에 住○하야 ○○의 禪宗을 ○○하얏고 其後에는 淸虛禪師와 四溟大師가 ○○하야 二年만에 莫大한 工役이 ○訖하니 禪宗에서 其功을 ○○하야 ○恩○○○○國一○大禪師의 法○을 下賜하고 ○○을 ○○하니 奉恩寺가 朝○寺刹中에 禪宗甲刹이 됨은 ○○과 ○○歷史에 基因함이니라. 明治四十五年에 寺刹令施行規則에 依하야 奉恩寺가

▲大本山禪宗寺刹이 되고 羅晴湖 和尚이 ○○住持로 任命된 以來로 ○○을 ○○하야 徒○을 安○하고 禪敎의 講學을 不○하며, 禪의 ○○○에 請願하야 靖宣兩陵○○○內未○地數十町步의 貨○을 得하야 開拓한 結果 年年三百石租를 收穫하여 本寺周圍에 ○한 山林五十萬坪을 得하야 寺有를 삼으니 自是로 常住의 支供이 有○○○하니 ○府○ 護法하시는 恩惠를 仰○하고 湖師의 承傳하는 精誠을 可見하겠더라. 奉恩寺의 舊蹟은 元來 宣陵東麓地內에 ○하던 것인디 明宗大王十七年壬戌에 靖陵을 宣陵之東에 遷○하고 奉恩寺를

▲修道山에 移建하얏더니 丙子胡亂에 ○○의 餘한지 ○○○大師가 募緣重建하야 舊觀을 回復하얏더라. 其後乙巳에 回○을 又○하야 僧徒가 ○○을 ○○하야 重○의 役을 未○하더니 肅宗大王이 兩陵에 ○拜하야 行幸하는 歷路에 奉恩寺前에 駐○하사 其工役의 ○創함을 ○○하시고 ○○을 下하사 ○○을 ○○하야 重建의 ○役을 ○○하사 ○○까지 ○한○이니라. (未完)

1917. 5. 2. 名刹奉恩寺

奉恩寺에 留藏한 諸經板本은 共計 三千五百五十板子인디 其中에 華嚴經板本은 近世 律師 南湖永奇和尚의 ○○造成한 者이니 ○鈔가 具備하고 校○가 情密하야 朝鮮僧侶의 學課와 法會에 必須하는 珍書가 되니라. 茲에 華嚴經板의 刊刻된 經過와 板殿에 藏○한 秘史를 左에 具錄하노라.

法身無相 眞理非言 非言故曰 言語道○ 無○○曰 體相空寂 旣曰言○體空

則亦何有所說之經居之宮 ○則今謂經板也 法堂也 從何以經之營之乎 然佛愍
 衆生 無相而○相 ○言而示言 ○有真應○化之身 經有○○○○之教 此所以
 有佛有經也 況進○有十華○○○○大人相 華嚴有十三大千世界微塵數○乎
 故無○○○○布則○○沒天 ○思教○○○○思波○○, 人天仰其化而發其心
 龍神慕具德而載北○ 於是乎 如來宮殿居○○○ 彌勒○閣周○○○ 不可○厚
 尼○○莊嚴 何僧○珠○重重垂布 <以下 省略 > 崇禎紀元後二百二十九年丙
 辰五月九日○○○○○○○○○ [未完] [尚玄 李能和]

1917. 5. 4. 奉恩寺記

2장 기문(記文) 참조.

1917. 5. 4 名刹奉恩寺

南湖和尚의平生行蹟을言하면 律行이精○한 一個名僧이라. 奉恩寺에
 ○○하는 口碑를 據○건디 南湖禪師는 全羅道人이니 幼時에 父母가 俱沒
 하고 其身에 ○疾이 存○야 ○○行乞○는디 ○○○泊○야 鐵原郡 寶蓋山
 寺에 到○니 ○僧 一人이 甚히 ○愍히 여겨 一言으로 ○忠告○야 曰 汝病
 은 藥石으로는 非可效오, ○有○ 하나 不知汝能行否乎○는거늘 南湖和尚
 이 大喜○야 其法을 仰問○는디 其僧曰 大慈大悲○○○○菩薩○의 名號를
 至誠으로 持誦○면 汝病은 得○는리라 是는지라 南湖和尚은 即時 其寺의
 一室을 借住○면서

▲菩薩의 名號

를 晝夜持誦○야 ○誠精○는디니 一日은 ○勞○를 不勝○야 暫時 假寢
 는디니 ○位○人(一白衣一紫衣)이 用手招之○는거늘 往見○는즉 白衣人은 卽
 自己의 ○姊라. 好言으로 慰勞○는거늘 其姊다려 ○曰 被○衣人은 ○也○
 는즉 姊曰 被名 準提인디 醫術이 ○明○기로 同來看病이라 하고 ○人이
 己身을 ○○는니 神氣消○는디라. 忽然히 夢을 覺○야 膿濁이 滿地○고
 其病은 卽愈○는디라. 南湖相○이 此로 從○야 菩提心을 發○야 落髮出家○
 야 佛律을 嚴守○고 奉恩寺에 華嚴經板本을 造成○야 ○○佛界에 無○
 利益이 되얏다고 ○○이더라. 今에 文字上으로 南湖和尚의 出處行路를 見

호면,

南湖○○○刊○○碑(韓國崇祿大夫○○○判官李宜翼撰) 大師名永奇 湖之南 古阜人也 俗姓 鄭氏 系出晉州 愚伏 卽其鼻祖也 考諱彥圭 母潘氏 早失怙恃 年十四 ○僧伽寺 大○老宿○○ 壬子入寶蓋山地○○ ○○當○○ 寫彌陀經 每○三拜 ○是悲○中流出 ○乃○○四恩之功矣 ○○ 夜夢○○彩○○ 四方回 癸五오, 入三角山 刊○板 ○刊十六○○ ○○○○ ○之水落山興○ 寺 乙卯○○廣州郡奉恩寺 ○諸○志○○ 準○千手合○一卷 天台三○詩集 新建經藏之殿○ 金侍郎秋史○○ 云云.

▲經板閣의 榜額

“板殿” 二字를 大書호고 其 額字 右方에는 “七十一○病中作” 의 七字를 細書호얏스니 此는 金阮堂正喜氏가 晩年에 果川에 居住호는 故로 老果라고 自號호는 者인디 奉恩寺 板殿의 榜額은 阮堂이 平生의 全腕力을 發호는 最終의 揮毫라 筆法이 ○○호야 龍蛇飛騰의 ○를 寫호니 阮堂도 自己平生 ○告中에 此額 二字로 ○第一이 된다고 ○○호니라. 板殿前偏에는 菩提樹 二株가 竝立호얏스니 菩提樹는 昔에 釋迦世尊이 雪山에서 修道호야 六年을 苦行호시다가 ○月八日夜에 此樹下에 坐호야 天魔를 降伏호고 菩提正○를 ○○호신 故로 ○樹를 菩提樹라 名稱호인디 菩提樹라 호는 것은 卽云 覺樹라 ○底에 ○○호면 ○○이 ○○호니라. 奉恩寺菩提樹○偏에는 半畝方塘一○○호야 天光○○○○○○호고 西偏에는 曲○通○○호니 禪房花木○호야 尊○○○호는 ○○가 有호니라.

▲奉恩寺正門

의 揭額○ “修道山首禪宗奉恩寺” 九字는 尹白下의 筆이오, ○殿○○의 樓○는 ○人의 筆이오, 大雄殿의 ○○은 韓石峯의 筆이니 ○皆古○道○호야 加○호는 ○○가 有호고 萬歲樓上에 大法鼓는 人天을 ○○호만호고 樓下에 銅鐘은 重○八百斤이니 康熙五十九年庚子에 鑄造호는 것이다라. 奉恩寺에 一○珍物이 有호니 此는 文定王后께서 普雨和尚에게 下賜호야 寶玉으로 至今까지 傳來호는 玉板梅花一○라. 此는 枝幹花葉을 各其本色을 從호야 寶玉으로써 ○○호는 것이다라 本寺에서 此를 秘藏호야 容易히 觀覽을 不

許호는 것이나 ○五月六日 市民大野遊會에는 特別히 此玉板梅花와 其他 珍品을 出掛호야 來人에게 ○○縱覽에 供호 터이더라. [未完]

[尙玄 李能和]

1917. 5. 5. 奉恩寺의 寶物

奉恩寺는 我東方의 名刹이오. 從호야 寶器珍物도 多藏호얏는디 六日 大野○○日還忌大法要○帳에 公衆에게 ○○展覽을 許호者中에 其重要호 寶物은 左○호더라.

□烏銅香爐와 琉璃盃

此는 李朝中葉 壬辰亂에 雷○을 ○호 ○僧松雲[四溟堂]大師가 携帶호얏던 것이오.

□十二支佛畫, 八金剛, 四菩薩

此는 ○皆朝鮮畫家의 名作으로 總數 二十四枚인디 筆者는 朝鮮名畫 ○○○以上이라 稱호는 ○伯의 筆○이라筆力이 雄體壯勇호며,

□玉石梅花板

此는 李朝 明宗大王의 生母 文定王后로부터 僧 普雨에게 下賜호는 것이라 호며, 普雨는 一時 宮中の 勢力이 ○大○地호다가 文定王后가 逝後 李栗谷先生의 上疏로 濟州○에 流配호는바 되었다가 未幾에 杖殺호얏다 호며,

□疏鈔華嚴經(八十卷) 維摩經, 準提千手合璧, 天臺三隱詩集

此經卷 版木은 殿內 架棚 中에 積置호얏는디 ○一枚를 取見호면 字劃이 方正호고 彫刻이 整호호니 此○는 哲宗六年 乙卯에 南湖律師가 募捐開刊호는 것이라. 律師[父]의 諱는 彦圭오, 俗姓은 鄭氏니 怙峙를 早失호고 十四歲에 兄과 共히 三角山 僧伽寺 大演老宿에게 髮를 祝호고 其後 江原道 地藏庵에 入호야 阿彌陀經을 寫호고 乙卯春에 奉恩寺에 至호야 前記의 經板을 造成호고 其後 雪嶽 五臺의 名山에 移錫호얏다가 五十三歲에 示滅호얏는디 臨終에 際호야 門人에게 告호야 曰“欲投林獸無以應太息曰國風”이라 호고 ○訖에 逝호얏더라. 師는 戒律을 尊重히 호며, 衰世에 際호야 身을 ○호기 深히 勤實호야 後人의 模範을 作호얏스며, 經板開刊의 偉業은 實로 其功績이 莫大호고 門前樹下의 石碑는 師의 偉業을 後人에게

○하는 못하다.

□金秋史筆의 懸板

藏經殿 入口에 懸은 版殿이라 記은 額은 阮堂의 印이 有하며, 又禪院의 維摩板이라 書한 額도 亦阮堂의 印이 有하디 此는 金秋史의 絶筆이라 하며, 兩者가 모다 筆力이 雄健하야 龍蛇飛騰하는 勢가 有하더라.

□鐘樓下의 大鐘

重이 ○斤이니 康熙五十九年鑄造오.

□大房軒鐘

重三百斤, 康熙二十一年鑄造, 元南漢山城 長慶寺의 中鐘이오.

□大雄殿內的 中鐘

重이 三百斤, 洪武二十九年鑄造, 元來 驪州郡 長興寺에 在하던 것이라 周圍에 四金剛菩薩浮彫가 有하며, 紋樣 其他가 麗術中로 可○할 ○이며,

□金鼓

重이 百三十斤, 乾隆二十年鑄造, ○○은 其重要한 ○뿐이오, 其他 珍品도 多數함. [

1917. 5. 5. 名刹奉恩寺

▲奉恩寺와 山脈切斷의 遺聞

自○○○에 風水를 ○信하는 習俗은 大概 新舊時代로부터 傳來하야 高麗 太祖는 道詵○師의 山水秘記를 崇信한 故○로 高麗一○五百年間에 ○○을 ○造하던지, 寺刹을 創建하던지, 山水의 地○을 ○簿하는 範圍 以內에는 ○皆不許한 故○로 王居는 壯麗한 宮殿을 不見하고 民家는 ○○한 室宅에 自足하니라. 今朝 太祖께서도 無學王師의 道德을 欽崇하시면서 相土建都하느○도 無學和尚의 道○○○하니라. 朝鮮儒派는 朱子の ○源○○ 佛道를 排斥하야 道詵과 無學 又한 ○僧이라도 ○皆妖僧이라 指斥하면서 ○○ 故로 風水○은 信奉하얏는가. 此는 巧妙한 ○○가 有○하니 卽 朱子가 風水를 ○信하야 父○을 三遷하얏다는 理山下에 ○過한 것이라 朝鮮에 佛敎가 振興함은 ○○和尚이 修道山 奉恩寺의 地德을 ○○함이라 하야 儒派에서 多數한 人夫로 써 巨○의 乎를 作하야 修道山의 右脈 卽○○里 前

崗을 ○○하야 山氣를 ○洩하야 ○運을 抑壓하든 것이라 今日에 佛敎가 復興하야 奉恩寺에서 祖師의 遠忌○會를 ○行하니 ○에 ○하야 ○○하든 人士는 多少 威想이 有하리로다.

▲普雨和尚과 濟州貢島奇談

○○錄云 唐○에 有名하든 ○泉 普雨禪師의 法○○○○○禪師는 ○○大○이니 ○僧同南○○化하야 向什歷○法○하야 師云하되 東○作○하고 西家作○니라. 僧云此○如何오, 師云 要○○○하고 要下卽下니라. 此는 禪家의 公○(話頭)이라. 玄玄妙妙하든 內容의 道理는 眞悟大○하기 以前에는 容易히 ○○을 不得하든 ○나 今에 但 其表面의 意趣만 借證하신디 迷信에 近하고 荒○에 涉하지마는 ○宗○○에 君恩을 多○하야 朝鮮 禪敎를 闡揚振興하든 佛家에는, 功臣儒家에는 仇○인 普雨和尚이 妖僧으로 攻擊 上疏를 被하야 濟州○에 流配하야 牧使 邊○에게 杖殺되엇는디 濟州貢馬가 되야 御乘馬가 되야 非常히 ○健힘을 因하야 ○大○의 名을 御賜하야 ○○에 ○養하다가 馬死後에 埋之하고 ○大○之○이라. 題하얏다는 傳說이 有하든 至今 ○○해서 無所事爲하고 逍遙日在하든 人을 謂之伐大臨(벌때○)이라하든 俗語는 其語源이 此○에서 出○하든 것인즉, 普雨作馬의 奇談은 無根孟浪之說에 屬힘은 非也일 듯 하고 不佞이 去年 秋間에 靖○誌 普雨事蹟 中에 ○段奇談이 記錄되어 잇는 것을 發見하얏는디 其文이 如左하든다. [普雨死後 其沙彌(徒弟少僧)在奉恩寺 忽夢普雨○告曰 我死後化爲御乘馬 今方上去○○因甚 汝○作○○○來○于○峴(在沙平島○之○)路傍 其沙彌覺○恠之 急以米粥○○ 往○峴路側待之 馬群數百皆過去面不顧 有一馬紅○者後到 有○○○ 因直至沙彌○ 吸盡○○粥 至今指其○曰 ○粥○ ○在○峴北]云云

▲奉恩寺와 流配猫의 故事

李朝世祖大王께서 五臺山 月精寺에 幸臨하샤 佛殿에 禮拜하시라 하든때에 一頭猫子가 忽然 出來하야 御衣를 ○하야 ○止하든 ○를 表示하든지라 王○退出하야 搜索○을 下하야 果然○桌帳裏에 一○○客을 發見捉得하든지라 ○猫의 資○으로 ○寺에 山結을 下賜g하고 此後로브터 王宮에서 猫를

愛護하게 되었는데 猫를 不殺하는 故로 宮中에 猫兒가 非常히 繁殖하여 苦弊가 多히더니 明宗朝時에 普雨和尚이 一個方法을 陳達하여 凡犯罪한 宮猫는 容〇〇記를 具한 公文〇로써 奉恩寺〇外化王堂對備에 〇한 〇〇〇로 流配하고 〇猫出〇結을 〇給하여 去申午에 張〇까지 奉恩寺僧이 流配 猫의 事務를 取扱하니라.[尙玄 李能和]

1917. 5. 6. 名刹奉恩寺

▲奉恩寺水管에 汲水功德

奉恩寺 羅漢殿前에 井戶가 有하고 井戶로부터 僧房까지 木水管을 設置하였는데 普雨和尚時〇로부터 奉恩寺에 求景하러 來〇하는 이는 個個〇히 井水〇를 沒〇하여 水管에 붓는 遺俗이 有〇하되 그것은 想必〇〇의 假頭(供養主)가 坐〇取水하는 方法으로 汲水功德을 說〇布〇함인디 多數한 信徒가 汲水하여 井水가 枯渴하기에 至하면 沙十〇水를 〇下하는 故로 貯水桶에 清水까지 混濁하여져서 返〇苦〇를 始하는 事가 多〇하니라.

▲便所의 椽木과 迷信

普雨和尚이 奉恩寺 住持를 하였을 때에 〇〇〇守〇〇〇〇〇〇〇來寺하였더니 普雨和尚이 禪定에 進入하여 〇會를 不〇하고 無〇함을 不勝하여 門外에 散步하다가 本寺 便殿에서 椽木을 敷하며, 〇〇인이 其意를 〇하거늘 〇〇守는 臨時〇〇으로 “奉恩寺〇椽木을 敷하면 傍인이 功德이 된다〇 “하고 對答한 것이 〇〇〇俗하이라. 大抵 寺僧에게 施〇施〇를 한다던지, 佛前에 獻〇獻花를 한다던지, 念佛을 한다던지, 誦呪를 한다던지 하면 功德이 된다는 것은 當然한 事〇라 하려니와 便所의 椽木을 敷하여 何功德이 有하리오. 此는 邪正을 不分하는 一種 迷信에 不過하다.

▲祖師遠忌의 大齋

奉恩寺는 朝鮮 禪宗 甲刹 大本山이오, 本寺住持 羅晴湖 禪師가 九個末寺의 住持 諸和尚을 招集하여 祖師遠忌의 大齋를 〇行하는데 禪教〇宗三十本山聯合事務所 〇委員長 大本山 〇〇寺 住持 姜大〇禪師와 〇委員長 大本山 通道寺 住持 金九河 禪師〇도 一同來參하여 〇恭한 禮式〇一般來人에게 供〇하라는 〇〇인즉, 他〇는 〇〇에 佛教〇入以來로 初有한 〇〇

이오, 三十本山에도 模範되는 法○로 ○然○第一로 佛敎○○는 人民의 眼
 目되는 報○이로다. 今○每日新報社에서 名刹 奉恩寺의 ○○○祖師 遠忌
 ○○法○를 ○日紙上에 ○布○하야 朝鮮 全道에 ○○日誦○하야 ○○不○○하
 야 千五百年○ 大宗教로 하야금 活氣를 ○모○하니 ○使○○○○가 數十星
 霜을 ○○○○토록 說法布敎하더르도 猶不○此○○니 ○○○○의 九百寺
 刹 八千法侶는 每日新報에 ○하야 ○○至厚○ ○謝의 同情을 抱○○은 勿
 論이오, 拙稿를 爲○하야 貴重한 本紙面의 一部를 一週間이나 貸與○事
 ○에 ○하야 不佞은 個人의 謝意를 ○○하노라.[完] [尙玄 李能和]

1935년 6월 5일 奉恩寺主催 巡回講習盛況 二日楊州普校에서

[議政府] 大本山奉恩寺主催로 昨二일 午後八時부터 楊州公普校 講堂에서
 開催한 地方巡廻布敎講演會는 文學史 金泰治氏의 流汗鍛鍊과 同胞愛라는
 演題와 文學史 朴允進氏의 佛菩薩의 庶願이라는 두 演題로 宋郡守의 紹介
 人事가 잇스후 開講되야 同十時半에 閉講하얏는데 兩氏 熱烈한 雄辯에 一
 般은 拍手가 끈치지 안이하얏으며 따라서 方今 全鮮的을 움직이는 心田作
 興에 對한 緊切한 講演에 三百餘名에 達하는 聽講諸氏는 만흔 興味를 느
 끼었다.

1936년 5월 24일 奉恩寺遊記[洪承耆]

2장 봉은사 기문 참조.

1939년 5월 2일 危險·登山客담배불!

奉恩寺煙滅은 『하이커』의 失手 道警察部、山火警戒에 進出
 체의 향상을 위하여 “하이킹” 을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업시 조흔 일이지
 만 이 “하이커” 들의 잣딱 잘못된 실수는 무서운 산불을 일으키어 삼림
 資源(森林資源)을 불살러 버리고 귀중한 고적을 불살러버리고 마는 것은
 크게 주의할 일이다. 즉 지난 二十九일 廣州郡(廣州郡)에 잇는 한강 건너
 봉은사(奉恩寺)에서 대낮에 불이 나서 대웅전(大雄殿), 명부전(冥府殿),
 운하당(雲霞堂) 등 총독부지정 고적들이 전부 재가 되어버릴 만큼큰 불이

이러났는데 원래 이 절에서는 음력으로 초하로 보름에만 부역에 불질을 함으로 부역의 불단속을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며 역시 이 절의 통행로가 부역으로 통해 잇는 관계로 보아 그날 유난히 만흔 “하이커” 들이 담배불을 잘못 던져 부역에 싸노왔든 솔깨비로 당겨부터 그가치 절 전체가 타버려 손해十七만원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이 절은 조선三十一본산의 하나로 신라시대에 창건되어 리조시대에 명찰(名刹)로 유명해졌으며, 풍광과 고적이 만흔 것으로 유명한 것이며, 때맞침 부근에 잇는 주민과 수만흔 “하이커” 들의 진력으로 두시간만인 세시경에 불을 잡엇고 법당의 부처도 끄들어 냈다고 한다. 이가치 아차하는 실수로 큰 손실을 본 사실에 대해서,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관내 각 서에 통첩하여 공휴일에는 서원을 산으로 동원식혀 산불경계에 노력하게 하얏고 일반두산객들도 각별한 주의를 하라는 폐목을 경기도 산림과와 함께 각처에 세우기로 하얏다.

1939. 5. 12. 奉恩寺의 鳥有

奉恩寺는 ○今 一千百四十七年前 新羅 元聖王 十年에 ○○○○가 ○○한 ○○로서 ○○을 ○○하고 ○○을 ○○케하는 ○○○○의 禪宗甲刹이 되야 ○○○○○代王 ○○○○를 바다오면서 ○○을 식히든 大○○이다. ○今도 奉恩寺는 三十一 大本山の 一이오. 京○○大本山の 一로 잇지마는 本寺는 ○○을 갖가이 하고 잇으니만치 옛날에 잇어서는 더욱 八道の ○本山으로 王室의 ○○를 ○○○○에 ○○를 바○이 컷었다. 新羅時代는 勿論이오 高麗 때에도 ○○○王이 本寺에 자주 行○하사 ○○을 베푸섯고 李朝初에도 太祖께서 가꿈 ○○하시어 ○○하섯스니 이러한 記錄은 高麗史와 李朝實錄에 ○○히 나타나있다. 그리고 李朝中葉에 잇어서는 成宗의 宣陵과 中宗의 靖陵을 이 附近에 모시고 그 ○○○도와 守護의 ○○을 매겨온 것을 보아도 本寺가 얼마나 王室의 ○○를 바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金泰治]

1939년 6월 7일 再建될 八萬圓으로 二期에

천년전 고찰로 三十一본산에 하나인 광주군 언주면(廣州郡 彦州面)의 봉은사(奉恩寺)는 지난 四월 二十九일 하이커의 담뱃불로 법당과 기타 건물 일곱채를 고양 불살러 버리었고 불교문화에 중요한 물건인 법당 불상과 대장경(大藏經), 불구(佛具)까지도 건지지를 못하여 총손해액만 二十二만여원에 달하였다. 그후 본산총회와 봉은사에서 본말사의 주지회를 거듭 열고 선후책을 강구하였듯마 드디어 복구건설기성회(復舊建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새로 절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건설계획은 공사에 잇서 一기와 二기로 난호와 착수하기로 하였고 제 一기 내는 三년간을 八만원 경비를 더리기로 하였으며, 위선 법당과 좌우편 창고를 중수하기로 하였다 한다. 이것이 완상되는 날에는 조선사찰계에 일대위판이 새로 들어날 것으로 벌써부터 설계를 급히 하고 있다 한다.

6.2.4 자유신문(自由新聞)

1946년 1월 11일 佛門에도 총성, 奉恩寺 주지 피살

대자대비한 부처님 아페서 물욕과 살상을 꿈에라도 마음에 그리지 말고 중생을 선도하라는 불교도의 계명에 역행하여 씨슬 수 업는 오점을 낙인한 승려의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十二月 卅일 하오 八시경 시내 安岩町 開運寺 경내에 거주하고 잇는 대본산 奉恩寺 주지 洪泰旭(四七)씨 집에 괴한 三, 四名이 나타나 모단체에서 특명으로 왔는데 함께 가자고 하여 박그로 주인을 끌고 나와 보점 뒷동산 근처에서 권총으로 사살한 것을 열흘이나 지나서 八일 상오 八시경에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사실을 접한 경기도 경찰부와 성북서에서는 곳 활동을 시작하여 범인은 도경찰부에 속속 체포되고 잇는데 사건 배후에는 봉은사 경내에 거주하는 전 주지이든 姜性仁(五〇)을 인치 취조한 결과 그는 몇해 전 봉은사 본전에 방화한 사실도 잇섯는데 이번 조선이 해방되자 대본산의 주지인 홍태욱이 불교를 재건하고자 군정청의 위낫를 바더 왜적이 사용하든 시내의 박문사, 서본원사, 조계사 등을 접수한데 시긔를 금치 못하고 홍태욱을 죽인후 자기가 불교계에 군림하고자 모 테러단을 매수하여 그가치 살인까지 한 것이 판

명된바 범인들은 방금 엄중 취조중이라 한다.

6.3 잡 지(雜 誌)

6.3.1 별건곤 제26호 [1930년 2월 1일]

네 끼 굵고 중노릇, 굴머본 이약이

발서 6, 7년전 내가 처음 서울오든 해다. 음력으로 10월이 거진 지나 하늘에서 눈낮치 폴폴 빠지는 때인데 나는 흰 여름 양복을 내의도 업시 맨몸에다 입고 설넝탕과 호떡으로 열흘동안을 지냈다.

그러느라니까 속이 쓰리고 얼얼하고 전의 구조가 모다 밧귀는것 가치 기분이 불쾌한데다가 그나마 수중에 가진 돈이 푹 떠러지고 말었다. 어더케 해서 아침을 겨우 먹고 점심부터 굵게 되었다.

초겨울이라 해가 짧고 또 돈이 업는터에 점심쯤은 안 먹어도 관계 업겟지만 점심을 아니먹은 만큼 저녁밥은 든든히 먹어야 할 판인데 웬게 먹을 터문이가 있다. 생각타 못해서 원동 꼭대기에 잇는 고향 학생을 차저 갖다.

그러나 내가 밥을 굵었스니 좀 먹여라... .. 소리는 참아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게 사람의 우수한 심리라. 정말 굵은 놈은 굵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아침을 못먹네 저녁거리가 업네하는 놈은 실상 알고보면 단 한끼 거리라도 두고 잇는 놈이다.

그건 하여간 두끼를 굵고 얼음 가치찬 냉방에서 밤을 지내기란 과연 죽 업과 머리털 한 개의 경계밧게는 더 아니되는 듯 하였다. 이튼날 아침도 굵고 점심때가 되어서 지금은 朝鮮日報에 잇지만 그때에 東亞日報-그러니까 시방 이 집-中外日報 자리 이 집이다.-로 金東煥君을 차저 갖다.

맛나지 못하고 거리에 나서니 넘우나 시장한 탓인지 정신이 휘어질하고 그리고 약이 밧삭나서 맛나는 놈마다 그저 두들겨 주고만 심혔다. 하물며 매초롬한 여자가튼 것은 눈에 썩 띄운대도 나하고는 천리나 만리에 떠러져 사는 판 세상의 판 동물가치 보였다.

그러니 도통 一晝野半을 굶은 셈인데 그날 밤에는 金東煥君을 하숙집으로 차저가서 맛나 가지고 한 보름동안 신세를 끼치다가 할수 업시 차저간 곳이 奉恩寺의 중노릇이다.

이가티 혼자서 도라 다니며 굶은 때는 그저 배가 곱히고 깃것해야 악이나 나고 하더니 그 뒤에 집안사람들을 데려다가 소위 살음사리를 하게 된 때 아침 한끼를 못해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말로 정신이 아득하였다.

꼭두새벽부터 사방으로 꺾매고 다니다가 오정때에 겨우 45전짜리 양밀가루 한봉지를 사가지고 집에를 들어가니아 집안 사람들이 폭 갈어 안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형상이란 그저 큼직한 쥐구멍이 잇스면 들어가고 쉽게 게면적었다.

이맛게 훗신 옛날에 어느 곳에서 엇더한 사정으로 꺾박 냷새를 굶어 본일이 잇는데 이약이가 너무 장황하니까 다음날의 기회에 달은 형식을 빌어 발표하고저 한다.[崔鶴松]

7. 습 유(拾遺)

7.1 신라시대(新羅時代)

○신라 효성왕2(738)년 봉덕사(奉德寺)를 창건하였다. 성덕왕(聖德王)을 위하여 창건하였다. 신라에서는 봉불(奉佛)이 매우 융성하여, 사천왕사(四天王寺)·봉성사(奉聖寺)·감은사(感恩寺)·봉덕사(奉德寺)·봉은사(奉恩寺)·영묘사(靈廟寺)·영흥사(永興寺) 등 일곱 절을 창건하였으며, 모두 사찰을 관장하는 기구를 두고 관리를 배치하였는데, 숭봉(崇奉)의 의전(儀典)은 함께 비교될 만한 것이 없었다. [東史綱目 安鼎福]

○신라 현강왕11(885)년 가을에 하교하기를, “선왕(先王)의 뜻을 계승하고 선왕의 일을 이어받아 길이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일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 선조(先朝)에서 세운 곡사(鵠寺)는 이름을 바꿔서 대송복사(大嵩福寺)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불경을 수지(受持)하는 개사(開士)와 기강을 확립하는 정리(淨吏)가 전지(田地)를 가지고 공양과 보시에 이바지하는 것은 일체 봉은사(奉恩寺)의 고사(故事)에 의거하도록 하라. 고(故) 파진찬(波珍飡) 김원량이 회사한 땅의 산물(產物)을 전운(轉運)하는 일이 가볍지 않으니 정법사(正法司)에 위임하도록 하라. 그리고 별도로 두 명의 숙덕(宿德)을 뽑아 입적시켜 상주하게 하면서 그의 명복을 빌게 하라. 그러면 윗자리에 있는 나로서는 저승 세계까지 보살피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요, 큰 인연을 지은 김원량으로서도 반드시 감통(感通)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孤雲集 崔致遠]

7.2 고려시대(高麗時代)

○고려 광종2(951)년 봄 봉은사(奉恩寺)·불일사(佛日寺) 등의 절을 지었다. 절은 성의 남쪽과 동쪽 교외에 있다. 태조와 순성태후(順聖太后) 유씨(劉氏)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 [東史綱目 安鼎福]

○고려 고종21(1234)년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행행하여 연등(燃燈)을 관

람하였다. 고(故) 참정(參政) 차척(車僮)의 집을 봉은사(奉恩寺)로 하고 민가(民家)를 헐어서 연(輦)이 다니는 길을 넓혔다. 이때는 비록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초창기였으나 무릇 구정(毬庭)·궁전(宮殿)·사사(寺社)의 명칭을 모두 송도(松都)를 본떴고, 팔관(八關)·연등(燃燈)·행향(行香)·도량(道場)도 한결같이 옛법을 좇았다.[東史綱目 安鼎福]

○高麗紀 辛丑十五年[六年] 王幸國子監. 王, 自奉恩寺如國子監, 謂侍臣, 曰仲尼百王之師, 敢不致敬遂再拜. 以宋人盧寅, 陳渭, 爲秘書郎. 渭, 宋之進士也時宋人有蕭鼎, 蕭遷, 葉城, 蕭宗明等, 俱以才藝得補清選,

[紀年東史約 李源益]

○高麗紀 己丑四年[三年] 如奉恩寺. 設燃燈會, 宴宰樞酒酣, 王命左右舞, 平章事 金景庸等起舞, 承宣 林彥佯醉而退, 曰東蕃未寧可忍舞乎, 諫議大夫 李載上疏, 曰今軍國多事, 黎庶未安, 上以封兩弟, 數與群臣宴樂, 命御史大夫 崔繼芳舞, 燃燈之宴日高而罷, 命平章事 金景庸舞, 其如禮何, 且今東蕃詐遣人請和, 國家信之, 欲遣使告遼, 還其九城甚不可也, 是歲中秋, 王翫月於重光殿, 御製有云, 他日吾民躋壽富, 好酬住節謙公卿. 命文臣和進. 遣副元帥 吳延寵, 復伐女真. 尹瓘既還, 女真侵掠益甚, 王命延寵復征之. 設禱兵齋于神衆院, 令宰樞, 各出米二石設齋以禱兵捷, 既而命, 尹瓘等遍禱于昌陵及諸寺刹, 西南兩京祠院等處. 置救濟都監, 赦. 王, 將肆赦崔弘嗣等, 以爲不可, 王, 曰今賊類未殲侵掠人民, 將卒疲於攻戍, 國家之急, 政在今日, 欲肆赦以安衆心, 卿等獨何心以爲不可, 宰樞皆慙懼而退, 乃下教大赦. 遣元帥 尹瓘赴吉州. [紀年東史約 李源益]

○高麗紀 乙酉十九年[乾道元年] 王如觀瀾寺. 王, 淫于遊宴, 惟日不足, 稍遇佳境, 輒構亭臺, 於是, 群臣爭獻, 技巧以要寵, 承宣 金敦中以詞華, 有寵於王, 乃重修觀瀾寺, 稱以祝釐督發傍民, 遍植花卉, 築壇爲御室, 飾以金碧, 敦中爲設宴以享王, 王與宰輔侍臣酣飲盡歡, 厚賜敦中, 已而鄭誠祝釐於奉恩寺, 享王供辦, 遠勝觀瀾, 王醉自吹笙, 因問知音者, 左右以及第李鴻升對, 卽召至前, 命之吹笙, 欣然歎, 相見之晚, 遂屬內侍, [紀年東史約 李源益]

○高麗紀 丁亥二十一年[三年] 王還自奉恩寺宮城戒嚴。王觀燃燈夜還，左承宣 金敦中馬突觸，一騎士矢房矢落輦傍，敦中不能自首，王驚愕以爲流矢疾馳還宮，宮城戒嚴，選驍勇分番立仗外，不避風雪，巡警達曙，王疑，大寧侯暲家僮所爲，鞫問深刻或有誣服者，百僚詣闕，賀得罪人，王乃斬大寧侯，家僮數人。王如歸法寺。自歸法寺移御玄化寺，馳馬至獺嶺茶院，從臣皆莫及王，獨倚柱謂侍者，曰鄭襲明若在，吾豈得至此。崔滋 補閑集，曰李琪善寫真，常寫毅宗，真不題稱安於草堂，安淳之見之作讚，曰以爲帝王之像，幅巾鶴氅，如呂翁，以爲隱逸之資，豐準龍顏，如沛公，却推之於丹墀玉陛之上，命不再通，欲引之於長松怪后之間，氣尚不窮。[紀年東史約 李源益]

○高麗紀 庚寅二十四年[六年] 春正月朔，王如奉恩寺。觀燃燈還宮之日，結彩棚於左右，陳百戲迎駕，皆飾以金，銀，珠玉，錦繡，羅綺，珊瑚，玳瑁，奇乃奢麗，前古無此，諸近臣金敦中等，輪次享王達曙，而罷，是歲凡遊幸寺院，亦不可殫記。[紀年東史約 李源益]

○高麗紀 丁丑四年[十年] 先是，某王欲見史臣記事，潛至史館，直官預知匿不現，王怒，曰直官不直宿，停賜食，至是，崔忠獻奏禁內官皆賜食，惟史館獨無未合於理，命復之，遷，太廟神主于太常府，太祖世祖梓宮于奉恩寺。

[紀年東史約 李源益]

○高麗紀 甲午二十一年 端平元年 王如奉恩寺觀燃燈，以故參政車佃家爲奉恩寺撤民家以廣輦路，時，雖遷都，草創然，凡毬庭，宮殿，寺社，名號皆擬松都，八關燃燈行香道場，一依舊式，門下侍中 金就礪卒，就礪 鷄林彥陽人，節儉正直，持軍嚴，士卒不犯秋毫，有酒卽用一○，與最下者均飲，故得其死力，臨陣制敵多出奇計，以成大功，然未嘗自矜，爲相正色率下人不敢欺真忠義人也，諡威烈，配享王廟，[紀年東史約 李源益]

○高麗紀 己未四十六年[開慶元年] 王幸奉恩寺觀燃燈，當宴王再舉手以示群臣，曰凡在宴者，皆拍手以助予樂，酒闌王樂甚，群臣拍手踊踴，汗流披體至暮乃罷，作離宮於摩尼山，校書郎 景瑜言創闕於此，可以延基，王從之，時，又有術者白勝賢，亦以風水之說，請創闕於三郎城，且作穴口之寺興作紛紜，

蒙古使溫陽 可大等來, [紀年東史約 李源益]

○高麗紀 甲辰三十年[八年] 庇至, 曰帝平乃顏請罷諸道兵, 王益信之, 性切直, 以國事爲己憂, 每因災異, 入諫不聽, 涕泣固爭, 嘗告朔奉恩寺太祖眞殿, 旣奠且拜且泣, 曰太祖太祖君之國事日非矣, 因嗚咽不自勝, 其誠懇類此, 爲人貌寢, 寡言笑, 王嘗, 曰允孚吾之崔浩也, 貌雖醜, 不可棄也, 嘗自圖天文以獻. [紀年東史約 李源益]

7.3 조선시대(朝鮮時代)

○廣州 寺刹 奉恩寺 在楮島南○(續)僧處能重修記略曰丙子亂鞠爲茂草惟餘丈室數間僧敬林首建法堂諸衲繼以修葺○崔慶昌詩曰舟中回指奉恩寺社宇一聲僧掩關卽此 [梵宇攷 撰者未詳]

○奉恩寺在島西一里許。昔年余於湖堂賜暇時。乘舟泊島頭訪寺而還。

[遣閑雜錄 沈守慶]

봉은사(奉恩寺)는 저자도에서 서쪽으로 1리쯤에 있다. 몇 해 전에 내가 동호 독서당에서 사가독서할 때 타고 간 배를 저자도 머리에 정박하고 봉은사를 구경하고 돌아왔다.

○嘗在江榭讀書。一夕諸友共拉公登舟。抵奉恩寺。諸友先入寺遊賞。日暮還舟。則公在舟中。讀書自若。諸友共嘲之。公曰。父兄有戒。不敢違也。

[谿谷集 張維]

일찍이 강변 정자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친구들이 공을 끌어내어 배에 태우고는 봉은사(奉恩寺)로 간 적이 있었다. 친구들이 먼저 절에 들어가서 노닐다가 날이 저물자 배에 돌아와 보니 공이 배 안에서 태연자약하게 글을 읽고 있었다. 이에 친구들이 모두 놀려 대자 공이 말하기를, “부형(父兄)의 훈계를 감히 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隆慶三年己巳。先生四十三歲。三月。送退溪先生于東湖。同宿江墅。追送于奉恩寺。[高峯集 奇大升]

선조2(1569)년 선생 43세. 3월에 퇴계 선생을 동호(東湖)에서 전송하여 강가의 농막에서 함께 유숙하였으며, 봉은사(奉恩寺)까지 따라가 송별하였다.

○八月十三日壬申 朝霧。陽或陰。○範伊，三石。平明來到。見家書姑安甚幸。而專人者不有傳書云。人心之難測。亦甚矣。○範伊還即入送。禹鼎亦入去。○自馬粥巨里。率三石發行。聞嚴令留奉恩寺云。故委訪。而再昨已入京城近處云。甚虛悵。因休朝飯。而戊寅正月繡行時。留此寺數日矣。此日記我者有數僧。一則名抱舍。一則名世恩。○飯后自奉恩寺發。訪到西小門外蛤洞地橋近處金五衛將家。丁丑年繡衣承命後。來留於此治行。金五衛將明九間已作故。其弟明宅居焉。因留而朝夕飯自家傳食。○子敬及保卿出來。○閔司果出來。因爲同處。○夕李進士幼章出來敘話。罷漏後入去。○見嚴令，沈令書。而自家出來。聞嚴令住門外此近。故即修答以送。自馬粥巨里至奉恩寺十里。自奉恩寺至西門外二十里。[日槎集略 李鏊永]

8월 13일(임신) 아침에 안개가 끼더니 갠다 흐렸다 하였다. 범이(範伊)와 삼석(三石)이 평명(平明)에 도착했다. 가서(家書)를 보니 그런대로 편안한 것이 매우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전하라고 보낸 자[專人]가 편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하니,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지만 너무 심하다. 범이가 돌아가자 우정도 들어갔다.

말죽거리에서 삼석을 데리고 떠났는데, 들리기를, 엄령(嚴令)이 봉은사(奉恩寺)에 머무르고 있다 하므로 찾아 들렀더니, 그에게 벌써 서울 근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매우 허전하여 그대로 쉬며 아침을 먹었다.

고종15(1878)년 1월에 암행어사로 이 절에 며칠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이날 나를 기억하고 있는 자가 두엇 되었다. 하나는 이름이 포함(抱舍)이요, 또 하나는 세은(世恩)이란 자였다.

아침을 먹고 봉은사를 떠나, 서소문(西小門) 밖 이교(地橋) 근처로 김오위장(金五衛將)의 집을 찾아들어 고종14(1877)년 암행어사의 명을 받은 뒤 이곳에서 머물면서 차비를 차렸었다. 김 오위장 명구(明九)는 그 사이 이미 작고하고, 그의 아우 명택(明宅)이 살고 있다. 유숙하였는데, 아침·

저녁은 집에서 날라 왔다.

자경(子敬)과 보경(保卿)이 나왔다. 민 사과가 나와서 함께 거처하였다. 저녁에 진사 이유장(李幼章)이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파루(罷漏 5경 3점 통금이 해제되는 시간) 후에 들어갔다. 엄령·심령의 편지를 보았다. 집으로 온 것을 가지고 왔다. 들으니, 엄령이 성문 밖에 머무르고 있는 데가 여기서 가깝다고 하므로 즉시 답서를 써 보냈다. 말죽거리에서 봉은사까지 10리이고, 봉은사에서 서문 밖까지는 20리다.

○甲午年(1894) 四月三日 晴 朝起唱貢所諸員 呼訴公堂次束裝齊發 持路需一百兩 出牛川乘船 至德沼下陸 入店舍買喫午飯 復行至心淸江口 將西下回船 泊于奉恩寺洞口 下陸入寺 呼三寶僧 飭造晚飯 占得客舍僧房 安頓行李 至二更時分喫飯 困頓就眠 [荷齋日記 池圭植]

1894년 4월 3일 맑음. 아침에 일어나 공소 제원(貢所諸員)을 불러 공당에 호소하려고 행장을 꾸려 일제히 출발하였다. 노자 100냥을 가지고 우천에 나가 배를 타고 덕소(德沼)에 이르러 배에서 내렸다. 점방에 들러 점심을 사 먹고 다시 떠났다. 심청강(心淸江) 나루에 이르러 서쪽으로 내려가려다 배를 돌려 봉은사(奉恩寺) 동구(洞口)에 정박하고 배에서 내렸다. 절에 들어가 삼보승(三寶僧)을 불러 저녁을 지으라고 이르고 객사승방(客舍僧房)을 차지하고 행장을 정돈하고 쉬었다. 이경(二更)쯤 되어서 저녁을 먹고 몹시 피곤하여 잠에 들었다.

○己巳三月。拜判中樞府事。詣闕謝恩。入對夜對廳。乞退許之。午漏下拜辭出城。宿東湖夢賚亭。乘船宿奉恩寺。[海東雜錄 權鼈]

기사년 3월에 중추부사를 제수하므로 대궐에 들어가서 성은에 감사하고 야대청(夜對廳)에 입대하여 물러갈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다. 정오 때 하직을 하고 성으로 나와 동호(東湖)의 몽뢰정(夢賚亭)에서 자고 배를 타고 가서 봉은사(奉恩寺)에서 잤다.

○自撰墓誌銘 임인년 가을에 우리 형제는 윤모(尹某)와 함께 봉은사(奉恩寺)에서 경의과(經義科)를 익히고 1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듬해

봄 백중계(伯仲季) 삼형제가 함께 감시(監試)에 합격하였으나, 회시(會試)에는 나만이 급제하였다. [茶山詩文集 丁若鏞]

○高宗24年 丁亥 八月初三日 晴, 東萊人金顯逸自京來, 見沈台致殷及徐別郎致英書, 黃進士紫泉·印世卿父子·崔誠汝·玄舜佐來同宿, 奉恩寺僧春潭, 瑞山浮石寺僧姓禹者來宿。[續陰晴史 金允植]

○高宗 29年 壬辰 正月十九日 己卯 晴寒

風水說 道說高麗太祖陵 奉恩寺 鄧璞道說

古者聖王設教務民之義, 不爲無益不達之事, 夫無益則損, 不達則壅, 如人之一身, 元氣有損, 則客氣必壅, 此百病之所由生也, 夫人之生也, 稟天地五行之理, 其長養也, 受山川風土之氣, 及生理已盡, 則魂氣上升, 骨肉下委, 其下委者, 爲塵爲灰, 與土同體, 其上升者, 冥冥漠漠, 不可知其有無, 然祖考血氣之遺在於子孫, 以類相感, 其理甚明, 爲善爲惡, 鑑臨在上, 詩書所稱頌福之語, 皆在於宗廟祭祀之際, 未聞在墳墓也, 易之萃曰, 王假有廟, 廟者, 祖考精神之所萃也, 苟死者有知, 不依於血氣相感, 精神所萃之地, 乃反往依於己委之枯骨, 托山川風水之氣, 作福於其子孫, 果有是理乎, 若云非精靈所在, 則無知枯骨, 又安能感山川風水之氣乎, 夫葬家之說, 自古達識之士, 多言其非, 如呂才之敍陰陽雜書是也, 今不復論, 吾所信者, 惟聖人之訓與古人已行之跡耳, 昔孔子合葬於防, 先反, 雨甚, 防墓崩, 從者三告, 而孔子不應, 乃泫然流涕曰, 吾聞之, 古不修墓, 陳澔集說以爲, 古之人, 敬謹之至, 無所事修, 夫子自傷其不謹封築, 以致崩圯也, 此以後世重墓之見, 曲護聖人而爲之說也, 余見中國人墳墓, 無莎草之固, 想古時亦然, 其崩宜矣, 古者墓而不墳, 今所崩者墳也, 非墓也, 巍巍土墳, 安得值雨而不崩, 此豈封築不謹之失哉, 夫葬者藏也, 古者墓不芟治, 封不改築, 又無拜墓·祭墓之節, 蓋與生人之事遠矣, 孔子於旣葬之後, 雖知墓崩, 旣無更築之道, 則不如不聞, 又不忍聞, 故不應, 旣聞之矣, 自然流涕, 然終無反而更修之文, 此聖人之中節也, 由此觀之, 已葬之墓雖崩, 不可復修, 況動於禍福而遷之乎, 季武子成寢, 杜氏之葬, 在西階之下, 使之合葬而哭焉, 夫生死同居, 尚不爲忌, 況忌死人之同山乎, 我東三國時, 未聞有葬地禍福之說, 至高麗初, 有僧道說者, 號稱神眼東國葬師, 皆

祖之，太祖顯陵，卽道詵之所占也，宜其爲萬年傳祚之墓，而數葉以後，篡弑相續狂相襲，奔走播遷，流離竄逐，權奪於崔氏者五世，命制於蒙古者九世，不絕如綫者厯四百七十五年，而其間百數十年，殆同無國，計歷年之數，不及於三國遠矣，麗祖以英傑之資，得國最正，深仁厚澤，固結人心，雖不得吉地以葬之，猶可以卜長久之祚，而今反不如三國歷年，何也，且於丹寇之患，遷梓宮於奉恩寺，蒙兵之難，再還于江華，發露遷動，不安厥宅，吉地固如是乎，以此推之，道詵之爲術亦可知也，猶復處處埋記，以眩其能，旣誤麗氏，又欲誤後之人，何其甚也，夫鄧璞爲中國葬師之祖，而不救其死，道詵爲東方葬師之祖，而其術誕妄如此，況不及二者萬倍者乎，今之所謂秘記，始於滕公佳城之說，此葬師之所樂道也，然滕公之曾孫，頗坐法自殺而國除，未聞其後之昌大，秘記之不足信又如此，故以事則無益，以知則不達，沒身勞勞而不見其效，終亦自欺而欺人而已也，惜乎葬家之說，不出於孔孟之世，若早見絕於聖賢之言，後世士大夫必篤信至此，不過私行於閭巷，與坐硯同歸耳，今不然而儼然行于世，何其幸哉。[續陰晴史 金允植]

○辛丑光武五年·一九〇一) 四月初七日 有一人來言于新聞社曰，一佛現夢於余曰，吾在於漢江水中，苦惱大段，爲吾拯出也云，故夢覺而往，果然一佛，水中沈沒爾，以此意記載于新聞云，故一笑其荒唐之說叱退矣，今聞則近日奉恩寺僧幾名及附近江村人民等八十餘名，并力拯出該佛云，此事認古怪物探出歟，現夢二字，亦爲奇異，移奉該佛歟，若信其荒唐之說，然則民人之愚駭痛嘆也。 嶋配罪人具本淳·吉永洙等解配也。[日新 撰者未詳]

○本朝紀 辛亥六年[三十年] 大妃教，曰害普雨者僞造判然置之，於是，普雨自稱虛應堂大張佛法以奉恩寺爲禪宗，奉先寺爲教宗，設禪科初試會試講製賜牌，略倣文科，休靜魁禪科，惟政魁教科，僧俗奔波大臣，沈連源 尚震阿順無言，吏判 宋世珩獨啓極諫，不從，館學儒生至於空齋招諭不就，

[紀年東史約 李源益]

○本朝紀 壬戌十七年[四十一年] ○致勤武科嘗爲關西帥，待妓輩甚嚴，諸妓謂其寵姬，曰爾能批其頰，吾輩當爲爾設大宴，是夕妓侍寢，獻媚戲犯頰輔，

致勤即以覆衾裹妓開牕而投之江，妓輩膽慄，其為人沈毅詳重，孝友忠直，重惜名節，不畏強禦，預定號令，立決賞罰，朝野倚重，如長城官至判尹，遷中宗陵於廣州，改號靖陵，宣陵東岡 僧普雨久爲奉恩寺住持，欲移中廟陵寢於寺側以增其勢，乃誑言宣陵近處有吉兆，大妃信之，尹元衡逢迎慈旨，脅持諸大臣，安珙等不敢違，至是乃遷陵 [紀年東史約 李源益]

○本朝紀 甲申宣祖十七年[明神宗萬曆十二年] 吏曹判書 李珥卒，珥字叔獻，號栗谷，申命和外孫也，母孕夢黑龍入室小字見龍，學語便知文字，七歲著陳復昌傳，曰復昌爲人陰懷戚戚，陽欲蕩蕩，得志有異日之患，嘗有父病進臂血，禱家廟，乃甦，曰夢白頭老人指兒，曰這是東國大儒，其名玉邊耳也，遂名之，丁母憂廬墓幾毀性，至奉恩寺見佛書深感，死生之說，乃入金剛山

[紀年東史約 李源益]

○乙巳二月二日 幼時亦一覽，至今二十五年，重來不勝感舊之懷，口占一絕，夕宿奉恩寺，金而和輩十餘人，由陸路亦已先來矣。[溪巖日錄]

○庚戌九月四日 朝起，沿江下行二十里至奉恩寺朝飯，至溪江渡船，登眺濟川亭舊基，向晚抵城外洪察訪家，聞別舉又退于二十八。[溪巖日錄]

○日記 戊寅正月初十日，晴。飯後自慶安發，申際到□廣州奉恩寺廣州奉恩寺。○五衛將先已出來于此。○一行並從之。自慶安驛至奉恩寺六十里。十二日，晴。早自奉恩寺發行，五衛將·申五衛將及範伊從之。○再從保卿入去。○始興永等浦店饒飢，到仁川舟橋店，夕飯。○徐書房已來到，姜生自京出來，並會于此。○姜生便，見家書及各處答簡。○初更許，自舟橋店，出道于仁川府。(自舟橋店距邑五里許) ○(府使李南輯)。自奉恩寺至仁川邑九十里。[畿繡集略]

○八月十三日壬申，朝霧，陽或陰。○自馬粥巨里，率三石發行，聞嚴令留奉恩寺云，故委訪，而再昨已入京城近處云，甚虛悵。因休朝飯，而戊寅正月繡行時，留此寺數日矣，此日記我者有數僧，一則名抱含，一則名世恩。○飯後自奉恩寺發，訪到西小門外蛤洞圪橋近處金五衛將家，(丁丑年繡衣承命後，來留於此治行，金五衛將明九，間已作故，其弟明宅居焉。)因留，而朝夕飯自家

傳食。○見嚴令·沈令書，而（自家出來）聞嚴令住門外此近，故即修答以送。自馬粥巨里至奉恩寺十里，自奉恩寺至西門外二十里 [畿繡集略]

○十月初五日戊午 雨晚歇。○到西水庫，抵廣州奉恩寺，下處爐殿，房主僧名應奎，號虎峰，寺中主張。僧巨澤，號月船，能記戊寅正月畿繡時暫留之緣而欣接，又清河僧，亦記去年八月，自日本還來時暫過之面而來話。自京至廣州奉恩寺，二十里。初六日己未 朝霧。○早飯後自奉恩寺離發，至廣州板橋午飯。（自奉恩寺三十里）○抵龍仁邑宿。自廣州奉恩寺至龍仁邑，六十里。[畿繡集略]

○福靈寺四聖重修記 宣陵之奉恩寺 命司直某 重修補釋迦尊像一軀 慈氏彌勒 提花羯羅兩大菩薩 十六聖僧 竝諸法眷等 遂涓吉日 敬設點眼法會後 還船送于本寺 特奉香火者 全爲 主上云云 伏願本師釋迦如來 兩大菩薩 十六聖僧 與諸法眷 以無私之智 共照霞誠 令我某殿下 現生圓曠劫之功 當來證十地之果云爾 [虛應堂集]

○又受道內都摠攝之位 乙酉仲夏 特下判書教旨 若夫奉恩寺之刊經 [東師列傳]

○有曰 舟中回指奉恩寺 杜宇一聲僧掩關者 崔孤竹之作也 [白谷集]

○四溟集序 頃在丙戌夏 不佞侍仲氏 舟泊奉恩寺下 有一衲 翩然來揖于船頭 頎乎其身 肅乎其容 就坐而與之言 則辭簡而旨遠 不佞問其名曰 鍾峰惟政 師也 [四溟集]

○或行化演坐 至丁未 坐于奉恩寺四衆雲集 京城密邇故 士女晝夜絡繹往來 師苦之 乘夜遁去 入梵魚寺 [三峯集]

○丙申三月請師說法于奉恩寺禪教俱集玄陵親臨 獻滿綉袈裟 水精念珠及餘服用 陞座闡揚宗旨天子賜雜色段疋袈裟 三百領 是日分賜禪教碩德 法筵之盛會 古所未有 師請還山 玄陵曰 師不留 我倍道矣 [西中東佛祖源流]

○秋懷 九月霜風葉亂飛 可憐衰病着生衣 庵僧不怕山蹊險 盡日乞綿深夜歸 以碑事到京宿奉恩寺 臥聽寒聲繞短簷 政知融雪滴纖纖 一春詩興身同倦 千里羈愁骨欲尖 爐爲深灰通曉煖 燈因長夜數油添 南湖有我同床侶 能記京山凍餒

兼 [蓮潭集]

○當奉恩寺 有大教刊布之役 邀師爲證師 達摩山建無量之會 奉師主禪席 皆暫膺卽還示化於一枝菴中 現世之年 八十有一法臘爲若干歲 嚮余治舟師於湖南也師過焉[艸衣集]

○大王 不昧前約 再請之命 於奉恩寺裏 須彌臺上 對人天衆前爲未見聞者 重新拈出 薰向爐中 供養 南方大宗師石屋大和尚 用酬法乳之恩 若道是 稱金以黃 若道不是 麟有一角 一任錯商量就座 行首白槌云 [太古集]

○三月初六日 勅有司 以衆寶嚴師子座 請開堂于奉恩寺禪教俱集玄陵奉 太后率 天眷以臨 獻滿繡袈裟 金縷泥師壇 水精念珠 沈香拂子 及餘服用 師陞座 大開師子吼 御手行嚬 先是聞于[太古集]

○奉恩寺禪教俱集 玄陵親臨 獻滿綉袈裟水精念珠 及餘服用 師陞座 闡揚宗旨天子賜雜色段疋袈裟三百領 是日分賜禪教碩德 法筵之盛 古所未有 師請還山 玄陵曰 師不留 我倍道矣 [太古集]

○奉恩寺 長興寺銘銅鐘(봉은사 장흥사명동종)

洪武貳拾伍年九月拾七日川寧土 象頭山長興寺鐘造成金三百斤以入鐘 施主戶長信善 施主大原 化主信雲 同願角瓊 願金光木 同願信哲 同願信瓊 大匠朴[한국금석문중합영상정보시스템]

태조1(1392)년 9월 17일 천녕사에서 상두산 장흥사 동종을 300근의 쇠로 만들었다. 시주는 호장 신선(信善)과 대원(大原)이고, 화주는 신운(信雲)이며, 동원은 각경(角瓊)이고, 원은 김광수(金光木)이고, 동원은 신철(信哲)과 신경(信瓊)이며, 대장은 박(朴)이다.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6호이다]

○봉은사(奉恩寺)는 저자도에서 서쪽으로 1리쯤에 있다. 몇 해 전에 내가 동호 독서당에서 사가독서할 때에 타고 간 배를 저자도 머리에 정박하고 봉은사를 구경하고 돌아오니, 강가 어촌에 살구꽃이 만발하여 봄 경치가 더욱 아름답기에, 배 안에서 시를 짓기를,

東湖勝概衆人知 楮島前頭更絕奇 蕭寺踏穿松葉徑 漁村看盡杏花籬

沙暄草軟雙鶯睡 浪細風微一棹移 春興春愁吟未了 狎鷗亭畔夕陽時

동호의 빼어난 경치는 모두들 알고 있지만

자자도 앞은 더욱 절경이네

절에 가는 길 솔잎 우거진 길이요

어촌을 두루 보니 살구꽃 흐드러진 울타리로세

따스한 모래밭 연한 풀에 원앙 한쌍 잠들었고

물결은 잔잔하고 바람은 솔솔 부는데 돛대 한척 흘러가네

봄 흥취와 봄 수심을 채 읊기도 전에

압구정 언덕엔 벌써 석양이로세

하였다. [閑雜錄 沈守慶]

○京畿 廣州牧 [사찰] 봉은사(奉恩寺) 저도(楮島) 남쪽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京畿 廣州牧 寺刹 奉恩寺 在楮島南[東國輿地誌]

경기도 광주목 사찰 봉은사 저도 남쪽에 있다.

○京畿道 廣州 寺刹 奉恩寺 在州西四十里[與地圖書]

경기도 광주 사찰 봉은사 광주 서쪽 40리 지점에 있다.

○開城府 陵墓 顯陵 在松岳山西巴只洞南葬 太祖及妃神惠王后柳氏 顯宗時因契丹亂移梓宮于三角山香林寺亂平後還葬如是者再 高宗四年因金山兵移安于奉恩寺後還安高宗十九年因蒙古亂移昌顯二陵于江華蓋骨洞 元宗時權安于泥板洞 忠烈王二年還葬 本朝成宗二十四年命修高麗太祖陵 肅宗元年封植 麗朝諸陵禁樵牧 正宗七年置麗陵參奉一員以王氏差歲遣官奉審

[大東地志 金正浩]

○隆慶三年己巳先生六十九歲三月己酉。乘船東歸。宿奉恩寺。名士傾朝出餞。各賦詩敘別。先生有詩云。列坐方舟盡勝流。歸心終日爲牽留。願將漢水添行硯。寫出臨分無限愁。[退溪先生年譜 李滉]

선조2(1569)년 3월 기유일, 배를 타고 동으로 향하여 가서 봉은사(奉恩寺)에서 자다. 명사들이 온 조정을 비우다시피 하고 나와서 전송할 때 각

각 시를 지어 이별의 뜻을 표하니 선생도 시를 지어,
 큰 배에 벌여 앉은 분 모두 명사일세
 돌아가고픈 마음 온종일 끌리어 머물렀네
 원컨대 한강물 가져다가 벼루에 부어서
 작별할 때의 끝없는 수심 그려 내고자 한다네.
 하였다.

○虎峰禪伯傳 師名應奎 號虎峰³⁸⁾ 京山廣州奉恩寺人也 庚午行湖南表忠祠
 摠攝 文筆具足 才德兼全 克誠致齋手書華嚴經一部 廣募八道有名法師 竝坐
 證席開印出 開閣藏板 海印大藏 不可比肩 而靈覺勝事 同日而語矣 秋史金公
 虎峰所書 華嚴經八十卷 筆力功勞 大加稱贊 作序作贊 作贊曰 須菩提善男子
 善女人 以恒河沙等身布施如是無量百千億劫 以身布施 若復有人聞此經典 信
 心不逆福其勝彼 何況書寫 此是金剛般若經 如來之所已證者 今虎峰之手寫華
 嚴經八十卷 其福當如何 勝蓮老人 書示虎公於江上寺閣中板刻 印出流布山野
 其所善信 與南湖手書彌陀經同功 時諸大法師 皆來證席如也 板閣額題 金公
 臨終書而絕筆 其緣大矣 機緣語句 具載文集行狀[東師列傳]

○乙卯春 至廣州奉恩寺 與諸同志鳩錄 刊疏鈔華嚴經八十卷 別行錄一卷 準
 提千手合璧一卷 天台三隱詩集一卷 新建殿藏之 殿額得侍郎秋史筆也

[海東朝鮮國寶蓋山石臺庵南湖律師開刊華嚴碑銘并書 李宜翼 撰]

1855년 봄에 광주에 있는 봉은사에 이르러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자료를 모아 화엄경소초(華嚴經疏鈔) 80권, 별행록(別行錄) 1권, 준제천수합벽(準提千手合璧) 1권, 천태삼은시집(天台三隱詩集)을 간행하고, 새

38) 응규(應奎) 생졸년 미상.

조선 후기의 선승(禪僧). 호는 호봉(虎峰). 광주 봉은사(奉恩寺)의 승려로서 지혜와 덕성을 겸비하였고, 문장과 글씨에 능하였다. 1810년(순조10) 호남표충사총섭(湖南表忠祠摠攝)으로 나가 지극정성으로 불전에 기도하며 화엄경 80권을 필사(筆寫)하였다. 그뒤 팔도(八道)의 고승을 초청하여 증석(證席)을 베풀었는데, 모두 “남호(南湖)가 필사한 미타경과 공(功)이 같다.”고 칭송하며 그 필사본을 판각인출하고 전각(殿閣)을 세워 판본(板本)을 보관하게 하였다. 김정희(金正喜)는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경전서사(經典書寫)의 공덕을 높이 찬양한 것은 바로 호봉과 같은 이를 두고 한 말”이라면서 ‘판전(板殿)’이라는 판각 액제를 써준 것을 마지막으로 절필하였다고 한다. 현재 김정희가 쓴 ‘판전’의 편액은 서울 봉은사에 있으며, 판전에는 화엄경 판본이 보관되어 있다.

로 장경각을 세웠는데 편역은 김정희(金正喜)가 쓴 것이다.

7.4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壬子 西紀1912年 10月10일(양) 出纛島, 歷觀奉恩寺, 夜深還, 黃澗成生載煥, 來訪. [續陰晴史 金允植]

○丁巳西紀1917年5月 雲養集重刊記念會 純宗咸興行次 奉恩寺大齋 高宗의 金後宮 一日 十一日癸卯, 陰風冷, 今日爲雲養集重刊記念會, 設局于吾家, 李斌承·金溶契主之, 內外國人爲四十餘員, 皆能詩善畫, 又有詩僧畫妓, 各奏其能, 海岡金圭鎮醉舞傴僂, 應枝節而寫蘭竹, 神韻生動, 各賦一絕, 子正罷會, 大官趙琅田(重應)·金東農(嘉鎮), 餘不能盡記, 日人則久芳直介·草場·阿部充家, 今關壽磨也, 夜元契自加平來, 都事宅嫂氏, 與乙衡自歸川來. 五日 十五日丁未, 雨終日廉纖, 孫女·姪婦等皆冒雨還去, 嶺山·世卿·鶴傘·方台榮·李允求·基述, 李意符·琦鎔來, 廣橋組合妓春外春·山月等三名, 爲贈詩致謝而來, 滯雨晚去. 六日 十六日戊申 壬子 日, 甘雨廉纖, 立夏節, 今日宗會, 鎮漢·裕弘·裕膺·龜性·宅性·益慶·珏善·基述·太植, 議海州邱木事, 邱木價二千兩, 輸送宗約所, 爲刊譜之費, 其間裁判訟費, 京鄉分當之意可決, 金台宗根·金圭鎮·李台建容來, 鄭司成自湖南全州·泰仁兩處巡講而歸. 九日 十九日辛亥 壬子 水, 陰霏如昨, 今日昌德宮動駕, 謁咸興·永興本宮及諸陵所, 往返一週日爲定, 國初以來, 初有之事也, 允中·世卿·嶺山·伯河·洪思林·景容·毅一·宋謙淳·龜性·益儉·基述·太植·萬壽來. 十三日 二十三日乙卯, 陰, 允中·世卿·太植·鶴傘·趙錫九·嶺山·龜性來·今日漢江大野遊會, 奉恩寺設大齋, 觀者如雲, 城內幾空. 十八日 二十八日庚申 金, 晴, 華表八十度, 今日宗會, 嶺山·公賓·世卿·龜性·益儉·弘植·毅一·景容來會, 以族譜續刊事決議, 允中·鶴傘·朱榮源來. 十九日 二十九日辛酉 土, 晴, 來人如昨日, 今日族譜印刷紙九十塊八軸, 買入於朱榮源紙肆, 給價一千六百四十元, 積置樓房, 麟壽內外還懷德, 李海雲來. 二十七日 四月初七日己巳 壬子 日, 晴久旱, 穀價日騰, 余病如

昨，寒熱往來，日服柴苓而無效，邀仲臨議服地黃湯，今日德壽宮，納金升鉉之女爲後宮，歸川景龍來，見局長書，允中·公起·世卿·伯河·李在正來，道卿還牙山。[續陰晴史 金允植]

○南號律師開刊華嚴碑銘 乙卯春至廣州奉恩寺與諸仝志鳩綠刻疏鈔華嚴經八十卷³⁹⁾別行一卷準提千手合璧一卷天台三隱詩集新建經藏之殿額金侍耶秋士筆也 [朝鮮寺刹史料 朝鮮總督府]

○京畿道廣州郡修道山奉恩寺 本寺事蹟 累經兵火 盡成灰燼 不可以考 或高句麗 阿度和尚初勅 或云 新羅綠會國師勅建 或云高麗法鏡王師始勅 然綠會之說以近 若然則乃新羅元聖王時也 至李朝明宗十七年壬戌虛應普雨禪師再建 復立禪教兩宗僧科 此寺爲禪宗僧科試所 普雨爲禪宗判事 自此 遂爲禪宗首刹 仁祖十四年 丙子 因兵火燒燼 肅宗十八年壬申 碧岳 禪華兩師 三建 大正元年 現住持羅晴湖禪師 一新重修。

[朝鮮寺刹三十一本山寫真帖 社團法人 朝鮮佛教 中央宗務院 1929年]

○丁巳[1557]年 奉恩寺 設行開山祖師遠忌齋會 滿城士女 簇擁奔波 自京城之黃金町至蠶島江岸 首尾相連 余時從往隨喜 見數百船隻 往來如梭 而猶不足 不得到彼岸者大半 遂賦詩云[朝鮮佛教通史 李能和]

○碧松堂堃老行錄云~嘉靖三十九年五月上澣判教宗事兼判禪宗事都大禪師行奉恩寺住持休靜謹撰[朝鮮佛教通史 李能和]

벽송당 야노 행록 ~명종15(1560)년 5월 상순 판교종사 겸 판선종사도 대선사 행복은사 주지 휴정이 삼가 짓다.

○광해군이 두 대사를 보고 범상치 않게 여겨서, 부휴선사를 석방하여 산에 돌아가게 하고, 벽암대사를 봉은사(奉恩寺)에 머물게 하여 판선교도총섭(判禪教都摠攝)으로 삼았다. [華嚴寺 碧巖大師碑]

○主事都監董 仁峯堂 德俊 奉恩寺 首禪宗判事 釋會善[無學大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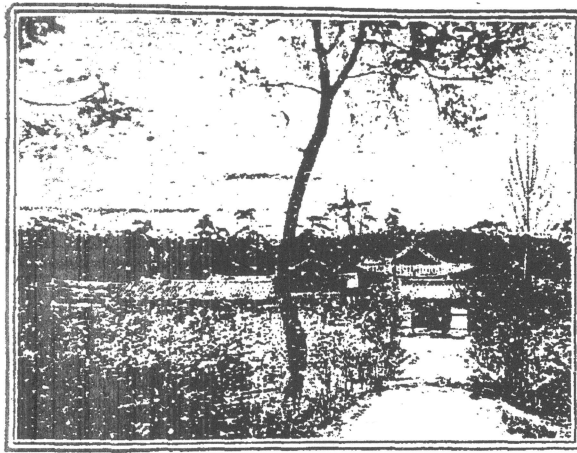
주사도감동 인봉당 덕준 봉은사 수선종판사 회선스님

39) 華嚴經八十卷：華嚴經十八卷을 고친 것이다. 화엄경 한역본은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실차난타 번역 80권, 반야 번역의 40권이 있다. 따라서 80권이 타당하다.

8. 봉은사 사진(寫眞) · 불화(佛畵)

8.1 봉은사 원경(遠景)

1917년 5월 2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멀리서 본 봉은사 정면의 전경(全景) 사진인데 우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大野遊會畫報◇... 봉은스 정면 전경
 봉은스 정면 전경은 본사 주회야유회장의 일부되는 천여년의 명찰 슈도산 봉은사의 전경이라. 열네처의 가람은 집뒤편의 대송림과 서로 덕히야 고○은 창연한디 문전 내 천여주의 도리는 지금이 한창이라 따에 가득한 흥빈이 푸른 기와에 빗치우는 곳은 아즈그림[아이스크림] 갓도다. 당일은 체군을 위하야 이 명찰의 전부를 개방하며 또한 력대 죠스를 위하야 성디한 재를 올리게 되얏습니다.

◇大野遊會畫報◇-봉은스 정면 전경-

오늘 ○일피 일요일에본사 주회 대야유회장의 일부되는 천여년의 명찰 슈도산 봉은사의 전경이라. 열네처의 가람은 집뒤편의 대송림과 서로 덕히야 고○은 창연한디 문전 내 천여주의 도리는 지금이 한창이라 따에 가득한 흥빈이 푸른 기와에 빗치우는 곳은 아즈그림[아이스크림] 갓도다. 당일은 체군을 위하야 이 명찰의 전부를 개방하며 또한 력대 죠스를 위하야 성디한 재를 올리게 되얏습니다.

8.2 봉은사 판전

1917년 5월 4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봉은사의 판전(板殿) 사진인데 우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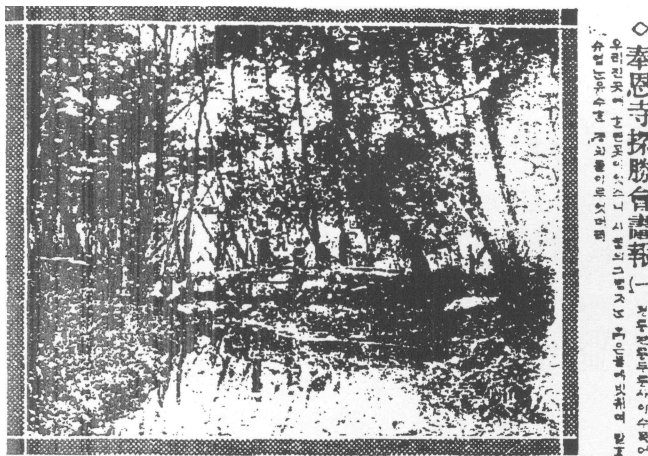


▲大野遊會畫報-◇봉은사의 관던

이것이 유명한 화엄경관과 유마경관과 한산시관과 석가불의 족적관 등을 갈추어 둔 던각이며, 전면의 큰 현관은 완당 칠십세의 로필이라.

8.3 봉은사 탐승회 화보(1)

1917년 5월 9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봉은사 탐승회 화보인데 우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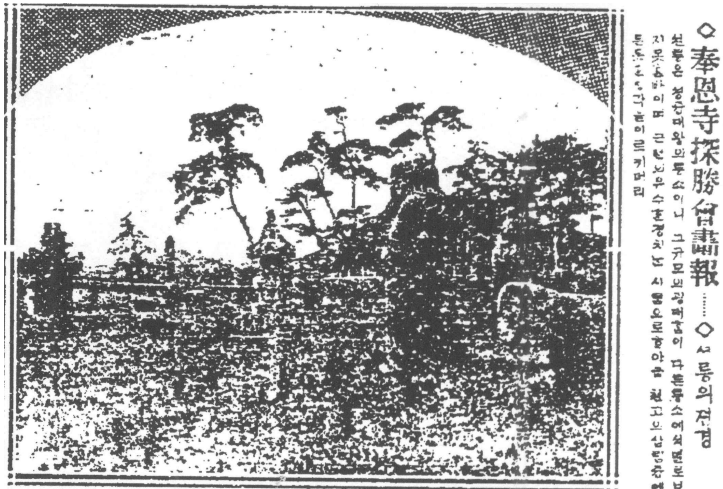
◇奉恩寺探勝會畫報(一)

선릉 정릉 두릉사이에 수○ 어우러진 곳에 흔 연곳이 잇으니 사람의

그림즈는 ○은 물에 빗취여 ○○슈엽는 유수흔 경치를 이루엇더라.

8.4 봉은사 탐승회 화보(2)

1917년 5월 10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봉은사 탐승회 화보인데 우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奉恩寺探勝會畫報 ◇선릉의 전경

선릉은 성종대왕의릉소이니 그 규모의 광대함이 다른릉소에서 별로 보지 못한 바이며 근년 유수흔 경치는 사름으로 하야금 천고의 삼림 중에 돈듯흔 ○각을 이르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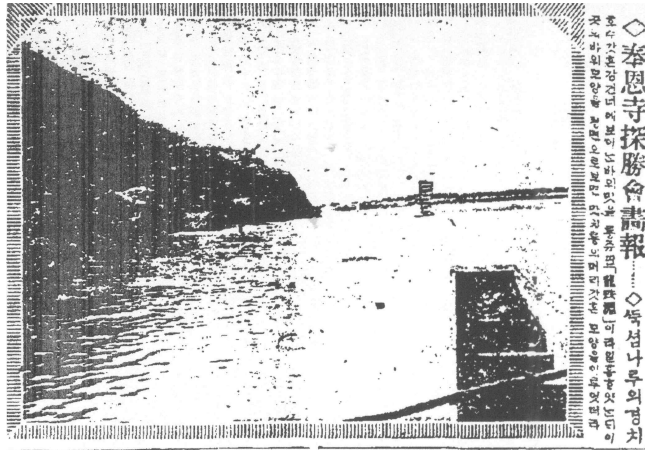
8.5 봉은사 탐승회 화보(3)

1917년 5월 11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봉은사 탐승회 화보로서 똑섬나루터 경치인데 우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奉恩寺探勝會畫報 ◇똑섬나루터의 경치

호수 갓흔 강건너에 보이는 바위맛을 룡주○(龍珠○)이라 일흠헛얏는데 이곳의 바위모양을 평면으로 보면 맞치 룡의 머리 갓흔 모양을 이루엇더

라.



8.6 대웅전 벽화

1917년 5월 13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봉은사 대웅전의 벽화인데 우측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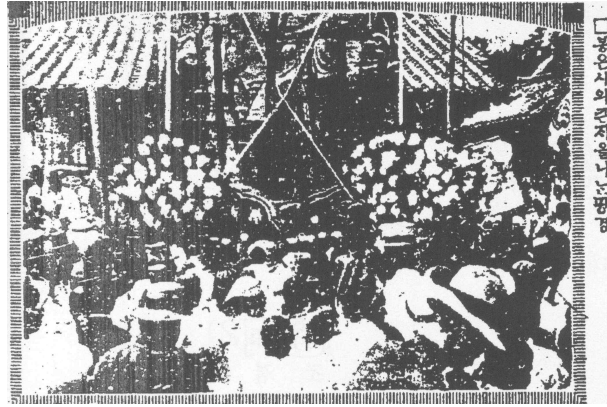
奉恩寺探勝會畫報 대웅전의 벽화

“이는 봉은사 대웅전의 벽화이니 그 필법의 비법을 가히 보겠더라”

8.7 봉은사의 큰 재(齋)올리는 광경

1917년 5월 15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봉은사의 큰 재(齋) 올리는 광경

사진이다.



8.8 봉은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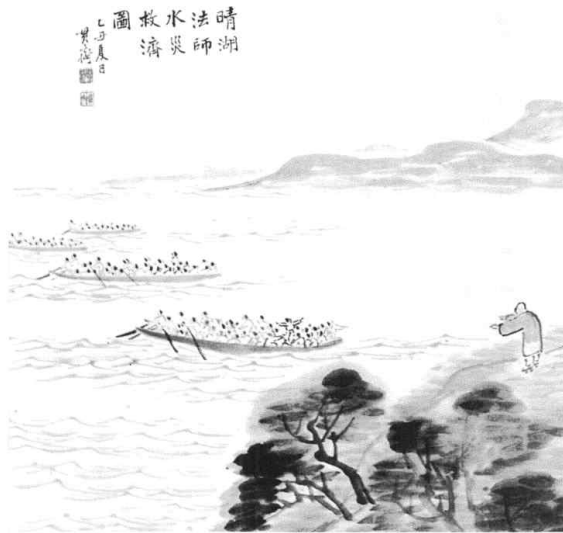
다음의 사진은 1929년에 朝鮮佛敎中央敎務院에서 발간한 “三十一本山寫眞帖”에 수록된 사진이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 BC古朝21-145]에 있다.



1920년대 봉은사 전경

8.9 청호법사 수재구제도(晴湖法師 水災救濟道)

봉은사 라청호(羅晴湖) 주지(住持)는 1925년 7월에 목선(木船) 3척을 주선하여 부리도(浮里島)민 114명을 구호하여 봉은사에 수용하고 그후 또 목선 두척을 사서 잠실리(蠶室里) 주민 228명을 구하였는데 관재(貫齋) 이도영(李道榮)⁴⁰ 화백(畫伯)이 이를 기리기 위하여 乙丑夏日(을축하일, 1925년 여름)이란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다.



나청호 법사 수재 구제도

40) 이도영(李道榮) 1884(고종21)~1933.

한국화가.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중일(仲一), 호는 관재(貫齋)·면소(芟巢)·벽허자(碧虛子). 이름은 도영(韜穎)으로 쓰기도 하였다. 서울태생으로 18세 때 조석진(趙錫晉)과 안중식(安中植)의 문하생이 되어 전통화법을 수업을 하였다. 특히, 안중식의 화풍을 주로 이어받아 인물·영모(翎毛)·기명절지(器皿折枝)의 화제(畫題)에서 온건하고 자유로운 필력을 발휘하였다. 1911년 은사 조석진과 안중식이 중심적 교수진이 된 서화미술회(書畫美術會) 강습소가 개설되자 그림 전공의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1918년 동연배의 화우였던 동경미술학교 서양학과 출신 고희동(高義東)이 앞장서서 서화협회(書畫協會) 조직에 나서자 조석진과 안중식을 위시한 13인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고, 1920년대 이후 고희동과 더불어 서화협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1921년 첫 서화협회전람회(약칭 協展)를 개최함과 동시에 서화협회회보(書畫協會會報)에 〈동양화의 연원(淵源)〉과 〈동양화의 강구(講究)〉를 연재물로 집필하였고, 1923년 미술학교를 목표로한 3년 수업과정의 서화학원(書畫學院)을 서화협회가 개설하면서 동양화부 지도를 맡았다. 그밖에 1922년부터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대규모로 주최한 조선미술전람회의 동양화부 심사원을 수차 역임하였다. 그러한 많은 화단 활동에 비하여 정작 그의 그림은 명성에 부합되는 높은 경지의 특질성이나 개성적인 작풍으로 발전하지 못하여 전해지는 작품이 많지 않다.

8.10 일주문(一柱文)

사진9.5는 중군기자 고(考) 임인식 선생이 1952년 가을에 촬영한 봉은사 일주문으로서 전쟁 때도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머리에 이고 일주문에 들어서려는 아낙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 사진은 임인식 선생의 아들 임정의(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씨가 공개한 것이다. 사진9.6은 봉은사지에 수록된 사진이며, 두 사진 모두 사찰 경내에서 남쪽을 향하여 찍은 것이다.



그림9.5 봉은사 일주문(1)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임정의]



그림9.5 봉은사 일주문(2)
[봉은사 사지, 사찰문화연구원]

8.11 괘불(掛佛)

괘불은 야외에서 기우제, 영산재, 예수재, 수록재 등의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 놓은 부처님을 그린 그림으로서 봉은사 괘불은 크기가 가로 445cm, 세로 610cm이며, 고종23(1886)년에 제작된 것인데 2007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31호로 지정되었다.

괘불의 중앙에는 석가모니부처님과 그 좌우에 아난존자와 가섭존자가 본존을 향하여 합장을 하고 있고, 하단에는 사자와 코끼리



괘 불

에 각각 걸터 앉은 백련을 손에 쥔 문수동자와 모란을 손에 쥔 보현동자가 서로 마주보며 있다. 봉은사 괘불 화기(畫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光緒十二年丙戌榴夏 掛佛幀一荒 新造成奉安于 廣州府修道山奉恩寺 綠化秩 證明虎峯應奎 清霞包舍 海翁智般 誦呪比丘啓天 片手影明天機 出草大虛體 訓金魚比丘 巨照 頓照 別座比丘泰還 都監靜海法天 供司比丘戒定 鐘頭比丘 若訥化主春潭世恩 大施主秩 順和宮壬辰生金氏 壽歷千秋 乾命丙午生金文連 乾命戊子生李氏 坤命己亥生金氏 兩位 乾命辛亥生李載淳 坤命癸丑生洪氏 兩位 乾命丙寅生黃延壽 坤命丙寅生李氏 兩位 乾命丙戌生朴氏 坤命丙戌生 金氏 兩位 童子癸未生朴壽南 引勸大施主 尚宮信女乙酉生金氏大覺華 尚宮 信女辛巳生金氏清淨華 圓通佛事始神供五月二十五日 點眼回向 六月初五日

상기(上記)의 화기(畫記)에 의하면 괘불은 고종23(1886)년에 현종의 후궁 순화궁 김씨와 여러 상궁들의 시주로 1886년 5월 26일 원통전(圓通殿) 불사를 시작하여 6월 5일에 회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원통전 불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괘불이다. 19세기에 서울,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화승(畫僧)인 용명천기, 궁조, 돈조가 함께 제작한 것이다.

8.12 대웅전 감로탱화(甘露幀畫)

감로탱화는 조상숭배 신앙이나 영혼숭배의 신앙을 묘사한 그림으로서 우란분경 변상도, 감로도, 영가단 탕화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가단에 걸기 때문에 영단탱화라고도 한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대웅전 감로탱화

빌고 아귀나 지옥에 빠진 중생에게 감로수를 베푸는 신앙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감로 탕화는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감로왕 아미타불을 포함하여 7여래가 고통에 빠진 중생을 맞으로 오는 장면이고, 오른쪽에는 여러 천녀(天女)들에 웨위싸여서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 인로(引露王)보살이 그려져 있다.

7여래 왼쪽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등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모습이다. 중단에는 음식을 차려 놓고 재(齋)를 올리는 모습이고 그 위쪽에는 나무백억화신불, 나무청정법신불, 나무원만보신불이라고 쓴 번(幡)을 걸었고 그 아래는 승무(僧舞)와 범패(梵唄)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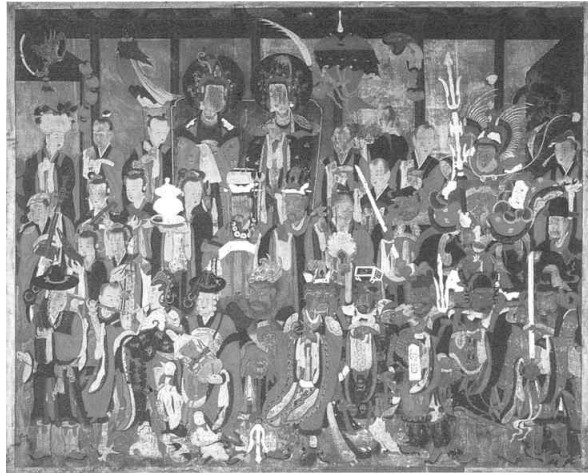
크기는 가로 311cm, 세로 197cm이며, 화면 하단의 화기(畵記)를 보면 민두호 등의 시주자에 의하여 1892년에 봉안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화기(畵記)는 다음과 같다.

…綠化所 證明沙月智昌 寶雲豆葉 騰雲修隱 大淵月攄 金魚漢峰瑒曄 蕙山竺衍 比丘弘範 虛谷亘順 慧覺 比丘戒雄 供司寺彌法語 鍾頭 沙彌竺禪 取淵 別座松谷守法 都監枕松摠典 化主月峯法能 誦呪比丘仁先 守玄 持殿比丘性允 吳政 引勸庚寅生吳氏清淨月 別供沙彌仁讚 太欣 判事靜海 法天 有司海翁法般 三浦沙彌太欣 香閣鶴虛石雲 版殿枕松摠典 獨辨大施主 乾命乙丑生 閔公斗鎬 延年益壽 位高一品 祿有千鍾 現 前安樂當生淨土 見佛聞法頓悟 法印 坤命戊戌生文氏兩位 尚宮信女申氏景德花 乾命辛巳生李一壽 坤命丙申生洪氏 乾命辛未生李時裕 坤命己巳生朴氏 乾命戊子生盧順赫 坤命甲寅生朴氏 童子辛卯生聖萬 願以此功德普及於一體 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光緒十八年壬辰五月初七日爲始上壇中壇甘露幘并造成二十一點眼奉安于修道山奉恩寺大法堂

8.13 대응전 신중탱화(神衆幘畵)

신중탱화는 화엄신장을 그려 벽에 거는 족자로서 화면에는 가운데에 제석, 범천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협시와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어 제석탱

화라고도 할 수 있다. 상단에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향로를 들어 제석과 범천에게 경배하는 천중상이 있고 하단에는 동진(童眞)보살을 중심으로 팔부신중이 그려져 있다.



대웅전 신중탱화

이 그림은 가로 245cm, 세로 200cm이며, 화면 아래에 적은 화기(畵記)에는 현종10(1844)년 봉은사에서 조성하였다는 내용과 불사(佛事)에 참석한 스님과 시주의 이름이 있다.

道光二十四年甲辰七月二十九日廣州郡修道山奉恩寺神衆愼新造成奉安于本寺
證明洛岩堂正訓 無鏡堂觀周 布雲堂閔聚 誦呪比丘廣嶽 金魚仁源堂休○ 退
隱堂宥仁 松嶽堂大園 片手月霞堂世元 道雲堂○○ 石庵堂○○ 漢雲堂○○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持殿龍谷堂 廣旻 供養主
比丘富悅 都監比丘聚寬 別座比丘呂玉 鐘頭比丘就鈺 時判事比丘喜成 三綱
有司比丘善義 首僧比丘準益 書記比丘體修 山中老德龜潭堂大奎 比丘道弘
比丘戒成 比丘惠文 比丘浩○ 比丘忠欣 比丘宗元 比丘寶侃 比丘戒眞 比丘
香林 負木林老享 施主秩 [以下 磨滅]

8.14 명부전 현왕탱화(現王幀畵)

현왕탱화는 사람이 죽어서 3일 후에 받는 심판을 주재하는 신(神) 현왕(現王)을 그린 탕화로서 일반적으로 이 탕화는 명부전이나 약사전의 현왕단에 거는 경우가 많다. 화면은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위에 인간의 수명과 죄업을 기록한 듯한 책을 엮은 현왕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좌우에는 4명의 동자(童子)와 동녀(童女)가 현왕을 보좌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좌우보처로 대륜성왕과 전륜성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판관과 녹사들이 책을 들고 있거나 문서를 펼쳐보이며 서로 의논을 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 탕화는 현종10(1844)년에 송암당 대원(松巖堂大園) 금어⁴¹⁾ 스님이 그린 것이며, 크기는 가로 117cm, 세로 146cm이며, 화기(畵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명부전 현왕탕화

道光二十四年甲辰七月二十九日廣州郡修道山奉恩寺新造成現王幀奉安于本寺證明

洛巖堂正訓 無鏡堂觀周 布雲堂閏聚 金魚 松岩堂大園 片手比丘 兩典 誦呪比丘 廣嶽 持殿龍谷堂 廣旻 供養主比丘 富悅 ○盾 都監比丘 廣察 比丘致贊 比丘克欣 別座比丘呂玉 淨誦比丘性悅 施主秩 清信女己未生尙宮○氏 妙覺華 坤命甲午生高氏 清信女戊申生 化主龜潭堂 時判事慶峰堂喜成

8.15 북극보전 칠성탕화(七星幀畵)

칠성탕화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이 불교를 수호하는 신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의인화하여 묘사한 불화이다. 불화 가운데의 칠성광여래(熾星光如來)는 북두칠성의 주존불로서 칠성을 대표하는 부처이며, 그 좌우에 7여래가 그려져 있다. 상단 좌우에는 삼태성(三台星)과 육성(六星)도 있으며 하단에는 칠원성군(七元星君)이 있다. 크기는 가로 230cm, 세로 155cm이며, 화기(畵記)에는 고종23(1886)년 4월에 봉은사에 봉안하였으며, 그 내

41) 금어(金魚) : 불화(佛畵)나 불상(佛像)을 조성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불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불모(佛母), 화사(畵師), 화승(畵僧), 화원(畵員), 양공(良工), 편수(片手) 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 중 으뜸이다. 보통 편수와 출초비구가 그의 아래에서 일한다. 그러나 이들의 조직을 자세히 전하는 문헌이 없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현존하는 불화(佛畵)의 화기(畵記)로 추정할 뿐이다.

용은 다음과 같다.

光緒十二年丙戌四月 日奉安于奉
恩寺 神七星幘奉爲 綠化秩 證明
虎峰應奎 漢隱正俊 幻隱允定
誦呪比丘 啓天 金魚 慶般應釋
東吳震徹 賢調 慧照 供司比丘
若訥 鐘頭比丘法能 別座比丘信
永 都監清霞包舍 化主騰雲修隱
施主秩 乾命戊子生李氏 坤命癸



북극보전 칠성탱화

亥生金氏 兩位 乾命辛亥生李在淳 坤命癸丑生洪氏 兩位 乾命丙寅生黃延壽
坤命丙丑生李氏 兩位 引勸大施主 清信女庚寅生吳氏 清淨月

8.16 판전 후불탱화(後佛幘畫)

판전에 있는 후불탱화는 영산회상도의 일종으로서 그림 중앙에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앉아있는 석가모니부처님 좌우에 아난존자와 가섭존자가 보좌하고 있고 하단에는 두 보살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림 상단과 하단 좌우에는 각각 다문천왕, 광목천왕, 지국천왕, 증장천왕이 그려져 있다.

화기(畫記)에 의하면 고종23(1886)년에 화승(畫僧) 영명천기(影明天機) 스님이 그린 것으로 크기는 가로 230cm, 세로 226cm이며, 화기(畫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전 후불탱화

綠化秩 證明比丘虎峰應奎 漢隱正俊 幻隱允
定 誦呪比丘 金魚影明天機 出草片手慶應釋 東吳震徹 蓮荷啓昌宗現 賢調惠
能彰仁 供司沙彌若訥 別供沙彌奉禪 來往童子泰福 都監清霞包舍 化主騰雲
修隱 施主秩 尙宮八人其他信男女五人 光緒十二年丙戌四月造成于廣州修道

8.17 판전 신중탱화(神衆幀畫)

판전 신중탱화는 39위의 신중(神衆)을 그린 그림으로서 가운데에 대예적금강신(大穢跡金剛神)이 있고 그 주위에 나머지 신중(神衆)을 그렸다. 크기는 가로 240cm, 세로 290cm이며, 화기(畵記)에 의하면 철종8(1857)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전 신중탱화

○○○○月二十一日神 傍十月○○○
○奉安于奉恩寺版殿 ○○奉○主上殿

下壽萬歲 王妃殿下壽千秋 大王大妣殿下壽無疆 王大妣殿下壽無窮 大妣殿下壽齊年 綠化秩 證明比丘 意惚 性惟 日圓 誦呪比丘 性閑 瑞日 志殷 金魚比丘 善律 有暹 法仁 進浩 出草比丘 頓錫 法宥 惠悟 聖奎 順一 錫訥 持殿比丘 海雲 道○] 立繩比丘 法悅 化主比丘 世元 包舍 同明 別座比丘 寶性 敏悅 都監比丘 世元 呂王 采翼 判事比丘 善義 供司比丘 丘文洪善 奉茶比丘 道彦 鐘頭比丘 妙蓮 國信 施主秩 ○○○○生朴能○ [3줄 마멸] 改金○○ ○○乾命○○生朴鍾○ 乾命壬戌生李氏○○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乾命○○生 洪在申寅

8.18 불족도(佛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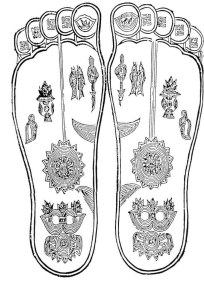
불족도는 석가모니의 발자국을 형상화한 그림을 말하며, 누구나 이 부처님의 발자국을 보고 존경하고 기뻐하면 한량없는 죄업이 소멸된다고 하여, 예로부터 이것을 만들어 숭배하고 공경하는 일이 유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불족도는 대부분 목판본인데 수도산 봉은사의 목판은 철종 8(1857)년 복각으로 크기는 전체길이 65cm, 폭 36cm이며, 위에는 석가여

래유적도(釋迦如來遺跡圖)라 쓰여 있고, 그 아래에 길이 50cm, 폭 34cm의 쌍족(雙足)을 양각하였다. 그림 아래에는 불족도의 유래가 적혀 있다. 그림 내용은 화문(華紋)·만자(卍字)·어형(魚形)·보검(寶劍)의 형상 등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출처 : 봉은사 사지, 사찰문화연구원]

釋迦如來遺跡圖



불족도

參考文獻

1. 金富軾 : 三國史記
2. (釋)一然 : 三國遺事
3. 鄭麟趾 : 高麗史
4. 春秋館 編 : 高麗史節要
5. 實錄廳 編 : 朝鮮王朝實錄 :
6. 承政院 編 : 承政院日記
7. 備邊司 編 : 備邊司謄錄
8. 撰者未詳 : 梵字攷
9. 朝鮮總督府 編(1911) : 朝鮮寺刹史料
10. 宋泰會(1917) : 朝鮮本末寺刹一覽誌
11. 李能和(1918) : 朝鮮佛教通史, 新文館.
12. 朝鮮總督府 編 : 官報
13. 安震湖(1935) : 朝鮮寺刹一覽, 卍商會
14. 權相老 編(1979) : 韓國寺刹全書, 東國大學校出版部
15. 國際佛教徒協議會編(1982) : 韓國의 名山大刹
16. 사찰문화연구원 편(1994) : 전통사찰총서(4) 서울의 전통사찰
17. 寺刹文化研究院 編(1997) : 奉恩寺 寺誌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terms.naver.com]
19. 其他 各種 文集 및 新聞 等

編者略歷

法雲 柳基松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卒(學訓團 1期)

建國大學校 大學院 農工學科卒(碩士)

農漁村振興公社 研究委員

現)全州柳氏 季允公派宗親會 理事

柳基昌

泰成高等學校卒

株)韓寶 電算室 室長

現)全州柳氏 季允公派宗親會 總務理事

禪宗首刹
奉恩寺古文獻集

發行日：2012. 7. 10.

編者：法雲 柳基松, 柳基昌

發行處：禪教兩宗首刹研究會

住所：京畿道 安養市 東安區 飛山1洞

三星來美安아파트 108-903

電話：031-395-3125

複寫：教大複寫

電話：02-584-6804

非賣品